

황 선 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국어 지식 영역에서
국어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

- 국어의 변화를 고려한 훈민정음 교수·학습 원리를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박 미 영

국어 지식 영역에서 국어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

- 국어의 변화를 고려한 훈민정음 교수·학습 원리를 중심으로 -

황 선 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박 미 영

인 준 서

박미영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지
식
영
역
에
서
국
어
사
교
육
의
내
용
과
방
법

박
미
영

논문 개요

현 7차 국어 교육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다. 우리가 언어 능력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의 사용에 따른 현실적인 언어란 결코 시간적으로 동질적이지 않으며, 현재 사용하는 언어도 과거에서부터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국어사 교육은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어과 교육 목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도 국어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어사 교육은 국어과에서 당연히 가르쳐야 하며, 그 위상도 지금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어사 교육은 국어과 교육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국어사 교육이 국어과 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관련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사를 국어과 교육에서 왜 가르쳐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어과 교육에서 국어사 교육이 가지는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어사 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 국어과 교육에서의 국어사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바람직한 국어사 교육의 방향을 부분적으로나마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어사 교육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하고 흥미 있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 학생

들이 국어의 역사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국어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주며, 우리의 현대 국어 생활과 결부시켜 학생들이 우리 국어의 역사를 친숙하게 느끼고, 국어사 지식이 우리들의 국어 생활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국어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국어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국어사 교육의 방법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우리 국어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고 국어 교육이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교육하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과 관련하여 우리 국어 교육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세워 줄 수 있는 ‘훈민정음’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동안의 ‘훈민정음’에 대한 교육이 ‘중세’라고 하는 어느 한 시대의 문자로써 현대 국어와 단절되고, ‘훈민정음’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영위하였던 문자 생활과도 단절된 모습의 교육 내용과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이론 중심의 수업 방식에 문제를 느끼고, 학습자 중심의 탐구 학습 방법을 지향하면서 훈민정음을 우리 조상들의 문자사의 흐름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국어사의 흐름 속에서, 합리적인 설명에 기초한 국어사 교육이 학생들의 국어 지식 교육이나 민족 문화의 이해에도 도움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말과 글에 대해 소중함과 이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태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목 차

논문 개요

1. 들어가기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 대상 및 방법	4
1.3. 선행 연구 검토	5
2. 국어사 교육의 목적	9
2.1.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	9
2.2. 국어사 교육의 의의	14
3. 국어사 교육의 문제점	16
3.1. 목표의 적절성	17
3.2. 교육 내용의 타당성	19
3.2.1. 국어사 교육의 내용 및 문제점	19
3.2.2. 고등 학교 교과서에 실린 국어사 관련 내용의 문제점	42
3.3.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	49
3.3.1. 교육 과정상의 국어 지식 교수·학습 방법	49
3.3.2. 교과서 분석	51

4. 국어사 교육 지향점	57
4.1. 목표 설정의 원리	57
4.2. 교육 내용 구성의 원리	60
4.2.1. 국어사 교육 내용 선정의 기준	61
4.2.2. 국어사 교육 내용 설정	71
4.3. 교수·학습 방법	83
4.3.1. 탐구 학습과 언어 지식	85
4.3.2. 탐구 학습의 개념	87
4.3.3. 탐구 학습의 필요성 및 효과	89
4.3.4. 탐구의 기본 구성 요소 및 과정	90
4.3.5. 탐구 학습의 기법	92
4.3.6. 교사의 태도	94
4.3.7. 탐구 학습의 문제점	95
5. 국어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고려한 훈민정음 교수·학습법 ...	97
5.1. 목표	97
5.2. 훈민정음 교육 내용	99
5.2.1. 훈민정음 창제 목적 및 동기	100
5.2.2. 훈민정음 창제 과정 - 최만리 외 집현전 학사들의 반대 장소 ..	104
5.2.3. 훈민정음의 창제자 - 훈민정음 친제론(親制論)	109
5.2.4.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113
5.2.5. 한글의 우수성	120

5.3. 교수·학습 방법	126
5.3.1. ‘훈민정음’ 교수·학습 방향	126
5.3.2. ‘세종 어제 훈민정음’ 교수·학습 지도안	129
6. 맺음말	140

참고 문헌

ABSTRACT

부 록

1. 들어가기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어 교육의 영역 중에서 국어 지식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국어사는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 문화와¹⁾ 관련된 중요한 교육 내용 중의 하나이다. 국어사는 우리말의 변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 국어 문화를 이루는 우리말의 역사이며, 그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도 깊이 관련된 내용이다.

국어 지식의²⁾ 교육은 실용성을 한 축으로 가짐과 동시에 다른 한 축에는

-
- 1)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명시된 국어 문화의 이해는 국어 교육의 목표가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에 있다는 국어 교육관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국어 교육의 목표는 국어 교육을 국어 사용 능력이라는 기능 교육의 틀 속에 제한하려는 기능적인 관점의 한계를 지양하고, 다양한 국어 교육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말 속에 녹아 있는 민족 문화의 이해를 위해서는 바로 우리말에 대한 언어학적 이해에 국어 교육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한편으로는 국어 지식에 관련된 언어학적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어사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말 변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 2)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영역명 ‘언어’를 ‘국어 지식’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언어라는 영역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일견 작은 변화처럼 보이나 그 배경에는 매우 중요한 인식이 담겨 있다. 모든 인류가 공통 특징으로 지니고 있는 언어라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대상으로부터 국어, 한국어, 우리말, 우리 민족의 말과 글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내용들이란, 오직 우리말 또는 국어라는 구체적 존재와 그 국어를 사용하는 우리 민족이 관계를 맺는 특수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이는 국어 교육이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교육하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과 관련된다. 국어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공간은 우리나라이며, 피교육자는 우리의 2세 국민이며, 대상 언어는 국어인 것이다. 이것은 국어 교육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며, 다른 과목들 가령 수학, 과학 등의 과목과는 상황이 다른 점이기도 하다. 원만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국어의 임무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라면 이러한 사람들은 국어 교육에서 비본질적인 요소로 처리되어 뒷전으로 밀리고 말 것이다.

문화의 전수라는 요소를 가진다. 국어 지식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화 요소란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알게 함으로써 국어 문화에 대한 통찰력과 국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언어 문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지적, 교양적 토대 아래에서 보다 더 풍부하고 고급스러운 모국어의 구사가능할 것이며 우리의 말과 글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한국인을 양성할 수 있다. 국어 교육의 주체는 한국인이며 그 언어는 한국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어 교육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특수성과 분리되어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문화 요소와 관련되는 국어 지식의 교육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문화적 유산으로서 국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로 우리말과 우리글의 역사에 대하여 알도록 하는 일이 된다. 다른 하나는 우리말과 글의 현재 모습을 성찰하고 문제점을 인식하며,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국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는 문화 유산으로서의 국어를 유지, 보존하고 발전시켜, 그것을 우리의 후손과 나아가서는 세계인에게까지도 전수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학생은 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이기도 하다는 사실과 이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다시 후손에게 전승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국어 지식 교육의 일부인 국어사 교육은 국어 문화의 발전과 그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국어과 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보거나 국어 지식 영역에서 추구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국어과 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대표적인 교육 내용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어사 교육은 국어과 교육에서 관심 밖에 밀

려나 있는 실정이다. 그간의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국어사 관련 내용이 국어과 교육 과정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교육 과정상의 편제에서 소홀히 취급되어 왔고, 현행 교육 과정에서 국어사 교육 내용은 양적으로는 부족하면서도 그 본질적 내용이 고등 학교 과정에 편중되어 있어서 교육 과정이 갖추어야 할 위계성에서³⁾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현재 국어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학습할 내용의 범위가 음운, 어휘, 문법 등 언어 단위의 변화와 관련된 것에만 국한되어 있어 학습 내용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교과서의 구성에서도 내용과 지도 시수와의 부적절한 관계성과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어사 교육의 목표를 국어과 교육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과의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라 하겠다. 아울러 국어사와 관련된 설명문을 제시하고 그 내용의 이해 여부에만 교수·학습이 집중되어 있어 지루하고 단조로운 수업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국어사 수업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저하시켜 국어사 교육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어사 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강화하고 올바른 국어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국어사 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목표에 맞는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3) 국어 지식 교육 과정에서의 위계화란 국어 지식의 학습 내용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배열하고 학습 내용도 항목별로 난이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조직하는 일을 말한다. 전자는 선정한 국어 지식을 어떻게 학년별로 설계할 것인가를 다루는 ‘학습내용 배열의 위계화’이며, 다른 하나는 선정한 국어 지식 내용을 어떻게 각각 내부적으로 난이도에 따라 조직하여 가르칠 것인가를 다루는 ‘학습내용 조직의 위계화’이다. 민현식 (2002:85)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국어과 교육에서의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하고, 국어사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 본 후에, 바람직한 국어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로 하겠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국어과 교육에서 국어과의 교육 목표에서나 국어 지식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어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본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고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국어과 교육 과정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교육의 내용을 목표와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바람직한 국어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써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국어사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밝힌 국어사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 목표와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의 차원에서 국어사 교육의 지향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국어

사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고등 학교 국어 (하) 교과서의 1단원 ‘국어가 걸어 온 길’로 범위를 한정하고, 이 가운데 소단원 ‘(2) 중세 국어’에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과 보충 학습에 제시된 예의 본문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훈민정음의 목표, 교육 내용 그리고 바람직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며 제언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구안한 교수·학습 방안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점과 학교급별 위계성을 갖춘 교수·학습 방안까지 제시하지 못한 점이 그것이다.

1.3. 선행 연구 검토

국어사 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어사 교육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논문이나 저술이며, 다른 하나는 국어사 교육 영역을 직접 다루었다기보다는 국어 지식과 연관하여 나타난 논문이나 저술 속에 간간히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다. 전자의 경우는 김영옥(1998)과 이도영(1999), 박형우(2004) 등이 대표적이고, 후자의 경우는 김수업(1989), 권재일(1995), 김광해(1997) 등이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룬 중세 국어 교수 방안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다.

전자의 경우에 김영옥(1998)은 국어사 내용 교육에 대한 저간의 반성을 통하여 국어사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였는데,⁴⁾ 그는 국어사 교

4) 김영옥(1998:3~12)은 국어 교육을 ‘전통적인 관점, 기능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 등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어사 교육을 논함에 있어서 ‘국어 능력의 향상’이라는 목표적인 측면과 ‘국어의 정체성 확보’라는 방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육에 대한 일반적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이어지는 교육의 형태는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과는 거리가 먼 학습이 되고 마는 실정이어서 결국 국어사 교육의 부정론까지 이르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영옥의 이러한 견해는 현행 국어사 교육에 대한 자각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어사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도영(1999)은 국어사 교육이 그 교육적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어과 교육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어사 교육이 국어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각 국어 교육 과정기별로 국어사 교육 내용의 본격적인 검토와 앞으로의 내용,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였다.

박형우(2004)는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중·고등 학교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통해서 국어사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형우는 국어 교육에서 교수·학습될 수 있는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⁵⁾ 이것을 보다 세분화하고 위계적으로 배열하여 국어 교육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국어사 교육의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국어사 교육 내용과 그 세분화 및 위계적 구성 방안을 잠정적으로 일반 단계와 심화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후자의 경우에 김수업(1989)은 국어 지식에 관한 입장을 “국어 교육에서 국어를 알게 하는 교육은 하지 않고 시종 언어의 사용 기능 신장이라는 것에만 매달려 허송세월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국어 지식에서

5) “1. 국어의 계통과 형성 과정 2. 국어의 변천 과정 3. 우리 민족의 문자 사용 역사” 박형우 (2004:157)

다루어야 할 내용을 이어서 제시하고 있다.⁶⁾ 이중에 우리 문자의 형성 과정을 살펴면서 나타난 차자 표기에 대한 내용의 언급은 한글이 이루어지기 전의 우리말 사용에 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서 그 가치를 가진다 하겠다.

권재일(1995)은 국어 지식 교육의 독자적 교수·학습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국어사 및 국어학사에 관련된 이해가 언어사용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종의 한글 창제, 그리고 한글의 과학성과 그 문화적 가치 등을 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 및 우리말의 문화적 가치를 언급한 것으로서 기존의 언어 사용 능력 신장 위주의 국어 교육에 있어, 국어사 교육에 대한 가치를 문화적인 측면에 두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성영(1995)은 국어과 교육에서 그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는 언어 지식 영역이 국어과 교육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반적인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어 지식 영역이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방법의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그는 언어 지식 영역 지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독자론, 통합론, 상호 보완론을 소개한 후 언어 지식 영역을 언어 사용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 예컨대 언어의 본질, 언어와 인간의 관계, 여러 가지 국어의 특질, 국어의 역사, 훈민정음 및 한글의 우수성, 국어에 대한 태도, 언어학적 개념과 지식 등을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언어 지식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 국어가 지니

6) “첫째, 우리말의 역사를 궁구함에 있어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둘째, 우리말의 형성 과정과 변화의 개략을 안다. 셋째, 우리 문자의 형성 과정을 차자 표기에서부터 한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안다.”

는 문화적 가치의 측면 곧 언어의 본질 및 인간과의 관계, 국어의 특질, 국어의 옛 모습 그리고 세계의 언어와 한글의 우수성 등과 관련되는 것들이 그 문화적인 가치로 볼 때 국어과에서 혹은 언어 지식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언어 지식 영역 지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최영환(1995)은 국어 지식 영역의 지도 내용은 크게 언어 구조에 대한 지식과 언어의 본질 및 사용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배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영환은 국어 사용 능력 신장에 맞추어 국어 지식 영역의 지도 내용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한 언급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김광해(1997)는 제7차 교육 과정을 염두에 두고 교재를 편성하여, 학령전, 초등 국어, 중등 국어, 고등 문법으로 대별하여 국어 지식의 내용을 설정하였다.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한 내용은 말 그대로 국어사의 개략적인 모습만을 살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보다 교육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고등문법에 대한 학습 내용 설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높은 단계의 고등 문법의 내용에서도 국어사 관련 내용에 대한 더 이상의 확장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체계는 종래의 국어학적 전문 지식 전달에 대한 비판의 부담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⁷⁾

이상에서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사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선행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김영옥(1998)과 이도영(1999)에 의해 국어사 교육에 대한 개론적인 연구가 있었을 뿐이다.

7) 강명희 (2001:7)

둘째, 국어사 교육에 대한 사적 전개 양상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 국어사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국어 지식 속에 차지한 국어사 교육 내용은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고 학자마다 비중을 달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를 거의 취급하지 않은 의견도 있다.

2. 국어사 교육의 목적

국어 교육에서 국어 지식 영역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일반적 언어 이론과 그 이론을 통한 국어의 본질과 구조를 다루는 분야와 국어의 계통, 국어의 변천사(음운 변화, 문법 변화, 의미 변화)를 다루는 국어의 변천사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국어 지식 또는 학교 문법의 영역에서 많은 교육적 논의가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간단히 언급되고 지나가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김영옥(1998)에서는 전통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 그리고 문화적 관점으로 국어 지식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도영(1999)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뿐만 아니라 국어 지식 영역이 추구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국어사는 국어과 교육

에서 다루어야 할 대표적인 교육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권재일(1995)에서는 국어과 교육에서의 교육 내용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곧 ‘만일 국어사와 관련된 내용이 학습자의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국어과 교육에서 소홀히 한다면 우리 민족의 형성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이 내용은 어느 교과와 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교과에서도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등의 국어과 교육의 목표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며 국어 사용 능력의⁸⁾ 신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 국어과 교육에서는 그 어떤 내용도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어 교육의 목표가 국어 능력의 향상에 있다는 것에 반대할 국어 교육학자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어 능력이⁹⁾ 도대체 무엇이며 이것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나에 있다. 언어 활동 영역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국어 교육의 영역도 이에 따라 구분하고 이러한 네 가지 기능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어 교육의 본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좀더 세밀하게 그 내용을 따져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언어 활동 영역이 곧 국어 교육의 영역이라는 명제는 참이 아니다. 우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란 비단 국어 교육 장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8)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 활동을 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고등 수준의 인간 능력이다. 이 능력은 말하는 이나 글쓴이가 되어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국어 표현력과 듣는 이나 읽는 이가 되어 다른 사람이 산출한 언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국어 이해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능력은 언어 사용자가 언어를 사고로, 사고를 언어로 변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실제적인 언어 사용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언어 수행의 기저가 되는 본능적이고 암묵적인 언어에 대한 지식을 뜻하는 언어 능력과 구분된다.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 (II) (1999:150)

9) ‘국어 사용 능력’이라는 것도 ‘국어 능력’이란 무엇인가에 기초하고 있다. 사용 능력의 신장이라는 것은 수단적인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 화자(話者)들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국어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은 ‘국어학’에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처방이나 노력은 국어 교육학자의 몫이다. 김영옥 (1998:94)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과학 시간에 과학 교육을 위해서는 과학적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설명의 과정에서 이러한 언어 활동이 존재한다.

현대 교육의 체제가 분업 체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교과와 그 내용 면에서 구별될 수 있는 국어 교육의 정체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언어 활동 영역에 따른 국어 교육의 영역 설정이 국어 교육의 정체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체성이란 전문성 또는 독자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을 논함에 있어서도 ‘국어 능력의 향상’이라는 목표적인 측면과 국어의 정체성 확보라는 내용과 방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¹⁰⁾ 만일, 국어사 교육이 국어 교육의 일반 목표에도 부합하고 국어 교육의 전문성이나 독자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이것을 국어 교육 속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국어 교육의 목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국어 교육의 목표가 국어에 대한 사용 능력의 향상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있다면 국어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언어의 역사적인 흔적이란 문학 작품 속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우리의 생활 국어 속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이요, 국어사에 대한 간단한 지식만으로 우리는 현대 국어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옛말 속에서 우리는 조상들의 슬기나 숨결을 느낄 수 있기 때문

10) 국어 교육의 정체성에 걸맞은 국어 교육의 내용이란 어떤 것을 가리킬까? 이것은 바로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요, 국어에 대한 이해(국어지식)다. …… 국어 지식이 국어에 관해서 얻어진 업적들의 종합이라면, 국어사 지식도 국어 지식 속에 포함된다. 국어 지식 분야는 학생들의 인지 발달 과정이나 사회화의 정도에 따른 교육 과정의 체계화가 가능하다. …… 초보 단계에서는 맞춤법, 언어예절 등, 규범적인 어법 중심으로 교육할 것이고 학생들의 탐구 능력 향상에 따라 국어의 말소리 규칙이나 고급 어휘 교육, 이것을 이용한 문자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등을 베풀 수 있으며,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논리적인 사고의 필요에 따라 언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나 언어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다. 김영옥 (1998:102)

이다. 현대 국어라는 것도 결국은 역사적 현재인 것이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언어는 단순히 그러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래서 한 국가나 민족은 이러한 공통된 언어 구조에 이끌려 공통된 정신과 생각을 가지게 되어, 공통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언어는 이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민족 그리고 그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우리말은 한국 사람다운 정신을 기르면서 우리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실을 맡아 내려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말을 통하여 우리 문화를 형성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지탱해 왔다. 그러한 원동력이 된 국어 그 자체를 지식 체계로서 이해하고 또한 국어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발전시켜 민족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언어 사용 능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학교 교육에서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는 국사에 대한 지식이 삶을 살아가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학교 교육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 사회나 자연 현상을 교육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소중하게 쓰고 있는 우리말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은 당연하면서 필요한 것이다. 국어 지식의 지도 내용을 주로 국어 사용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한다 하더라도, 언어 지식 지도의 독자성은 확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어의 말소리는 음소와 운소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불필요하다 하더라도 국어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필요한 사실이다. 또 한 예로, 국어학사적인 이해가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그리고 한글의

과학성과 그 문화적 가치, 주시경 선생의 본받을 만한 국어에 대한 태도 등을 국어과 교육에서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비록 국어 사용 능력의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국어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여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내용이 되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언어 지식에 대한 지도는 독자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어 지식의 지도가 독자성을 가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도 내용을 국어학적 관점에서 찾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어학적 관점에서 찾아 제시하는 지도 내용은 언어 사용 능력의 향상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상당 부분은 언어 사용 능력의 향상과 관련을 맺는다. 또한 그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 결과 당연히 언어 지식에 대한 교수 방법은 언어 사용 기능의 지도와 통합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또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이도영(1996:57~62)에서도 국어 교육에서의 ‘국어 문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화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 내용에서 “언어의 문화적 성격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또한 언어의 문화적 성격을 고려하면, ‘국어 음성(음성언어)과 한글(문자언어)의 역사성, 역동성, 지속성,

11) 국어 사용 기능의 신장 정도만을 목표로 하는 국어 교육은 포괄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한 국어 교육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국어 지식 교육을 철저히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는 언어 영역의 지도가 언어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은 준다라든가, 언어 영역의 지도를 특히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의 기초적이고 도구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들 수 있는데, 이는 국어 지식 영역 전체로 볼 때에는 한 부분만을 차지하는 것이다. 국어 지식의 교육을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을 위한 보조 수단 정도로만 바라보는 정도의 시야에는 국어 지식 고유의 가치 있는 내용들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다.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를 모색할 때 기능 신장이라는 제한된 목표를 세워 놓고 그것만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식으로 제한하는 시각을 불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광해(1997:18~20)

다양성에 대한 이해'로 그 세부 내용의 예를 들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국어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국어 문화'의 관점에서 보아도 '국어사'는 국어 교과가 수용해야 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된다. 타교과에서 국어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없으며, 국어 문화의 측면에서도 그 언어 자체의 변화와 발전 양상은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국어 교육 측면에서도 국어사 관련 내용은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2. 국어사 교육의 의의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국어사 학습의 의의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국어사에 대한 학습은 우리 민족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국어의 변천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 우리 민족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국어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루는 한 부분이다. 국어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언어 산물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국어의 옛 모습을 추적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국어 의식을 오늘의 학습 경험에 살리는 것이다.

둘째, 국어사에 대한 학습은 실증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국어사와 관련된 내적·외적 증거들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그 변화 단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어사적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종합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겪음으로써 학습자가 탐구 능력과 국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다. 즉 국어사에 대한 학습의 실증적 효과는 첫째로 옛말과 현대말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변천 발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 둘째로 시대와 관련하여 그 당시 사용자들의 국어에 대한 의식을 엿볼 수 있으며, 현대 국어의 모습을 반성하고 이를 올바르게 보전할 수 있는 국어 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국어로 쓰인 문학 작품들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어사 교육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우리글의 구조에 대한 것으로서 과학적 탐구 대상이 되므로 학습자의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둘째, 국어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통하여 우리 선인들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국어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우리 민족 역사의 한 부류를 이룬다. 역사를 학습하는 목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국어 문화의 계승과 창조, 발전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를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국어사 교육을¹²⁾ 통하여 고전 작품은 물론 현대의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배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국어사 교육을 통하여 우리말과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글을 포함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일곱째, 국어사 교육을 통하여 오늘날의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12) “국어사가 민족 언어의 역사라면 ‘국어사 교육’은 그것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 활동과 교육 내용을 말한다.” 김영옥 (1999:85)

할 수 있는 국어 사용 기능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곧 국어사 교육이 국어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국어 능력 신장의 세 가지 측면, 즉 국어 사용 능력, 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 국어에 대한 태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어사 교육의 의의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국어사 교육의 목표를 국어과 교육과정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국어사 교육의 문제점

3.1. 목표의 적절성

앞서 간략하게 현행 국어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자리에서 국어사 교육 목표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올바른 국어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국어사 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국어사 교육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 과정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된다. 제7차 교육 과정 국어 교육의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¹³⁾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13)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형성을 국어과 교육의 최상위 목표로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국어 지식 역시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위의 내용은 결국 국어 능력의 향상과 국어 문화의 이해, 그리고 국어에 대한 태도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어 사용 능력’이란, 단순히 국어의 규범적 어법(국어 문법)을 통한 규칙성을 학습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만은 아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태도의 기본이 되겠지만 이는 국어 사용 능력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어 사용 능력을 바로 우리말의 효용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능력이라고 본다면 언어 생활에서의 규범적인 어법(문법) 이외에, 우리말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말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바로 국어사 교육 내용과 연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어 사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국어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명시된 국어 문화의 이해는 국어교육의 목표가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에 있다는 국어 교육관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국어 교육의 목표는 국어 사용 능력이라는 기능 교육의 틀 속에 제한하려는 기능적인 관점의 한계를 지양하

고 다양한 국어 교육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말 속에 녹아 있는 민족 문화의 이해를 위해서는 바로 우리말에 대한 언어학적 이해에 국어 교육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한편으로는 국어 지식에 관련된 언어학적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어사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말 변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 국어 문화의 이해를 위해서도 국어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또한 국어사 교육 내용은 국어에 대한 태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을 탈피하여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학생들이 비록 우리말의 규범에 대해서 제대로 익혔다고 할지라도 우리말의 아름다움, 재미, 편리함 등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말을 생활 속에서 스스로 갈고 닦는 노력을 하기는 어렵다. 국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우리말을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말의 합리적 이해를 통해서 학생들은 우리말이 우리 민족에게 가장 쉽고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합리적인 설명에 기초한 국어사 교육은 학습자들의 국어 지식 교육이나 민족 문화의 이해에도 도움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국어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어과 교육 내용 속에 국어사 관련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올바른 국어사 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행 국어과 교육 과정 속에서 국어사 교육의 목표가 국어과 교육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분명하게 설정되

지 못함으로써 학습 내용과 괴리를 보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국어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어사 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일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국어사 교육의 목표는 4장에서 설정, 제시하도록 하겠다.

3.2. 교육 내용의 타당성

국어과 교육에서 국어사 교육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언급되었는데, 하나는 국어과 교육 과정에 나타난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편찬한 교과서의 내용이다. 이들은 각기 이론과 실천의 면을 지닌 것으로, 국어과 교육 과정 속에 제시된 이론적 내용들이 교과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교육 영역의 내용은 국어사 교육 영역의 범주와 교육 목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어사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국어사 교육 영역 내용 체계 설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교육 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교육 내용을 분석해 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

3.2.1. 국어사 교육의 내용 및 문제점

제7차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제6차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국어과 교과서의 국어사 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2.1.1. 제6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사 교육 내용 및 문제점

제6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사 교육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언어의 본질>

(1) 옛말과 현재의 말을 비교하여 보고, 언어가 변화함을 안다. (3학년)

고등 학교 국어

<국어의 이해와 사용의 실제>

(9) 국어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알고, 국어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고등 학교 문법

- 민족어로서의 국어의 성격에 대하여 이해한다.
- 현대 국어와 그 이전 국어의 차이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이해한다.
- 국어의 순화·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국어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초등 학교에는 하나도 없으며, 중학교에 하나, 고등 학교에 하나, 고등 학교 문법에 세 개가 전부이다. 이중, 중학교에 나와 있는 ‘옛말과 현재의 말을 비교하여 보고, 언어가 변화함을 안다.’는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얘기하면 국어사 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¹⁴⁾ 이렇게 놓고 볼 때, 국어사 교육은 고등 학교에서만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1학년 <언어의 본질> (1)항에서는 언어의 특징이 나타나 있고, 2학년 <언어의 본질> (1)항에서는 언어의 규칙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국어 사용에 있어 정확한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3학년의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옛 문헌(훈민정음해례나 용비어천가 등)의 일부 구절이나 어휘를 이용하여 언어가 변화함을 이해시키는 수준으로, 국어의 변천사 전반을 논하였다기보다는 언어의 변화에 대한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고은 (2004:17)

고등 학교 국어에 언급된 교육 내용도 제6차 고등 학교 국어 교육 과정 해설서에¹⁵⁾ 따르면, 국어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 알게 함으로써, 국어의 발전 방향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그것에 부응하는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 주기 위한 항목이다. 이는 국어의 역사에 관한 지식을 국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 활용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어 본격적인 국어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고등 학교 문법에 제시된 교육 내용 중, ‘민족어로서의 국어의 성격에 대하여 이해한다.’는 우리 민족의 생활, 문화, 정서, 역사 등과 국어와의 상관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국어사적 지식이 바탕을 이룬다는 점에서 국어사 교육을 위한 기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국어의 순화·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는 국어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의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국어의 발전적인 미래의 모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국어사 지식의 적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국어사 교육을 꾀하고 있는 것은 ‘현대 국어와 그 이전 국어의 차이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이해한다.’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⁶⁾

1) 문자 및 표기

- 한글 창제의 원리, 한글의 과학성과 창의성
- 창제 당시의 문자, 표기상의 차이점 (ㄱ, ㄴ, ㄷ, ㅁ, ㅂ, ㅅ, ㅇ, ㅈ, ㅊ 등과 그 용례)
- 사라진 문자 (△, ○, □, ·, ▽ 등과 그 용례)

2) 음운

- 어두 자음군의 존재
- 음절 말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수

15) 교육부 (1995:110)

16) 교육부 (1995:289~291)

- 모음 조화 현상이 현대어보다 규칙적이었던 점
 - 단모음의 체계 및 변화
 - ㄷ, ㅌ, ㄴ의 음가
 - 성조의 존재와 그 실현
- 3) 형태
- 특이한 교체를 보이는 명사 어간 (시내ㅎ, 길ㅎ, 내ㅎ, ……., 나모, 구무, 녀느, 불무)
- 4) 조어법
- 동사 어간의 합성이 생산적이었던 점 (빌떡-, 죽살-, 것곶-, 듣보-)
 - 명사가 형태의 첨가를 거치지 않고 동사 어간으로 파생(빅 [腹] -빅다, 곶 [劃] -곶다)
 - 동사 어간이 형태의 첨가를 거치지 않고 부사로 파생 (일 [早], 바르 [直], 그르 [誤], 부르 [飽], 곧 [如])
- 5) 어휘
- 한자어의 대량 침투에 의한 고유어의 퇴조
 - 소멸된 어휘
 - 의미가 변화한 어휘
- 6) 통사
- 조사 (주격 조사 ‘-가’의 부재, 관형격의 ‘-의/-의/-ㅅ’의 교체, 모음 조화에 따른 다양한 이형태들의 존재. ‘은/는/은/는’, ‘을/를/을/를’, ‘의/의’, 호격 조사 ‘-아, -하’의 구분)
 - 어미 (현대 국어에서 볼 수 없는 선어말 어미들의 존재, 의도를 나타낸다고 하는 ‘-오/우-’, 대우법의 ‘-습-’, ‘-이-’, 감탄법의 ‘-과-’, 선어말 어미의 통합 순서의 상이함, ‘흐습더시니’, ‘흐스북시니이다’)
 - 객체 대우법의 발달
 - 시간 표현의 선어말 어미 (현재: -느-, 과거: -거-, -아/어-, -더-, -니-, 미래: -리-)
 -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서 구별하여 사용되었던 ‘-가/-고’
 - 문장의 길이 (단문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복잡한 문장이라는 특징)

위의 교육 내용들은 국어의 변화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추출한 내용이긴

하지만, 주로 중세 국어 중심으로 내용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어사 연구가 미진한 탓도 없지 않지만, 국어의 변화와 관련된 전체상을 그릴 수 없다는 점에서 온전한 국어사 교육이라고 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제6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들은 그 수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특정 시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나마 선택 과목인 고등 학교 문법 시간에 교육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 정규 수업 시간에는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을 거의 배우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고등 학교에 와서 문법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국어사 교육을 전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어사 교육은 국어과 교육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셈이다.

3.2.1.2. 제6차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교육 내용 및 문제점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본격적인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은 없지만,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언어 자료에는 국어사 관련 자료가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것으로 민요와 전래 동요, 시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자료들은 모두 현대어로 평이하게 옮겨 적은 것이어서 국어사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다 하겠다. 특이할 만한 것은 6학년 2학기 ‘듣기·말하기·쓰기’ 교과서에 ‘바가지, 설렁탕, 돌팔이’에 대한 어원 설명이 나온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어원에 대한 교육은 우리의 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어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사 교육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는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가치 있는 국어사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

겠다. 다만, 그 양이 너무 작고 계획적이거나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국어사 교육으로는 볼 수 없다.

교육 과정상으로는 본격적인 국어사 교육을 고등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교과서를 보면 중학교에서부터 국어사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옛말과 현재의 말을 비교해 보고, 언어의 역사성을 아는 것 정도로 국어사 교육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과서에서는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글은 없고, 국어의 역사와 관련된 것만 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학년 1학기 14. 국어 이야기

(1) 국어의 역사 (이기문)

교과서에 실린 단원의 길잡이에 ‘국어의 역사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은 우리말이 걸어온 길을 이해하고, 현재의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어, 국어사 교육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즉, 국어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 자체와 국어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국어사 교육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과서에서는 국어의 역사를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로 나누고, 각 시대가 성립한 배경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어학자의 국어사 연구 방법
- 국어의 계통
- 고대 삼국의 언어
- 국어의 통일
- 중세 국어의 성립

- 중세 국어의 특징
- 근대 국어의 특징

정리하면 중학교에서는 국어의 역사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어 역사의 각 시기별로 간략하게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단원의 길잡이에서 언급한 또 다른 목표인 ‘현재의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 내용이 없다는 점과¹⁷⁾ 국어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만한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와 우리말의 문자 체계 형성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고등 학교에서의 국어사 교육은 국어 과목과 문법 과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고등 학교 국어 과목에 나와 있는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 학교에서도 국어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원은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¹⁸⁾

국어 (하)

5. 국어의 변화

- (1) 우리말의 역사 (2) 우리말의 옛 모습

단원의 길잡이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파악한다.

-
- 17) 학습 활동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에서 옛말의 흔적이 남아 있는 말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언어와 문자의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활동 등이 있지만, 국어사 지식을 현재의 바른 국어 사용에 적용시키는 활동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
- 18) 차이점이 있다면, 중학교에서는 ‘14. 국어 이야기’라는 대단원 아래 ‘(1) 국어의 역사’라는 소단원을 두고 있으며, 고등 학교에서는 ‘국어의 변화’라는 대단원 아래 ‘(1) 우리말의 역사’와 ‘(2) 우리말의 옛 모습’이라는 소단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학교는 소단원 하나가, 고등 학교에서는 대단원 하나가 국어사 교육을 위해 할애되고 있다.

2. 옛 표기법에 따라 쓰인 옛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3. 한글의 창제 정신과 한글의 우수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4. 인과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한다.
5. 인과의 방법으로 글의 세부 내용을 전개할 수 있다.

이 중, 4와 5는 우리말의 역사에 대한 학습과 듣기·말하기와 쓰기의 인과 분석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을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단원의 길잡이에 나와 있는 진술에 따라 국어사 교육의 관점에서 목표를 재진술하면, ‘우리말의 역사를 살핌으로써 오늘날 우리말이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 정도가 된다. 중학교의 국어사 교육 목표와 다른 점은 ‘한글의 창제 정신과 한글이 우수성에 대한 이해, 국어사 지식을 바탕으로 옛 글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 오늘날 우리말 사용의 문제점을 우리말의 역사를 살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어사 교육의 목표에 대한 인식과 지평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어사 교육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목표 아래, 고등 학교 국어에서는 학습할 원리와 읽기 제재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학습할 원리>

1. 우리말의 역사
 - (1) 국어의 변화
 - (2) 변화의 범위와 시대 구분
2. 한글의 우수성
 - (1) 한글의 독창성
 - (2) 한글의 과학성
3. 우리말의 옛 모습
 - (1) 옛말의 기록

<읽기 제재의 내용>

- (1) 우리말의 역사
 1. 국어의 변화
 2. 국어사의 시대 구분
 3. 음운의 변화
 4. 어휘의 변화
 5. 문법의 변화
- (2) 우리말의 옛 모습
 1. 세종 어제 훈민정음 (世宗御製訓民正音)

(2) 한글의 변화

2. 소학 언해 (小學諺解)

3. 순신역전 (舜臣力戰)

4. 노걸대 언해 (老乞大諺解)에서

학습할 원리 ‘1. 우리말의 역사’는 읽기 제재 ‘(1) 우리말의 역사’와, 학습할 원리 ‘2. 한글의 우수성’은 읽기 제재 ‘(2) 우리말의 옛 모습’ 중 ‘1. 세종 어제 훈민정음 (世宗御製訓民正音)’과, 학습할 원리 ‘3. 우리말의 옛 모습’은 읽기 제재 ‘(2) 우리말의 옛 모습’ 전체와 연결되고 있다. 대체로 단원의 길잡이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원리, 읽기 제재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학습에서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특별한 제재 없이 ‘세종 어제 훈민정음’만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며, 우리말의 역사를 살핌으로써 오늘날 우리말이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 하겠다.

정리하면, 고등 학교에서는 국어사 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지만, 목표에 맞는 내용 선정과 조직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겠다. 또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문자 체계 형성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고등 학교 문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고등 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중·고등 학교와는 달리 학습 목표나 단원의 길잡이 등이 없이 학습 내용만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다. 학습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I. 옛 말의 문법

1. 문자와 말소리

(1) 문자

II. 우리말의 변천

1. 국어의 형성과 역사

2. 음운의 변천

- (2) 표기법
- (3) 음운
- 2. 단어
 - (1) 단어의 갈래
 - (2) 체언과 조사
 - (3) 용언
 - (4) 단어의 형성
- 3. 문장
 - (1) 문장의 짜임새
 - (2) 문법 기능
- 4. 이야기
 - (1) 자음의 변천
 - (2) 모음의 변천
 - (3) 소리의 높이와 길이의 변천
- 3. 어휘의 변천
 - (1) 고유어의 변천
 - (2) 외래어의 유입
- 4. 문법의 변천
 - (1) 문법 현상의 바뀜
 - (2) 문법 현상의 없어짐
 - (3) 문법 현상이 생겨남
- 5. 의미의 변천
 - (1) 의미의 확대
 - (2) 의미의 축소
 - (3) 의미의 이동

이와 같이 학습 내용은 풍부하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습 목표, 학습 안내 등이 없이 학습 내용만 부록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국어사 교육을 문법 교육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여김으로써 문법 교육의 가치를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로 인해 국어사 교육이 전체 국어과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위상이 점점 미미해져 국어사 교육을 더욱 등한시킬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초·중·고에서 배운 국어사 교육을 정리·심화·발전시켜 국어사 교육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할 문법 교육에서 이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문법 교육 과정과도 어긋난다는 점이다.¹⁹⁾

결국 문법 교육에서는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배제시키고 국어사와 관련된 지식만 아무런 교육적 조치 없이 제공함으로써 국어사 교육의 가

19) 문법 교육 과정에 국어사 교육 내용이 문법 교육의 한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국어사 관련 단원을 따로 설정해야 옳다. 이도영 (1999:317)

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고 말았다.

그러면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3.2.1.3.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사 교육 관련 내용 및 문제점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 학교

- 문화유산인 우리말과 우리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닌다. (4학년)

중학교

<국어 지식>

- (2) 언어의 역사성을 안다.²⁰⁾ (8학년)

고등 학교 국어

-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
-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고등 학교 국어 생활

- 국어와 한국 문화 현상의 관계를 안다.
- 한국 문학과 국어 발전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한다.
- 선인들의 언어관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재발견한다.

20) 교육부 (1997:80~81)

- 전통적 수사, 완곡 어법과 직설 어법 등 선인들의 발상 및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재발견한다.
- 우리 고유의 삶의 방식이 반영된 관용어, 전통적 말놀이, 금기어, 수수께끼, 고유 지명 등에 담겨진 국어 문화를 발견하고 이를 국어 생활에 발전적으로 적용한다.
- 국어의 우수성을 알고 그 발전 방향을 탐색한다.
- 생활 속에서 국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한다.
- 한국어의 세계화에 관심을 가진다.

고등 학교 문법

- 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
- 한글의 가치를 이해한다.
- 국어를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전체적으로 보면, 6차에 비해 교육 내용 수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택 과목의 하나인 ‘국어 생활’의 교육 내용을 제외하면 6차와 거의 동일하다 하겠다. 초등 학교의 경우, ‘문화유산인 우리말과 우리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닌다.’를 국어사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다소 무리일 수 있으나, 우리말과 우리글이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알려면 국어의 역사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어사 교육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학습이라는 점에서 6차와 동일하나, 6차의 ‘옛말과 현재의 말을 비교하여 보고’라는 전제가 빠져 있어, 국어사 교육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용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¹⁾

고등 학교의 경우, 6차에서는 국어의 역사에 관한 지식을 국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 활용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지만 7차에서는 ‘국어의

21) 다만 그 세부 내용에서 옛말과 현재의 말을 비교하여 조사하고 찾는다면, 방언에서 옛말 찾기와 같은 항목이 취급되어 있다.

개략적인 역사'를 아는 것과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따로 제시함으로써 국어사 교육의 내용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고등 학교 문법의 경우, '한글의 가치를 이해한다.'라는 내용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6차에 비해 국어사 교육의 내용이 미미하나마 풍부해졌다고 볼 수 있다.

7차가 6차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것은 '국어 생활'이라는 선택 과목 속에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도 이전의 국어사 교육에서 다루던 것과 사뭇 다르다. 그 전에는 언어학적 단위, 즉 음운, 형태, 어휘, 통사 중심의 국어학적 지식이 대부분이었지만, 7차의 국어 생활에서는 '한국 문학과 국어 발전과의 관계, 선인들의 발상 및 표현 방식, 우리 고유의 삶의 방식이 반영된 관용어, 전통적 말놀이, 금기어, 수수께끼, 고유 지명' 등을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어사 교육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이러한 지식을 우리의 국어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6차와 마찬가지로 이들 내용들이 학생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아니라, 특정 과목을 선택해야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²²⁾

22) '국어 생활'은 국민 공통 기본 국어 교과와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 사용의 실천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과목으로서 국어 실천에 대한 성숙한 국민적 소양을 더욱 세련화하여 다지고 익히는 과목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국어의 사용 원리나 지식을 실제의 국어 사용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신장시켜 국어를 원만하고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장차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국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식, 기능, 태도 면에서 능동적인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설정된 '국어 생활'은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차에 비해 그리 발전한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어 생활'에 나타난 국어사 관련 내용에 대한 학습은 기존의 '국어학적 지식'의 전달에서 벗어나 국어 생활에 적용하고자 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바람직한 국어사 교육의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학습 기회가 주어진 점에서는 다행이나, 선택 과목으로 설정되어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7차 교육 과정의 '국어 생활'이라는 과목 속에 포함된 국어사 교육 내용을 선택이 아닌 필수 국어 학습 내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되었다. 유고은 (2004:19~20)

정리하면,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들은 6차에 비해 그 수가 많아졌지만,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배워야 할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다만, ‘국어 생활’이라는 선택 과목 속에 국어사 교육 내용을 새롭게 제시한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보면,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사 관련 내용을 고등 학교에 국한해서만 제시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국어사 교육은 고등 학교 선택 과목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후에는 국어사 관련 지식이 초등 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배우고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점이 깔려 있는 듯하다. 이는 기존의 국어사 교육이 국어사와 관련된 국어학의 연구 성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국어사 지식이 국어 사용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 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한 공통 교육 기간 동안에도 국어사 지식 중 국어과 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가치 있는 내용은 교육 과정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²³⁾

23) 국어의 변천은 국어의 가치와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지식 자체가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이 범주의 학습 내용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 곧 학습 단계의 저학년부터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알맞은 수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한 국어사의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기까지의 역사, 한글 제자의 원리, 한글의 우수성, 우리말과 글의 수난사, 통일 후의 우리말과 글의 변모 등 다양한 학습 내용이 필요하다. 민현식(2002)은 국어 지식의 학년별 위계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언어와 문화성’, ‘언어와 사고성’ 등과 같은 언어 특성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어 초등 저학년에 아예 도입되지 않았지만 높이를 낮추면 얼마든지 초등 저학년에 도입하여 가르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글의 우수성’이 초등 교육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한글의 우수성은 국민 누구나 알아야 할 상식이라는 점에서 초등 학습에도 도입되어야 하며, 고교를 졸업하여도 한글 제자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이처럼 일찍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언어와 문화 학습을 3학년년부터 도입하는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2.1.4. 제7차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교육 내용 및 문제점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수록된 국어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이것이 전체 국어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²⁴⁾

먼저 제7차 국어과 교과서의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학년 2학기 국어

3-(1) 훈민정음 완성되다.

8학년 1학기 생활국어

3. 국어의 언어적 특성

8학년 2학기 생활 국어

2. 국어의 낱말 형성법과 관용어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어사와 관련된 교육 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국어

8-국-(2) 언어의 역사성을 안다.

즉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의 전체 내용 중에서 국어사와 관련된 내용은 한 가지이며, 8학년(중학교 2학년)에 있다. ‘언어의 역사성’ 자체도 사실은 범언어적인 특징으로 ‘언어학’에서 다루는 언어의 특징 중 일부에 속

24) 이 외에도 고등 학교에서 일반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국어 생활’의 경우에도 국어사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2종 도서로 분류되어 다양한 출판사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수록한 책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하여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그에 대한 논의는 제외한다.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통시적 관점을 갖는 국어사와 이러한 언어의 역사성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러한 교육 과정의 내용을 수용한 단원은 중학교 2학년 1학기의 ‘생활 국어’에 있다. ‘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의 소단원 ‘(1) 국어의 언어적 특징’에서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몇몇 고어(古語)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말의 사멸과 변형에 대해 살펴보면서 ‘언어의 역사성’이란 개념을 파악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중학교 교과서에는 교육 과정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국어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우선 1학년 1학기 국어 ‘6. 언어의 세계’의 소단원 ‘(2) 문자의 역사’와 보충·심화의 ‘한글 자모자의 이름과 순서’가 있다. 1학년 2학기 국어 ‘3. 판단하며 읽기’의 소단원 ‘(1) 훈민정음 완성되다’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문이 나오고,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과 그 글에 대한 반박의 글이 실려 있다.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자료 글이 따로 실려 있다. 훈민정음의 창제 의의와 최만리의 반대 상소 등을 다룸으로써 지금까지 교과서에 실린 훈민정음에 관련된 내용이 자의적인 해석에 그치고 한문으로 된 내용과 함께 암기하는 형식으로만 이루어져 오던 교육 방식이 학습자들에게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논의들, 창제 과정에서 빚어진 일 등을 교과서의 내용으로 추가 편성하였다. 즉 훈민정음의 원문만을 실어 놓고 이를 해석하게 하는 식의 지적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훈민정음의 가치와 그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훈민정음의 진정한 창제 의의를 학습하게 하고 나아가 그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한글의 정통성 및 그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생활 국어 2단원 끝에 있는 ‘쉽터’에 ‘오솔길 산책’이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솔길’의 어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3학년 1학기의 국어 ‘2. 중심 내용 파악하기’의 소단원 ‘(1) 표준어와 방언’ 또한 국어사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고등 학교의 경우에도 중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 과정에 제시된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은 10학년(고등 학교 1학년)에 하나뿐이다.

고등 학교 국어

10-국-(2)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과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 고등 학교 국어 하권의 ‘1. 국어가 걸어온 길’이다.

국어 (하)

1. 국어가 걸어온 길

(1) 고대 국어

(2) 중세 국어

25) 제7차 교육 과정의 교과서에서는 ‘국어 생활’에서 관용어(속담, 방언, 수수께끼, 금언 등), 어원 지명, 새말의 탐구 등 국어 지식 영역에서나 다루어질 법한 내용들을 국어사의 한 부분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국어사 교육의 교육적 의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조상들의 국어 사용 의식, 표현 방식, 국어의 사용과 관련한 태도 등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관용어는 우리 민족의 언어 생활에 묻어 있는 언어적인 기지, 생활, 문화, 사상 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꾸준히 사용되는 살아 있는 조상들의 표현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교육적 효과가 크다. 또한 비록 보충·심화에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지명은 우리 조상들의 열이 서려 있기에 민족의 열을 새기고 소멸해 가는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교육적 의의가 있다. 지명이란 우리 국어 중에서 토착성과 보수성이 가장 강한 언어 자료이다. 이러한 지명에 대한 학습은 오늘날과 같이 외래어나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언어의 사용이 혼란을 겪는 현실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근대 국어

<학습할 원리>

- 고대 · 중세 · 근대 국어의 특징
-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
- 국어의 음운 · 문법 · 의미 · 표기법의 시대별 변화상
- 국어의 변화 과정을 현대 국어와 비교
-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듣기 자료 · 읽기 자료에서 찾아 이용

<읽기 제재의 내용>

(1) 고대 국어

1. 국어의 뿌리와 줄기
2. 고대의 국어 생활

(2) 중세 국어

1. 세종 어제 훈민정음
2. 소학언해

(3) 근대 국어

1. 동명일기
2. 독립 신문 창간사

이 단원의 학습 활동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국어의 역사를 안다, 국어의 음운 · 문법 · 의미 · 표기법의 시대별 변화상을 안다, 국어의 변화 과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읽는다.’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학습 활동도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다. 다만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을 이 한 단원에서 모두 소화하기에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학습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8차시로 짜여 있어서 수업 부담이 많다. 그리고 7차 교육 과정 고등 학교 국어사 교육 부분은 활동 중심의 단원 편제

를 하여서 수업 모형에서 ‘지식의 제공’이라는 단계성은 고려되지 못한 느낌을 주는데²⁶⁾ 이는 7차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친 6차 교육 과정 교과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소단원 ‘(3) 근대 국어’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독립 신문 창간사’를 제외한 다른 제재는 이미 6차 교육 과정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6차 교육 과정에서는 소단원으로 ‘우리말의 역사’에 대한 설명문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식 제공이 충실히 구현된 반면 7차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알아두기’에만 간략히 서술된 셈이어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낸다. 또한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원문 자료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점 등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²⁷⁾

그러나 이 단원의 내용은 국어사의 시대 구분, 국어의 계통, 문자 및 표기의 변화, 음운의 변화, 형태의 변화, 조어법의 변화, 어휘의 변화, 통사의 변화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어, 국어의 변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계획하게 한다. 이를 위해 국어사를 시대 구분할 때 어떤 역사적 사실이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며, 학습자 나름대로 국어 변화의 의의를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게 되어 있다. 이 활동은 현대 국어와 옛날 국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하

26) 지금의 국어 교육은 언어 사용의 과정을 중시하여 활동만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국어 교육의 목적이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으므로 실제적인 언어 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하등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지식의 학습 없이 활동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국어 교육의 도구적 성격을 국어 교육의 기본 성격으로 삼은 데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의 문화적 성격을 국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어 교육은 언어 사용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교육이 될 것이다. 이도영 (1996:62~63)

27) 국어 교과서에 제재로 쓰인 국어사 자료들은 대부분 원문 자료 표기 형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다만 띄어쓰기의 경우에는 모두 현대 국어의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가로 쓰기로 편집되어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 방식은 학생들에게 사실상 해당 자료의 표기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한 가지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독립 신문 창간사’에서는 띄어쓰기를 한 표기가 나타나고, 이것이 이전 표기법과의 중요한 차이점이지만, 현재 교과서 자료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박형우 (2004:148)

게 함으로써 국어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 외에 각종 고전 문학 작품과 다른 국어사 관련 자료들은 해당 시기의 표기 형태를 보여주어 국어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국어 상권에는 ‘청산별곡, 어부사시사, 황진이 시조 (어더 닉 일이여), 기미 독립 선언서, 동국신속 삼강행실도’ 등이 수록되어 있고, 국어 하권의 경우에는 1단원 이외에 ‘사모곡, 관동별곡’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제재들의 경우에는 학습 활동의 내용이나 그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가 국어사의 내용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간접적으로 국어사 자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목표를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국어사 교육의 내용과 관련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국어사 교육과 관련하여 국민 공통 교육 과정 국어의 문제점은 우선 그 교육 내용이 절대적·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이다. 민현식에²⁸⁾ 따르면, 국어사 관련 내용인 ‘국어의 변천’은 초·중·고 전체 55개 내용 항목 중에서 2개뿐이다.²⁹⁾ 이는 전체의 3.6%에 해당하며, 16개로 나눈 내용의 세부 범주 중에서는 국어의 특질(1.8%), 문법(1.8%), 가치(1.8%)를 제외하면 가장 비중이 낮은 분야이다.

물론 국어에서 국어사는 국어 내용 영역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국어 지식 중에서도 그 일부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어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교

28) (2002:90)

29) 여기에는 중학교 3학년(9학년)의 내용인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안다’가 포함되어 있다. 민현식(2002)은 이를 ‘국어의 변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방언적 차이 이상의 ‘국어의 변천’으로 설명하는 것이 합당한가에는 의문이 있다. ‘국어의 변천’보다는 언어 정책이나 민족의 통일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남북한말의 방언적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사 교육 내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박형우 (2004:147)

육 과정이나 교과서에 무조건 많이 수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격적인 국어사 관련 내용이 초등 학교와 중학교 교육 내용에서까지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는 문제가 있다.

사실 초등 학교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³⁰⁾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언어의 역사성을 학습하는 것이 제시된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의 전부이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까지 국어 과목에서 다루어야 하는 국어사 관련 내용은 전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본질적인 국어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국어사와 관련된 언어적 특징을 배우는 것에 그치게 된다. 다만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국어지식 이외의 다른 영역의 학습 내용에서 그 자료로 국어사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간접적으로나마 국어사와 관련된 내용을 익히게 된다.³¹⁾ 이렇게 빈약하게 진행되던 국어사 교육 내용은 고등 학교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의 역사’는 국어사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제시된 내용은 하나지만 상당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국어사의 내용을 함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하나의 단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 시수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표기법을 비롯하여 음운, 어휘, 문법, 의미 등에 대해 고대·중세·근대 국어의 차이점을 이 한 단원

30) 초등 학교 5학년 국어지식의 네 번째 교육 내용으로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을 안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 방언에 대한 내용은 간접적으로 국어사와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도 방언의 개념 파악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국어사적 접근에 의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본격적인 국어사 교육 내용은 초등 학교 단계에서는 제시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박형우 (2004:149)

31) 이러한 방식의 교재 구성은 국어사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국어사 내용만으로 많은 단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다른 영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다른 영역에서 교수·학습을 위한 제재로 국어사 관련 내용을 선정한다면 커다란 부담 없이 국어사 내용을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익히게 될 것이다. 박형우 (2004:150)

에서 모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사 교육 내용이 사실상 하나뿐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 내적으로도 국어사 교육의 위계적·단계적 구성은 불가능하다. 교육 과정의 내용 제시에서부터 반복·심화를 통해 위계성과 단계성이 고려되는 국어 기능 영역의 내용 제시와 비교하면 국어사 교육 내용의 교육 과정 구성은 문제가 있다.

물론 국어 지식 영역의 심화 선택 과목인 문법이 있어서 공통 교육 과정의 국어와의 위계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학생들의 선택이 가장 적은 과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통 교육 과정 국어의 이러한 문제점은 국어사 교육의 부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³²⁾

제7차 교육 과정의 심화 선택 과목인 문법의 교육 과정에 제시된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 학교 문법

(1) 언어와 국어

(다) 국어와 국어 문화

- ② 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
- ③ 한글의 가치를 이해한다.

(2) 국어 알기

(마) 단어의 의미

- ② 의미 변화의 양상을 이해한다.

국어와 비교해 보면 ‘국어의 역사’라는 교육 내용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32) 이러한 낮은 선호도는 ‘문법’이라는 과목적 특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입시와 관련된 평가에서 그다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점과 언어 기능 영역이나 문학과 관련된 국어과의 교육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실제 학교 수업에서도 국어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보다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형우 (2004:150)

‘한글의 가치’와 ‘단어의 의미 변화’라는 측면이 더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에³³⁾ 따르면, 한글의 가치에 대한 내용은 “한글의 문자적 가치 알기, 문자사에서 한글의 위상 알기, 한글의 제자 원리 이해하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단어의 의미 변화’는 “의미 변화의 종류와 각각의 양상, 의미 변화의 원인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다. 그런데 ‘단어의 의미 변화’에 대한 내용 중의 ‘역사적 변화’는 ‘국어의 역사’라는 내용의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법 교과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3. 국어와 한글’ 단원에서 ‘한글의 국어 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라는 학습 목표에 따라 한글의 우수성과 제자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원 이외에는 문법 교과서에서 국어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부록 부분에 ‘1. 국어의 옛 모습’과 ‘2. 국어의 변화’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록 부분의 내용은 문법 교사용 지도서의 연간 지도 계획에도 빠져 있으며, 실제로 교사용 지도서에도 이 내용에 대해 언급된 바가 하나도 없다. 이는 말 그대로 부록일 뿐 실제 교육 과정의 운영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수·학습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법의 경우 전체 교육 내용을 세분화한 33개의 항목 가운데 국어사 교육과 관련 있는 내용은 2개 항목이고, 그 중에서도 실제 수업 시간을 통해 교수·학습되는 내용은 1개 항목(3.0%)이다. 교과서 단원으로 보면 전체 20개의 소단원 중에서 국어사 관련 단원은 1개 단원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국어 지식’과 관련된 심화 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 과정의 내용이나 교과서의 구성은 국어의 경우보다도 나아진 것이 없다. 또한 중학교 과정의 한글 창제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공통 교육 과정의

33) (2001:275)

국어와 내용상의 위계성이나 단계성을 이루는 내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상태이다.

결국 국어과 전체적으로 보아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은 교육 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며, 질적으로도 위계화·단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문법의 경우에는 국어사 교육 내용이 국어보다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국어와의 위계화나 단계화가 고려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어과 교육 과정 속에서 나타난 국어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어사 교육의 의의와 국어사 교육의 목표 등을 담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의 틀을 구상해야 된다. 국어사 교육이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 하나의 실제적인 영역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국어과 교육 목표와 국어과 교육 내용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국어사 관련 내용이 양적으로 더욱 보장되어야 하며, 질적으로도 그 위계성과 단계성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 속에 배열되어야 하는 등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설정에 대해서는 4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3.2.2. 고등 학교 교과서에 실린 국어사 관련 내용의 문제점

고등 학교 교과서에 실린 국어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작품 선정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우선 ‘(1) 고대 국어’에서는 향찰로 표기된 것이 비단 지명에 널리 쓰인 것이 아닌데, 지명 표기에 너무 치중하고 있고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에 실린 작품들은 무려 100여년의 차이가 있어 그 사이의 변화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행 고등 학교 국어 (하) 교과서에 실린 국어사 관련

내용의 문제점을 내용의 적합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2.2.1. 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점

현재 국어 교과서의 국어사 지식 관련 단원의 구성 내용들은 대단히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국어사 지식 관련 내용을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 고심한 수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1) 고대 국어’의 ‘② 고대의 국어 생활’ 내용은 고등 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몇몇 내용들은 내용의 적합성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1) 고대 국어’의 소단원 ‘① 국어의 뿌리와 즐기’에 제시된 학습 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소단원의 제목이나 ‘알아두기’의 내용을 볼 때, 이 소단원에서 학습할 국어사 지식은 ‘국어의 계통과 형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소단원의 ‘학습 활동 2 (함께 하기)’에 제시된 “상황 2를 보고 고대 삼국에서 지배 계층과 백성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지, 서로 의사소통할 때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지 토론해 보자.”라는 학습 활동은 이 내용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된다. 이 활동은 고대 국어 시기에, 말로는 우리말을 하면서도 글로는 한문으로 표현해야 하는 말과 글의 괴리 현상으로 인한 불편함과, 한자와 한문은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 민족, 특히 일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문자였다는 사실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학습 활동은 오히려 ‘(1) 고대 국어’의 또 다른 소단원인 ‘② 고대의 국어 생활’에서 다루어져야 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단원 ‘① 국어의 뿌리와 즐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에 적합한 학습 활동으로는 국어의 계통과 관련된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른 문제는 ‘(3) 근대 국어’의 소단원 ‘① 동명일기’의 ‘알아두기’에 ‘근대 국어의 특징’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여기에서 근대 국어의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실 가운데 음운론적 특징인 ‘성조의 소멸’과 ‘·’의 완전 소실, 통사론적 특징인 ‘개화기 문장 구성 방식의 변화’를 제외한 ‘방점의 소실, 문자 ㅅ, ㅇ, △의 소실, 한글 사용 폭의 확대, 개화기 한글 사용의 확대’ 등은 모두 표기와 관련된 특징이다.³⁴⁾ 따라서 그 제목 설정에 있어서 ‘근대 국어의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대 국어 문헌의 특징’이라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2) 중세 국어’의 ‘① 세종 어제 훈민정음’ 원문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① 세종 어제 훈민정음’의 한자음은 현실 한자음과 거리가 있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다. 그런데도 여기에 이와 관련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이는 자칫 학생들로 하여금 중세 국어 당시의 한자음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와 같았을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더욱이 현재 교과서에서 이 단원명은 현재의 한자음대로 ‘세종 어제 훈민정음’으로 제시된 데 비해, 바로 아래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달린 원문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이는 한자음의 차이를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으로

34)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본(2005:20~21)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ㅇ, △’의 소실은 중세 국어와 비교되는 근대 국어의 음운론적인 특징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임에도 ‘알아두기’에서는 ‘문자’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제시되어 있다. …… 물론 표기의 문제가 문자 언어와 관련된 사실이므로 표기상의 특징을 넓은 의미의 근대 국어의 특징으로 언급하는 일이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단원 앞의 ‘(2) 중세 국어’ 단원의 ‘알아두기’에서는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표기상의 특징이 아닌 음운·문법·어휘 등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 이 단원의 목적이나 ‘알아두기’의 제목이 ‘근대 국어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내용은 ‘(2) 중세 국어’ 단원에서와 같이 근대 국어의 음운, 문법, 어휘 등의 특징을 제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어사 지식 교육에서 ‘표기법’과 관련된 내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과거 한글 표기법에 대한 지식은 옛말 자료나 고전 문학 작품을 원문 그대로 제시할 경우 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로 오해하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훈민정음 언해’의 한자를 동국정운식 한자음대로 읽는 학생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원문의 한자음 표기와 관련된 간략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³⁵⁾

3.2.2.2.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점

교과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함에도 현행 국어 교과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내용의 정확성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할 수 있는 것은 ‘(1) 고대 국어’의 ‘알아두기’에 제시된 ‘고유 명사 표기’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한자의 의미를 버리고 음만 빌려 오는 경우’와 ‘한자의 음을 버리고 의미만 빌려 오는 경우’의 예로 보인 “‘소나’를 표기하기 위해 ‘素那’로 적고 그 음을 빌려 옴”과 “‘소나’를 표기하기 위해 ‘金川’으로 적고 그 뜻을 빌려 옴”이라는 문장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素那로 적-’는 일과 ‘그 음을 빌려 오-’는 일, ‘金川으로 적-’는 일과 ‘그 뜻을 빌려 오-’는 일이 연결어미 ‘-고’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 각각의 사건이 유기적인 것을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의 사건들은 유기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들 문장을 각각 “‘소나’를 표기하기 위해서 한자의 음을 빌려 ‘素那’로 적음”, “‘소나’를 표기하기 위해서 한자의 뜻을 빌려 ‘金川’으로 적음”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 중세 국어’의 소단원 ‘① 세종 어제 훈민정음’의 ‘알아두기’에

35) 본문에 표기된 한자음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는 것은 교사용 지도서의 보충 학습 ‘제제 개관’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교사가 본문 지도시에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시된 ‘한글의 과학성’에 나타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문제의 부분이 포함된 전문(全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글은 상형(象形)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자를 만들고, 이에 획을 더하는 가획(加劃)의 원리와 문자를 합하는 합용(合用)의 원리에 의하여 창제되었다. 자음은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을 본떠 ‘ㄱ, ㄴ, ㄷ, ㄹ, ㅇ’ 다섯 자를 기본으로 만든 다음, 각각 획을 더하는 가획과 글자를 나란히 쓰는 병서(並書)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³⁶⁾

이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자음자의 제자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둘째 문장이다. 여기에서는 자음자의 제자 원리로 ‘상형’과 ‘가획’ 그리고 ‘병서’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병서의 원리는 자음자의 제자 원리라고 볼 수 없다. 자음자는 ‘상형’과 ‘가획’의 원리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음자들을 운용하는 원리의 하나가 ‘병서’일 뿐이다.

교과서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체계에 따라 전탁음(全濁音)을 표기한 각자병서자(各字並書字) ‘ㄱ, ㄴ, ㄷ, ㄹ, ㅎ’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각자병서자 역시 상형과 가획에 의해 만들어진 ‘ㄱ, ㄴ, ㄷ, ㄹ, ㅎ’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또 다른 음을 표기할 수 있도록 운용한 것이지 전탁음을 표기하기 위해 새로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병서’의 원리는 자음자의 제자 원리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에서 ‘가획’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가획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를 다루지 않은 점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가획이 ‘소리의 성질에 따라 가획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해 줌으로써 한글이 지닌 자질문자(資質文字)로서의 성격, 나아가 한글의 과학성을 학생들에게 보다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6) 고등 학교 국어 (하) (2005:30)

‘(2) 중세 국어’의 소단원 ‘② 소학언해’의 ‘알아두기’에서 제시한 ‘중세 국어의 특징’ 가운데에도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 ‘중세 국어의 특징’의 설명 중에 “중세 특유의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등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중세 특유의’라는 수식어는 현대 국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중세 국어의 높임법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높임법을 표시하는 요소, 곧 형태소의 차이일 뿐이다. 중세 국어의 높임법 가운데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은 각각 선어말 어미 ‘-습/습/줍-’과 ‘-이-’에 의해 규칙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의 높임법 표시 방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높임법의 원리에 있어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높임법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더욱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주체 높임법은 원리는 물론 이를 표시하는 형태소(-시-)도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내용은 “객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이 선어말어미에 의해 규칙적으로 표시되었다.” 정도의 문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내용의 정확성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로 옛말 자료의 제시와 관련된 한두 가지 작은 실수가 발견된다. 우선 교과서에서는 원문 그대로의 표기를 반영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소학언해’와 ‘동명일기’에서 ‘ㅁ춤이니라.’, ‘숫불빛 꺾더라.’와 같이 마침표가 자료에 드러나 있는 것은 분명한 실수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청산별곡’, ‘관동별곡’ 등의 고전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그 원문에 띄어쓰기까지 이루어져 있다. 이는 원문의 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나, 그렇더라도 교과서의 글이 원문대호가 아니라 이러한 조치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독립 신문 창간사’는 현대 띄어

쓰기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본래의 모습대로 교과서에 실은 반면, ‘동명일기’는 본래는 띄어쓰기가 없는 것을 띄어쓰기로 고쳐서 실어 놓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교과서의 자료 수록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되도록 원본대로 실어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유익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원칙을 바탕으로 자료를 실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어떤 언급을 표시해 두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책에 실린 사진과 관련하여 국어 (하) 교과서 31쪽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 사진 자료 중 해례본 사진은 원본이 아니라 후대에 복제된 것을 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³⁷⁾ 옛날에는 책을 만들 때 종이 한 장에 두 쪽을 찍었는데 이때 종이의 한 가운데에 책 제목과 쪽수를 써 넣은 판심을 가운데 찍었다. 이렇게 한 장에 두 쪽을 찍어 만든 종이를 반으로 접고 이를 모두 묶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책장을 접었을 때 가운데 놓였던 판심도 접혀져, 책을 완성하였을 때 보면 책장마다 한쪽 경계선에 판심이 보이게 된다. 그런데 교과서 31쪽 사진 속에 해례본의 모습은 원본에서 책의 제목과 쪽수를 써 넣은 판심(版心)을 삭제하고 반엽이 각기 독립된 사주쌍변(四周雙邊)으로 그려 넣어서 마치 양장본처럼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다. 곧 후대에 복제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은 15세기에 창제된 우리 국어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마땅히 ‘원본’의 사진으로 실었어야 옳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교과서 사진 자

37) 이뿐만 아니라 고등 학교 문법 교과서(2006)의 1단원 ‘언어와 국어’에 소단원 ‘3. 국어와 한글’에서 ‘2. 위대한 문화 유산, 한글’에 첨부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사진(37, 43쪽)도 원본이 아닌 후대에 복제된 것이 사진 자료로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원본이 외관상으로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인하여 마모되고 글씨가 선명하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15세기에 창제된 우리글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내외적인 가치와 의미를 따져보았을 때, 간송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의 사진을 실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고등 학교 국어 (하) (2005:31) - 사진 자료 (부록 뒤에 첨부)

료의 신중한 채택과 편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3.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

3.3.1. 교육 과정상의 국어 지식 교수·학습 방법

‘어떻게’라는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는 ‘무엇을’이라는 교육 내용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기에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는 교육 내용과 연관해서 계획되어야 한다.

국어 지식 영역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는 우선 ‘내용 체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내용 체계는 ‘국어의 본질’, ‘국어의 이해와 탐구’, ‘국어에 대한 태도’, ‘규범과 적용’의 네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³⁸⁾ 이 하위 영역에서 주목되는 것은 학습 방법을 의미하는 ‘탐구’가 덧붙여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국어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되 탐구라는 학습 방법을 적용해서 학습하라는 뜻이다. 이 점은 이번 교육 과정에서 국어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둔 것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어 지식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명제적 지식을 지식 그 자체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탐구 중심의 학습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학년별 학습 내용은 내용 체계를 준거로 선정되는데 제10학년의 학습 내용으로는 여덟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국어의 본질 영역에서는 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국어의 이해와 탐구 영역에서는 문법

38) 앞의 셋은 이론 범주이고 나머지 하나는 실제 범주인데, 이론과 실재를 유기적으로 관련지으면서 지도하도록 이를 편성하였다.

요소들의 기능, 문장의 짜임새, 장면에 따른 표현 양식을, 국어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는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 그리고 실제에서는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기를 학습 내용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 각각의 학습 내용에 대해 기본 학습 내용과 심화 학습 내용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이나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7차 교육 과정에서 국어과 교육의 최종 도달점은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의 향상이므로 위의 내용을 교수·학습할 때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적절한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바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계획 및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 지식의 학습 내용을 선정할 때는 국어 지식의 이해와 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특히 다른 영역과의 내용상의 관련성, 학년별 학습 내용 간의 연계성은 물론이고 기본 학습 내용과 함께 기본 학습 내용에 대한 보충·심화 학습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보충·심화 학습은 학습자의 학습 능력, 학습 과제에 대한 친숙도나 흥미 등에 따라 학습 성취 수준과 학습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 내용을 선정할 때는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의미 있으면서도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학습 방법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강조한다. 첫째, 지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탐구 학습을 통한 지식 생성 경험을 강조한다. 국어 지식은 궁극적으로 실제 언어 활동 속에서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어 지식에 대한 지도는 설명보다는 여러 언어 자료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탐구 학습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어 지식에서 학습한 내용이 창조적 국어 생활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개별적인 언어 현상을 분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어 사용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국어 지식 영역도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난 후 전체적이고 실제적인 국어 사용과 관련시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정해 놓은 각종 규범이나 규칙 등을 준수함으로써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의 구실을 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3.3.2. 교과서 분석

교과서는 교육 과정과 실제 교수·학습 활동을 매개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은 물론이고 평가까지도 교과서에 의해 상당히 좌우된다.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여 학생들의 국어 사용 기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 국어 교과서가 수많은 학습 자료나 교재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교과서를 유일하고 절대적인 교재가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차, 교수·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얼마든지 변용 가능하며 나아가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보충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과서 편찬 및 보급 실태를 볼 때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민 공통 과목인 ‘국어’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과서가 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크게 좌우할 것임이 분명

하다. 또한 교과서를 넘어선 다른 자료의 개발도 먼저 교과서에 어떠한 제재가 제시되어 있으며 또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되어 있고 학습 성취도에 따른 보충·심화 학습은 과연 충분한 정도로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어 교과서가 제7차 교육 과정의 정신을 어떻게,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따져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국어 교과서 중에서 고등 학교 국어 상·하권의 국어 지식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앞서 살폈듯이 이번 교육 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에 맞춘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이다. 1학년에서 10학년까지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과서를 편성할 때는 이 두 성취 수준 중에서 보충 학습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보충 학습은 기본 학습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가령 좀더 접근하기 쉬운 다른 제재를 제시하거나 교수·학습 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도 있고, 기본 학습의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지식이나 개념을 학습하도록 할 수도 있다.

‘1. 국어가 걸어온 길’의 보충 학습에서는 대단원의 기본 학습 목표, 즉 국어의 역사를 이해하되 학생들이 국어의 옛 모습에 대한 본문 내용을 재학습하도록 하였다. 보충 학습의 제재로는 소단원 ‘(2) 중세 국어’에서 제시했던 ‘어제 훈민정음’의 뒷부분을 제시함으로써 자료 자체에 대한 친숙함을 바탕으로 본문에서 알아두기에 제시된 지식을 구체적으로 자료에서 찾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자료는 자음과 모음의 글자가 각각 어떤 음을 나타내며, 그 글자들의 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각 글자의 운용과 음운 체계상의 특징을 해설해 주기보다는 자료를 중

심으로 한글의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를 확인해 보고 여기에 나타난 국어 글자의 옛 모습을 학생 스스로 현대 국어 글자와 비교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 제재는 다소 까다롭더라도 활동은 평이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국어 지식은 영역의 특성상 더 쉬운 제재를 통해 동일한 학습 활동을 하기보다는 기본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지식이나 개념을 학습하는 활동이 더 필요하다. 즉, 보충 학습에서는 이들 개념들에 대해 더 쉽고 더 자세하게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보충 학습에서 다른 제재를 제시할 경우에는 보충 학습의 제재가 소단원의 제재보다 더 쉽고 흥미로운 것이어야 한다. 이득도가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다른 제재를 통하여 동일한 학습 활동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가령 국어 (상)의 단원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에서는 문장의 짜임새를 학습 목표로 제시하고 이것을 ‘나의 소원(김구)’을 제재로 하여 학습한다. 그리고 보충 학습 제재로 ‘가람일기(이병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나의 소원’과 비교하였을 때 학생들이 읽어 내기에 더 쉬운 제재라고 할 수 없다. ‘나의 소원’에서는 문장의 짜임을 연습하도록 지정된 부분이 표면적인 문장의 길이는 길지만 주어와 서술어가 가지런하게 갖추어져 있는 반면, ‘가람일기’의 7월 1일자 일기에는 ‘들으니 정역 6년이라고 선고 받았다’와 같이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학생들은 주-술 관계가 표층에 모두 나타나 있는 문장보다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의 짜임을 파악하는 것을 더 어렵게 느끼기 때문이다.³⁹⁾ 물론 교육 과정에서 학교나 학습자의 실정에 알맞은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교과서의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는 자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

39) 황미향 (2002:263)

때 지침이 되는 것이 바로 교과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보충 학습 구성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 단원 편성 순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제10학년에서는 먼저 문장의 짜임새를 학습하고 다음으로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 문법에 맞는 국어 사용, 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 문법 요소들의 기능, 그리고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의 순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문장의 짜임새를 알고,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 학습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한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개념, 즉 문법 규칙에 대한 학습이 나중에 이루어지도록 교과서 단원이 배열되어 있다.

학습 내용의 배열 순서가 이렇게 뒤바뀐 것은 국어 지식 영역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 현행 교육 과정에서 국어과 교육의 최상위 목표는 국어 사용 능력의 향상인 바 이 목표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영역은 기능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편찬할 때 이 영역들을 중심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국어 지식을 선정하여 통합 단원으로 구성한 결과 국어 지식 영역 내적인 질서 보다는 다른 영역의 질서에 의해 학습 내용이 배열되었기 때문이다. 국어 지식은 국어과의 다른 어떤 하위 영역보다 지식 체계 내적인 질서가 중요한 배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단원 배열에서는 이런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진술된 교육 과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학습하기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까지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 과정에서 국어 지식을 학습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은 탐구 학습이다. 현행 교육 과정에서 탐구 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국어 지식 영역의 교수·학습이 실제 국어 사용 기능의 향상은 물론이고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는 데 머무르던 종래의 국어 지식 교육보다 한 걸음 나아간 탐구 학습의 적용은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과연 교과서에도 잘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교과서의 국어 지식 관련 단원, 특히 언어 기능 영역과 통합 단원으로 구성된 단원에서는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고등 학교 국어 (하)의 대단원 ‘3. 함께 하는 언어 생활’은 듣기, 말하기와 국어 지식이 어울려 이루어진 단원이다. 이 대단원은 두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둘 중 ‘(1) 역사 앞에서’라는 제재를 재료로 문법 규칙을 학습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 소단원에는 ‘알아두기’와 ‘학습 활동’이 군데 군데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소단원 구성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알아두기와 학습 활동의 배열 순서이다. ‘역사 앞에서’라는 소단원에서 학습할 문법 규칙은 시간 표현, 높임 표현, 부정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이다. 그런데 이들 각각의 학습 내용에 대해 알아두기에서 먼저 해당하는 문법적 지식을 설명하고 그 다음 부분에서 그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하도록 단원이 짜여 있다. 달리 말하면 문법 지식을 먼저 익힌 후 소단원으로 제시된 제재에서 학습한 문법 지식의 예를 찾는 활동을 하게 하는 순서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고등 학교 국어 (하)의 대단원 ‘1. 국어가 걸어온 길’의 소단원 ‘고대 국어’에서 ‘② 고대의 국어 생활’의 알아두기와 학습 활동에서도 발견된다. 탐구 학습의 일반적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단원 구성은 탐구 학습에 전혀 걸맞지 않은 구성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탐구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학습 활동이 앞서고 알아두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탐구의 결과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 활동의 발문도 단순히 어떤 문법 규칙이 적용된 표현을 찾아보게 한다든지, 빈 곳을 채워보라는 등의 단순하고 무계획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습 목표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단계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탐구 학습의 과정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이밖에 탐구 학습과 관련하여 더 생각해 볼 문제로 각 단원에 배당된 시수를 들 수 있다. 탐구 학습은 다양한 언어 자료를 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규칙을 발견해 나가는 학습 방법이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이 분명하다. 제7차 국어 교과서는 각 대단원에 평균 8차시를 배당하고 있고, 하나의 소단원에 배당될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많더라도 3차시를 넘지 않는다.⁴⁰⁾ 이는 곧 시간 표현, 높임 표현, 부정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이라는 다섯 가지 문법 현상을 세 시간만에 탐구해 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남는다.

결국 국어 지식 영역에 한정해서 볼 때 현재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통해 살펴 본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탐구 학습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적절하지 못한 학습 내용의 배열 순서 등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0) 고등학교 국어 (하) 교사용 지도서 (2005:33)

단원의 길잡이 및 준비 학습	소단원 2~3개	단원의 마무리	보충·심화
1차시	2~6차시	7차시	8차시
도입	원리 학습 + 적용 학습	정리 및 평가	보충·심화

4. 국어사 교육의 지향점

이 장에서는 바로 앞 장에서 목표,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방법의 차원에서 살펴본 국어사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역시 목표,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방법의 차원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4.1. 목표 설정의 원리

국어사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관련지어 국어사 교육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어사를 가르치는 그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따져서 정하는 것이다.

먼저, 국어과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관련지어 국어사 교육의 목표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국어과 교육 과정의 역사를 보면, 대체로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⁴¹⁾

- 국어 생활 바르게 하기 (4, 5, 6)
-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5, 6, 7)
- 국어를 소중히 여기게 하기 (4, 5, 6)
- 국어와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 깊게 하기 (4)
- 국어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4)
- 국어와 민족 문화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 갖기 (5, 6)

41) 다음은 4차부터 7차까지의 국어과 교육의 목표 전문을 요소별로 나눈 것으로 이 중 6차까지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가 학교급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중·고 모두 반영하였다. 7차는 학교급별 목표가 없으며 국어과 전체 목표만 있다. 괄호 안의 숫자는 교육 과정의 차수를 표시한 것이다. 이도영 (1999:318)

-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5, 6, 7)
-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7)
- 언어와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기 (5, 6)
-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7)
- 문학을 이해하기 (5, 6)
- 문학 작품 감상 능력 기르기 (6)

이들 요소를 국어사 교육과 관련지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국어사 교육은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국어사 교육은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국어사 교육은 언어와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국어사 교육은 문학을 이해하고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기르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면 국어사 교육은 국어과에서 필히 가르쳐야 하며, 만약에 ‘아니오’라고 하면 국어사 교육은 국어과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김영욱(1998:90)에 따르면, 우리가 ‘언어 능력’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의 사용에 따른 현실적인 언어란 결코 시간적으로 동질적이지 않으며, 현재 사용하는 언어도 과거에서부터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국어사 교육은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의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도 국어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그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국어사 교육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국어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 번째의 ‘언어와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는’ 데에도 국어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국어사 교육을 문학과 관련지어 보면 그다지 큰 관련성은 있어

보이지 않지만, ‘고전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도 국어사 교육이 기여’할 수 있다.⁴²⁾ 이렇게 볼 때, 국어사 교육은 국어과에서 당연히 가르쳐야 하며, 그 위상도 지금보다는 높아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국어사 교육은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관련짓지 않더라도 그 가치가 드러난다. 한 민족의 역사 전체에서 볼 때, 언어사는 그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국어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의 선조들은 그것으로 하루하루의 생활을 영위했으며 그것으로 사색하고 고민하였다. 따라서 국어사는 먼 옛날부터 오늘날까지의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어에도 우리 선조들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말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국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언어 사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리하면, 국어사 교육은 교육 과정에 제시된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관련지어 보더라도 그렇고 국어사 교육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마땅히 국어과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사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다른 목표와 관련짓지 않고 국어의

42) 고전 문학 교육이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고전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 표현 그 자체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고전 문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전 문학 작품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국어사 지식 교육은 고전 문학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국어사 지식을 바탕으로 철저히 고전 작품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문학적 상상력에 의한 올바른 감상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주어진 고전 작품 이외의 작품을 찾아 읽는 능동적 태도를 지닐 수 있으며, 다양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렇듯 고전 문학 교육에 있어서 국어사 지식 교육은 고전 문학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된다. 장윤희 (2002:395~396)

역사를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어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국어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국어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국어사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국어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 국어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한다.
- 국어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에 기여한다.
- 국어의 역사 속에 담긴 선인들의 슬기와 지혜를 깨닫는다.
- 국어의 소중함을 깨닫고, 국어 존중의 태도를 갖는다.

4.2. 교육 내용 구성의 원리

앞서 제시한 국어사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어사 교육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식 전달 위주의 학습 내용에서 벗어나, 국어사 학습의 의의를 살리면서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국어사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거에는 이 영역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져 왔었고, 국어사 교육 내용을 설정, 제시한 선행 연구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 국어사 교육 내용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

4.2.1. 국어사 교육 내용 선정의 기준

국어 교육의 영역 중에서 국어 지식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국어사는 그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국어사의 내용 중 어떤 것을 어느 정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국어 교육 내용의 선정에 대해서는 권재일(1995), 김영옥(1998), 이도영(1999), 민현식(2002)에서 논의된 바 있다.

앞에서 우리는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교육 내용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현재 국어과에서는 국어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학습할 내용의 범위가 음운, 어휘, 문법 등 언어 단위의 변화와 관련된 것에만 국한되어 있어 학습 내용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국어사 교육의 내용은 국어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만 중요시하였다. 그로 인해 국어사 교육은 실생활과 떨어진 지식 위주의 수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국어사 교육의 목표가 국어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과 국어의 발전, 국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에도 있다면, 당연히 국어사 교육의 내용은 그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어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거나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어사 교육 내용 설정에 있어, 그 내용은 실질적인 국어 경험을 통해 가르치고 배워야 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국어학계에 업적으로 쌓여

진 국어사의 체계적인 연구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국어과 교육 과정 목표 실현에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학습자들의 경험 체계 수준에 알맞은 자료들을 선정, 이를 국어사 교육의 씨와 날로 조직하여 편성한다면 국어사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해당 과목의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의 범위를 정한다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때,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그 과목에서 가르쳐야 하는 최소한의 것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본장에서는 국어 교육에서 국어 지식 교육의 일환으로 교수·학습되는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의 최소한의 내용적 범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국어 교육에서의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몇몇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바가 있다. 우선 권재일(1995:83)에서는⁴³⁾ 국어학적 관점에서 국어사와 관련된 지도 내용에 대해 ‘국어의 역사와 문자’라는 영역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2. 국어의 역사와 문자

- 국어의 역사에 대한 지도
 - 국어의 계통과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 국어사의 시대구분, 음운, 어휘, 문법 등의 변화 과정에 대한 체계적 이해
- 문자에 대한 이해

43) 권재일(1995:163~164)은 국어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을 깊게 맺고 있는 것이지만 이에 종속되지 않으며,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보고 국어과 교육에서 언어 지식 영역의 지도 내용은 이러한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도 영역을 설정하였다. 1. 언어의 이해 2. 국어의 역사와 문자 3. 현대 국어의 구조 (음운, 단어, 문장, 담화) 4. 국어의 올바른 사용 그리고 ‘2. 국어의 역사와 문자’에 대한 설명에서 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국어의 공식적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오늘의 국어가 있기까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이의 지도 내용을 제시하였다.

- 훈민정음의 창제와 관련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 우리말과 한글에 대한 자긍심

김영옥(1998:103)에서는 국어사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국어사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적인 주제 속에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6가지를 제시하였다.

1. 국어의 계통에 대한 이해
2. 훈민정음 이전의 문자에 대한 이해
3.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
4. 중세 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
5. 근대 국어 자료에 대한 이해
6. 맞춤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

또한 이도영(1999:322~323)에서 밝히고 있는 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국어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 내용
2.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과 관련된 내용
- 텍스트, 담화, 화용론적 차원의 국어사적 지식, 조상의 언어관, 조상의 발상 및 표현 방식
3.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와 관련된 내용
- 문화로서의 국어에 대한 이해, 관용어·속담·수수께끼·금기어·지명 등에 담긴 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 각종 개인·사회적 의식과 관련된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의 어원에 대한 이해, 국어 순화와 국어 발전 방안, 민족어로서의 국어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

민현식(2002:98~99)에서는 국어 지식의 위계화와 관련하여 국어 지식의 교육 내용을 ‘국어와 문화 영역’과 ‘문법과 규범 영역’으로 크게 분류하였는데, 그 중에서 국어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국어와 문화 영역

(ㄱ) 언어의 특질: 언어의 역사성

(ㄴ) 언어 및 국어와 문화: 국어와 역사

② 문법과 규범 영역

(ㄷ) 국어의 역사 영역: 옛말의 문법, 우리말의 변천, 국어 문화사

이성영(1995:10)에서는 국어사 교육 내용과 관련한 입장은 “정리 ④의 언어와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이다. 여기에서 국어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어의 옛 모습, 세계의 언어와 한글의 우수성’ 등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을 국어과에서 ‘문화 교육’이라는 측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그의 말대로 통합론과 독자론 양자의 절충을 시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⁴⁴⁾ 이렇게 국어가 지니는 문화적 가치면을 학습자에게 학습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언어 기능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지만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할 민족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 있게 유도하였다.

김수엽(1989:152~153)에서 제시된 국어지식 교육의 내용 중에 ‘Ⅲ. 우리말과 우리글의 역사 2. 우리말의 흐름 3. 우리 겨레와 글자’에서 국어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44) 이성영은 이를 잠정적으로 ‘상호 보완론’이라고 지칭하였다. 이것은 언어 사용 기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언어 지식은 언어 사용 기능과 관련시켜 지도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 나름의 가치를 살려 가르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상호 보완론적인 관점은 언어 사용 기능 신장에 기여하는 언어 지식만으로 한정하여 가르칠 때에는 누락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 예컨대 언어의 본질, 언어와 인간의 관계, 여러 가지 국어의 특질, 국어의 역사, 훈민정음 및 한글의 우수성, 국어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국어 사용 능력과는 관계가 없지만 학문적 기술에 필요한 언어학적 개념과 지식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언어 사용 기능과는 별개로 언어 지식을 가르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중복 현상이나 상호 간섭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 같은 포괄적 입장은 국어 지식의 학습이 기본적으로 국어 사용 기능의 신장을 위해서는 물론, 국어 문화 전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학습 요소라는 점을 골고루 부각함으로써 국어 지식 영역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귀영 (2003:25~26)

2. 우리말의 흐름

- 1)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 2) 어떤 때에 크게 변했을까
- 3)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3. 우리 겨레와 글자

- 1) 먼 옛날의 글자
- 2) 중국 글자를 우리말에 맞추려는 노력
- 3) 한글을 만든 슬기
- 4) 한글은 절대 불변이어야 하는가

김광혜(1995:77)는 국어 지식의 영역을 ‘지식’과 ‘태도’면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국어 지식 속에 국어사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지식>

우리말 알기 - 국어 문화(우리말의 역사/ 한글의 역사 및 가치/ 우리말을 빛낸 인물)

<태도>

우리말 가꾸기 - 국어 사랑의 태도(국어문제의 인식, 국어 발전을 향한 정신)

이상에서 국어사 교육에 대한 입장이 국어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국어학적 지식 또는 국어 사용 능력 신장면으로 대별되어 나타나거나, 이 둘의 절충적인 입장을 국어사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어사 교육의 의의와 목표가 국어과 교육 과정의 적합성에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국어사 교육은 무엇이며, 왜 실시해야 하는가를 검토함으로써 국어사 교육 내용 선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국어사 교육에 임하는 학습자들의 개인적 수준에서 갖는 요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요구에 의한 역사 교육의 입

장에서 국어사 교육의 내용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선정되어야 하며, 국어학적 성과를 반영하는 국어사 교육의 학문적 요구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요컨대, 국어사 교육에서 국어사 교육 자료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국어 경험을 통해 가르치고 배워야 할 자료들이므로 국어사의 체계적인 연구 결과의 내용을 학습자들의 경험 체계 수준에 알맞은 자료들로 선정하여, 이를 국어사 교육의 씨와 날로 조직 편성한다면 국어사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국어의 계통과 형성 과정’과 ‘국어의 변천 과정’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어의 계통과 국어사적 시대 구분에 따른 변화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의 교육 과정의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도 그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내용의 위계성과 단계성에 대한 것이다. 국어 변천사에 대한 내용이 그 난이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되지 못하고, 고등 학교 과정에서 계통과 형성 과정, 국어의 변천사까지 모두 10학년 국어 하권의 한 단원에서 교수·학습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학생들에게 학년별로 제시되어 단계적으로 학습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통적인 내용은 ‘우리 민족의 문자 사용 역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사용해 온 각종 차자 표기와 한자, 그리고 우리 글인 한글의 문자적 가치와 그 원리에 대한 이해를 위한 내용이다.

이와는 달리 선행 연구에서 밝힌 국어사 교육 내용 중에서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세 국어 문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내용은 ‘국어의 계통과 형성 과정,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의 일부분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이러

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고등 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차이점이나 특징 정도의 이해에서 그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과거 5차 교육 과정 이전에는 이러한 중세 국어 문법에 대한 내용을 국어 교육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다. 특히 학교에서의 평가와 대학 입시 평가에서도 ‘국어Ⅱ’나 ‘고문’이라 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학 입시 제도가 수학 능력 시험으로 바뀌면서 상당한 문법 지식의 암기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지식 내용은 평가에서 제외되었고, 학교 교육에서도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고전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위해서도 중세 국어 문법에 관한 내용을 국어 교육의 내용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⁴⁵⁾ 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다루는 대부분의 고전 문학 작품이 고려와 조선 시대의 작품이다. 그 중 고려 시대의 작품이라 해도 고려 가요 등 원문 그대로 교과서에 수록되는 작품의 경우에는 한글로 기록된 상태이고, 조선 후기의 근대 국어 시기의 작품이라 해도 중세 국어 문법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해가 필요한 작품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중세 국어 문법 학습을 위해서는 중세 국어의 음운, 어휘, 형태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현대 국어학 관련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세 국어 문법을 국어사 교육 내용에서 제외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된다.

45) 고등 학교 수업에서 고전 문학 작품의 이해를 위해 중세 국어 문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 내용을 익히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수업 시수가 많이 부족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을 생략하고 수업을 할 경우에는 고전 문학 수업이 일종의 외국어 수업처럼 단어나 어구의 암기에 의존하는 수업이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박형우 (2004:155)

일단 중세 국어 문법에 대한 내용은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하겠으나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다면 어쩔 수 없이 중세 국어 문법에 대한 최초 교육 내용 출발 시점은 고등 학교 과정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통 교육 과정인 국어에서 중세 국어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개략적으로 배우고, 심화 선택 과목인 ‘문법’에서 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룬다면 국어과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중세 국어 문법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위계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근대 국어 자료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국어사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전체적인 국어사의 측면에서는 빠질 수 없는 내용이겠지만 굳이 ‘자료’라는 측면을 강조한 이유는 중세 국어의 경우와는 달리 근대 국어 자료에서 일정한 문법적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근대 국어의 자료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국어사 자료의 특징을 단순히 살펴보는 것이라면, 이는 타시기와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오히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중간적 위치를 점하는 근대 국어의 모습을 문법적 측면이나 표기상의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는 내용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맞춤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에 관한 내용은 일종의 국어학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1933년에 제정된 맞춤법의 제정 과정을 아는 것이라면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려우나, 일본 강점기 속에서도 우리말을 연구하고 이러한 맞춤법을 탄생시킨 연구자들의 모습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말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확인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관용어, 속담, 수수께끼, 금기어, 지명, 어원, 그리고 각종 표현 방식’과 관련된 국어사 관련 내용도 국어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내

용은 직접적인 국어사 관련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이 이 내용의 학습을 통해 국어사 관련 내용을 간접적으로 학습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어 교육에서 교수·학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국어의 계통과 형성 과정
2. 국어의 변천 과정
3. 우리 민족의 문자 사용 역사

이러한 내용은 국어사 자체적으로도 그 지식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국어사와 관련하여 국어 교육에서 그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현행 교육 과정의 학습 내용 조직인 ‘국어의 본질, 국어의 이해와 탐구, 국어에 대한 태도, 국어의 규범과 적용’이라는 4대 구조에도 잘 부합한다.

현행 교육 과정과 비교해 보면, ‘1. 국어의 계통과 형성 과정’과 ‘2. 국어의 변천 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미 수용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전체 교육 과정 내에서 위계적 구성을 갖지 못하고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 오직 고등 학교 1학년(10학년) 한 단원에 집중되어 있어서 내용 조직의 네 가지 구조에 따라 학습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3. 우리 민족의 문자 사용 역사’의 경우에는 현행 교육 과정에서 ‘국어’ 과목에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⁴⁶⁾ 고등 학교 문법에서 그 내용의 일부인 ‘한글의 가치를 이해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문법이 심화 선택 과목

46) 제7차 교육 과정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명시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의 교과서 하권에서 이와 관련된 일부 내용(고유 명사 표기와 향찰)이 수록되어 있기는 하다. 박형우 (2004:157)

이며 선택하는 학생이 가장 적은 과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자 사용의 역사는 물론이고 한글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 내용은 국어의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초등 학교에서 중·고등 학교에 걸쳐 반복되면서 위계적으로⁴⁷⁾ 교수·학습될 수 있어야 한다.⁴⁸⁾

‘우리 민족의 문자 사용 역사’로 예를 들어 이러한 교육 과정의 진행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초등 학교 고학년의 교육 과정에서는 다른 문자들에 비하여 한글이 우수한 이유, 그리고 이러한 한글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우리글에 대한 애정과 우리글을 소중히 여기며 바르게 쓰는 태도를 기르게 할 수 있다. 또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과 한글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여 훈민정음이 갖는 과학성과 논리성, 그리고 한글 창제가 갖는 그 당시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해 학생들이 깨닫게 하고 한글과 우리 문화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한글 창제 이전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문자 생활을 해 왔는가에 대해 배우면서 문자의 발달사, 향찰·이두·구결 등의 특징과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⁴⁹⁾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화 선택 과목인 문법 교

47) 문법 지식의 위계화에서는 ‘복잡성(complexity), 학습성(learnability), 교수성(teachability)’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민현식 (2002:80)

48) 박형우(2004:158~162)는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사 교육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어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그 선정 내용을 세분화하고 위계적 배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국어사 교육 자체만의 내용으로는 그 세분화와 배열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국어 문화와 국어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국어사 교육과 국어의 이해·표현 영역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의 바탕 위에서 국어사 교육의 체계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49) 국어사 내용 중 일반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매우 어려운 제재라는 지적을 받는 것 중의 하

육 과정에서는 선행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글의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우리 문자 언어 생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어사와 간접적 관계를 갖는 관용어, 속담, 수수께끼, 금기어, 지명, 어원, 방언 등에 관한 내용과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내용은 우선 초등학교 국어 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나마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국어사 교육을 실시할 때 이러한 내용은 배경 지식으로서 필요하며, 우리 문화와 우리말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도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내용은 국어 지식 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일부 내용은 현재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수용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어사 교육의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2.2. 국어사 교육 내용 설정

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서에서 국어사 관련 내용은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중등학교에 있어서 국어사 교육이 국어과 교육 과정의 목표와 부합하고 그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새로이 국어사 교육 내용을 설정하여 이를 중등학교 학습자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바로 앞 절에서 살펴본 국어사 교육 내용 선정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어사 교육 내용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어

나가 바로 이런 ‘차자표기법’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차자표기법 자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실제 자료 속에서 그 예를 확인하는 정도의 학습이라면 중·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고등학교 국어 하권에 이러한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사 교육 내용을, 국어사 교육의 교육적 의의와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살펴 본 후에, 이에 근거하여 국어사 교육 내용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⁵⁰⁾

4.2.2.1. 국어의 계통

국어의 계통에 대한 탐구는 우리 민족의 형성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국어 교과서에 국어의 형성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국사 교과서에 민족의 형성사가 포함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우리말의 뿌리가 어디에 있음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국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민족 언어’로서의 국어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느냐 또는 가르치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국어 계통에 대한 이해가 국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말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든다. 둘째, 민족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셋째, 이것이 우리말 사랑으로 이어진다. 넷째, 이것이 우리말을 갖고 뉘움에 있어서 기초를 제공한다.

물론 국어의 계통에 대한 연구가 완전하지 못한 국어 연구의 현실 속에서 불확실한 것들을 제도 교육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욕만을 앞세운 태도로 학생들에게 자칫하면 잘못된 지식을 제공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어교육에 있어서 국어의 계통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과 최근까지 연구된 국어 계통론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신중론이 더 이상 설득력을 지니기는 어렵다.⁵¹⁾ 그리고 이는 지금까

50) 여기에서 설정한 내용은 시안에 지나지 않는다. 주제 선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국어 교육학적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좀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51) 램스테트(Ramstedt)가 알타이설(Altaic theory)을 내세운 이래, 이기문(1972)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수정·보완하기도 하였는데, 국어의 계통에 대해 비교적 믿음직한 논의의 결과물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것이 국어학적 현실이다. 김영옥 (1998:104)

지 교육에서 정확하고 모범적인 즉 진리에 근접한 텍스트만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 만하다. 흔히 지금까지의 교육을 반성하면서 학습의 내용보다는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교과 내용은 거의 정형화된 내용을 가지고 탐구 학습과 같은 방법만을 제공해 왔다. 이제는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 학습자에 제공되지 않았던 자료들(지나치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는 제외함이 마땅하지만)을 들추어내어 학습자의 탐구 의욕을 돋우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비록 국어의 계통에 대한 학습 내용에 있어 여러 가지의 학설이 있지만 이제 그 논의도 어느 정도 믿음직한 결과들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국어의 계통에 대한 학습에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어의 계통에 대한 학습의 효과는 지적인 측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역사적·문화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결국 국어의 계통 학습을 통한 학습의 효과는 우리 민족이면 가져야 할 민족적 소양을 갖추는 한편, 국어의 변천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국어 계통에 대한 기존의 업적들을 잘 정리하여 국어 교과 과정 속에 포함시키되 수학(修學)의 정도에 따라 몇 가지 단계를 설정함이 옳다. 기초 단계에서는 국어와 친족 관계에 있는 알타이 계통의 동계(同系) 언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것들이 어떻게 분화되어 어떠한 지리적 경로를 통해 한반도에서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의 소개에 그쳐도 좋다. 그러나 인지 수준이 높은 고학년의 경우에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의 수준으로 교과 내용이 편성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비교 연구의 방법과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옛날 언어들을 재구(reconstruction)하는 실제

의 과정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내용의 소개도 좀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삼국 시대의 언어인 고구려어와 백제어와 신라어의 차이점에 대한 소개도 실제 예를 중심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단계별로 난이도가 조정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고등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국어의 계통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지에 대한 교양적 수준의 지식을 갖추게 된다. 자국어의 형성에 대한 이해는 한 국민의 인문학적 교양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양 있는 국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한 목표라면, ‘국어 계통에 대한 이해’를 국어 교과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⁵²⁾

4.2.2.2. 국어의 형성

국어의 형성에 대한 학습의 필요도 위와 비슷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국어의 변천 과정을 통하여 우리말이 변해 온 자취를 담을 수 있음은 물론 그 면면에 흐르는 민족의 정신을 학습하는 길이기도 하다. 물론 국어의 형성에 대한 논의가 음운·어휘·의미·문법 등의 각 분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어의 변천사에 대한 시대 구분은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52)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초적인 원리는 내용의 난이도와 상세화 정도를 학생들의 인지 발달 과정에 어울리게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있다. 지리적인 민족의 이동 과정과 민족어 형성의 개괄적 내용의 소개가 초보 단계의 문제라면 어떤 방법으로 그와 같은 사실들을 밝힐 수 있었는지, 말하자면 민족어 형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좀더 고급 단계의 문제다. 설명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비교 언어학의 기초적인 연구 방법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친족 언어’의 개념이라든지 ‘재구’하는 방법 등은 수학의 통계 이론이나 물리의 운동 원리에 비해 특별히 전문적이어서 고등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한 내용은 아니다. 이와 같이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설명 과정을 국어 교육의 내용 속에 포함시킨다면, 국어 수업 시간에도 탐구 학습 활동이나 토론 학습 활동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옥 (1998:105)

에 없다. 만일 국어의 형성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가⁵³⁾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학습하게 하지 않는다면, 선인들이 사용했던 우리말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함은 물론 훈민정음의 정통성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키는 데에도 한계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의 형성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국어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어의 형성을 이해하게 하는 길이다.⁵⁴⁾ 또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국어의 정체와 그 본질을 깨닫고 국어를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을 길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의 흐름을 계승하고 민족의 영속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어의 형성에 대한 시대 구분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한 역사의 흐름을 좇아 그 시기를 구분한 내용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학습하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국어 형성사의 시대 구분 문제는 그 언어 자체의 획기적인 변화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의 인식이다. 즉 국어의 변천사를 고대 국어, 중세 국어(전기 중세 국어, 후기 중세 국어), 근대 국

53) 현재까지 한국어의 형성 과정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달리 연구되어 왔다. 신라어가 바탕이 되어 고려 중언어가 형성되고 중세 국어, 근대 국어로 이어져 지금의 현대 국어로 이어졌다는 이기문 중심의 ‘신라어 근간설’과 이를 비판하여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는 만주와 한반도였으며 그때에 가장 먼저 거대한 국가를 이룬 고구려어를 바탕으로 지금의 국어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북한학자들 중심의 ‘고구려 근간설’과 한강 유역의 경기 지방을 1201년 동안 다스리던 마한어, 백제어가 고려 중언어에 연결되고 그것이 중세 국어의 바탕을 이루며 근대 국어로 이어져서 오늘의 현대 국어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최기호 중심의 ‘백제어 근간설’이 대표적이다.

54) 고등 학교 국어 (하) 교과서의 국어사 시대 구분은 이기문(1961, 1972, 國語史概說)의 시대 구분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등 학교 국어 (하) 교사용 지도서(2005:58)에서는 이에 대하여 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주요 학자들의 시대 구분만 보아도 다양하며, 특히 임진왜란 직후의 17세기부터 근대로 보는 것도 ‘근대’라는 용어가 국사나 문학사의 ‘근대’와도 달라 비판받는 부분이므로, 국어 교과서의 시대 구분은 절대적 구분이 아님을 알고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시대 구분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 현대 국어 등의 시대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은 학습자에게 국어의 변천사에 잘못된 이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의 변천사에 대한 시대 구분의 여러 논의를 참고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2.3 훈민정음 이전의 문자

훈민정음 이전의 표기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은 우리 문자의 발달 과정사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내용이 된다.

그림 문자에 대한 흔적을 한반도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문자 생활은 한자의 수입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한자는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이므로 우리의 조상들이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기에는 적잖은 곤란이 있었다. 중국어와 우리말은 어순이 다르므로 중국어 어순에 따른 한자의 배열 순서를 우리말 어순으로 변형시킨 것이 ‘서기체(誓記體)’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은 한자의 소리값을 이용하여, 우리말의 문법 형태(조사·어미류)들을 표기할 수 있는 ‘이두(吏讀)’를 고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을 위해서 우리 고유의 독특한 원리 체계(訓主音蹤, 一字一音 등)에 의해서 ‘향찰(鄉札)’을 만들었다.

우리말 표현을 위한 우리 조상들의 문자 체계(서기체, 이두, 향찰) 외에도 당시의 문화선진국이었던 중국의 글(한문)을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조상들은 ‘구결(口訣)’을 만들었다. 한자의 소리 값을 이용하여 우리말 문법 형태들을 표기한 것이 구결이다. 이것들을 한문에 현토(懸吐)함으로써 한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이용하였다. 구결의 체계도 초기의 ‘석독구결’을 비롯하여 ‘음독구결’에 이르기까지 자못 체계적인 변천의 과정을

거쳤다. 고려 시대에서 볼 수 있는 구결 문자는 한자가 지니는 표의적 성격에서 벗어나 표음적 성격을 지닌 ‘음절 문자’였다. 이러한 음절 문자의 사용이 음소 문자의 창제에 이르는 징검다리였던 것이다. 이러한 차자 표기는 우리 문자 생활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해 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고대 및 전기 중세 국어의 어휘 자료로 활용되는 차자 표기들 가운데 고유명사 표기에 관한 것이나, 『향약구급방』에 기록된 식물, 동물, 광물 등의 이름과 같이 화석화된 국어(화석 언어)의 모습은 오늘날에 사용되는 말과 비교하여 우리 국어의 옛 모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국어사 자료는 한문 자료를 제외하고 모두 차자 표기 자료이기 때문에 국어사 연구에서 이 시기의 차자 표기는 바로 훈민정음으로 이어지는 선조들의 국어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결국 우리 민족의 문자 발달사란 ‘한자의 수용과 극복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자의 사용에 대한 문법적인 극복의 결과가 이두, 향찰, 구결 등이라면, 음운적인 극복의 결과가 훈민정음이다. 문자란 말을 담는 그릇이다. 말 속에서 민족의 빛나는 정신과 문화유산들이 배어 있기에, 문자 체계에 대한 이해가 말과 정신과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조상들이 사용한 문자의 변화·발달 과정을 이해함에 따라 국어의 특징을 보다 실증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문자사의 이해가 국어 교육 속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문자사에 대한 이해가 기초적인 지식인만큼, 다른 영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향가’의 경우를 살펴보자. ‘향가’의 번역이나 해석은 향찰이라는 문자 체계의 이해에서 비롯된다. 물론 향찰을 몰라도 그것을 현대 국어로 잘 번역하여 가르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번역본으

로는 고전의 진미를 느끼기란 쉽지 않다. 물론 원문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번역본에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표기의 원리나 자구 해석의 운곽이 향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들을 적절히 종합하고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⁵⁵⁾

결국 차자 표기에 대한 교육은 훈민정음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들의 국어 의식이 어떠한지를 살필 수 있는 것이 되며, 또한 그러한 문자 체계가 훈민정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학습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따라서 다소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학습자의 인지 발달에 따른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지도한다면 그 교육적 효과는 자못 클 것이다.

초보 단계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문자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테면 문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을 소개한 후에 서기체의 특징, 이두 문자의 성립 등을 가르친다. 이러한 단계의 학습이 끝나면 이두문의 실제, 향찰의 해독 원리 등을 배우게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 향가 해독의 과정 등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해독을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 다음으로는 구결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구결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구결의 변화 과정이 어떠한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학년별로 단계를 설

55) 가령, 박창원(1997, 「향찰과 향가」, 『새국어생활』 7권 3호, 국립국어연구원)은 향찰 표기의 기본 원리나 우리 조상들의 문자 체계나 문자 발달사를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쓰여진 글이다. 이 글을 통하여 독자들은 조상들이 왜 서기체나 향찰이나 이두와 같은 문자 체계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러한 체계를 이루는 기본 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글에 대한 수집·정리를 통하여 향가의 원문 해독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김영옥 (1998:107)

정하고 그에 따른 학습 목표에 의해서 국어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조상들의 문자 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왜 이러한 문자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가? 이러한 문자 체계가 우리의 언어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등의 여러 가지 호기심과 그 호기심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수업이 살아 있는 국어 수업이다. 이를테면, 해독 원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원문 해독이 교사에 의해서 풀어지고 학생들이 직접 해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업, 이러한 수업들을 통하여 우리는 국어사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4.2.2.4. 훈민정음

훈민정음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국어학자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이견이 없을 정도로 국어사 교육에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훈민정음에 대한 교육 내용이 과연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교과서에 훈민정음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적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교육 현장에서 그에 대한 교육의 수준은 자의적(恣意的)인 해석에 그치고 한문으로 된 내용과 함께 암기하는 형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이유로 국어사 교육에 대한 비판의 정도도 높아져 왔다. 또한 그 제자(制字) 원리도 다분히 시험을 의식한 학습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피상적인 교수 방법과 평가 방법의 잘못된 관행은 지적 호기심이 가득한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버거우며, 오히려 훈민정음 학습에 대한 부담이 이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을 교육하는 가치는 훈민정음의 내용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훈민

정음의 국어사적인 위치와 그 가치를 교육함에 있다. 학습자들에게 훈민정음의 가치와 한글의 우수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훈민정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학습자들에게 자료로서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을 이해하게 하고,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한 논의들, 창제 과정에 빚어진 일 등을 교과서의 내용으로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훈민정음의 실제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교과서에서처럼 훈민정음의 원문만을 실어 놓고 이를 해석하게 하는 식의 지적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훈민정음의 가치와 그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최만리 등의 반대 상소문도 게재하고,⁵⁶⁾ 이에 대한 자료 학습 내지는 토의 학습을 통하여 훈민정음의 진정한 창제 의의를 학습하고, 나아가 그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글의 정통성 및 그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2.2.5. 국어 생활

국어 생활에서 관용어(속담, 방언, 수수께끼, 금언 등), 어원, 지명, 새말의 탐구는 국어사의 한 분야인 어휘의 변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크게 보아 이러한 내용은 국어사 교육 영역을 넘어서 국어 지식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기는 하지만, 국어 생활의 내용을 국어사 교육의 한 부분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어휘마다 고유의 역사와 정신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보다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사 교육의 교육적 의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조상들의 국어 사용 의식, 표현 방식, 국어의 사용과 관련한 태도 등을 살필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

56)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 내용은 현 7차 중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3. 판단하며 읽기’의 소단원 ‘(1) 훈민정음 완성되다’에 실려 있다.

때문이기도 하다. ‘관용어’는 우리 민족의 언어생활에 묻어 있는 언어적인 기지, 생활, 문화, 사상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꾸준히 사용되는 살아 있는 조상들의 표현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교육적 효과를 논할 수 있다. 이 중에 방언은 실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언어재를 통하여 우리말의 뿌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교육적 자료이다. 이외의 관용어에 대한 학습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국어 사용에 있어 보다 정확한 상황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학습 내용이 된다. ‘어원’에 대한 학습은 말의 근원을 파헤치고 그 말이 형성된 연유를 알게 됨으로써 그 말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더욱 올바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새말의 탐구’는 오늘날 외국어의 범람 속에서 우리말을 지키고 잘 보존하고, 국어를 순화·발전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그 교육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지명’은 우리 조상들의 얼이 서려 있기에 민족의 얼을 새기고 소멸해 가는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교육적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해진다. 지명(地名)이란 우리 국어에서 토착성과 보수성이 가장 강한 언어 자료이다. 이러한 지명에 대한 학습은 오늘날 같이 외래어나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언어의 사용이 혼란을 겪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올바른 언어 생활은 물론 지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바로 우리 민족의 얼을 지키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국어사 자료이므로 이를 수업 현장에 접목하여 지도한다면 그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나 애향심을 가지게 할 수도 있으며, 학습자 자신과 관련된 지역의 이름이기에 학습자의 흥미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의 내용들이 국어사 교육 내용으로서 그 교

육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이 국어사 교육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1. 국어의 이해

- 국어의 계통
- 국어의 형성

2. 문자의 이해

- 훈민정음 이전의 문자
- 훈민정음

3. 국어 생활의 이해

- 관용어 (속담, 방언, 수수께끼, 금언 등)
- 어원
- 지명
- 새말

이러한 국어사 교육 내용의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에 따라 그 학습의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어 교육학적 논의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수준에 따라 저학년에게는 ‘3. 국어 생활의 이해’를 접목하여 실제 학습자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언어재를 통하여 국어 사용에 있어 보다 친숙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국어의 계통’, ‘국어의 형성’, ‘훈민정음 이전의 문자’, ‘훈민정음’ 등을 차례로 학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4.3. 교수·학습 방법

지금까지의 국어사 수업은 국어의 역사에 대한 글을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들은 이를 암기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수업의 말미에 토론이나 토의 과제가 주어지기는 하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로 인해 국어사 수업은 지루하고 건조한 수업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이를 탈피하려면 국어사 수업 역시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수업의 효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국어사 교육의 내용은 대체로 지식, 지식의 적용 내지는 활용, 태도 형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에 맞게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이 국어의 역사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만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간의 국어사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도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역할 놀이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말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게 하는 것이다. 이도령과 춘향이가 되어 그 시대의 말로 사랑 고백을 하게 하거나, 향찰 표기를 이용하여 글을 쓰게 하거나, 삼국 시대의 고구려·백제·신라 장군들이 되어 회의를 하게 하는 등 학생들이 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어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의 역사가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현실의 언어란 사회 문화적인 변이와 역사적인 변화가 공존

하는 복합적인 존재라는 점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국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예들을 조사하게 하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사회·문화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언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거나 학생들의 국어 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어사 수업의 자료는 그 속성상 옛날의 문헌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현재의 언어 자료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사는 지역의 방언이나 지명 이름, 지역 문화재에 남아 있는 언어의 흔적, 노인들이 사용하는 말, 텔레비전·라디오·신문 등에 나오는 국어사와 관련된 자료 등을 수업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어의 역사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넷째, 국어사 지식이 우리의 국어 생활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안고 있는 언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보다 더 쉽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찾는 등 국어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어사 지식이 필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선조들의 언어관·표현 방식·언어 예절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더 나은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이나 토의를 하면 좋을 것이다.⁵⁷⁾

제7차 교육 과정에서 국어과 교육의 최종 도달점은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의 향상이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육 과정에서는 탐구 학습

57) 이도영 (1999:324)

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교육 과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어 지식의 학습 방법인 탐구 학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⁵⁸⁾

4.3.1. 탐구 학습과 언어 지식

국어 지식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탐구 학습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것은 김광해(1997)이다. 김광해(1999)는 『국어 지식 교육론』의 국어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언어 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하여 ‘탐구 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다.

탐구 학습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식 자체를 교수·학습하는 것보다는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을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언어 지식의 교수·학습을 위하여 탐구 학습의 방법을 도입하고자 함은 아래와 같은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언어 현상은 다른 자연 과학 등과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탐구 대상의 하나가 된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과학이나 사회 현상 같은 데에 흥미를

58) 국어 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면 국어 지식 지도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연역적인 접근법과 귀납적인 접근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지도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교육 과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어지식 교육에서 국어 지식 자체보다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자료로부터 지식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 따라 과거에는 연역적 교수 방법이 보다 많이 이루어졌으나, 현재에는 탐구 학습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귀납적 방법이 선호된다. 그러나 항상 탐구 학습이 효과적이거나 모든 영역에 똑같은 모형을 적용하기가 어려우며, 현장에서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어 지식 지도는 각 방법의 장점을 살려 적절하게 복합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국어 지식의 어떤 항목을 지도하는가에 따라 지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 내용에 따라 국어 지식 항목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적절하게 세부적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귀영 (2003:58~59)

보이고 있는 것처럼 언어 현상에도 흥미를 보일 수 있다. 언어 지식 교육은 이러한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교수·학습의 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은 결국 사고 능력의 훈련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주입식·설명식 방법으로는 사고 능력을 적절하게 육성시키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탐구학습의 도입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사고 훈련 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시킴으로써 사고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할 수가 있다.

둘째, 언어와 국어의 이해 부분에 탐구 학습 방법이 잘 적용된다. 언어 지식 영역은 그 탐구의 대상이 언어 및 국어 현상이기 때문에 이 전략으로 접근하는 일이 비교적 쉽다. 실제로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언어 지식들은 언젠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몰두했던 연구자들이 탐구해 낸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셋째, 언어 현상에 대한 탐구 과정은 우리말의 문법 현상에 대해 몸소 관심을 가져보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국어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 실제 경험을 통해 우리말을 이해하는 경험은 궁극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말에 대한 태도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시켜 줄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심을 가져 본 경험이 그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은 교육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탐구 학습 방법은 언어를 자료로 하여 학습자들의 과학 구성 능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고력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언어 현상을 재로로 하여 그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답을 구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탐구 능력, 즉 과학 구성 능력(science-forming capacity)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탐구 학습은 학습자들이 언어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고 처리

하는 실제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경험 과학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탐구 활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의 실험과는 달리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능력, 혹은 자신이 직접 만들 낸 언어 자료를 탐구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3.2. 탐구 학습의 개념

탐구 학습이란 학습의 한 방법으로서, 경험 과정을 통하여 의미를 찾아내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전략이다. 바꿔 말해 이는 어떤 의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해답을 찾아내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한 학습 방법이다. 탐구의 목표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새로운 직관을 얻는 것이고 문제를 푸는 것이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탐구 학습은 교사나 연구자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나 질문 그 자체를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는 탐구가 문헌 연구와 같은 뜻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탐구 학습에는 이러한 생각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

탐구 과정이란 과거에 인류가 지식을 발견하여 온 과정 그 자체와 매우 유사하다.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 곧 탐구심이 강한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탐구의 대상이 된다. 이를 잘 관찰하여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그 현상을 이해하며 설명한다. 이것이 바로 탐구의 과정이다. 탐구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흥미진진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탐구의 결과는 실생활에 응용되어 생산적인 성과로 연결되기도 한다. 즉 탐구 학습은 체계적인 사고를 훈련하는 학습 방법으로서, ‘주

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 새로운 직관을 얻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탐구 학습은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을 발견하는 경험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 지금까지 제안되고 검토된 교육학 연구 성과에 의하면 이 학습 방법을 통해서 지식 발견의 절차를 의식적 체계적으로 경험시킬 수 있으며, 지식을 쉽게 전이되도록 할 수 있다.⁵⁹⁾ 그동안 국어과 교수·학습에서는 물론 언어지식 영역에서도 탐구 학습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해 왔다. 그러나 적어도 언어 지식 영역에서는 현장 수업의 전략으로서 탐구 수업을 탐구의 특성과 연결시켜서 수업 목표로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언어 지식(문법) 교육에서는 이 같은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문제에 생각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을 주로 설명식, 주입식 수업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문법 관련 지식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다루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들 중에서 탐구 방법에 의한 수업은 큰 잠재력을 가진 방법, 즉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힘을 가진 방법이다.

정리하면, 탐구 학습이란 학습의 한 방법으로써, 경험 과정을 통하여 의미를 찾아내며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전략이고,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을 발견하도록 경험시켜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어 및 언어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터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탐구 학습이며, 학생들은 탐구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곧

59) 이흥우(1987:21)에서는 학습이 쓸모 있게 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논하였다. 하나는 '특수적 전이'로 주로 기술에 국한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적 전이'로서 이는 원리와 태도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부연하면 이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아이디어로서 부단히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깊이를 심화하는 것'이다. 김광해 (1997), 각주 38) 재인용.

탐구 학습 과정으로, 기존의 강의식·설명식·주입식 방법의 수업과는 달리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학습이라고 할 것이다.

4.3.3. 탐구 학습의 필요성 및 효과

탐구 학습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탐구 방법을 통하여 지식을 얻는 것이 왜 유익한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지식 자체가 안고 있는 성격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또한 그 지식 자체도 불완전하며, 또한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지식 자체의 학습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발견해 낼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지고 교육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탐구 학습은 바로 이런 관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학습 방법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직접 경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된 지식은 더욱 강력하게 내면화될 수 있으며, 흥미로운 탐구의 경험은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 지식 교수·학습에서 탐구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내는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능력은 실제 자료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언어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잘못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바르게 교정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 주는 능력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언어 문제에 관한 바람직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국어에 대한 탐구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국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을 것이며, 국어 및 언어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 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해갈 것이다.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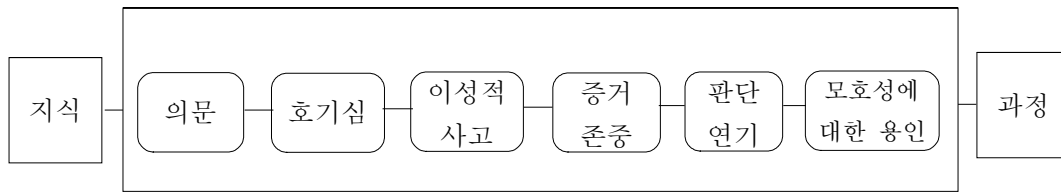
4.3.4. 탐구 학습의 기본 구성 요소 및 과정

탐구 학습을 구성하는 요소는 ‘지식, 태도, 과정’의 세 가지이다.

먼저 ‘지식’이란 탐구 활동의 주제가 되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교육 계획에 의하여 사전에 준비되는 것이 보통이다. ‘태도’는 탐구 활동 시 갖추어야 할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의문, 호기심, 이성적 사고, 증거 존중, 판단의 연기, 모호성에 대한 용인’ 등과 같은 덕목이 이에 속한다. ‘과정’은 수많은 관련 행위들로 구성되는데, 이 일련의 행위들에는 각각 특별한 인지 작용들이 포함된다. 탐구 학습은 학습자들의 활동과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특히 이 과정이 중요하다.

60) 국어 지식 교육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국어 알기’로서 국어의 이해를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식 요소들을 제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학습 방법인 이른바 ‘탐구 학습’이 도입된다. 다른 하나는 ‘국어 가꾸기’로서, 국어 생활에 관련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바른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일, 문화 유산으로서의 국어를 유지·보존하는 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은 국어 교육의 다른 영역, 즉 문학 영역은 물론 기능 영역 등에서도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국어 지식 영역의 독자성을 뒷받침하여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이 두 내용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국어를 잘 앎으로써 국어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고, 거꾸로 국어에 대한 태도가 적절히 형성되면 이는 다시 국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 학교 교사용 지도서 문법(2006:16)



탐구 학습의 교수·학습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⁶¹⁾

1) 문제의 정의: 탐구 과정에서 처리할 목표를 쉬운 말로 정의하고 한계를 설정하여 명확히 하는 일이다. 무엇을 탐구하려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을 가지지 못하면 성공적인 탐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가설의 설정: 가설이란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이나 대안이 될 만한 해결책을 말한다. 목표가 명확한 상태라면 가설도 이미 어느 정도는 설정된 경우가 많다. 가설을 세우거나 결론을 추정하는 일은 탐구자의 기존 지식과 많은 연관 관계를 가지며 앞으로 이어질 탐구 과정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3) 가설의 검증: 일단 가설이 설정되면, 수집한 정보나 증거들을 통하여 가설이 검증되어야 한다. 자료의 수집, 자료의 평가, 자료의 분석 등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⁶²⁾

61) 이러한 탐구 과정은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점, 결론은 언제나 재검토와 재검증이 가능하며 반론에 대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총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탐구 수업은 반드시 따라야 할 형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으므로, 한가지로 고정된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교사가 창의적으로 수업을 유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62) 초·중·고등 학교의 교육 현장에 탐구 학습을 실제로 도입,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 관한 대책이 적절히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와 목표에 따라 용의주도하게 구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고, 이를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 즉 교육 과정이 요구하는 지식 체계, 수업 시수, 학생들의 발달 단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육 현실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김광해(1997:), 각주 44) 재인용.

4) 결론의 도출: 가설을 검증하여 내린 최종적 결정 사항이 결론이다. 증거를 바탕으로 가설의 타당성을 살피도록 학습자들을 지도한다. 만약 증거가 처음의 가설을 뒷받침한다면 가설이 곧 결론이 된다. 그러나 가설이 부분적으로만 옳다고 판단되었다면, 가설을 수정하여 새로운 결론을 만든다. 한편 증거가 가설과 상치된다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이를 다시 검증하여야 한다.

5) 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 일반화란 탐구 과정을 통하여 얻어 낸 결론이 새로운 상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말한다. 결론이 새로운 상황에도 적용되어야만 탐구 과정이 성공한 것이므로 이는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자료에 잘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론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위 1)~4)의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적용의 과정을 통하여 결론이 일반화될 수 있다면 탐구 학습의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3.5. 탐구 학습의 기법

탐구 수업에는 다양한 수업 기술이 동원될 수 있다. 구두 보고, 문어, 구어 조사 연구, 모의 활동, 토론 등 모든 것이 탐구를 위한 자료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강의나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조차도 탐구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4.3.5.1. 강의와 질문 방법

학습자가 아직 탐구 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지 못한 단계에서 교사는 부분적으로는 강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탐구를 위한 질문은 일방적

수업과 달리 가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나?
- 이 자료는 무엇을 알 수 있게 하여 주는가?
- 이 자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발견된 공통점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등과 같이 문제를 인지하는 데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적인 탐구의 전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를 인도함으로써 학습이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질문을 통해서 탐구 과정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사가 탐구 제재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교사들에게 이러한 수준을 기대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탐구 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제재별로 수합,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4.3.5.2. 지적 호기심과 질문 유발 방법

탐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학습자 스스로가 강한 호기심과 의문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교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해답을 내보이지 않으면서 학습자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안내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 학습자를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된다. 어떤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의문도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의문을 떠올리는 일 자체가 가지는 생산적 가치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상황에 따라

- 이제까지 진행해 온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 가장 흥미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 이제까지의 논의를 어떻게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 이 자료들을 관찰한 결과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그 핵심적 공통점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통하여 학습자가 탐구에 참여하도록 적절하게 유도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탐구 학습에서 사용되는 접근법에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 경험의 배경,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고려하여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다.

4.3.6. 교사의 태도

탐구 학습에서 교사가 취할 역할과 태도는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⁶³⁾

- 첫째, 많은 자료를 준비한다.
- 둘째, 최종적이거나 절대적인 답변을 주지 않는다.
- 셋째, 학생과 함께 탐구함으로써 흥미를 강화한다.
- 넷째, 학생들의 질문 방향 교정에 힘쓴다.
- 다섯째, 적절한 단계에 보상을 제공한다.
- 여섯째, 공평함을 유지한다.

이 때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 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실험 연구들을 참조할 때 어느

63)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상 일선 교사들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실천할 수는 없다. 일정한 교육 지원 기관에서 탐구 주제 및 과정, 그에 필요한 자료, 적절한 유도 방법 등을 적절한 교사용 안내서의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정세구, 1987:40~42). 김광해 (1997), 각주 45) 재인용.

정도의 적절한 정보와 방향을 미리 제공하여 주는 것이 발견 학습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⁶⁴⁾

교사 입장에서 탐구 수업이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쉬운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신비스럽거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영감에 의한 수업이거나 몽상적 수업 방식도 아니다. 전술한 언어지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탐구 수업은 차라리 정확한 교수 방법이다. 또한 이 방법의 장점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생산적이고 흥미가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이 방법이 교사의 성의에 따라서 효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그것은 어떤 교수법을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3.7. 탐구 학습의 문제점

탐구 학습은 대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우선 탐구 수업의 실천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간단한 지식 하나를 전달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이 주입식 방법과 비교하여 볼 때 너무 길기 때문에 소모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현재 교육 과정의 언어 지식 영역에서 요구하는 상당량의 학습 내용을 모두 탐구 방식으로 다루는 일은 불가능하고, 실제로 탐구 방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제재도 있다. 따라서 탐구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지식을 잘 선정하고,⁶⁵⁾ 제한된 선에서 해

64)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 연구의 결과가 참조된다(Currie, 1973, p.87).

Wittrock(1963)에서는 '기호 해독'을 소재로 하여 4가지 그룹을 만들어 실험하였다. ① 규칙도 주고 해답도 준 그룹 ② 규칙은 주고 해답은 안 준 그룹 ③ 해답만 준 그룹 ④ 규칙, 해답을 모두 안 준 그룹에서 가장 효과적인 최초 학습이 일어난 것은 ①그룹이었고, 그 효과가 가장 적었던 것은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 준 그룹 즉 ④그룹이었다. 장기적 학습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조건은 중간 수준의 정보를 준 그룹, 즉 ②와 ③이었다. 김광해(1997:124)

65) 이때, 탐구 주제의 선정 조건으로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초·중·

당 수업을 탐구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잘못된 가설을 세우는 학습자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다. 교사는 전체적인 목표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에 용의주도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학생의 지적 수준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탐구를 수행할 만큼 많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탐구 수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너무 뒤쳐지는 학습자들은 탐구 활동 자체를 수행해 낼 수 없기도 하고, 반면에 너무 앞장서 나가는 학습자들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 절차를 지루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탐구 수업을 너무 신비한 것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대안도 없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주입식 방법을 고수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다른 많은 영역에서 탐구 방법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탐구 학습의 취지나 장점을 부분적으로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국어 지식의 교수·학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곧 국어 지식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국어 사용 능력의 향상이라고 할 때, 탐구 학습의 절대화로 국어 지식 교육을 ‘...을 알기’위한 지적 탐구 학습으로만 기울지 않도록 지적 탐구 활동과 함께 교사가 현실 언어 자료와 언어 관련 문제들을 최대한 탐구 자료로 풍부하게 제시하여 실용성을 높이는 국어 지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의 문법 교육이 대학 국어학 지식의 축소판 같은 인상을 주어 그것을 개선하자는 것이 7차 국어 지식 교육의 목표인데 지적 활동과 탐구 학습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과거의 국어학 지식 교육

고등 학교 별로 학습자의 발달 단계 ② 다른 주제들과의 관련성 ③ 주제가 가진 가치 - 다양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④ 후속 학습을 위한 활용 가능성 김광혜 (1997), 각주 47) 재인용.

을 6차까지는 ‘주입식’으로 배우던 것을 7차에는 ‘탐구식’으로 배우는 것에 불과하여 별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5. 국어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고려한 훈민정음 교수 · 학습법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국어사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본고에서는 실제적인 국어사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 학교 국어 (하) 교과서의 1단원 ‘국어가 걸어 온 길’로 범위를 한정하고, 이 가운데 소단원 ‘(2) 중세 국어’에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 예의 부분과 보충 학습에 제시된 본문 내용을 대상으로 목표와 교육 내용 그리고 바람직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5.1. 목표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 속해있는 소단원 ‘(2) 중세 국어’의 제재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어지(御旨) 부분을 언해(諺解)한 ‘세종 어제 훈민정음’을 제시하여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게 하였고, 16세기에 간행된 ‘소학언해’를 통해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국어의 모습과 달라진 점을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2) 중세 국어’ 단원은 중세 국어의 기본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세 국어 시기에 우리는 국어의 전면적 문자화라는 숙원을 훈

민정음의 창제로 달성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 한자 차용 표기법들로 우리 국어를 표기하려던 노력이 훈민정음의 창제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훈민정음은 그 독창성과 과학성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말을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는 훈민정음과 그것으로 표기된 옛 국어의 자료를 매개로 우리는 중세 국어의 모습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 및 과학성을 이해하게 하고, 현대 국어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이 현대 국어의 특징과 어떻게 다른지 음운, 문법, 표기법 등의 분야에 걸쳐 능동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15세기 국어의 특징과 16세기 국어의 특징의 차이를 문헌 자료들을 기반으로 학생 스스로가 찾아 내게 하여 국어의 변화 모습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을 ‘1. 국어가 걸어온 길’ ‘(2) 중세 국어’ 단원 속에서 그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어의 역사를 안다.

- 국어의 역사는 곧 우리 민족의 역사이다. 국어의 뿌리, 계통, 형성 과정 등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나. 국어의 음운 · 문법 · 의미 · 표기법의 시대별 변화상을 안다.

- 국어가 여러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추적함으로써 통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국어를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다. 국어의 변화 과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 언어는 문화이며 생활 자체이다. 지금의 국어가 옛 국어의 잔영이며 동시에 변화의 결과물임을 고려할 때, 현대 국어와 비교하면서 국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면 국어의 지속적인 변화상을 더 뚜렷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읽는다.

- 우리는 옛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국어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를 읽거나 낭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국어의 변화상을 아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 관련 교육 과정 내용

[10-듣-(2)]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듣는다.

[10-읽-(2)]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글을 읽는다.

[10-국지-(2)]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

5.2. 훈민정음 교육 내용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문화사적으로 큰 사건이다. 국어의 전면적 표기화로서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의 국어 생활을 생생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한문화권에 자리하고 있었던 탓으로 일찍이 한문화의 받아 들여 소화하는 과정에서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빌어 향찰과 이두와 같은 한자 차용 체계를 창안하여 문자 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남의 문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1,500년에 걸쳐 시험하여 본 차자표기법이 중국어와 언어 구조가 다른 한국어를 표기하는 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이 조선시대에 들어와 새로운 문자 창제의 동기가 되었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취지, 자모의 음가, 자모의 운용, 음절 이루기와 성조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훈민정

음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5.2.1.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 및 동기

훈민정음을 만든 동기는 『훈민정음』의 서문과 ‘해례’의 정인지 서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훈민정음(訓民正音)’이란⁶⁶⁾ 이름에서 창제 동기를 귀납할 수 있다. 즉,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한 데서 창제 동기와 훈민 정책의 통치 철학까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한학(漢學)지상인 당시의 시대적 환경에서 ‘국지어음(國之語音)’이나 ‘국어(國語)’ 등의 어휘를 사용한 것을 보더라도 훈민정음의 창제가 자주적인 언어 의식에 터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인지의 서문은 세종의 서문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두 서문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거의 같은 것인데, 세종 어제 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문자(漢字)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이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

첫째, 국어는 중국어와 다르므로 한자로는 잘 통하지 않는다.

66) 『월인석보(月印釋譜)』 권 1 첫 머리에 “訓은 마르칠 씨오 민은 백성이오 음은 소리니 訓民正音은 백성 마르치시는 正훈 소리라”라고 했다.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 한자로써는 통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평범한 일 같기도 하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이런 명시적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일이다. 여기에는 민족의 언어에 대한 독자적 인식이 나타나 있으며 깊은 언어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자는 표의 문자로서 자획이 복잡하여 익히기에도 힘들 뿐 아니라 중국어와 같은 고립어(孤立語)에는 적당하나 국어와 같은 교착어(膠着語)에는 맞지 않았다.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 국어의 조사나 활용어미에 맞도록 이두(吏讀)를 만들어 써 보기도 하고, 향찰(鄉札)로써 향가(鄉歌)를 적어보기도 하고, 글자의 배열을 국어의 어순에 맞도록 적은 초기의 이두인 서기체(誓記體) 등을 써 보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한자 차용 체계로써는 국어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정인지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지자연의 소리(聲)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文)이 있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자연환경)가 다르며 사람의 말소리의 기운(聲氣)도 이에 따라 다르다. 중국 이외의 외국어는 중국어와 다른 그 말의 음이 있으나 그 음을 기록할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어서, 어찌 능히 통달해서 막힘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요(要)는 각각 그 처해 있는 바를 따라 편의케 할 것이요 억지로 똑같이 할 것이 아니다.⁶⁷⁾ ... 우리 동방은 ... 이어(里語)가 중국

67) 첫 번째 구절에서는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문자가 생긴다고 전제하고 이어 중국의 한자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생겼기 때문에 후세 사람이 이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하였다. 두 번째 구절에서는 자연 환경이 다르면 음이 달라 필연적으로 이에 맞는 글자가 필요한데 중국 밖의 외국어는 중국 글자를 빌려 사용하므로 의사소통에 막힘이 없으니 사는 곳에 따라 문자를 따로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일종의 언어풍토설(言語風土說)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의 음운 체계가 중국어와 달라 새로운 문자를 만들 수 없다는 세종대왕의 문자 창제 목적을 언어 철학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이러한 언어 철학은 그 뒤에 나온 언어 관계의 모든 저술에 되풀이되어 있는 중세 한국인의 언어 철학이었다. 고영근 (2003:19~20)

과 같지 않다. ... 옛날 신라의 설총이 비로소 이두(吏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관부와 민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를 쓰고 있으나, 모두가 한자를 빌려 쓴 것이어서 혹은 걸리고 혹은 막히어 다만 비루하여 궁색할 뿐만 아니라 말 사이에 이르러서는 그 만분의 일도 잘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고한 언어 의식이 새 문자를 만들게 된 근본 동기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문자 생활을 하게 하는 데 있었다.

여기에는 백성들에게도 문자를 주어야 한다는 세조의 강한 신념이 나타나 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어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라고 한 것은 한자가 배우기가 어렵고, 언어와 문자의 이중 생활에서 오는 고통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정인지는 훈민정음 해례 서문에서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뜻을 익히기 어려움을 한탄하고, 형옥(刑獄)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병으로 생각했다.’ 라고 하여 한자·한문의 어려움 때문에 문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신문자(新文字)를 만듦에 대중적이며 실용적인 보편화를 기도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자가 수입된 지 수천 년이 되어도 한자·한문은 특권층의 전유물처럼 되어 왔고, 일반 백성들은 쉽게 제 뜻을 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익히기 쉽고 쓰기 쉬운 문자를 만들고자 한 기본 정신은 훈민(訓民) 정책으로서, 국민 교화(教化)의 정도(正道)를 실현하고자 한 원대한 이상에 터 잡고 있는 것이다.⁶⁸⁾

68) 세종 10년을 즈음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하려는 의도가 발현하였음을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하나 있다. 세종 10년에 진주의 ‘김화’ 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세종이 이 사실을 듣고 놀라면서 ‘세상 풍속이 박악(薄惡)하여 자식이 자식 노릇을 하지 않는 자도 있다. 효행록(孝行錄)을 지어 이런 어리석은 백성을 깨우쳐 주고자 하니 집현전이 이를 주관하라’ 고 하였다. 또 14년 음력 11월 7일 정사(政事)를 볼 때 ‘비록 사리

홍이섭(1973)은 훈민정음 창제 후의 세종의 치적을 통해 창제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은 인재 등용에 있어 훈민정음을 시험 보게 했다. 이는 『훈민정음 해례』가 완성된 지 3개월 후의 일이었으며, 또 한어(漢語) 학습상 필수 과목으로서 훈민정음을 학습하도록 한 기사들이 있다. 얼마나 훈민정음을 중시했는가를 추정케 하는 대목들이다. 농민들에게 과학적인 지식을 주기 위해 농사직설(農事直設)이나 잠서(蠶書) 같은 책을 펴내고, 일반 백성들을 위해 의약서(醫藥書) 등을 엮어 내기도 했다.

곧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문화 생활을 높이고자 하는 성군(聖君)으로서의 이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의의는 애민정신과 자주정신 그리고 실용정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애민정신은 유교의 근본사상인 ‘왕은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이념에 부합한다. 어제 서문에서 세종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자주정신과 실용정신은 현대적인 시각에서 내린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왜 만들었는가’라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세종 자신의 생각이라고 할 때 남는 것은 ‘애민정신’이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집현전 학사들에게 명하여 운서를 편찬하는 일이었다.⁶⁹⁾ 이때는 훈

(事理)를 아는 사람이라도 법률을 알아야 죄의 경중(輕重)을 알게 되거늘,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야 어찌 범죄의 경중을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법을 다 알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따로 이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적고 이두로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함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라고 좌우 신하들에게 언급한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그 기록이다. 이처럼 세종은 우민(愚民)을 교도(敎導)하기 위하여 여러 방편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등에 그림을 그려 글보다 앞에 넣기도 하고 이두로 번역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세종이 생각하는 바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자, 우리말에 적합한 새 글자를 만들어 우민을 깨우치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69) 1443년(세종 25) 12월에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은, 첫 사업으로서 이 새 글자를 가지고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에 대하여 주음하도록 명하였다. 1444년(세종26) 2월 16일 『세종실록』 기사에는 세종이 집현전 교리 최항, 부교리 박팽년, 부수찬 신숙주, 동

민정음이 창제되었다고 세상에 알려진지 한 달 보름만인 세종 26년(1444년) 음력 2월 16일이었다. 언문으로 운회를 번역하게 한 것은 바로 세종이 한글을 만든 목적이 애민 정신과 함께 한자음을 바르게 고쳐 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 예로 ‘ㅎ’은 국어표기에 필요가 없고 한자어에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훈민정음이 한자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창제(創製)한 문자의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한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등 각종 불교 관련 서적을 편찬하며 불경을 언해하게 한 것으로 미루어 ‘불교 중흥’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보기도 한다. 세종은 유학자이긴 했으나 종교는 불교였고, 그 당시 조선은 국교가 유교였으므로 비공식적인 불교 중흥의 방편으로써 말이다. 정답은 없지만 ‘애민(愛民)’, ‘한자음을 바르게 고쳐보고자’, ‘불교 중흥을 위함’ 이 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한글 창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5.2.2. 훈민정음 창제 과정 - 최만리 외 집현전 학사들의 반대 장소

세종의 훈민정음 제정이 언제부터 구상되었고 착수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세종실록

이선로, 동 이개, 돈녕부 주부 강희안 등에게 의사청(議事廳)에서 한글로 『운회』를 번역하도록 명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한어를 학습하려면 한어 자음(字音)을 한글로 기록하여 한어음(漢語音)을 익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음의 발음 사전인 운서 안의 한자들의 음을 한글로 기록하게 한 것이다. 그 대상으로 선정된 운서가 그 무렵에 조선에서 널리 쓰이던 『고금운회거요』였다. 그러나 이 사업이 완성되었다는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업은 중단되었던 것 같다. 그 대신 세종은 이 운서의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절까지 전해오고 있던 한국 한자음, 곧 전승(傳承) 한자음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동국정운(東國正韻)』을 편찬시켰다. 강신항 (2002)

『世宗實錄』에 의하면 세종 25년 12월조에 “이달에 임금께서 언문 28자를 친히 제정하셨다(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라고 기록했을 뿐, 그 경과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이 이처럼 미미하긴 하지만 남아 있는 기록과 세종대왕이 남긴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하여 추측해볼 수는 있다.

훈민정음이 제정되자 문자 창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현전과는 별도로 궁중에 언문청을 설치하고, 훈민정음의 보급과 이에 부수되는 문헌의 간행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해례와 같은 원리면의 연구도 여기에서 나온 듯하다. 이후 훈민정음과 관련된 기사는 44년 2월 『운회(韻會)』를 언해하고 같은 달에 최만리(崔萬理) 일파의 반대 상소에 부닥친다. 반대의 골자는 한자를 버리고 새 문자를 만듦이 사대모화(事大慕華)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선인이 만들어 놓은 운서를 뜯어 고치고 언문을 다는 것이 모두 무계(無稽)한 짓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45년 4월 『용비어천가』가 완성되고, 이듬해 3월 『석보상절(釋譜詳節)』의 언해를 명하였으며, 그 해 9월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이 이루어져 반포되고, 47년 9월 『동국정운』의 완성 및 『용비어천가』의 반포, 48년(세종 30) 11월 『동국정운』 반포, 55년(단종 3) 봄에 『홍무정운 역훈(譯訓)』 완성 등, 사업은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운회』를 번역한 것은 곧 『동국정운』의 편찬을 뜻하므로 그 사업은 이 무렵부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훈민정음 해례』의 작성은 아마도 1444년 최만리 일파의 반대 상소가 있는 직후부터 착수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 동안에 중국 운학(韻學)의 이론을 연구하고, 한편으로는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 등의 찬정(撰定)을 통하여 그 실제적 효용성을 실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자류(字類)를 추려 보면 처음 1443년에 제정하였던 28자를 훨씬 상회하

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운서 편찬 과정에서, 또는 국어 표기를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류가 더 요청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더 많은 글자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훈민정음은 더욱 같고 다듬어졌으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흠이 없는 것이 되었다고 믿기에 이르러 언문청에서 곧 간행에 착수, 46년(세종 28) 9월에 완성·반포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이나 최만리 등의 훈민정음 반대 상소문에 대한 힐문(詰問),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에서 볼 때 세종이 친히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세자에게 서연(書筵)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도록 하고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에게 금중(禁中)에서 강독하도록 하는 기록과 날마다 세자와 더불어 식사를 한 후 강론하게 했다는 기록에 비추어 훈민정음 창제를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세자와 두 대군이 아니겠는가 하고 추측하기도 한다.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고 세상에 알려진지 한 달 보름만인 세종 26년(1444) 음력 2월 16일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명하여 언문으로 운회를 번역하게 했는데 세자와 두 대군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 사실에서도 세자와 두 대군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옆에서 도운 이들이기에 세자 원리 등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서 관장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뒤에 밝혀지듯이 세종이 친히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창제 과정에는 반대론자들의 반발도 있었는데, 세종 실록 제103권 세종 26년 음력 2월 20일조에 의하면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6개조의 장문을 들어 반대 상소를 올린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대 모화(事大慕華)에 어긋나는 일이다.

둘째, 글자를 만들어 쓰는 일은 오랑캐가 되려는 일이다.

셋째, 쉬운 언문을 배움으로써 입신(立身)한다면 어렵게 한문을 배울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넷째, 억울한 죄를 없앤다 하나, 중국은 말과 글이 같아도 옥송(獄訟) 사이에 원왕(冤枉)한 것이 심히 많다.

다섯째, 여론을 무시한 독단이다.

여섯째, 동궁의 성학(星學)에 방해가 되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했던 반대론자들을 어떤 입장에서 볼 수 있는가라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상소로 인하여 최만리는 극단적 사대주의자이며 보수주의자로 비난 받았으며 반민족주의자로 낙인찍히기도 하였다. 반면에 최만리는 성격이 강직하고 청렴하여 청백리(淸白吏)로 추천된 사람이며 한글 창제의 협력자인바 그를 사대주의자 내지 반민족주의자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오해와 현대적 편견의 소치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최만리 등의 상소의 의미에 대하여 황선엽(2004)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최만리 등 같이 상소를 올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정음 제정의 반대 사유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대주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가적 이념이었으므로 그들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현대적인 입장에 선 것이다. 사대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세종과 최만리 등이 전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최만리 등을 사대주의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역사적 물이해에서 빚어지는 일이라 할 것이다.

최만리 등이 상소를 올리게 된 것은 앞서 보았듯이 『고금운회거요』를 번역하여 한글로 음을 달아 펴내도록 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급작스럽게 운서를 바꾸어 편찬하려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세종은 그대들이 운서를 아느냐

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바로잡겠느냐고 하였다. 『고금운회거요』에 어떠한 한자음을 붙였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다음 해인 1447년에 간행된 『동국정운』의 한자음과 거의 같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최만리 등은 당시의 현실 한자음을 바꾸어 중국 운서에 맞추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국정운식으로 한자음을 개신하려는 세종의 정책은 실패하였으니 최만리 등의 주장이 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을 놓고 최만리는 한글 창제의 협력자이며 그 상소는 한글 창제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한자음의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다소의 무리가 있다. 상소문에 분명히 이두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언문을 만들어 써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서두에서 한글은 지극히 신묘한 것이라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금에 대한 예우의 말이고 또 이 말이 훈민정음의 정인지서에도 그대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최만리 등의 말이 아니라 인용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최만리 등의 상소가 가지는 의의는 최만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한글 창제를 둘러싸고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으나 사료의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다수이다. 최만리 등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으나 상소를 올림으로써 그 상소의 내용을 통해 간접적이고 부족하게나마 당시에 한글 창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러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최만리 등의 상소가 없었다면 1443년 12월조 말미의 훈민정음 창제 기사와 같이 한글 창제 초기의 상황에 대해 극히 소략한 자료밖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한글의 대한 반대 상소문을 통해 최만리 등은 후대의 한글 연구에 있어 소중한 사료를 남겨 주었다고 하겠다.”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 대한 것은 훈민정음의 창제 경위와 세종대왕의 언어 정책 등과 관련하여 국어 수업에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한 토론 거리가 된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당시의 논의가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서 극명히 드러나는바, 왕과 신하 사이의 논쟁과 세종대왕의 합리적인 처결

등은 우리 민족의 지성사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일면을 있는 그대로 알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학습의 기초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한글을 이해하고 우리의 민족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학생들의 국어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5.2.3. 훈민정음의 창제자 - 훈민정음 친제론(親制論)

훈민정음 창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세종 25년(1443) 말(末)의 일이었다. 이 사실은 『세종실록』(권 102, 25년 12월 끝자리)에 기록되어 있고 『훈민정음』(세종 28년, 1446)의 정인지 서문에서도 확인되므로 조금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 25년 말(末)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확실한데, 그 때에 세종을 누가 도왔다거나 그의 명을 받아 이 일을 했음을 암시하는 기록은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집현전의 일부 학자가 훈민정음과 관련된 일에 참여했음을 말한 기록으로는 세종 26년(1444) 2월에 왕명으로 시작된 『운회(韻會)』의 번역이 처음이었다(세종실록 권103, 26년 2월 丙申). 집현전 대제학이었던 최만리 외 집현전 학사들이 올린 상소문에 대한 기록 또한 훈민정음이 다 만들어진 후에 실록에 등장하며, 상소문이 올라 온 그 시점 이전의 기록에는 훈민정음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다.

창제 당년(當年)의 문헌들은 한결같이 세종의 “친제(親制)”를 말하였다. 훈민정음에 관한 최초의 기록(세종실록 권102, 25년 12월 끝자리)이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 是謂訓民正音’

(이 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지으셨다. …… 이를 훈민정음이라 부른다.)

여기서, 혹시 그 시대에 모든 업적을 임금에게 돌리는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세종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 세종실록이 “친제(親制)”란 표현을 쓴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경우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친제”가 단순한 수사적(修辭的) 표현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한편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문 [세종 28년 9월 상한(上澣)]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癸亥冬 我殿下 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계해년(癸亥年) 겨울에 우리 전하(殿下)께서 정음(正音)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의(例義)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하여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셨다.]

심지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최만리 일파(一派)의 상소(上疏)(세종실록 권 103, 26년 2월 庚子)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음을 덧붙여 둔다.

‘臣等伏觀 諺文制作 至爲神妙 創物運智 出千古’

[신(臣)들이 엿드려 뵈옵건대 언문(諺文) 창제(創制)는 대단히 신묘(神妙)하와 창물운지(創物運智)가 천고(千古)에 나오나……]

비록 반대는 했지만 그들도 어제(御製)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세종 자신의 말은 그의 친제(親制)를 더욱 확신하게 한다. 우선 『훈민정

음』의 어제서(御製序)에서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내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字)를 만드노니]

라 한 것을 들 수 있다. 친히 만든 것이 아니라면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이 상소문(上疏文)을 보고 최만리 등에게 한 세종의 힐책(詰責)에 나타난다.

(가) ‘또 이두를 만든 본 뜻(本意)이 곧 편민(便民)을 위한 것이 아니냐. 편민(便民)으로 말하면 지금의 언문(諺文)도 또한 편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대들이 설총만 옳게 여기고 그대들의 군상(君上)이 한 일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且吏讀制作之本義 無乃爲其便民乎 汝其便民也 則今之諺文 亦不爲便民乎 汝等 以薛聰爲是 而非其君上之事何哉)

(나) ‘또 그대들이 운서(韻書)를 아느냐. 사성(四聲)과 칠음(七音)을 알며 자모(字母)는 몇이나 있는지 아느냐. 만일에 내가 운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바로 잡을 것이냐.’ (且汝知韻書乎 四聲七音 字母有幾乎 若非予正其韻書 則伊誰正之乎)

(다) ‘또 상소(上疏)에 이르기를 “신기한 한 재주” 라 했으니 내가 늙마에 소일(消日)하기가 어려워 책을 벗삼고 있을 뿐이지 어찌 옛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해서 했던 말이냐.’ (且疏云 新奇一藝 予老來難以消日 以書籍爲友耳 豈厭舊好新而爲之)

(라) ‘또 내가 늙어서 국가의 서무(庶務)는 세자(世子)가 도맡아 하는 터에, 작은 일이라도 마땅히 세자(世子)가 참여하여 결정하거든 하물며 언문(諺文)이겠느냐.’ (且予年老 國家庶務 世子專掌 雖細事 固當參決 況諺之乎)

이 말들은 세종이 정음을 친히 창제했음과 세종이 정음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무엇보다도 생생한 증거라 하겠다. (가)는 편민(便民)이 정음 체제(正音體制)의 본뜻임을 보여준 것으로 『훈민정음』의 어제서(御製書)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요, (나)는 『운회』 번역을 논란한 데 대

하여 그들의 무지(無知)를 면박한 것인데, 세종의 강한 사명감을 엿보게 한다. (다)는 “신기한 한 재주”라고 한 데 대하여 정음 창제가 예로부터의 학문을 꿰뚫은 데서 나온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정음 창제의 기본을 밝힌 중요한 발언이다. 그리고 (라)는 정음을 매우 중요시한 세종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음 창제는 세종 25년 말에 발표되기 전에는 밖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세종이 혼자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밀이 지켜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정음 창제는 극도의 은밀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짐작된다. 만일 세종 25년 이전에 집현전의 일부 학자가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었다면, 그 사실은 곧 집현전 안에 알려졌을 것이다. 집현전 안에서 일부 학자가 왕명(王命)으로 정음과 관련을 맺자마자 다른 학자들이 상소를 올린 사실로 미루어 볼 일이다. 이 상소문이 정음 체제를 둘러싼 은밀주의(隱密主義)를 공격하고 있음은 흥미롭다.

‘만약 언문을 부득이 창제하셔야 될 일이라 해도 이는 풍속(風俗)을 바꾸는 큰 일이라, 마땅히 제왕(帝王)으로부터 백료(百僚)에 이르기까지 상의하여야 하고 국민(國人)이 모두 옳다고 해도 오히려 미리 생각하고 다시 거듭 생각하여 역대 제왕에게 질문하여도 어그러지지 않고 중국과 상고하여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백세(百世)에 성인을 기다리어 써 의혹될 바가 없는 연후에야 가(可)히 행하실 일이옵니다.’ (儻曰 諺文不得已而爲之 此變易風俗之大者 當謨及帝相下至百僚 國人皆曰可 猶先甲先庚更加三思 質諸帝王而不悖 考諸中國而無愧 百世以俟聖人而不惑 然後乃可行也)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은 지병(당뇨병, 풍질, 안질 등)으로 건강이 매우 나빠서 여러 번 전지요양(轉地療養)을 하였다(이승녕 1981). 정음 창제의 공표(公表)를 전후에서도 세종 25년(1443) 3월에 온양 온천으로 갔었고 이듬해(1444)에는 두 차례나(3월~5월, 7월~9월) 청주 초수리 냉천으로 갔다. 26

년 2월의 최만리 등의 상소는 3월의 청주 행차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또 이번 청주 초수리 행차에서는 특히 흉년을 염려하시어 호종(扈從) 제사(諸事)도 간략하게 힘쓰시매 전일(前日)에 차(此)하여 10의 8·9가 준 터이며 또 계달(啓達)의 공무(公務)까지도 정부(政府)에 맡기셨거늘 저 언문은 국가의 비상한 일로 꼭 기한에 델 것도 아니온데 어찌하여 유독 행재(行在)에서까지 이 일에 급급하시어 성공(聖躬)의 조섭(調攝)하실 때를 번거로이 하시렵니까. 신등(臣等)은 더욱이 그 가(可)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且今淸州椒水之幸 特慮年歉 扈從諸事 務從簡約 此之前日 十減八九 至於啓達公務亦委政府 若夫諺文 非國家緩急 不得已及期之事 何獨於行在 而汲汲爲之 以煩聖躬調變之時乎 臣等 尤未見其可也)

정음(正音)을 완성하여 공표(公表)한 뒤에도 이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던 세종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중에도 정음 연구를 한시도 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세종이 정음을 손수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라 하겠다.

5.2.4.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세종은 세종 25년(1443) 12월에 초성 17자와 중성 11자 도합 28자의 자모를 발명하여 ‘훈민정음’이라 일컬었고, 그 3년 뒤인 세종 28년(1446) 9월 상한(上澣)에 세종의 명을 받고 정인지 등이 해례(解例)를 지어 여기에 훈민정음의 제자(制字)의 원리와 운용 방법에 대한 풀이를 해 놓았다.

5.2.4.1. 초성 제자의 원리

초성의 기본자는 그것이 나타내는 음소를 조음하는 데 관여하는 발음기관

의 모양을 본떴고, 여타의 초성자들은 이들 기본자에 가획(加劃)함으로써 또는 약간의 이체(異體)를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졌다.

五音	基本字	象形内容	加劃字	異體字
牙	ㄱ	舌根閉喉之形 (아음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ㅋ	ㅇ
舌	ㄴ	舌附上腭之形 (설음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떴다.)	ㄷ ㅌ	ㄹ
脣	ㅁ	口形 (순음 ‘ㅁ’은 입 모양을 본떴다.)	ㅂ ㅍ	
齒	ㅅ	齒形 (치음 ‘ㅅ’은 이의 모양 곧, 앞니의 치관(齒冠)을 옆에서 본 모양을 본떴다.)	ㅈ ㅊ	ㅅ
喉	ㅇ	喉形 (후음 ‘ㅇ’은 목구멍의 모양 곧, 기관을 수평으로 자르고 위에서 본 모양을 본떴다.)	ㅎ	ㅎ

순음 ‘ㅁ’자는 ‘ㅁ’音, 즉 [m] 음을 소리 낼 때 쓰이는 발음기관인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치음 ‘ㅅ’자는 같은 원리로 그 소리, 즉 [s] 음을 소리낼 때 조음점(調音點) 구실을 하는 이의 모양을, 후음 ‘ㅇ’자는 역시 같은 원리로 목구멍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앞의 두 글자 ‘ㄱ’과 ‘ㄴ’도 그 소리를 낼 때 관여하는 발음기관의 모양인 혀를 본떠서 만든 점에서는 나머지 세 글자에서와 같다. 다만 이번에는 그 발음기관 자체의 모양, 즉 가만히 있을 때의 혀 모양이 아니고 바로 그 소리를 낼 때의 형 모양을 본떴다는 점이 특이하다. 즉 아음(牙音, 즉 연구개음) ‘ㄱ’자는 그 소리 [k] 음을 낼 때의 상태를 본 뜬 것으로 설근(舌根)이⁷⁰⁾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으며, 설음(舌音)⁷¹⁾ ‘ㄴ’자는 그 소리 [n]

70) 요즈음 용어로는 설배(舌背)에 해당할 것이다. 배운덕 외(1998:103), 각주 2) 인용.

71) 요즈음 용어로는 설단음(舌端音), 또는 치조음(齒槽音)이다. 배운덕 외(1998:103), 각주 3) 인용.

음을 낼 때의 상태를 본 뜬 것으로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것이다.

설근이 목구멍을 막는다고 한 것은 혀 뒤쪽이 연구개가 가 닿아 숨의 통로를 막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겠고, 혀가 윗잇몸에 닿는다고 한 것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겠다. 이때 ‘ㄱ’을 소리 낼 때는 혀 뒤쪽이 입천장까지 올라가므로 혀 앞쪽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데 ‘ㄱ’자는 바로 그러한 혀 모양을 형상화하였다는 것이며, ‘ㄴ’을 소리 낼 때는 반대로 혀 앞쪽이 윗잇몸에 가 붙으려니까 혀 뒤쪽이 처지게 되는데 ‘ㄴ’자는 바로 그러한 혀 모양을 형상화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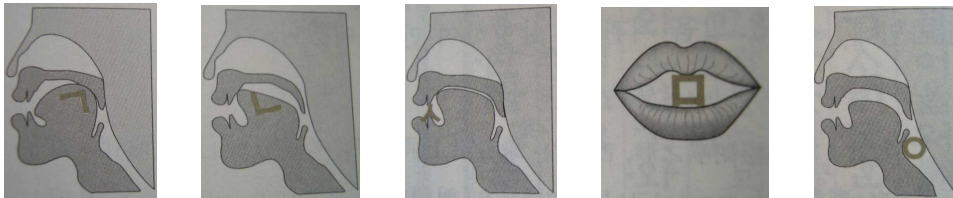


그림 1 초성 제자 원리 - 발음 기관 상형

자음 17자 중 나머지 글자는 이 기본자에다 획을 하나씩 더해서 만들었다.

‘ㄱ比ㄴ 聲出稍厲 故加劃 ㄴ而ㄷ ㄴ而ㄸ ㄷ而ㄹ 口而ㅁ ㅁ而ㅂ ㅂ而ㅃ ㅅ而ㅆ ㅆ而ㅈ ㅇ而ㅎ ㅎ而ㅎ 其因聲加劃 之義皆同 而唯ㅇ爲異 半舌音ㄴ 半齒音ㅁ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劃 之義焉.’ (‘ㄱ’은 ‘ㄴ’에 비해 소리가 좀 세기 때문에 획을 더하였다. ‘ㄴ’에서 ‘ㄷ’, ‘ㄷ’에서 ‘ㄹ’, ‘ㄷ’에서 ‘ㅁ’, ‘ㅁ’에서 ‘ㅂ’, ‘ㅂ’에서 ‘ㅃ’, ‘ㅅ’에서 ‘ㅆ’, ‘ㅆ’에서 ‘ㅈ’, ‘ㅇ’에서 ‘ㅎ’, ‘ㅎ’에서 ‘ㅎ’으로 그 소리에 말미암아 획을 더한 뜻은 다 같은데 오직 ‘ㅇ’만은 다르다. 반설음 ‘ㄴ’과 반치음 ‘ㅁ’도 혀와 이의 모양을 본뜨기는 하였으나 그 본체를 다르게 하여 획을 더한 뜻은 없다.)

ㄱ → ㅋ

ㄴ → ㄷ → ㅌ (ㄷ → ㄹ)

ㄹ → ㅂ → ㅃ

ㅅ → ㅈ → ㅊ (ㅅ → ㅌ)

ㅇ → ㅎ → ㆁ (ㅇ → ㆏)

여기에서 획을 더해 만든 글자들은 그 화살표 앞쪽의 기본자와 같은 종류에 속하는 자음들이다. 즉 ‘ㅋ’은 ‘ㄱ’과 마찬가지로 아음(牙音)이며, ‘ㅃ’과 ‘ㅆ’은 ‘ㄷ’과 마찬가지로 순음(唇音)이다. 같은 종류의 자음이 되 획이 하나씩 덧붙으면 소리가 한 단계씩 더 거센(厲) 소리가 되는데 가획은 바로 그것을 표기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다만 괄호 안에 있는 글자들은 화살표 왼쪽에 기본자들로부터 가획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이 경우에는 소리가 더 거세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뜻은 없다고 하였다.

괄호 속의 글자 중 ‘㆏’자는 그 중에서도 예외적인 글자에 속한다. ‘㆏’은 아음(연구개음)인데 그것을 아음의 기본자인 ‘ㄱ’에서 파생시킨 것이 아니라 후음 ‘ㅇ’에다 획을 덧붙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 ‘㆏’이 워낙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러한 설명을 성리학의 음양오행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은 ‘오행의 물’이고, ‘㆏’음은 ‘나무가 물에서 나서 싹이 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두 자는 오래 되지 않아 자형(字形)에서 구분이 없어져 초성 자리에 쓰일 때는 아무 소리가 없는, 다만 빈 자리를 메워 주는 역할만 하게 되었고 종성(받침) 자리에서는 애초 ‘㆏’자가 대표하던 [ŋ] 으로 발음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음성적으로 거리가 먼 둘이 한 자형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역사의 산물이다. 발설음 ‘ㄹ’은 혀의 모양(혀가 떨어져 움직이는), 반치음 ‘ㅌ’은 혀의 모양(혀가 이에 닿는)을 그린

것이다. ‘ㅇ’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으나 소리가 코로 통해 마치 ‘ㅇ’과 비슷한 점이 있으므로 어금니의 모양과 목구멍의 모양을 절충해서 이룩한 것으로 가획의 뜻은 없다. 그래서 후대학자들은 이러한 ‘ㄹ, ㅍ, ㅇ’을 체계를 달리한 글자들이라 하여 이체자(異體字)라고 하였다.

5.2.4.2. 중성 제자의 원리

모음은 성리학(性理學)에서 말하는 우주의 기본 요소인 삼재(三才), 즉 천(天), 지(地), 인(人)을 상형한, ‘·, 一, |’를 기본자로 하여 초출, 재출, 합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만들었다. 기본자는 ‘·, 一, |’인데 이들의 제자 원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舌	聲	象形
·	縮	深	天 (하늘의 둥근 모양 形之圓 象乎天也)
一	小縮	不深不淺	地 (땅의 평평한 모양 形之平 象乎地也)
	不縮	淺	人 (사람이 서 있는 모양 形之立 象乎人也)

자음은 발음할 때 어딘가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고 모음은 그대로 소리가 나오므로 상형할 수가 없다. 혀와 입술 모양만 가지고 설명해야 하는데 모양을 본뜨기가 힘들어서 세종은 성리학의 주역에서 삼재를 받아들여 모음의 기본자 3자는 각각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던 것이다.

모음자의 나머지 여덟 글자는 ‘·’를 ‘一’와 ‘|’에 결합시켜 만들었다.

- | | |
|------------------------------------|------------------------------------|
| <p>(가) · + 一 → ㅑ
· + → ㅓ</p> | <p>(나) + 一 → ㅕ
 + → ㅗ</p> |
|------------------------------------|------------------------------------|

· + ㅡ → ㅓ	+ ㅓ → ㅛ
· + ㅣ → ㅜ	+ ㅜ → ㅠ

이들 모음자 중 (가)는 ‘·’를 하나씩 결합하여 만들고 (나)는 두 개씩 결합하여 만들었다. 이는 (가)가 단모음임을, (나)가 이중모음임을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에서 ‘ㅓ, ㅜ’가, ‘ㅡ’에서 ‘ㅓ, ㅜ’가 나왔는데, 그것들이 기본자인 ‘·, ㅡ, ㅣ’에서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여 초출자(初出字)라고 했다. 그 다음 ‘|’에서 비롯해서 ‘ㅛ, ㅠ, ㅜ, ㅠ’로 끝맺는 것들이 각각 ‘ㅛ, ㅠ, ㅜ, ㅠ’인데, 이것들은 2차적으로 나왔다는 뜻에서 재출자(再出字)라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가 ‘ㅡ’의 위쪽과 아래쪽, ‘ㅣ’의 왼쪽과 오른쪽 어디에 배치되었느냐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여기에도 어떤 뜻을 담고 있다. ‘·’가 위쪽과 오른쪽에 찍힌 것은 양모음(陽母音)임을 나타내 주고, 아래쪽과 왼쪽에 찍힌 것은 음모음(陰母音)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 그것이다.

소리의 성질 / 분류	양성	중성	음성
단모음	· ㅓ ㅜ		ㅡ ㅜ ㅓ
이중모음	ㅛ ㅠ		ㅠ ㅜ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엄격한 모음조화 규칙이 있었으며, 더욱이 훈민정음 제작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던 성리학(性理學)에서 음양(陰陽)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으므로 양모음, 음모음의 구분이 이처럼 제자의 원리에까지 적용되었던 것이다.

한편 모음자에는 11자 이외에 많은 자모를 만들어 썼다. 이들은 그 발음에 따라 11자 중의 2자 내지 3자를 복합하여 만든 것이다.

	基本字	初出字	再出字	合用字
①	·	ㄱ, ㄲ	ㄳ, ㄴ	…… ㄱ, ㄲ
②	ㅡ	ㄷ, ㄸ	ㄹ, ㄺ	…… ㄷ, ㄸ
③	ㅣ			

여 ㅣ 상합자(與 ㅣ 相合字) : ①, ②에 ③의 ‘ㅣ’를 합용한 자

·	→	ㄱ, ㄲ	→	ㄳ, ㄴ	……	ㄱ, ㄲ
ㅡ	→	ㄷ, ㄸ	→	ㄹ, ㄺ	……	ㄷ, ㄸ

5.2.4.3. 종성 제자의 원리

훈민정음 창제에 성공한 근본 원인은 한 음절을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는 삼분법(三分法)을 쓴 데 있다. 중국에서는 한 글자를 성모(聲母, Anlaut)와 운모(韻母, Auslaut)로 분석하는 이른바 이분법(二分法)을 사용하고 있으나, 세종은 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는 삼분법의 음운 이론을 세워 한글이 음소 문자이면서 동시에 음절 문자의 속성을 갖도록 하였다. 이렇게 할 때 아주 적은 수효의 음소 글자로써 수천수만의 음절을 자유자재로 생성해 낼 수 있다는 데 착안했던 것이다.

삼분법(三分法)으로써 초성·중성·종성을 설정한 세종은 다시 초성이 중성이 되고, 중성이 초성이 되는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종성을 따로 짓지 아니하고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終聲復用初聲)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례의 해설을 보면, ‘ㄱ, ㅇ, ㄷ, ㄴ, ㅂ, ㅍ, ㅅ, ㅌ’의 8종성이면 족하다고 했다(八字可足用). 그것은 ‘빛꽃’(梨花), ‘엿의 갖’(狐皮)에서 ‘ㅈ, ㅊ, ㅌ’ 받침을 모두 ‘ㅅ’자 하나로 통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국어의 자음(子音)은 초성에서는 예컨대 ㄷ과 ㅌ이 구별되나 종성에서는 중화 작용(中和作用)을 일

으켜 ㄷ과 ㅌ이 구분되지 않는다. 『훈민정음 해례』 편찬자들도 이 현상을 파악하고 있어서 예의(例義)에서는 ‘終聲復用初聲’이라고 하였으나 중성해에서 ‘八字可足用’라고 밝히고 몇 문헌을 제외한 모든 문헌에서 ‘팔종성(八終聲)’만 가지고 표기했던 것이다.

5.2.5. 한글의 우수성

세계에 언어가 3천개, 문자는 100여 개 정도 존재한다. 언어의 우위를 따질 수는 없으나 한국어가 사용자 수로 글자의 순위를 매겼을 때 남북한 인구 6,700만 명으로 치면 이탈리아어와 비슷한 수준으로 13위에서 15위쯤에 해당한다. 적어도 15위에 드는, 말하자면 강대국에 속하는 것이다. 온전히 제 나라 말로 뚝뚝 뭉쳐 있는 15위 안의 나라는 생각보다는 드문 존재요 그만큼 대단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한글은 유력한 언어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언어가 그 나라 말을 어느 정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따져볼 때 한글은 세계 1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의 유력하고 저명한 언어학자들(샘슨, 레드야드⁷²⁾ 등)이 인정하는 바이다. 이제 Hanguk, 또는 Han' gŭl이란 이름은 언어학 관계의 글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외국 학자들에게 알려질 만큼 알려진 것이다. 한글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독창적인 문자이며 과학적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자랑거리로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이다.⁷³⁾ 한글의 우수성은 바로 이런 독창

72) 미국 학계에서 훈민정음의 독창성이 인정된 것은 60년대에 들어서의 일이었고(Vos 1964, Ledyard 1966, McCawley 1966 등) 그 뒤 언어학 개론류(言語學概論類)의 문자(文字)에 관한 장(章)에 한글이 등장하게 된다. 이기문 (1992:3)

73) 한글이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체계이지만, 『해례본』도 그에 못지않게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저작이다. 그러한 저술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일찍이 국가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하여 국보 제70호로 지정하였고, 국제연합교육과학지구(UNESC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기록물로 인정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것이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는 '

성, 과학성 그리고 체계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글은 모음 글자와 자음 글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전형적인 자모문자(字母文字)다. 즉 ‘단어문자→음절문자→자모문자’의 단계를 밟은 문자 발달사(文字發達史)로 보아 그 최종 단계의 이상적인 문자 체계인 것이다. 음절문자나 자모문자처럼 후대에 와서 발달된 문자들은 그 앞 단계의 문자를 기간(基幹)으로 하여 그것을 변모 발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한글은 그러한 일반적 방식과는 달리 매우 독창적으로 만들어졌다. ‘독창적’이라는 말은 세계의 다른 민족들이 사용해 온 문자들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뜻이다.⁷⁴⁾ 한글은 어떤 기존의 문자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세계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원리, 곧 발음 기관과 천지인(天地人)을 본뜬 상형의 원리로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

세종대왕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제정하여 1989년부터 해마다 세계 문명퇴치에 공이 큰 이들에게 주고 있다. 나라 안팎의 해례본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그 동안 국어학계에서 이루어진 이 저작에 대한 술회 연구 성과에 말미암는다. 안병희 (1997:191)

74) “물론 한글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존의 문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선 자체(字體)가 네모 반듯한 것은 한자의 영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口’이 입의 모양을 본떴다고 하나 입 모양을 꼭 네모 반듯하게 만들 필연성은 없다. 또 ‘ㄱ, ㄴ’도 완전히 직각이 되게 만들었는데 혀의 모양을 본뜨는 기본 입장은 지키면서도 여러 가지 도안(圖案)이 가능하였을 터인데 이를 직각으로 만들어 전체적으로 네모의 틀에 맞춘 것은 한자의 전체적인 형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더구나 한글을 새로 만들면서도 한자를 모두 버리고 한글만으로 문자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많은 언해류(諺解類)의 책에서 보듯이 한자와 혼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판단되는데, 이 때 한글의 자체가 한자의 그것과 조화를 이루게 하려고 했던 것은 꼭 자연스러운 귀결(歸結)이었을 것이다. 가획의 원리도 한자의 구성에서 그 아이디어를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人→大→天→夫’와 같은 가획의 원리는, 비록 이들이 같은 계열의 발음을 가지는 글자는 아닐지라도 한글의 가획 방식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정인지의 서문에는 ‘各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이라 하였다. 즉 모양(발음기관 및 천·지·인의 형상)을 본떴으며 글자가 고전(古篆)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 ‘字倣古篆’이 정확히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아직 잘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어떻든 한글이 주변 국가의 문자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示唆)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훈민정음이 일본의 가나(假名)처럼 전적으로 남의 문자에 의존하지 않은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두와 같은 글자를 만들어 쓰다가 그것을 발전시켜 만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문자 체계 하나를 새로 발명(發明)한 것인데 이 점이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익섭 (2000:237~238)

일반 문자들은 정확히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한글은 세종(世宗) 25년(1443년) 세종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일반 자모문자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탓도 있기는 하나 이처럼 그 글자를 만든 시기와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란 그 유례(類例)를 찾기 힘들다.

『세종실록』 권 102 세종 25년 12월조에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 是謂訓民正音’

(이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지으셨다. … 이를 훈민정음이라 부른다.)’

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이다.

문자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세계 문자사의 큰 흐름은 이웃에서 쓰는 문자를 받아들여서 조금 고쳐서 쓰는 것이었다. 따라서 문자사에서 ‘발명’ (invention)이란 말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 학자도 있다(DeFrancis 1989:215). 그러나 훈민정음은 이 흐름을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 만든 문자로서 정히 세계 문자사상의 ‘발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글의 특징은 이러한 독창성 때문만은 아니다. 한글이 우수한 글자로 인정받고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는 이유는 독창성에 과학적인 점이 보태졌기 때문이다. 한글은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한 21세기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이다. 여러 민족이 사용하는 세계의 다른 문자, 예를 들어 알파벳이나 한자 등은 물론, 소규모로 사용되는 어떤 문자를 보더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훈민정음이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최근 들어 지적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몇 개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훈민정음의 기본이 되는 글자는 ‘ㄱ, ㄴ, ㄹ, ㅁ, ㅂ, ㅇ’ 다섯 개의 초성자(初聲字)와 ‘·, ㅡ, ㅣ’ 세 개의 중성자(中聲字)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가획, 병서, 연서, 합용 등의 방법으로 더 많은 글자들을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글의 과학성은 음운 체계에서 엿볼 수 있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국어의 음성 체계를 과학적으로 분석, 분류하고 그 체계에 따라 음성의 인식 단위, 즉 음소를 표시하는 글자를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다. 한글이 갖는 과학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상형 원리를 적용하되 기본자를 먼저 만들어 이의 가획(加劃)과 합자(合字)로서 체계화하였다. 자음은 그 소리를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 글자에 음운 자질을 반영하는 문자를 만듦으로써 ‘자질 문자’의 단계에 나아갔다. 즉, 발음 기관을 본뜬 기본 글자 ‘ㄱ’에 획을 더하거나(ㅋ) 겹쳐 씌(ㆁ)으로써, ‘거셈’이나 ‘뽕’ (稍厲)의 음운 자질이 추가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내었다. 이 세 가지 글자는 모두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것으로, 한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특성을 잘 보여 준다. 이렇게 한글 자모가 이원적으로 제자(制字)됨으로써 ㄱ과 ㅋ 사이, 또는 ㄴ과 ㄷ과 ㄸ 사이, 아니면 ㄴ와 ㄹ나 ㄴ와 ㄹ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 주는 높은 조직성을 지니게 되었다. 곧 음성적(音聲的)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이면 그 글자 모양에 있어서도, 가령 치음(齒音)을 나타내는 ‘ㅅ, ㅆ, ㅈ’에서 보듯 서로 공통점을 가지게 하고, 또는 이중모음(二重母音)은 그것끼리 ‘ㅊ, ㅋ, ㆁ, ㆏’ 처럼 어떤 공통점을 가지도록 제자(制字)하였던 것이다.

모음도 상형 원리와 합성의 원리, 그리고 음양사상의 생성원리에 의해 정밀하게 구성되었다. 곧 기본자는 하늘(天), 땅(地), 사람(人)을 본떠 만들

고 합성 원리(초출, 재출), 음양(음성, 양성) 기준에 의해 모음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듯 한글은 상형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대중성과 평이성을 부여하는 과학적인 문자체계를 수립하였다. 발음 기관을 모양을 본떠 시각화한 글자를 만든 것 그 자체도 과학적이며, 그로 인한 효과 즉 입말을 글로 적는 데의 효율성, 배우기 쉬운 편리성 등도 한글이 과학적인 글자인 이유가 된다. 그리고 소리를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나누는 현대 음성학의 원리를 세종은 이미 550년에 알아서 이것을 적용하여 글자를 만들고 여기에 음양오행(陰陽五行)을 바탕으로⁷⁵⁾ 하였기에 한글에는 철학도 담겨 있는 글자인 것이다.

둘째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한글이 모든 말을 기술할 수 있는 음소 단위의 문자 체계를 취하였다는 점이다. 훈민정음을 예외로 한 오늘날의 음소 문자들이 기원적으로 회화 문자에서 발달한 사실과, 현대에 들어와서 음소 분석의 기술 방법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5세기에 이미 음소 분석의 과학적 방법에 의한 훈민정음의 제작은 문자 사상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중국음이 성모(聲母)와 운모(韻母)의 이분법(二分法)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세종은 한 음절을 초성·중성·종성 삼분법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글자를 만들었다. 또한 초성과 중성을 같은 자질을 가진 소리로 인식하여 같은 문자로 통용되게 함으로써 적은 문자로 수많은 음절을 생성할 수 있는 경제적 특성을 이룩하였다.⁷⁶⁾

75) ‘人之有聲, 本於五行’ 제자해 첫머리에서 사람의 성음(聲音)도 오행(五行)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하여, 모음 체계를 이와 결부시켜 설명했다. 강신항 (2001:22)

五聲(音)	牙 舌 脣 齒 喉
五行	木 火 土 金 水
五時	春 夏 季 夏 秋 冬
五音	角 치 宮 商 羽
五方	東 南 中央 西 北

민정음에 대한 교수와 학습은 피상적인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훈민정음 서문을 학생들에게 외게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자주, 애민, 실용정신)을 가르친다면 이것은 훈민정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피상적인 소개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초등 학교의 수준이라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하나인 훈민정음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도 교육적 의미가 있다. 사실, 이런 정도의 교육이라면 그것을 굳이 국어 시간에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이러한 소개의 차원에서 끝낼 것은 아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체계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문자의 전신이다. 이것이 우리말의 소리에 따라 분류되고 제작되었기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말의 이해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더욱이 민족 문화의 발달 과정이란 조상들의 문자 발달사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문자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은 정신적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는 좀 더 따져보아야 할지라도 훈민정음의 교육이 언해문을 외고, 형태소 분석을 한 후, 내용별로 단락 구분을 하고 주제를 파악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성장기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우며 훈민정음의 진가를 느끼게 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국어 능력 향상과 민족 문화의 창조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가령, 어떤 고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에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논의하라는 과제가 있다고 하면, 단순 암기에 그친 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토론의 수준에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외운 서문을 현대어로 풀이하여 설명하는 정도이거나, 우리 조상이 만든 것이므로 훌륭하다는 따위의 단순하고도 국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과연 한글 문자가 우수한지

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피력하는 등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문자 체계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체계성, 경제성, 과학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한글이 과연 그러한지를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학생들이 한글의 우수성이라는 논제를 합리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 훈민정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자 체계에 대한 이해,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 세종대왕의 어문 정책 등이 그것이다.

훈민정음이라는 책 속에는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문자 체계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세종대왕이 음절을 ‘초·중·종’의 삼분법으로 인식한 것과 이러한 인식이 음소 문자의 체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가령, 가획의 원리라는 것이 문자사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문자발달사란 한자를 국어 표기에 이용하면서 그것을 우리말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의 역사였다.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향찰문자, 이두문자, 구결문자의 발전 과정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훈민정음은 우리 조상들이 외래 문자를 수용하고 극복해 오던 과정의 결정판이었다.

그 당시의 사료(史料)들을 뒤져보면 훈민정음(문자)의 창제 경위와 세종대왕의 언어 정책 등과 관련하여 국어 수업에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한 토론거리들도 있다. 가령,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당시의 논의는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서도 극명히 드러나는 바, 왕과 신하 사이의 논쟁과 세종대왕의 합리적인 처결 등은 우리 민족의 지성사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일면을 있는 그대로 알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요약하여

베풀고 학습의 기초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수준도 달라지고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한글을 이해하면, 이것이 곧 한글에 대한 사랑(적극적인 사용)으로 이어진다. 훈민정음을 우리 조상들의 문자사 흐름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 음소 문자를 창안하게 된 배경과 기초 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등과 같은 문자사적인 관점에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말 소리의 분류 방식이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들이 훈민정음의 스물여덟 글자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음운사적인 설명이 학생들에게 베풀어져야 할 것이다. 음운사적인 설명은 현대 국어의 음운 체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으므로 현대 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에도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다.

『훈민정음』의 ‘용자례(用字例)’ 부분은 고유어의 용례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어휘의 변화나 어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국어 교육 자료이기도 하려니와 책의 전체적인 구성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은 하나의 텍스트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본 구실을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텍스트 관점에서의 글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고, 보이는 만큼 활용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생활의 이치다. 합리적인 설명에 기초한 국어사 교육이 학생들의 국어 지식 교육이나 민족 문화의 이해에도 도움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국어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5.3.2. ‘세종 어제 훈민정음’ 교수·학습 지도안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국어사 교육의 바람직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상 단원은 대단원 ‘1. 국어가 걸어온 길’의 소단원 ‘①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며, 총 3차시에 걸쳐서 수업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훈민정음에 대한 교육에서 훈민정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내용이 소단원 ‘(2) 중세 국어’의 보충 학습에 제시된 어제 서문의 뒷부분과 ‘제자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에 있어 보충 학습으로 제시된 어제 서문의 나머지 뒷부분과 ‘제자해’의 일부분을 포함하여 교수·학습 내용 범위로 삼았다.

본 지도안의 바탕이 된 학습 방법은 제7차 교육 과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탐구 학습이며, 이를 교사의 강의식 수업 방식과 적절히 복합시켜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 ‘세종 어제 훈민정음’ 지도안 >

· 유의점

- 모둠은 미리 짜놓는다. (6명씩 6모둠)
- 매 차시 과제 있음

5.3.2.1. 1/3 차시

대단원	1. 국어가 걸어온 길		
소단원	(2) 중세 국어 (中世國語) ① 세종 어제 훈민정음 (世宗御製訓民正音)	차시	1/3

학습 목표	소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창제의 의의를 이해한다. • 한글의 우수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 나타난 음운, 문법, 어휘, 표기의 특징을 안다. •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의 상이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읽는다. 		
	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 나타난 음운, 문법, 어휘, 표기의 특징을 안다. •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의 상이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읽는다. 		
학습 형태	개별 학습, 협동학습, 토론(토의), 발표	학습 자료	교과서, 활동지, 학습지, 첨부 자료, PPT	
학습자	고등 학교 2학년			
단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학습 분위기 조성	인사, 출결 확인		
	전시 학습 내용 확인 및 정리	‘(1) 고대 국어 (古代國語) ① 국어의 뿌리와 줄기 ② 고대의 국어 생활’의 내용을 정리하 면서, 이러한 배경들이 15세기에 우리 글자 창 제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교사의 질문 에 대답 교과서, PPT(1, 2)
	학습 단원 확인	‘1. 국어가 걸어온 길 (2) 중세 국어(中世國 語) ① 세종 어제 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		
	학생 발표	‘한글(훈민정음)’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알 고 싶은 것, 한글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 발표하기 발표에 대해 피드백하기		발표 2~3명 PPT(3)
	단원 학습 목표 확인	단원 학습 목표 제시		목표 다 함께 읽기 PPT(4, 5)
본시 학습 목표 확인	본시 학습 목표 제시			
전개	학습의 방향과 방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 1(훈민정음의 의미, 누가/언제/ 어디 서/무엇을/어떻게/왜)’ 설명하고 나눠주기 ※ 대단원 ‘1. 국어가 걸어온 길’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한글 역사 연표’를 직접 만들어 		PPT(6), 활동지1, 첨부 자료 (1)

	<p>보거나 또는 본 지도안에서 제시한 ‘활동지 1’처럼 교사가 미리 틀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학생들이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표를 완성해 나가는 활동도 해 볼 수 있다. (도움말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자료 1(예의편의 마지막 부분: 종성법, 글자의 운용법)’ 나눠주기 · 학습은 개별 학습, 협동 학습(모둠별 토론과 발표) 형태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기 		
본시 학습 내용	‘제목(세종 어제 훈민정음)’ 확인하며 뜻 질문하기	뜻 생각하고 풀이해 보기	교과서
과제(1) 확인 및 발표	‘훈민정음’의 두 가지 의미 조사하기	발표 1명	PPT (7, 8), 활동지1
	‘훈민정음’의 두 가지 의미 내용 확인 및 정리 (도움말 2~4)	‘활동지 1(1.누가, 2.언제, 3.어디서)’에 내용 정리, 메모	
	교과서 28쪽의 본문을 『훈민정음』의 체제 속에서 이해하면서 ‘언해본(諺解本) 훈민정음’(월인석보본)과 ‘한문본(漢文本) 훈민정음’(예의편) 원본 자료로 이해를 돕기(자료 나눠주기)		첨부 자료 (2, 3), PPT (9~12), 교과서
	교과서 28쪽에 사진(‘언해본 훈민정음’과 ‘한문본 훈민정음’)에 대한 문제 언급하고 옛 책의 장정(裝訂)과 판식(板式)에 대한 보충 설명 간략히 하기 (도움말 5~7)	필요한 내용 메모	
	본문 읽히기	본문 읽기	교과서
	· 본문을 읽으며 지금의 한자음과 15세기의 한자음의 표기와 발음의 차이에 질문하기(15세기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 본문이 잘 읽여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기	교사의 질문에 대답	
과제(2) 확인 및 발표	과제(2)- ‘세종 어제 훈민정음’과 예의편에 나온 한자음 읽기	발표 2명	학습지(1), PPT(13)
	과제 내용 확인 및 정리		
	·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대해 설명하기 (도움말 8)	필요한 내용 메모	PPT (14, 15),

	·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 나온 한자의 중국어 발음 들어보기		⊗ (1)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오늘날의 한자음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읽기에 어색한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하기(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글자들이 있기 때문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배운 내용 토대로 하여 오늘날의 한자음으로 본문 다함께 읽기,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기	
학생 발표 및 내용 정리	‘지금 사용되지 않는 글자를 오늘날 소리로 읽기’ 학생 발표시키기 (2명)	학습지 2에 내용 정리 발표 2명	학습지(2), PPT (16, 17)
	내용 확인 및 정리하면서 글자의 명칭에 대해 짧게 참고 설명하기 (도움말 9, 10)	필요한 내용 정리 및 메모	
	앞선 활동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본문 읽히기	앞선 두 가지 활동을 토대로 다 함께 본문 읽어보기	교과서, 학습지(2)
	본문 내용의 의미 질문하기 (본문 내용 파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면서 어휘 학습 유도)	교사의 질문에 대답	교과서
	사잇소리 표기 간략히 언급하기 내용 확인 및 정리 (도움말 11)	필요한 내용 정리, 메모	PPT(18)
학생 발표 및 내용 정리	본문에서 그 뜻을 잘 알 수 없거나 지금은 볼 수 없는 낱말들이 있는지 질문하고 지금은 쓰이지 않는 낱말(사어) 찾아보게 하기	사라진 낱말 찾아서 학습지 3에 기입	교과서, 학습지(3), PPT(19)
	현재 어떤 낱말로 바뀌어 쓰이는지 본문 전체 내용과 문맥을 통해 짐작하여 대신 쓰는 낱말 찾아 써보게 하기	사라진 낱말 대신 쓰는 낱말 적기	
	사라진 낱말 대신 쓰는 낱말 발표시키기 내용 확인 및 정리 (도움말 12)	발표 2명 필요한 내용 정리, 메모	
	지금은 뜻이 바뀌어 쓰이는 낱말들을 정리해 놓은 학습지 4를 보면서 지금은 어떤 뜻으로 바뀌어 쓰이는지 그 뜻을 본문 전체의 내용과 문맥을 통해 짐작해 보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이	뜻이 바뀐 낱말의 뜻 알아내기	교과서, 학습지(4), PPT(20)

		학습지 4에 적도록 하기		
		내용 확인 및 정리 (도움말 13)	필요한 내용 정리, 메모	
		지금까지 배운 내용 토대로 본문 읽히기	배운 내용 토대로 본문 읽고, 내용 파악해 보기	교과서, 학습지 (3, 4)
	모둠별 토의 및 발표	본문을 보며 어형이 변화된 낱말이 있는지 질문하고 찾아보도록 유도하기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기, 본문에서 어형이 변화된 낱말 찾아보기	교과서
		어형이 변화된 낱말을 정리해 놓은 학습지에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쓰이는지 모둠별로 토의하여 적어보게 하기	모둠별 토론(낱말 형태가 바뀐 낱말을 오늘날 표기법으로 적기) 및 발표	학습지(5), PPT(21)
	내용 확인 및 정리	필요한 내용 정리, 메모		
	이번 차시에 배운 내용 학습지 6에 정리하게 하기	학습지 6에 내용 정리하기	PPT(22), 학습지(6)	
마무리	본시 학습 내용 정리	'훈민정음'의 두 가지 의미, 동국정운식 한자음과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 읽기, 사라진 낱말과 뜻이 바뀐 낱말, 어형이 변화된 낱말	교사의 질문에 대답	PPT, 학습지, 활동지1
	과제(3~5)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운 내용 토대로 본문 내용 현대어로 읽고, 뜻풀이하기 (학습지 7) · '한글'의 풀어쓰기와 모아쓰기에 대해 조사하고 자신의 견해 써오기 · 우리말에서 장단이 있는 말, 억양이 있는 말 조사하기 	메모	PPT(23), 학습지(7)
		인사		

5.3.2.2. 2/3 차시

대단원	1. 국어가 걸어온 길			
소단원	(2) 중세 국어 (中世國語) ① 세종 어제 훈민정음 (世宗御製訓民正音)	차시	2/3	
학습 목표	소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창제의 의의를 이해한다. • 한글의 우수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 나타난 음운, 문법, 어휘, 표기의 특징을 안다. •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의 상이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읽는다. 		
	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창제의 의의를 이해한다. • 한글의 우수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 나타난 음운, 문법, 어휘, 표기의 특징을 안다. • 훈민정음의 글자 체계를 안다. •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의 상이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읽는다. 		
학습 형태	개별 학습, 협동학습, 토론(토의), 발표	학습 자료	교과서, 활동지, 학습지, 첨부 자료, PPT	
학습자	고등 학교 2학년			
단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학습 분위기 구성	인사, 출결 확인		
	전시 학습 내용 확인 및 정리	전시 학습 내용- '훈민정음'의 두 가지 의미, 동국정운식 한자음과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 읽기, 사라진 낱말과 뜻이 바뀐 낱말, 어형이 변화된 낱말	교사의 질문에 대답	활동지1, PPT(24)
	과제(3) 확인 및 발표	과제 (3)-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본문 내용을 현대어로 읽고, 뜻풀이하기'	발표 2명	PPT(25), 학습지(7) * 과제는 수업 종료 후 걷기
	본시 학습 안내	본문을 단락 나누기 하여 요지 파악하고, '훈민정음'의 글자 체계와 글자의 운용법에 대해		교과서

		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기			
	학습의 방향과 방법 제시	· 활동지 1의 '4, 무엇을'과 '5, 어떻게'를 해결하기 · 학습은 개별 학습 협동 학습(모둠별 토론과 발표) 형태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기		PPT(26), 활동지1	
	본시 학습 목표 확인	학습 목표 제시	목표 다함께 읽기	PPT(27)	
전개	모둠별 토론 및 발표	본문을 내용에 따라서 몇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모둠별로 각 단락의 요지를 토론을 통하여 학습지에 정리해 보도록 하기	교사의 질문에 대답, 모둠별 토론과 발표 (두 모둠)	교과서, 학습지(8), 활동지 1, PPT (28, 29)	
		· 내용 확인 및 정리하면서 활동지 1의 '4. 무엇을'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 '훈민정음'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참고 설명하기 (도움말 14)	활동지1 '4.무엇을'에 내용 정리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토대로 학습지에 초성 체계와 중성 체계를 정리해 보게 하기	학습지 9, 10에 초성 체계와 중성 체계 정리하기	학습지 (9, 10)	
	학생 발표 및 내용 정리	발표시키기	정리한 내용 발표하기	필요한 내용 정리, 메모	학습지 (9, 10), PPT (30, 31)
		내용 확인 및 정리하기 (도움말 15, 16)			
		『훈민정음』의 체제 측면에서 교과서 본문에 대한 설명과 '훈민정음'의 체자원리가 '체자해'에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음을 언급하면서 『훈민정음 해례본』 '체자해' 원본 자료 나눠주기			첨부 자료 (4)
		'훈민정음'의 '초성과 중성 체자원리' 설명하기 (도움말 17, 18) * 먼저 학생들이 실제로 발음해 보게 하고, IPA의 홈페이지와 UCLA 음성학 랩 홈페이지 참고하여 실제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의 모습을 학생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하면서 한글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이해시키기			PPT (32, 33), 활동지 1, 🗻 (2) * IPA와 UCLA 음성학 랩
		내용 확인 및 정리하면서 활동지 1의 '5. 어	필요한 내용		

		땡계'의 문제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도움말 19)	정리, 메모	홈페이지
		네 번째 단락의 종성법과 글자의 운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 것임을 언급하기		교과서, 학습지(13),
	모둠별 토론 및 발표	각 모둠별로 '종성법,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 성음법, 가점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학습지 13에 정리하도록 하기	모둠별 토론	
	모둠 발표 및 내용 정리	각 내용(종성법,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 성음법'까지)을 발표시키고 난 후 내용 정리하기 (도움말 20~24)	각 모둠 발표, 필요한 내용 정리하며 메모하기	교과서, 학습지(13), PPT (34~38)
	과제(5) 확인 및 모둠별 토론과 발표	'성음법'과 관련하여 과제('한글'의 풀어쓰기와 모아쓰기에 대해 조사하고 자신의 견해 써 오기)해 온 것을 가지고 모둠별로 토론하여, 풀어쓰기와 모아쓰기의 장단점을 정리하고 의견을 모아 한글을 표기하는 데 더 적절한 방식에 대해 모둠별로 결론내리고 발표하게 하기	두 모둠 발표	PPT(39),
		내용 확인 및 정리 (도움말 25)	필요한 내용 정리, 메모	
	과제 확인 및 발표	'가점법'과 관련하여 우리말에서 오늘날 '장단(長短)이 있는 말, 억양이 있는 말 조사하기' 과제 발표시키기	발표 2명	PPT(40)
		발표 내용에 대해 피드백하기		
	모둠 발표 및 내용 정리	'가점법'에 대해 발표시키기	해당 모둠 발표	학습지(13)
		내용 확인 및 정리하기 (도움말 26)		PPT(40)
마무리	본시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본시 학습 내용 간략히 정리하고 다음 차시 학습 안내 (활동지 1 '6. 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활동지 1을 가지고 소단원 '(2) 중세 국어 ① 세종 어제 훈민정음'의 내용 총정리)	교사의 질문에 대답	PPT(41), 학습지(15)
	과제(6, 7) 제시	·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에 자신의 생각	메모	

	을 덧붙여 써오기 ·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조사해 오고, 자신의 생각 써오기 (학습지 15)		
	인사		

5.3.2.3. 3/3 차시

대단원	1. 국어가 걸어온 길			
소단원	(2) 중세 국어 (中世國語) ① 세종 어제 훈민정음 (世宗御製訓民正音)	차시	3/3	
학습 목표	소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창제의 의의를 이해한다. · 한글의 우수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 나타난 음운, 문법, 어휘, 표기의 특징을 안다. ·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의 상이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읽는다. 		
	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창제의 의의를 이해한다. · 한글의 우수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 나타난 음운, 문법, 어휘, 표기의 특징을 안다. · 훈민정음의 글자 체계를 안다. ·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의 상이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읽는다. 		
학습 형태	개별 학습, 협동학습, 토론(토의), 발표	학습 자료	교과서, 활동지, 학습지, 첨부 자료, PPT	
학습자	고등 학교 2학년			
단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학습 분위기 조성	인사, 출결 확인		
	전시 학습 확인 및 정리	· 첫 번째 시간- '훈민정음'의 의미를 시작으로 동국정운식 한자음과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 읽기, 사라진 낱말과 뜻이 바뀐 낱말, 어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며 내용 정리	활동지1, PPT(42)

		형이 변화된 낱말 등을 학습하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본문을 읽고 내용을 조금씩 파악해봄 · 두 번째 시간-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봄. 본문을 내용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누고 각 단락의 대강의 요지를 살펴 본 후에 각 단락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봄.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활동지 1 '1. 누가 ~ 5. 어떻게'까지 해결함		
	본시 학습 안내	· '훈민정음'의 창제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논의 · 활동지 1을 토대로 '(2) 중세 국어 ① 세종 어제 훈민정음'의 내용 총정리 ·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과제 발표 · '훈민정음'을 배우면서 느낀 점 발표		PPT(43)
	학습의 방향과 방법 제시	· 활동지 1 '6. 왜'의 문제를 해결하기 · 학습은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모둠별 토론과 발표) 형태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기		활동지1
	본시 학습 목표 확인	학습 목표 제시	목표 다 함께 읽기	PPT(44)
전개	과제(6) 확인 및 발표	활동지 1의 '1. 누가'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훈민정음'의 창제자(創制者)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사한 과제를 토대로 모둠별로 토론하고 모둠별 결론을 내보도록 유도하기	모둠별 토론 및 발표 (두 모둠)	활동지1, PPT(45)
		모둠별 결론 내용을 확인하고, 훈민정음의 창제자와 관련한 내용 확인 및 정리 (도움말 27)		
	모둠별 토론 및 발표	활동지 1의 '6. 왜'의 문제와 관련하여 첫 시간에 배운 『훈민정음』의 '체제'를 상기시키면서 교과서의 '세종 어제 서문' 내용을 토대로 '훈민정음 창제 동기와 목적, 그 의의'에 대해서 모둠별로 토론하여 발표해 보게 하기 ※ '훈민정음'의 창제 경위와 세종대왕의 언어 정책 등과 관련하여 '최만리의 반대 상소'	모둠별 토론 및 발표 (두 모둠)	학습지(14), 활동지1, PPT(46)

		내용을 활용하여 토론해 보는 활동도 해 볼 수 있음 (도움말 30)		
		내용 확인 및 정리 (도움말 28, 29)		
	과제(7) 확인 및 발표	어떤 점에서 한글이 우수한 글자인지 자료 조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온 과제를 모듈별로 구성원끼리 돌려 보면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더 많은 증거 자료도 접하고,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살펴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발표 2명	학습지(15)
		한글의 우수성에 대하여 논의하기 ⁷⁷⁾ (도움말 31, 32)		PPT(47), 첨부 자료 (5)
	‘(2) 중세 국어 ① 세종 어제 훈민정음’ 내용 총 정리	활동지 1을 가지고 ‘(2) 중세 국어 ① 세종 어제 훈민정음’ 내용 총 정리 (도움말 33)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기	활동지1, PPT(48)
		궁금한 내용 질문하도록 유도하기	궁금한 내용 질문하기	
	형성 평가 1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기	문제 풀기	형성 평가지, PPT(49)
		형성 평가 1 풀이하기 (도움말 34)	필요한 내용 메모	
	과제(8) 제시	형성 평가 2(1장), 수행 평가(1장) 나눠주기		형성 평가지, 수행 평가지
	학생 발표	‘훈민정음’에 대해 배우면서 느낀 점 발표시키기	발표 6~8명	PPT(50)
		발표에 대해 피드백하기		
마무리	다음 차시 예고	다음 시간부터는 ‘(2) 중세 국어 ② 소학언해 (小學諺解)’ 학습할 것임		교과서, PPT(51)
	과제(9) 제시	‘② 소학언해’ 읽어오기	메모	
		인사		

77) “이 때, ‘한글의 우수성’을 ‘한글의 특성’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우수성이라 함은 특성 중에서도 다른 것과 비교하였을 때에 우수한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충분히 이해하게 한 후, 자신의 말로 쉽게 풀어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답하기 쉬운 것들의 예로 ‘배우기가 쉽다. 발음하기가 편리하다, 음운 조직이 과학

6. 맺음말

그동안 국어과 교육학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국어 지식 영역은 다소 부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광해(1996)는 오늘날 국어과 교육에서 국어 지식 영역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국어 지식 영역이 가질 수 있는 교육적 가치 문제의 탐색이 취약하였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에 대한 논의보다도 그에 상응하는 국어 지식 교육의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더 소홀한 편이었다. 따라서 국어 지식 교육이 활성화 되려면 국어 지식 교육을 둘러싼 교육의 각 부분에 대한 연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국어사는 바로 이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중 하나이다. 국어사는 국어 능력의 향상과 언어문화의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보거나, 국어과 교육에서 언어와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가지는 국어 지식 영역에서 추구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국어과 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대표적인 교육 내용 중 하나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과 교육 목표와 관련을 짓지 않더라도 국어사 교육은 그 가치를 가진다. 국어 교육의 목표가 국어 사용 능력의 향상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조에 있다면 국어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언어의 역

적이다. 어휘가 풍부하다. 표현이 다양하다, 의성어·의태어 등이 많다'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한글의 우수성'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음운 조직이 과학적이다' 뿐이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해야지 모국어 화자의 입장에서 판단한 점이나 모호한 사항은 우수성이라 할 수 없다."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1-2 (2001:153~154)

사적인 흔적이란 문학 작품 속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우리의 생활 국어 속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이고, 국어사에 대한 간단한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현대 국어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어사 교육은 한 민족의 역사 전체에서 볼 때 그 일부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은 ‘국어’라는 의사소통 도구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사색하였다. 따라서 국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깊이 관련된 것이며, 현재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국어 교육의 정체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국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언어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지적·교양적 토대 위에서 보다 더 풍부하고 고급스러운 모국어의 구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 7차 국어 교육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다. 우리가 언어 능력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의 사용에 따른 현실적인 언어란 결코 시간적으로 동질적이지 않으며, 현재 사용하는 언어도 과거에서부터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국어사 교육은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어과 교육 목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도 국어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 국어의 역사를 모르고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기 어렵고, 그다지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문학과와의 관계에서도 국어사 교육이 기초적인 바탕이 되었을 때 올바른 문학 작품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사 교육은 국어과에서 당연히 가르쳐야 하며, 그 위상도 지금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어사 교육은 국어과 교육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국어사 교육이 국어과 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관련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사를 국어과 교육에서 왜 가르쳐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어과 교육에서 국어사 교육이 가지는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하여 국어사를 국어과 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당위성을 찾고, 이에 근거하여 국어사 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 국어과 교육에서의 국어사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바람직한 국어사 교육의 방향을 부분적으로나마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어사 교육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하고 흥미 있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국어의 역사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국어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주며, 우리의 현대 국어 생활과 결부시켜 학생들이 우리 국어의 역사를 친숙하게 느끼고, 국어사 지식이 우리들의 국어 생활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국어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국어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국어사 교육의 방법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우리 국어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고 국어 교육이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교육하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과 관련하여 우리 국어 교육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세워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선택하였다. 훈민정음의 그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은 국어 교과서가 편찬되기 시작한 이래로 국어 교과서

에서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다는 것으로 입증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교육은 ‘훈민정음’의 문화사적 의의와 언해문을 외우고 형태소 분석을 하고 그 주제를 파악하는 정도에만 머물러, 학생들에게 훈민정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를 어렵고 따분한 하나의 문법적인 내용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국어사 교육에 대한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국어사 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우리 문화와 국어 교육에 있어서 구심점이 되는 내용인면서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훈민정음’의 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우리의 정신적 문화 유산을 이해하고 이를 창조적인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며, 현대 국어의 바탕이 된 ‘훈민정음’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우리말을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국어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넓게는 ‘국어사’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중세 국어’의 연구와 지도 방안, 그리고 ‘훈민정음’의 연구와 지도 방안에 이르기까지 본고에서 다룬 내용과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동안 ‘훈민정음’에 대한 교육이 ‘중세’라고 하는 어느 한 시대의 문자로써 현대 국어와 단절되고,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게 되기까지 그 이전의 우리 조상들이 영위 하였던 문자 생활과도 단절된 모습의 교육 내용과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이론 중심의 수업 방식에 문제를 느끼고,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기초적인 자료들과 해석을 참고하여, 훈민정음을 우리 조상들의 문자사의 흐름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음소 문자를 창안하게 된 배경과 기초 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사적인 관점에서 지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우리말 소리의 분류 방식이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들이 훈민정음의 스물여덟 글자에 어떻게 반영되었는
가 하는 음운사적인 설명이 학생들에게 베풀어지는 지도 방법을 가지고 구
체적인 교수·학습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즉, 본고에서는 국어사 교육 내용
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국어사적인 흐름 속에서 고찰하
고, 이를 지도 내용에 반영하여 바람직한 국어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어사의 흐름 속에서, 합리적인 설명에 기초한 국어사 교육이 학생들의 국
어 지식 교육이나 민족 문화의 이해에도 도움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
들의 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말과 글에 대해 소중함과 이를 아름답
게 가꾸려고 하는 태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본고에서 제시한 훈민정음 교수·학습 방법이 실제 교
육 현장에서 그 효과와 실용성을 검증받지 못하여 보다 완성된 교수·학습
방안으로 만들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훈민
정음 교육 내용을 학교급별 교육 내용과의 연관성 속에서 위계성을 가지고
설계하지 못한 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학년 내에서의 수준별 교수·학
습 방안까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교육 과정에서 ‘훈민정음’의 교수·
학습 시간으로 배당된 시간은 1차시에 한하지만 본고에서는 교육 내용의 중
요성에 따라 뒤에 보충 학습으로 제시된 ‘어제 서문’ 뒷부분과 ‘제자해’의
일부분의 내용을 교수·학습 범위에 포함하고, 학습 방법에 있어서 탐구 방
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3차시로 수업을 설계하였으나 내용에 비하여 이 시
간마저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훈민정음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담아보려고 하였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쓰여질 때는
여러 가지 교수·학습 요인을 고려하여 이 가운데서 선별하고 재구성하여
활용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

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마지막으로 국어사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국어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우선 교육 과정상에서 국어사 교육 내용이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며 질적으로도 위계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제적인 국어사 교육 내용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 거의 배제되어 있고, 본질적인 국어사 교육 내용이 고등학교 한 학년 과정에 그것도 하나의 단원 안에 모두 몰려 있는 점을 개선하여, 내용의 난이도와 상세화 정도를 학생들의 인지 발달 과정에 유의하여 위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설정, 배열하여 교육 과정에 제시해야 한다. 제 7차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서는 국어사 교육의 내용을 강화하고 국어사 교육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대폭 강화된 내용이 ‘국어 생활’이나 ‘문법’ 과목 등 선택 과목 속에 포함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아니라 특정 과목을 선택해야만 배울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국어 교과서 안으로 포용하는 등의 다양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단행본

교육 인적 자원부(2001), 『고등 학교 교육 과정 해설 -1 총론-』,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_____ (2001), 『고등 학교 교육 과정 해설 -2 국어-』,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_____ (1999),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 (I) -총론, 특별 활동-』,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_____ (1999),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 (II) -국어, 도덕, 사회-』,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_____ (2006), 『고등 학교 교사용 지도서 문법』, (주)교학사.

_____ (2005), 『고등 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하), (주)교학사.

_____ (2001),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 국어』 1-2,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_____ (2006), 『고등학교 문법』, (주)교학사.

_____ (2005), 『고등학교 국어』 (하), (주)교학사.

_____ (2005), 『중학교 국어』 1-2,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교육부(1998), 『중학교 국어』 3-1,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_____ (1997), 『고등 학교 국어』 (상),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강신항(2001),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김석득(1999), 『우리말 연구사』, 정음문화사.

김광해(1997), 『국어 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승일(1997), 『세계의 문자』, 범우사.
- 김종률(1995), 『훈민정음에 대하여』, 한국문학사(영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배윤덕 외(1998), 『말과 삶』,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기문(2004),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익섭(2000), 『국어학개설』, 학연사.
- _____ (1998), 『국어 사랑은 나라 사랑: 이익섭 교수의 국어학 논설 모음』, 문학사상사.
- 이익섭 외(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_____ (1995), 『월인석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Gari K. Ledyard(1998),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신구문화사.

2. 학술지

- 강신항(2002), 「신숙주와 운서」, 『새국어생활』 제12권 제3호, 국립국어연구원.
- 고영근(2003), 「한국의 전통적 언어철학과 그 근대적 변모」, 『한국의 언어 연구』, 역락.
- 권재일(1995), 「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 지도의 내용」, 『국어교육연구』 2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 김영욱(1998), 「국어사 교육은 과연 필요한가?」, 『선청어문』 제26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
- 민현식(2002), 「국어 지식의 위계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 108, 한국

국어교육연구학회.

박형우(2004), 「국어사 교육의 내용 선정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4, 한국국어교육학회.

서혜경(2001),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 지식’ 영역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33, 국어교육학회.

안병희(2004),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그 협찬자」, 『국어학』 제44집.

_____(2002), 「『훈민정음』(해례본) 三題」, 『진단학보』 제93호.

_____(1997), 「훈민정음 해례본과 그 복제에 대하여」, 『진단학보』 84.

이기문(1992), 「훈민정음 친제론」, 『한국문화』 13.

이도영(1999),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서의 국어사」, 『선칭어문』 제27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_____(1996), 「문화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 『선칭어문』 제24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이성영(1995), 「언어 지식 영역 지도의 필요성과 방향」, 『국어교육연구』 2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이익섭(1998), 「문자사에서 본 동양 삼국 문자의 특성」, 『새국어생활』 제8권 제1호.

이현복(2002), 「21세기 지구촌을 한글 문화권으로」, 『교육경남』 제150호, 경상남도 교육청.

장윤희(2002), 「국어사 지식과 고전 문학 교육의 상관성」, 『국어교육』 108,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황선엽(2004), 「최만리와 세종」, 『문헌과 해석』 26호, 문헌과 해석사.

최인자(2005), 「한국의 언어 문화와 국어 교육」, 『국어교육』 117, 한국국어교육학회.

황미향(2002), 「‘국어 지식’ 관련 단위 구성에 대한 고찰 -고등 학교 국어(상), (하)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34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3. 학위 논문

강명희(2001), 「중등 학교 국어사 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귀영(2003), 「제7차 교육 과정의 중학교 ‘국어 지식’ 영역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홍란(2001), 「고등 학교 국어사 교육 현황과 내용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설학줄(2002), 「학습자 중심의 옛글 학습 지도 방법 연구 -‘세종 어제 훈민정음’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고은(2004), 「국어사 교육 내용 분석 및 문제점 연구 -7차 교육 과정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제종렬(1999), 「중세 국어 지도에 대한 연구 -고등 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추명호(1993), 「중세 국어 어휘 지도 연구 -고등 학교 국어 및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15~16세기 글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현본(2005), 「국어사의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연구 -고등 학교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참고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한글 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

ABSTRACT

The Contents and Methods for the History in the Korean-language Knowledge Domain

- Centering on Teaching and Learning Principle in
Hunminjeongeum(訓民正音) Considering a Change in the Korean Language -

Park Mi-yeong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urrently 7th Korean-language curriculum, is 'to strengthen a learner's creative ability of using Korean language.' When we say the linguistic ability, the realistic language according to its use, means to be never homogeneous in light of time, and the language of being currently used, is also what was accumulated from the past. Accordingly, the education of the Korean-language history can contribute to allowing Korean-language life to be correct and effective. And, in light of the objective of education for Korean-language department, the development in the

Korean language, and the understanding and creation in Korean-language culture, can be also achieved sincerely its objective when assuming that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is well be known. In this sense, the education of the Korean-language history needs to be naturally taught at the department of the Korean language, and its stature will also need to be increased more than now.

In the face of this importance, it is a real situation that the current education of the Korean-language history is negligently addressed at the education of Korean-language department, and is gradually being pulled away from an interest. One of these reasons can be said to be insufficient in the in-depth discussion about which relationship the education of the Korean-language history has with the education of the Korean-language department, and about which relationship it needs to have with. Accordingly, it must be researched on why the Korean-language history needs to be taught at the education of the Korean-language department, which contents need to be taught given requiring to teach, and with which method it should be taught. With this critical mind, it confirmed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that the education of the Korean-language history has in the education of the Korean-language department. And, based on this, it established the contents that need to be taught at the education of the Korean-language history. Aiming to put forward its alternative plan on with which method these contents need to be

taught, it examined the realities and problems about the education of the Korean-language history in the current education of the Korean-language department, centering on curriculum and a textbook, and presented even partially the desirable direction in the education of the Korean-language history. And, in a bid to allow the education of the Korean-language history to be significant and interesting instruction for students, it researched and then presented a method for the practical education of the Korean-language history, through giving an opportunity in which students can have interes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and face learning, through broadening the width of recognition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through allowing students to feel that the knowledge of the Korean-language history can make Korean-language life abundant, through making identity established as a Korean person through the education of the Korean-language history, and through allowing students to possibly proceed with developing this further, with regarding our Korean language as precious. As for the subject of a research, it selected 'Hunminjeongeum(Korean script)' that can be said to the most epoch-making event in our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and can set up identity and peculiarity of our Korean-language education, in relation to the essential question about 'where' 'to whom' and 'what' the Korean-language education teaches. And, it was felt the problem about the educational contents in the looks of the education on 'Hunminjeongeum' in the meantime,

which had been severed from the modern Korean language as the alphabet of any one period called 'medieval times,' and which had been severed even from the alphabet life, in which our ancestors enjoyed before, and about a teaching method focusing on the unilateral theory centering on a teacher. It designed a plan for the teaching and learning guidance so that Hunminjeongeum can be systematically understood amid the flow of alphabet history in our ancestors, while pointing to a researching and learning method centering on learners. Amid the flow of the Korean-language history, the education of the Korean-language history based on the rational description, helps students with understanding the education of Korean-language knowledge and the racial culture. However, it is believed to be able to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in students' ability of the Korean language, and to have influence even upon the preciousness on our words and writing, and the attitude toward trying to decorate this beautifully.

※ 부록 목록

<도움 자료>

과제

- ◎ 과제 1- ‘훈민정음’의 두 가지 의미 조사하기
- ◎ 과제 2- ‘세종 어제 훈민정음’과 예의편에 나온 한자음 읽기
- ◎ 과제 3-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본문 내용을 현대어로 읽고, 뜻풀이하기
- ◎ 과제 4- ‘한글’의 풀어쓰기와 모아쓰기 (자료 조사 + 나의 생각)
- ◎ 과제 5- 우리말에서 장단이 있는 말, 억양이 있는 말 조사하기
- ◎ 과제 6- ‘훈민정음’은 누가 만든 것일까? (자료 조사 + 나의 생각)
- ◎ 과제 7- ‘한글’은 어떤 점에서 우수한 글자인가? (자료 조사 + 나의 생각)
- ◎ 과제 8- ‘(2) 중세 국어 ① 세종 어제 훈민정음’ 형성 평가 2(1장), 수행 평가(1장)
- ◎ 과제 9- ‘② 소학언해’ 읽어오기

학습지

- ☺ 활동지 1- ‘훈민정음’의 의미,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1
- ☺ 활동지 2- 한글 역사 연표 1

- 학습지 1- ‘세종 어제 훈민정음’과 예의편에 나온 한자음 읽기 1
- 학습지 2- 지금 사용되지 않는 글자를 오늘날 소리로 읽기 2
- 학습지 3- 사라진 낱말 대신 쓰이는 낱말 찾기 2
- 학습지 4- 뜻이 바뀐 낱말의 뜻 알아내기 2
- 학습지 5- 낱말 형태가 바뀐 낱말을 오늘날 표기법으로 적기 2
- 학습지 6- 내용 정리 3
- 학습지 7-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본문 내용을 현대어로 읽고, 뜻풀이하기
- 학습지 8- 각 단락의 요지 4
- 학습지 9- 초성 체계 4
- 학습지 10- 중성 체계 5
- 학습지 11- 훈민정음의 초성 제자 원리 5
- 학습지 12- 훈민정음의 중성 제자 원리 5
- 학습지 13- 중성법, 글자의 운용법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 성음법, 가점법) 5
- 학습지 14- ‘훈민정음’을 만든 동기와 목적 7
- 학습지 15- 한글의 우수성 7

평가지

❖ 형성 평가 - 형성 평가 2	8
◆ 수행 평가	8

첨부 자료

- 문헌 자료

□ 첨부 자료 1- 훈민정음 예의편의 마지막 부분 (중성법, 글자의 운용법)	
□ 첨부 자료 2- ‘언해본(諺解本) 훈민정음’ 원본 (월인석보본)	
□ 첨부 자료 3- ‘한문본(漢文本) 훈민정음’ 원본 (예의편)	
□ 첨부 자료 4-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制字解) 원본 (조성해, 중성해, 중성해, 합자해)	
□ 첨부 자료 5- ‘세종 어제 훈민정음’ 영어 번역본	9

- 음성 자료

⊕ 1- ‘세종 어제 훈민정음’ 에 나온 한자의 중국어 발음 들어보기	
⊕ 2- IPA와 UCLA 음성학 랩	9

도움말

■ 도움말 1- 한글 역사 연표	10
■ 도움말 2- ‘훈민정음’의 두 가지 의미	10
■ 도움말 3- 훈민정음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11
■ 도움말 4- 집현전	
■ 도움말 5- 첨부 자료 1 ‘언해본 훈민정음’ 원본 (월인석보본)	12
■ 도움말 6- 첨부 자료 2 ‘한문본 훈민정음’ 원본 (예의편)	
■ 도움말 7- 교과서 31쪽의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 사진에 대한 언급	13
■ 도움말 8-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14
■ 도움말 9- 지금 사용되지 않는 글자를 오늘날 소리로 읽기	16
■ 도움말 10- 글자의 명칭	19
■ 도움말 11- 사잇소리	20
■ 도움말 12- 사라진 말	
■ 도움말 13- 의미가 변한 말	
■ 도움말 14- ‘훈민정음’의 명칭	20
■ 도움말 15- 초성 체계	22
■ 도움말 16- 중성 체계	

■ 도움말 17- 훈민정음의 초성 체자 원리	
■ 도움말 18- 훈민정음의 중성 체자 원리	23
■ 도움말 19- ‘훈민정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4
■ 도움말 20- 중성법	32
■ 도움말 21- 연서법	34
■ 도움말 22- 병서법	36
■ 도움말 23- 부서법	36
■ 도움말 24- 성음법	37
■ 도움말 25- 한글의 모아쓰기	37
■ 도움말 26- 가점법	40
■ 도움말 27- ‘훈민정음’은 누가 만든 것일까?	41
■ 도움말 28-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	45
■ 도움말 29- ‘훈민정음’을 만든 동기와 목적 (참고)	
■ 도움말 30- 최만리 외 집현전 학사들의 반대 장소	48
■ 도움말 31- 한글의 우수성	58
■ 도움말 32- ‘세종 어제 훈민정음’ 영어 번역본	59
■ 도움말 33- 내용 총 정리 (참고)	59
■ 도움말 34- 형성 평가 1 풀이	

PPT

📖 PPT 1- 전시 학습 내용 (1/3차시 실시)	
📖 PPT 2- 본시 학습 단위 (1/3차시 실시)	
📖 PPT 3- ‘한글(훈민정음)’에 대한 나의 생각	
📖 PPT 4- 소단원 학습 목표 (1/3차시 실시)	
📖 PPT 5- 학습 목표 (1/3차시)	
📖 PPT 6- 활동지 1	
📖 PPT 7- ‘훈민정음’의 두 가지 의미	61
📖 PPT 8- 집현전 학사도	62
📖 PPT 9- 첨부 자료 1 ‘언해본 훈민정음’ 원본 (월인석보본)	62
📖 PPT 10- 첨부 자료 2 ‘한문본 훈민정음’ 원본 (예의편)	62
📖 PPT 11- 교과서 31쪽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 사진	
📖 PPT 12- 교과서 33쪽 ‘소학언해’ 사진	
📖 PPT 13- ‘세종 어제 훈민정음’과 예의편에 나온 한자음 읽기	
📖 PPT 14-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 PPT 15 - 『동국정운』 (1, 6권) [또는 국어 (하) 교과서 52쪽 사진 보여주기]	
📖 PPT 16- 지금 사용되지 않는 글자를 오늘날 소리로 읽기	

☞ PPT 17- 글자의 명칭	
☞ PPT 18- 사잇소리	
☞ PPT 19- 사라진 말	62
☞ PPT 20- 뜻이 바뀐 낱말의 뜻	
☞ PPT 21- 어형이 변화된 낱말	
☞ PPT 22- 내용 정리	
☞ PPT 23- 한글 모아쓰기와 풀어쓰기	
☞ PPT 24- 전시 학습 내용	
☞ PPT 25- '세종 어제 훈민정음'과 예의편 현대어로 읽기와 뜻풀이	
☞ PPT 26- 활동지 1	
☞ PPT 27- 학습 목표 (2/3차시)	
☞ PPT 28- 각 단락의 요지	
☞ PPT 29- 한글의 명칭	63
☞ PPT 30- 초성 체계	63
☞ PPT 31- 중성 체계	64
☞ PPT 32- 훈민정음의 초성 제자 원리	
☞ PPT 33- 훈민정음의 중성 제자 원리	
☞ PPT 34- 중성법	66
☞ PPT 35- 연서법	
☞ PPT 36- 병서법	
☞ PPT 37- 부서법	
☞ PPT 38- 성음법	
☞ PPT 39- 한글 모아쓰기와 풀어쓰기	
☞ PPT 40- 가점법	66
☞ PPT 41- 2차시 과제 (3차시 실시)	
☞ PPT 42- 1·2차시 학습 내용 (3/3차시 실시)	
☞ PPT 43- 본시 학습 (3/3차시)	
☞ PPT 44- 학습 목표 (3/3차시)	
☞ PPT 45-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증거	
☞ PPT 46-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	
☞ PPT 47- 한글의 우수성	67
☞ PPT 48- '활동지 1' 내용 총 정리	
☞ PPT 49- 형성 평가 1	
☞ PPT 50- '훈민정음'을 배우고 나서	
☞ PPT 51- 다음 차시 예고	
<각주 참고 사진>	68

※ 부 록

<도움 자료>

학습지

☺ 활동지 1- '훈민정음'의 의미,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훈민정음 (訓民正音)	
1. 훈민정음	
①	
②	
2. 누가	
3. 언제	
4. 어디서	
5. 무엇을	
6. 어떻게	
7. 왜	

☺ 활동지 2- 한글 역사 연표

· 출처: 디지털 한글 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renew/history/development/year/year_01.jsp~06.jsp

● 학습지 1- '세종 어제 훈민정음'과 예의편에 나온 한자음 읽기

한자	世	宗	御	製	訓	正	音	中	國	字	百	姓	爲	便	安
동국정운식 표기	생	종	영	쟁	훈	정	음	둥	국	쥬	빅	성	윙	뻬	한

오늘날의 한자음																	
한자	君	虬	快	業	斗	覃	吞	那	驚	步	漂	彌	卽	慈	侵		
동국정운식 표기	군	꿀	쾌	업	들	맘	툰	낭	별	뽕	푼	밍	즉	쥬	침		
오늘날의 한자음																	
한자	戍	邪	搥	虛	洪	欲	閭	穰									
동국정운식 표기	슌	쌍	흠	형	홍	욕	령	상									
오늘날의 한자음																	
한자	吞	卽	侵	洪	覃	君	業	欲	穰	戍	驚						
동국정운식 표기	툰	즉	침	홍	맘	군	업	욕	상	슌	별						
오늘날의 한자음																	
한자	乃	終	點	上	聲	平	入										
동국정운식 표기	냉	쥬	뎡	쌍	성	뽕	십										
오늘날의 한자음																	

● 학습지 2- 지금 사용되지 않는 글자를 오늘날 소리로 읽기

음운	ㅼ	ㅽ	ㅿ	ㅾ	ㅿ	ㅿ	ㅿ
옛 글자	ㅼ들	ㅽ메	ㅿ르미니라	ㅾ르니라	히어	수비	글바
오늘날 소리	뜻을	쌈에	따름이니라	빠르니라	하여금	쉽게	나란히
음운	ㅿ				ㅿ		ㅿ
옛 글자	처섬	말쓰미	스뎡디	홀씨	뎡ㄴ노니	흠	흠
오늘날 소리	처음	말쌈이	통하지	하므로	만드니	하는	할

● 학습지 3- 사라진 낱말 대신 쓰이는 낱말 찾기

사라진 낱말						
대신 쓰는 낱말						

● 학습지 4- 뜻이 바뀐 낱말의 뜻 알아내기

	어린	어엿비	목소리	
알아 낸 낱말 뜻	어리석은	불쌍히, 가엾게	목구멍소리	

● 학습지 5- 낱말 형태가 바뀐 낱말을 오늘날 표기법으로 적기

	니르고져	ㅿ츨내	ㅼ들	너겨	뎡ㄴ노니	히어
바뀐 어형	이르고자	마침내	뜻을	여겨	만드니	하여금
	수비	니겨	ㅽ메	ㅿ르미니라	처섬	ㄴ트니라
바뀐 어형	쉽게	익히어	쌈에	따름이다	처럼	같으니라

	니소리	가운뎃	니서쓰면	가벼웁	뿔디면	브터쓰고
바뀐 어형	잇소리	가운데	이어 쓰면	가벼운	쓰려면	붙여서 쓰고
	울흔녀기	물윗	모로매	어우러사	이느니	더으면
바뀐 어형	오른쪽에	무릇	모름지기	어울려야	이루나니	더하면
	느픈소리	둘히면	더우믄	빠르니라		
바뀐 어형	높은 소리	둘이면	더하는 것은	빠르니라		

● 학습지 6- 내용 정리

no.		오늘날 쓰이는 낱말의 뜻	사라진 낱말	뜻이 바뀐 낱말	어형이 변화된 낱말
1	스몯 .디	통하지	○		
2	전 .츄 .료	까닭으로	○		
3	어 .린	어리석은		○	
4	니르 .고 .져	이르고자			○
5	막 .츄 :내	마침내			○
6	.쁘 .들	뜻을			○
7	시 .려	능히	○		
8	.노 .미	사람이			○
9	하 .니 .라	많으니라	○		
10	:어엿 .비	불쌍히, 가엾게		○	
11	너 .겨	여겨			○
12	땡 .그노 .니	만드니			○
13	:히 .여	하여금			○
14	:수 .빚	쉽게			○
15	니 .겨	익히여			○
16	.뿌 .매	습에			○
17	쁘르 .미니 .라	따름이니라			○
18	:엄 쏘 .리	어금뉘소리	○		
19	.처섬	처음			○
20	.피 .아	피(서)			○
21	글 .바	나란히	○		
22	.ᄃ .뜯 니 .라	같으니라			○
23	.혀 쏘 .리	혓소리			○
24	입 시 .울 쏘 .리	입술소리			○
25	.니 쏘 .리	잇소리			○
26	목소 .리	목구멍소리		○	
27	.반 .혀 쏘 .리	반혓소리			○
28	.반 .니 쏘 .리	반잇소리			○

29	가·온·뒷 소·리	가운뎃소리(중성)			○
30	:냉終중기 소·리	끝소리(중성)	○		
31	니·셔·쓰·면	이어 쓰면			○
32	입시·울가·빅야·븐소·리	입술 가벼운 소리			○
33	어·울·워	어울러, 함께			○
34	·빨·디·면	쓰려면			○
35	브·터·쓰·고	붙여서 쓰고			○
36	·올흔녀·기	오른쪽에			○
37	물읏	무릇			○
38	모·로·매	모름지기			○
39	어·우러·샤	어울려야			○
40	:이·느·니	이루나니			○
41	더으·면	더하면			○
42	·룻	가장			○
43	노·픈 소·리	높은 소리			○
44	:들·히·면	들이면			○
45	더·우·믄	더하는 것			
46	쌩랏·니·라	빠르니라			

● 학습지 8- 각 단락의 요지

단락	범위	주제	내용
1	28쪽	세종 어지(御旨)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와 목적
2	46쪽~48쪽	초성과 된소리 글자의 음가(音價)	① 초성: 어금닛소리, 헛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소리, 반헛소리, 반잇소리 ② 된소리 글자: 기 디 배 짜 쓰 히
3	49쪽	중성의 음가	중성: · 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ㅋ
4	첨부 자료 참고	중성과 글자의 운용(運用)	중성 규정,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 성음 법, 사성법

● 학습지 9- 초성 체계

	어금닛 소리 (아음)	헛소리 (설음)	입술 소리 (순음)	잇소리 (치음)		목구멍 소리 (후음)	반헛소리 (반설음)	반잇소리 (반치음)
예사소리 (진청)	ㄱ	ㅋ	ㆁ	ㅅ	ㅆ	ㅇ		
거센소리 (차청)	ㅋ	ㅌ	ㅍ		ㅊ	ㅎ		

	내용	본문의 예
가점법 (加點法)	<p>점 더하기: 성조(聲調) 표시 방법으로 글자의 왼쪽에 점 더하기</p> <p>① 거성(去聲): 점 1개, 가장 높은 소리</p> <p>② 상성(上聲): 점 2개, 처음은 낮고 나중은 높은 소리</p> <p>③ 평성(平聲): 점이 없음, 낮고 평평한 소리</p> <p>④ 입성(入聲): 거성, 상성, 평성과 점을 더하기가 같음, 빨리 끝나는 소리 (促急)</p>	<p>① 거성(去聲): 모·로·매, 가·온·뒷 소리 ㄱㅌ니라</p> <p>② 상성(上聲): :쌍 성·이·오, :덤, :업스·면, :이늑·니</p> <p>③ 평성(平聲): 섯랏·니·라, 헨가·지로·디, ·올헨녀·괴</p> <p>④ 입성(入聲): ·숯, ·뵈(거 성 형태), :업스·면(상성 형태), 목소·리(평성 형태)</p>
성음법 (聲音法)	<p>글자 합하기(合字): 모든 글자는 합해져야 소리를 이룸</p> <p>→ 초·중·종성자를 자소(字素)로 보고 이들이 합해져야만 하나의 음절을 나타낼 수 있다.</p> <p>① 초성 + 중성 + 종성</p> <p>② 초성 + 중성</p> <p>③ 중성 + 종성</p>	<p>① 초성 + 중성 + 종성</p> <p>말 = ㅁ(초) + ㅌ(중) + ㄹ(종)</p> <p>섬 = ㅅ(초) + ㅓ(중) + ㅁ(종)</p> <p>전 = ㅈ(초) + ㅓ(중) + ㄴ(종)</p> <p>② 초성 + 중성</p> <p>나 = ㄴ(초) + ㅌ(중)</p> <p>펴 = ㅍ(초) + ㅓ(중)</p> <p>새 = ㅅ(초) + ㅐ(중)</p> <p>③ 중성 + 종성</p> <p>엄 = ㅓ(중) + ㅁ(종)</p> <p>울 = ㅓ(중) + ㄹ(종)</p> <p>온 = ㄴ(중) + ㄴ(종)</p>
종성법 (終聲法)	<p>‘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p> <p>: 종성은 초성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p> <p>→ 종성을 표기하기 위해서 따로 문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의 글자를 그대로 쓴다.</p>	<p>ㄱ: 둥꺾, 목소리</p> <p>ㄴ: 피어나는</p> <p>ㄷ: 시러피디 몸흙</p> <p>ㄹ: 나랏말쌈미</p> <p>ㅁ: 덤더우믄</p> <p>ㅂ: 입시울가비야븨소리</p> <p>ㅅ: 뭇노푼소리오</p> <p>ㅈ: 꽃(花)</p>

	내용	본문의 예
연서법 (連書法)	이어쓰기: 초성자를 위 아래로 이어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蚪蜂봉쪼, 斗蜂봉쪼, • 봉: 수비니겨, 글바쓰면, 卍蜂봉쪼, 斗蜂봉쪼, 입시울가빅 야본소리, • 풍: 漂蜂봉쪼
	내용	본문의 예
병서법 (並書法)	<p>나란히 쓰기: 초성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기</p> <p>① 각자 병서(各字並書): 같은 자음을 반복해서 쓰기</p> <p>② 합용 병서(合用並書):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계(系) -니계(系) -비계(系) 	<p>① 각자 병서: ㄱ, ㄷ, ㅁ, ㅍ, ㅈ, ㅊ, ㅌ, ㄴ 등</p> <p>② 합용 병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계(系): ㅅ, ㅆ, ㅈ, ㅊ -니계(系): ㄷ, ㅌ, ㅍ, ㅍ -비계(系): ㅁ, ㅍ

● 학습지 14- '훈민정음'을 만든 동기와 목적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	덧붙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애민 정신: ② 자주 정신: ③ 실용 정신: 	

● 학습지 15- 한글의 우수성

한글은 어떤 점에서 우수한 글자인가?	
글자 수	한글은 문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소 문자이다.
읽는 방법	한글은 한국어의 음소와 거의 1 : 1로 대응한다.
글자 모양과 발음기관의 관계	한글은 글자를 보고 그 글자의 음가를 짐작할 수 있으므로 소리 글자의 특징을 살릴 수 있다.
체계	한글은 제자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한글의 표의성	한글은 모아쓰므로써 표의성을 드러낼 수 있다.

독창성	한글은 탄생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자이다.
다른 글자와 비교	로마 문자와 비교해 보면 한글에 함축된 음운학 지식이 얼마나 깊고 정교한지 금방 드러난다. 예컨대 이나 잇몸에 혀를 댔다 떼면서 내는 소리들은 로마 문자로는 'N, D, T'로 표시하지만, 이 글자들 사이에는 형태적 유사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한글은 이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글자를 'ㄴ, ㄷ, ㅌ' 처럼 형태적으로 비슷하게 계열화함으로써, 이 소리들이 비록 자질은 다르지만 나는 곳이 같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 준다. 즉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음소 단위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현대 언어학자들처럼 음소를 다시 자질로 나눌 줄 알았던 것이다.
한글에 대한 외국의 평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한글의 가치 또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한글의 가치	

평가지

❖ 형성 평가 - 형성 평가 2

한글의 우수성은 특히 그 제자(制字) 원리에 있다. 한글의 제자 원리는 얼마나 우수한가? 훈민정음 연구로 학위를 받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 게리 레드야드(Gari K. Ledyard)는 그 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찬탄했다. “글자 모양과 기능을 관련시킨다는 착상과 그 착상을 실현한 방식에 정녕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유구하고 다양한 문자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다. 소리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체계화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그런데 그 글자 모양 자체가 그 소리와 관련된 조음 기관을 본뜬 것이라니, 이것은 견줄 데 없는 언어학적 호사다.”

레드야드가 지적했듯, 한글의 닿소리 글자들은 조음 기관을 본뒀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리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체계화’했다는 레드야드의 말은 무슨 뜻인가?

언어학적 호사의 극치라는 레드야드(Gari K. Ledyard)의 찬탄은 과장이 아니다.

- 고종석, 한글, 언어학적 호사의 극치, 한국일보, 2001, 10, 17

◆ 수행 평가

앞으로 우리는 정보의 표시 수단으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처리 및 교환을 위하여 문자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로 컴퓨터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이미 의사소통의 세계에서 컴퓨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각 언어 공동체의 말과 사고 방식을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컴퓨터상에서 구현되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제 한 언어의 의사소통력은 그것이 컴퓨터 체제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되느냐에 달려 있기도 한 것이다.

• 위의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하여 ‘정보화 시대의 한글의 가치’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 500자 분량으로 쓰시오.

• ‘(2) 중세 국어 ① 세종 어제 훈민정음’을 학습하면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글의 특성’과 연관지어 내용을 작성하시오.

첨부 자료

- 문헌 자료

□ 첨부 자료 5- ‘세종 어제 훈민정음’ 영어 번역본

The sounds of our country's languag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iddle Kingdom and are not confluent with the sounds of characters. Therefore, among the ignorant people, there have been many who, having something they want to put into words, have in the end been unable to express their feelings. I have been distressed because of this, and have newly designed twenty-eight letters, which I wish to have everyone practice at their ease and make convenient for their daily use. (HC 0.0.)

“글자 모양과 기능을 관련시킨다는 착상과 그 착상을 실현한 방식에 정녕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유구하고 다양한 문자의 역사에서 그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다. 소리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체계화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그런데 그 글자 모양 자체가 그 소리와 관련된 조

음 기관을 본뜬 것이라니, 이것은 견줄 데 없는 언어학적 호사다.”

- 미국 컬럼비아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 게리 레드야드(Gari K. Ledyard)

- 음성 자료

- ⊕ 1-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 나온 한자의 중국어 발음 들어보기
- ⊕ 2- IPA(<http://www2.arts.gla.ac.uk/IPA/ipa.html>)와 UCLA 음성학 랩 (<http://hctv.humnet.ucla.edu/departments/linguistics/VowelsandConsonants/index.html>)

도움말

■ 도움말 1- 한글 역사 연표

대단원 '1. 국어가 걸어온 길'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한글 역사 연표'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또는 본 지도안에서 제시한 '활동지'처럼 교사가 미리 틀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학생들이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표를 완성해 나가는 활동도 해 볼 수 있다. '한글 역사 연표'를 완성해 나가면서 국어의 역사적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과서 밖의 관련 지식 내용에까지 생각을 넓힐 수 있고, 이것이 심화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습의 효과도 배가(倍加)될 수 있다.

■ 도움말 2- '훈민정음'의 두 가지 의미

훈민정음(訓民正音)

세종25년(1443년) 12월에 중국 음운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중세 국어의 음운을 분석하고 이의 문자화, 곧 훈민정음 창제에 성공한 세종은 그 보필자들로 하여금, 이 신문자(新文字)를 위한 해례서(解例書)를 편찬케 하였다. 이 해례서는 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세종 28년(1446년) 9월 상한(上澣)에 완성되었는데, 그 서명(書名)은 신문자와 똑같은 『훈민정음』이었다. 그리하여 훈민정음은 중의성을 가지게 되어, 새 문자체계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에 관한 서명(書名)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체계의 이름은 오늘날의 이름인 한글로 부르고, 서명으로는 이 책이 한문으로 되어 있고 해례편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원본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책의 내용은 세종 어제(世宗御製) 서문과 신문자의 음가(音價) 및 운용법(運用法)을 밝힌 예의편(例儀篇)이 본문처럼 되어 있고, 이를 해설한 해례편(解例篇)이 제자해(制字解), 초성해(初聲解), 중성해(中聲解), 종성해(終聲解), 합자해(合字解), 용자례(用字例)의 순으로 나뉘어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권말(卷末)에 정인지의 서문이 실려 있다.

해례편은 신문자의 제자원리(制字原理)를 주로 밝히고, 자모(字母)의 음가, 자모(字母)의 운용법(運用法), 이 문자가 표시하는 음운체계 등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다만 당시의 우리 나라는 『성리대전(性理大全)』 등을 통하여 중국의 송학 사상을 고도로 섭취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므로 해례편의 기술에 있어서도 이러한 송학(宋學) 이론을 적용하여 일종의 언어 철학을 전개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제자 원리, 모음자의 음가에 대한 설명 등은 현대 음성학이나 언어학의 이론과도 부합되는 과학적인 것이었다. 이 책이 높이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고, 이 책은 또한 조선 왕조 5백 년 동안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훈민정음 관계 학술 서적이기도 하였다.

현존본은 『동국정운(東國正韻)』 권 1, 6과 함께 안동시 주촌(周村)의 이한걸씨 맥에 전래되던 것으로, 1940년 여름 경학원(經學院)에 수학하던 이씨의 3남 용준씨가 스승인 김태준 교수에게 알려져 (고)김형필씨가 구입하여 간송미술관의 소장이 된 것이다. 전권 33장 1책의 목판본이며 아직까지 국내 유일본이다. 그러나 이 유일본도 원래 완전한 것이 아니고 전래된 책에는 표지는 물론이고 권두(卷頭) 2장이 떨어져 나갔는데, 서예에 능한 이용준씨가 그때까지 알려진 월인석보 권두의 훈민정음언해와 세종실록 1446년 9월조를 참고하여 행관(行款)을 맞추어 베껴 보수하여 전씨에게 넘겼다고 한다. 그러므로 권두 2장은 보사(補寫)로 말미암아 ‘세종 어제(世宗御製) 서문의 끝 자 ‘耳’가 ‘矣’로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등 적지 않은 잘못이 있게 되었다.

이 책의 집필자들은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최항, 박팽년, 강희안, 이개, 이선로 등 8인으로 주로 집현전의 소장 학자들이다. 소위 『언해본 훈민정음(諺解本訓民正音)』은 『한문본 훈민정음』의 예의편만을 국역(國譯)한 것인데, 역자나 간행된 연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세종 말년부터 세조초 초기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역본의 원전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세조 4년(1458)에 간행된 『월인석보』의 책머리에 실려 있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다.

■ 도움말 3- 훈민정음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한글은 그 탄생 기록을 가지고 있는 문자다. 『세종실록』 권 102 세종 25년 12월조에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 是謂訓民正音’

(이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지으셨다. …… 이를 훈민정음이라 부른다.)

한글처럼 문자를 만든 시기와 창제 주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앞서서 이미 한글이 독특한 문자라는 것이 꽤 밝혀졌지만 한글은 이 점에서도 일반 다른 문자와 아주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위의 기록은 한글을 만든 사람이 당시의 왕이었던 세종이었다는 것도 알려 준다. 그리고 한글의 당시 이름이 ‘훈민정음’이라는 것도 알려 주고 있다.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한글이 한문에 능통했던 지식층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새 문자를 제공해 줄 목적으로 창제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새 문자에 대한 정보 치고는 세종실록의 기록은 너무 소략하다. 창제 연대, 창제자, 문자 명칭에 대한 정보 이외에 한글 자모가 28자인 것은 알려 준다. 또 앞에서 인용한 기록의 생략된 부분에는 한글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어 있고 그것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한 자가 된다는 모아쓰기에 대한 정보도 있고, 한글이 우수하여 모든 음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그러나 한글 자모의 모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모아쓰기를 한다는 것인지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정보도 이 기록에는 없다.

한글에 대한 이러한 정보는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간행된 『훈민정음』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훈민정음』은 앞에서 말한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의 명령을 받고 한글에 대해 한문으로 자세히 해설을 붙인 책이다. 글자 이름도 ‘훈민정음’이었는데 책의 이름도 그와 같아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책을 흔히 『훈민정음 해례본』이라 부른다. 어쨌든 한글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 전모를 드러낸 것은 이 『훈민정음』에 의해서였다. 그리하여 흔히 한글이 창제된 것은 1443년(또는 1444년)이나 그것이 세상에 공포된 것은 이 책이 간행된 1446년일 것이라고 해석한다. 한국에서는 ‘한글날’이라는 특이한 기념일을 만들어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이 책이 간행된 1446년 음력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9일로 정하였다.

창제일이든 반포일이든 문자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세계 문자들 대부분은 오랜 세월을 걸쳐 누가 만든 지도 모르게 서서히 만들어졌다. Columas(1989:3)의 다음 말은 이러한 사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그것은 어느 날 누군가가 문자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발명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에서는 발명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글은 바로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를 짜낸 발명품이다. 한글은 그 탄생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세계 문자사(文字史)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문자라는 사실이 우리가 한글의 역사를 공부 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일 것이다.

■ 도움말 5- 첨부 자료 2 ‘언해본 훈민정음’ 원본 (월인석보본)

월인석보(月印釋譜)(01, 02)

1) 세종 25년은 1443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12월이라고 한 것은 음력 12월이므로 1444년까지 걸친다(그 해 음력 12월은 10일까지는 1443년이었고 11일부터는 1444년이었음). 한글의 창제 연대를 남한에서는 대개 1443년이라 하는데 북한이나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444년으로 기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어학계에서는 양력이 공용되기 이전의 날짜를 음력에서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술하는 관행이 있다. 한글날이 10월 9일이 된 것이나, 한글 창제 시기를 1443년 1월이라 하는 일 등이 그러한 관행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에 따르면 역사 서술에서 큰 곤란이 일어난다. 모든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날과 달은 말할 것도 없고 해도 바뀌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의 만세력을 상용하여야 하고, 역사 연표에 음력과 양력이 함께 표시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우리는 국어학계의 관행에 따르는 일을 지양하고, 역사학계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 창제를 1443년 12월의 일로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병희 (1997:191)

- 세조(世祖), 1459(세조5), 목판본, 2권권 1책책, 서강대

세조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합쳐서 1459년(세조 5)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석보상절』은 세조(世祖)가 왕자 시절에 세종의 명을 받아서 어머니인 소헌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지은 석가모니의 일대기이고, 『월인천강지곡』(3권, 580여수)은 세종이 『석보상절』의 내용을 보고 이를 노래로 만든 찬불가이다. 『월인석보』의 체제는 부왕(父王)인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하고, 세조가 지은 『석보상절』을 그에 대한 주석의 형식으로 하였다. 책 이름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에서 앞의 두 글자씩을 따온 것이다.

이 책에 쓰인 한글 글자는 그 획(劃)이 한글 창제 당시와는 달리 부드러운 필서형으로 바뀌어 한글 자형(字形)의 변천 역사를 보여준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석보상절』과 함께 한글 창제 직후의 산문자료로서 국어학, 국문학, 불교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전체 25권 가운데 원간본으로 권 1, 2, 7~15, 17~20, 23, 25의 17권이 전하고, 16세기 이후에 다시 간행된 중간본도 있다. 대부분이 국가 지정문화재인 보물(745호, 935호)로 지정되었다.²⁾

■ 도움말 7- 교과서 31쪽의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 사진에 대한 언급

<참고>

해례본의 현상과 그 체제

세종은 1443년(세종 25년) 12월에 국어 표기를 위하여 28자로 된 문자 체계를 창제하여 훈민정음이라 하고, 1446년(세종 28년) 9월 상순에는 이 문자 체계에 대하여 친제한 글과 집현전 학사들에게 짓게 한, 그 문자 체계에 대한 해설과 표기의 용례 곧 해례(解例)를 합쳐서 훈민정음이란 책으로 간행하였다. 간행된 뒤로 거의 500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해례본이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되어 이제 겨우 50년 남짓하지만, 그 사이에 그에 대한 논저(論著)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영인(影印) 등에 의한 많은 복제(複製)로 널리 보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해례본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완벽한 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례본은 동국정운 권 1, 6과 함께 안동시 와룡면 주촌의 이한걸(李漢杰) 씨 덕에 전래되던 것으로, 1940년 여름 경학원(經學院)에 수학하던 이씨의 3남 용준(容準) 씨가 스승인 김태준(金台俊) 교수에게 알려서 전형필(全鑿弼) 씨가 구입하여 간송 미술관(澗松美術館)의 소장이 된 것이다. 전래된 책에는 표지는 물론이고 권두(卷頭) 2장이 떨어져 나갔는데, 서예에 능한 이용준 씨가 그때까지 알려진 월인석보 권두의 훈민정음 언해와 세종실록 1446년 9월조를 참고하여 행관(行款)을 맞추어 베껴 보수하여 전 씨에게 넘겼다고 한다. 그러므로 권두 2장은 보사(補寫)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잘못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보존 상태는 위에 말한 보

2) 이호권, 디지털 한글 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renew/science/word_data/detail.jsp?d_code=00182&kind=G&g_class=03)

사와 표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하다. 보수된 뒤의 2장, 곧 본문 장 3, 4의 아래쪽 모서리가 약간 마모되고 책장의 접은 부분이 떨어져 나갔으나 우연히도 그 곳은 글자가 없는 곳이다. 그런데 책장에는 해례본과 무관한 후대의 글씨가 나타난다. 본문 장 4b는 원래 계선만 있는 공백인데, 해례의 첫머리와 대학혹문(大學或問)의 한 구절을 낙서한 글씨가 있다. 현재는 책장이 모두 배접되고 깨끗한 새 표지와 호엽(護葉)까지 있는 선장본(線裝本)으로 장정되어 지배의 글을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면(印面)으로도 지배에는 붓으로 쓴 글을 볼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글은 낙서가 아니라 경서언해(經書諺解)를 베낀 것이 아닌가 한다. 글에서 ‘공즈 丨’와 같은 구절이 판독되기 때문이다. 원래 지배의 글은 책을 풀어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책장 접은 부분의 파손으로, 호접장(胡蝶裝)의 책과 같이 인면과 지배가 번갈아 나타나는 상태에서 공백인 지배에 쓴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책은 사침안정법(四針眼訂法)으로 매여 있다. 중국과 일본의 선장본(線裝本)과 같은 장정이다. 이는 전 씨가 주장한 뒤에 개장한 결과다. 원장(原裝)대로 남아 있거나 옛날의 개장(改裝)으로라도 남아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장정법에 따라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으로 매인 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에 말한 대로 지금의 책은 앞뒤에 각각 비단 표지와 근래 화선지의 호엽이 있다. 안정법(眼訂法)과 함께 새로 개장하면서 보수한 것이라 믿는다.

판식(板式)에 대하여는 사주쌍변(四周雙邊) 유계(有界)로서 본문이 반엽(半葉) 7행 11자이고 해례가 8행 13자이며, 판심(版心)이 세흑구(細黑口), 상어미(上魚尾), 판심제(版心題), 하어미(下魚尾), 장차(張次), 세흑구로 되었다는 보고가 가장 이르며 비교적 정확하다.³⁾ 그러나 세흑구는 흑구(黑口)라야 한다. 접힌 곳이 마모되어 흑구가 가늘어 보이지만, 원래는 판심 넓이의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어미⁴⁾는 흑어미(黑魚尾)로서 모두 아래로 향하고 있다. 이른바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인데, 이러한 양식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보다 앞선 것으로 한글 문헌으로는 유일한 예다. 판심제는 본문이 ‘正音’, 해례가 ‘正音解例’이며, 장차(張次)도 독립되어 표시된다. 따라서 본문은 4장, 해례는 29장으로, 합치면 33장의 책이다. 그런데 보수된 본문 앞 2장의 행관(行款)은 원본의 뒤 2장에 따르고 있으나 판심은 흑구와 흑어미, 그리고 상비(象鼻)와 중봉(中縫)의 경계 등이 표시되지 않았다. 판심제와 장차만 뒤 2장의 그것과 비슷한 위치에 써넣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앞 2장의 보수가 매우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도움말 8-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 『동국정운』
 - 세종 29년(1447년)에 신숙주, 최항, 성삼문 등이 편찬한 운서(韻書)로, 명나라 『홍무정운』의 영향을 받아 당시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통일 정리한 한자의 사전(字典). 세종 30년(1448년)에 간행]
 - 당시의 현실 한자음을 중국의 한자 원음에 가깝도록 개신(改新)하고자 간행하였음

3) 이상백 (1957:21), 『한글의 기원』, 안병희 (1997:193), 각주 6) 인용.

4) 판심(版心)의 어미(魚尾)는 조선 초기에는 하향(下向), 중기에는 내향(內向), 중기 이후에는 꽃무늬가 추가되었다.

- 세조 이후 소멸됨에 따라 다시 현실 한자음이 사용됨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① 초성에 ‘ㄱ, ㄷ, ㅃ, ㅍ, ㅈ, ㅊ’과 ‘ㅍ, ㅇ, ㅅ, ㅇ’을 재구성하여 표기하였으며(字倣, 便便, 安한, 邑읍, 洪홍, 穰상, 入입) ② 모든 한자음에 초성, 중성, 종성의 3성을 갖추어 표기하였고(世生, 字倣, 斗돌, 漂플 등) ③ 르말음을 가진 한자에 ‘ㄹ’을 보충하여 표기하는(以影補來 : 達달, 驚별, 戌슌 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당시의 우리나라 현실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을 절충한 것으로 인위적인 성격이 강하고 언어 현실을 무시한 한자음이어서, 세조대에까지는 모든 문헌에 사용되었으나, 성종 중기의 일부 불경 언해에 사용된 후 쓰이지 않게 되었다.

<참고>

『해례본』의 한자음 표기와 관련하여

『해례본』의 한자음은 『동국정운』의 한자음과 다른 표기이다. 예컨대 『동국정운』에서는 현실을 감안한 절충식 표기가 채택(八聲韻尾 t가 이른바 ‘斗輕爲闊’의 현실을 감안하여 ‘以影補來’란 절충식 표기가 채택)된 반면, 『해례본』에서는 현실을 무시하고 원칙에 따른 표기 ‘ㄷ如別爲驚’(해례 17b, 중성해)가 그것이다. 그리고 중성으로 후음과 순경음으로 표기되는 ‘쟁, 풀’가 중성만으로 끝나는 ‘쾌, 꺾’(해례 15a, 초성해)로 표기되고⁵⁾ 입성으로서 거성과 같이 하나의 방점이 표기되는 ‘업, 즉’이 위의 ‘驚’과 같이 방점 없이 ‘업(해례 15a, 초성해), 즉(해례 16a, 중성해)’ 등으로 표기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운미 표기의 차이는 『동국정운』에서의 한자음 표준화 과정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입성의 방점 표기는 인체의 잘못으로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방점은 조선어학회 영인본에서 2점, 통문관 영인본에서 1점으로 판독되어 차이가 있으나 ‘快’의 한자음 표기에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례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快’의 한자음에도 방점 표기는 없다. 따라서 『해례본』에서는 한자음의 표기에는 인체의 방점을 붙이지 않은 것이 된다. 이에 우리는 『동국정운』의 편찬 과정에서 운미의 표기와 함께 방점 표기도 약간의 곡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해례본』의 독특한 한자음 표기는 『동국정운』으로 한자음 표기가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한 단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추정할 수 있다.

5) 초성 중에서 유독 ‘ㅇ’이 용자례에서 제외되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것은 이 문자가 동국정운의 한자음 표기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자음에서 ‘ㄹ’ 중성은 중국어에서는 ‘ㄷ’이므로 이 둘을 절충하여 ‘ㄹ’ 다음에 ‘ㅇ’을 덧붙였는데 이를 ‘이영보래(以影補來)’라고 하였다. 따라서 ‘ㅇ’은 음운이 아니라 입성임을 나타내주는 부호였다. 한자음 이외의 표기에 사용된 ‘ㅇ’의 예는 세종·세조대 문헌에 다음의 두 경우에 국한되어 있었다. ① 동명사 어미의 표기. 흥 것, 건너실 제 등(그러나 이들은 또 ‘홀 것’, ‘건너실 제’와 같이 표기되기도 하였다.) ② 사이시옷 대신 쓰임. 先考ㅇ뜯(용비어천가) 快ㅇ字, 那ㅇ字(훈민정음언해) 등.

6) 중성 ㅇ, ㅁ은 『동국정운』에 나타나고, 그에 따라 한자음을 표기한 언해본에서는 각각 ‘快’, ‘뺨’의 중성으로 사용되어 있다. 이들이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助事)의 연결 등 실제 언어실사(言語實事)로는 무시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표기로는 엄연한 중성인 것이다. 그러나 해례본 ‘초성해’의 설명에

■ 도움말 9- 지금 사용되지 않는 글자를 오늘날 소리로 읽기

이들의 음가는 다음과 같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읽는다.

(가) ‘ㅼ, ㅼ’은 어두 자음군으로 ‘ㅅ’과 ‘ㄷ’, ‘ㅅ’과 ‘ㅅ’이 각각 제 음가대로 발음되었으리라고 보나, 편의상 된소리로 읽는다.

(나) ‘ㅸ, ㅸ’은 된소리로 발음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 ‘ㅻ’는 ‘여’음을 발음할 때 목구멍을 조금 좁혀서 발음했을 것으로 추정하나, 편의상 ‘여’로 읽는다.

(라) ‘ㅽ’은 양순유성마찰음 [β] 으로, ‘ㅿ’는 치조유성마찰음 [z] 로 발음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나, 편의상 ‘ㅅ’, ‘ㅅ’으로 읽는다.

(마) ‘ㅿ’는 ‘ㄱ’과 ‘ㅅ’ 사이에서 나는 음으로 보나, 편의상 ‘ㅅ’로 읽는다.

(바) ‘ㅇ’은 지금의 종성에 쓰이는 ‘ㅇ’과 음가가 같았으며,

(사) ‘ㄹ’은 오늘날 관형사형의 ‘ㄹ’(갈, 할 등의 ‘ㄹ’)과 같은 음으로 읽었다.

서는 다음과 같이 종성만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곧, ‘君’, ‘業’은 종성 ㄷ, ㅅ으로 끝나나, ‘快’, ‘屺’는 각각 초성 ㅋ, ㆁ과 종성 ㅅ, ㅅ로 이루어진 자음 ‘쾌’, ‘꺄’로 설명되어 종성만으로 끝나 있다. 이 ‘초성해’의 설명으로써 적어도 해례본이 편찬될 당시에는 한자음의 표기에도 고유어의 경우와 같이 종성 ㅇ, ㅁ은 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이 분명하다. …… 『동국정운』의 완성 단계에서 고유어와 달리 한자음은 반드시 종성으로 끝나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고, 그 원칙에 따라 언해본의 주음(注音)과 같은 종성 ㅇ, ㅁ이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성 ㄷ의 표기와도 관련된다. 종성 ㄷ은 다음과 같이 ‘중성해’에서 자모(字母) ‘驚’로써 예시하고서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終聲字 如卽字終聲是ㄷ … 洪字終聲是ㅇ … ㄷ如별爲驚 ㄷ如군爲君 ㅅ如업爲業 ㅁ如뎡爲覃 ㅅ如諺語ㅍ爲衣 ㄷ如諺語ㅅ爲絲之類 且半舌之ㄷ 當用於諺 而不可用於文 如入聲之驚字 終聲當用ㄷ 而俗習讀爲ㄹ 蓋ㄷ變而爲輕也 若用ㄹ爲驚之終 則其聲舒緩 不爲入也)

전자는 팔종성(八終聲)을 먼저 한자와 고유어에 두루 쓰이는 6개는 자모(字母)로, 이어 고유어에만 쓰이는 ㅸ, ㅿ 2개는 고유어로 예시한 가운데에서 종성 ㄷ을 자모 ‘驚’의 ‘별’으로써 설명한 것이고, 후자는 ‘驚’을 속습과 같이 ‘별’이라 하면 입성(入聲)이 되지 못한다 하여 ‘별’의 당위를 말한 것이다. 이 두 설명을 보면, 해례본의 편찬에서는 국어의 한자음에서는 입성 운미(韻尾) ㄷ이 ㄹ로 변한 사실은 정확히 파악하였으나 입성의 본질에 맞게 ㄷ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나친 원칙주의가 『동국정운』의 편찬에서는 수정을 받게 된다. 곧 당시 현실한자음의 실상은 해례본의 편찬 때와 똑같이 인식하였으나 표기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발음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종성 ㅸ으로 절충한 것이다. 신숙주는 ‘동국정운서’에서 그것을 ‘이영보래(以影補來)’라고 하였다. …… 여기에서 해례본의 편찬에서 표기하지 않던 종성 ㅇ, ㅁ의 표기로 모든 자음이 초·중·종성으로 되는 원칙이 지켜지고, 입성 운미 ㄷ의 원칙은 속습(俗習)을 고려한 ㅸ으로 표기하는 절충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해례본의 ㄱ, ㅇ, ㄴ, ㅅ, ㅁ과 함께 새로이 ㅇ, ㅁ, ㅸ이 추가되어 한자음 종성의 표기가 『동국정운』에 와서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이 『동국정운』의 종성 표기는 고유어의 표기에도 원용되어 해례본의 팔종성법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훈민정음(해례본)』, 『석보상절』을 비롯하여 간경도감(刊經都監)의 초기 언해본이 그러한 것으로 관형형어미 ‘-ㄹ’과 사잇소리 ㅸ, ㅽ 등의 표기에서 팔종성이 아닌 ㅸ, ㅽ 등도 종성으로 사용된 것이다). 말하자면 원칙과 절충이란 타협으로 두 가지 종성의 표기가 수정되어 이미 해례본의 편찬 때에 완성된 초중성과 대부분의 종성 표기를 종합하여 편찬된 『동국정운』에 이르러 세종이 의도한 국어의 한자음 교정은 비로소 완성되기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안병희 (2002:179~186)

소실 문자와 그 음가

1. 자음

1) ‘ㅇ’

- ① 소리값: 현대 받침의 ‘ㅇ’ [ŋ] 소리와 같다.
- ② 용례
 - 초성에서 예) 바울(방울), 그예(거기에), 미드니잇가(믿습니까)
 - 종성에서 예) 밍글다(만들다), 들퐁이(달팽이)
- ③ 소멸 시기
 - 초성- 중종 이전
 - 종성- 임진란 이후(근대 국어 시기)
- ④ 변천 양상: ㅇ > ㅁ (15세기 중엽의 문헌들에서는 초성으로 자주 쓰이다가 그 예가 점차 줄어 16세기 초엽에는 겨우 몇 예가 보이다가 아주 없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ㅇ’은 종성에만 쓰이는 문자가 되었다.)

2) ‘ㅁ’

- ① 소리값
 - 글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것은 소리값이 없다. 예) 아스(아우), 욕(欲), 충(차, 此)
 - 유성 마찰음 [m] 예) 달아(달라), 앓이(아우가), 뭇 노푼 소리오(가장 높은 소리고)
- ② 유성 마찰음 [m] 의 소멸 시기: 15세기와 16세기의 교체 시기

3) ‘ㅅ’

- ① 소리값: 치조 유성 마찰음 [z]
- ② 용례
 - 순수 국어
 - 모음과 모음 사이 예) 믈술 > 믈을 > 마을
 - 울림소리 자음과 모음 사이 예) 손소 > 손수
 - ‘ㅅ’ 불규칙 활용 예) 닛+어 > 니서 > 니어
 - ‘ㅅ’ 받침으로 끝난 말과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붙어 합성어를 이룰 때 예) ㄱ+엎다 > ㄱ엎다
 - 울림소리 사이의 사잇소리 예) 나랏 일흠
 - 한자음
 - 초성 예) 日晷, 而堂
 - ‘ㅇ’이 표시 안 된 한자음과 울림소리 사이의 사잇소리 예) 天子ㅅㅁㅅ물, 世子ㅅ位
- ③ 소멸 시기: 15세기말부터 동요를 보이다가 16세기 후반에는 거의 안 쓰이고, 근대 국

어 시기에는 완전 소멸

④ 변천 양상: 주로 ‘△ > ○’

5) ‘ㅎ’

① 소리값: ‘ㅎ’의 된소리 [ㄱ’]

② 용례

- 국어에서: ‘ㄱ’의 초성으로만 쓰임 예) 췌다(點火) > 췌다, 췌물(干潮) > 췌물
- 한자음에서: 예) 췌(洪) > 홍, 췌(黃) > 황

③ 소멸 시기: 세조 이후

④ 변천 양상: ㅎ > ㅋ, ㅎ > ㅍ

6) ‘ㅇ’

① 소리값: ‘ㅇ’의 된소리가 아니라 긴장된 ‘ㅣ’음의 표기임

② 용례: 반드시 피동형, 사동형에만 쓰임

- 피동형: 피동 접사 ‘이’에서 ‘ㅣ’모음을 줄인 형태 예) 궤이여→궤여, 궤이여(籠)→궤여
- 사동형: 사동 접사 ‘이’에서 ‘ㅣ’모음을 줄인 형태 예) 궤이여→궤여

③ 소멸 시기: 세조 이후

④ 변천 양상: ㅇ > ○

7) ‘ㅃ’

① 소리값: 양순 유성 마찰음 [β]

② 용례

- 국어
 - 모음과 모음 사이 예) ㄱᄃ(郡·邑), ㄱᄃᄃ(細雨)
 - ‘ㄱ’과 모음 사이 예) ㄱᄃᄃ > ㄱᄃᄃ
 - ㄱᄃᄃ활용 예) ㄱᄃ+아 > ㄱᄃᄃ > ㄱᄃᄃ
 - 접미사 ‘ㅣ’앞에서 예) ㄱᄃ+이 > ㄱᄃᄃ > ㄱᄃᄃ
- 동국정운식 한자음- ‘ㅃ’ 받침 아래의 사잇소리 예) 斗 ㄱᄃᄃ字

③ 소멸 시기: 세조 이후

④ 변천 양상

- ㅃ>ㅇ/우 예) ㄱᄃᄃ > ㄱᄃᄃ
- ㅃ>zero (‘ㅣ’앞에서) 예) ㄱᄃᄃ > ㄱᄃᄃ

8) ‘·’

① 소리값: 후설 저모음 [ʌ]

② 용례 및 변천 양상

- 첫째 음절에서 주로 ‘· > ㅏ’ 예) ㅏᄃᄃ > ㅏᄃᄃ
- 둘째 음절에서 주로 ‘· > ㅓ’ 예) ㅏᄃᄃᄃ > ㅏᄃᄃᄃ
- 치음과 순음 사이 ‘· > ㅓ’ 예) ㅓᄃᄃ(袖) > ㅓᄃᄃ
- 순음과 치음 사이 ‘· > ㅓ’ 예) ㅓᄃᄃᄃ > ㅓᄃᄃᄃ

- 기타- ‘· > ㅏ’ 예) 아사(第) > 아우
- ‘· > ㅣ’ 예) ㅁ춤(終) > 마침
- ③ 소멸 시기: 16세기 말엽에서 18세기 중엽에 걸쳐 소멸
 - 제 2음절에서 먼저 소멸되고, 이어 제1음절에서 소멸됨 (‘·’의 소멸로 말미암아 모음 조화가 붕괴되기 시작했음)
 - 문자: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삭제

■ 도움말 10- 글자의 명칭

- 『훈민정음』에서는 글자의 명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언해본에 “ㄱ는 엄쏘리니~”라고 한 것으로 보아 ‘[기], [니] ……」와 같이 읽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 현재 한글 자모의 이름은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비롯된 것이다.

『훈몽자회』

중종 22년(1527년)에 최세진이 어린이들의 한자(漢字) 학습을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의 상권 첫머리에는 ‘훈몽자회인(訓蒙字會引)’ 과 ‘범례(凡例)’ 가 실려있는데, ‘범례’ 의 끝에 ‘언문자모(諺文字母)’ 라 하여, 그 당시의 한글 체계와 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다. 범례의 ‘언문자모’는 훈민정음의 자모 체계에서 ‘ㅇ’ 이 빠진 초성 16자, 중성 11자의 체계를 보이고 이를 다시 ‘초성중성통용8자(初聲終聲通用八字: 초성과 중성에 모두 쓰는 8자), 초성독용8자(初聲獨用八字: 초성에만 쓰는 8자), 중성독용11자(中聲獨用十一字: 중성에만 쓰는 11자)’ 로 나누어 ‘ㄱ 其役(기역)’, ‘ㄴ 尼隱(니은)’ 과 같이 각 글자의 발음법을 지시하는 명칭을 붙여 보여 준다. 이는 현대에까지 이어져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펴낼 때 한 글 자모의 명칭도 이를 기본으로 하였다.

『훈몽자회』는 풍부한 어휘와 한자음이 실려 있어 국어사 자료로 이용될 뿐 아니라 권두 범례의 ‘언문자모’ 에 나오는 한글 글자의 명칭과 간단한 설명은 한글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⁷⁾

『훈몽자회』에서의 글자의 순서와 명칭

① 자음

구분	초성 중성 통용 8자								초성 독용 8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ㅋ	ㆁ	ㆁ	ㆁ	ㆁ	ㆁ	ㆁ
명칭	其役	尼隱	池末	梨乙	眉音	非邑	時衣	異癡	箕	治	皮	之	齒	而	伊屎
맞춤법 통일안	기역	니은	디귤	리을	미읍	비읍	시읏	이응	키읏	티읏	피읏	지읏	치읏	.	히읏

* ‘末, 衣, 箕’은 한자음으로 읽지 않고 뜻으로 읽음

- ‘ㅎ’은 15세기에 소멸되었으므로 이 표에는 없음
- ‘其役’에서 ‘기’의 ‘ㄱ’은 초성의 예, ‘役’은 중성의 예를 보인 것
- ‘箕’에서 ‘키’은 초성에만 쓰임의 예를 보인 것

② 모음

순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명칭	阿	也	於	餘	吾	要	牛	由	應(不用終聲)	伊(只用中聲)	思(不用初聲)
맞춤법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 도움말 11- 사잇소리

‘ㅅ’

- ① 현대 국어의 ‘사이시옷’에 해당됨
- ② 중세에는 ‘관형격 조사(~의)’와 같은 구실을 함 (15세기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에는 ‘ㅅ’과 ‘의/이’가 있었는데, 존칭 유정 체언이나 무정 체언 뒤에는 ‘ㅅ’이, 평칭의 유정 체언 뒤에는 ‘의/이’가 쓰였다. 예: ‘님궘’, ‘부텃’, ‘나랏’)
- ③ 사잇소리는 체언 뒤, 올림소리 뒤에서만 사용됨

구분	선행음	사잇소리	후행음	용례
한자 어 아래	ㅇ	ㅅ	안올림소리	洪홍ㅅ字꼱, 兄형ㅅ뽀
	ㄴ	ㅅ	안올림소리	君ㅅ字꼱, 몇 間ㅅ집
	ㅇ	ㅅ	안올림소리	侵침ㅅ字꼱
	ㅁ	ㅅ	안올림소리	斗뿔ㅅ字꼱
	ㅇ	ㅅ	안올림소리	虛형ㅇ字꼱, 那낭ㅇ字꼱
순수 국어 아래	올림소리	ㅅ	올림소리	天子ㅅㅅ슴, 後ㅅ날
	올림소리	ㅅ	안올림소리	궘ㅅ세, 엄ㅅ소리
	올림소리	ㅅ	올림소리	눅믈
	ㄹ	ㅇ	ㅅ	하눅 뽀

- ④ 성종 때(『두시언해』 초간본)부터 모두 ‘ㅅ’으로 통일됨
- ※ 사잇소리는 뒷말의 초성과 나란히 쓰기도 하였음
예) 엄 + ㅅ + 소리 → 엄ㅅ소리 (어금닛소리)

■ 도움말 14- ‘훈민정음’의 명칭

‘한글’ 이란 이름

‘한글’ 이란 이름은⁸⁾ ‘훈민정음’ 을 대신하는 공식적인 이름이자 가장 널리 쓰이는 이

7) 이병기, 디지털 한글 박물관

름이라고 할 만하다.

‘한글’은 ‘훈민정음’을 바로 계승한 우리 글자의 고유 이름이라 할 수 있겠다. 곧 ‘훈민정음’이 우리의 ‘언문’이라고 한다면, ‘한글’은 우리의 ‘국문’이라 할 것이다. 한글은 그 뜻 자체로도 우리 국문의 이름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한글’의 ‘한’은 우리 한민족의 ‘한(韓)’이자, ‘크다, 많다’의 뜻으로 쓰였던 ‘하다’의 활용형으로서 ‘큰’의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한글’은 ‘한민족의 글’, ‘큰 글’ 또는 비유적으로 ‘제일 좋은 글’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글자에 ‘한글’이란 이름을 붙여준 것은 주시경이다.

우리글의 명칭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우리말 명칭어는 고대부터 나타나지만 우리글 명칭어의 출현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를 기준으로 삼는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 이두자(吏讀字)와 구결자(口訣字)가 있기는 하나 이들은 한자에 기반을 둔 것이고 우리말 표기에 매우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우리 문자라 하기 어렵다.

1. ‘훈민정음’과 ‘언문’의 출현

우리글을 지칭한 용어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나타난다.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에서 우리글 명칭어로 쓰인 용어는 ‘훈민정음’, ‘정음’, ‘언문’이다. ‘훈민정음’은 세종실록과 정인지의 해례 서문 등에서 쓰였고, ‘정음’은 『훈민정음』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나타난다. 『석보상절』(釋譜詳節 序)의 협주에는 ‘정음’의 뜻풀이가 잘 기술되어 있다.

‘언문’은 세종 25년(1443년) 12월 30일의 실록 기사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에 이어, 세종 26년(1446년) 2월 16일 기사에 최항, 박팽년 등에게 언문으로 『운회』를 번역하게 했다는 기사에서 ‘언문’의 용례가 나온다. 같은 해 세종 2월 20일 최만리 등이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아뢴 상소문(실록 번역문)에서 ‘언문’은 무려 22회나 쓰였다. 최만리 등을 불러 꾸짖는 세종의 말 속에서도 ‘언문’이 보인다.

‘훈민정음’이나 ‘정음’이 공식적이고도 격식을 갖춘 용어라면 ‘언문’은 이를 평범하게 부르는 속칭으로서 창제 때부터 공용(共用)된 용어이다. 세종실록에서 임금이 친제한 문자를 ‘언문’이라 한 것으로 보아 ‘언문’이 비하적 의미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⁹⁾ 한편 조선왕조실록에는 일본 문자를 가리키는 데 ‘언문’이 쓰인 예도 발견되며, ‘언문’과 같은 의미로 ‘언자(諺字)’라는 용어도 쓰였다.

2. ‘國文’의 출현

19세기 말엽 서구 열강과 수교를 맺고,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독립과 자주 의식이 고취되면서 우리의 고유 문자는 국가의 문자로 그 지위가 격상된다. 즉 ‘언문’이 국가의 문자가 되면서 그 명칭이 ‘국문’(國文)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國文’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고종실록』 기사부터 비로소 나타나 ‘언문’이 국가의 공용 문자로 자리매김 되었다. 훈민정음이 1443년 창제된 이후 450년 만에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갑오개혁 이후 정부 조직을 개혁하면서 학무아문(學務衙門) 내에 편집국을 설치하여 ‘국문철자’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다(고종 31년 1894년 6월 28일).

3. ‘한글’의 출현

‘한글’은 1913년 3월 23일에 창립한 조선언문회 창립 총회의 전말을 기록한 『한글모 죽보기』의 “四二四六年 三月十三日(日曜) 下午一時 …… 本會의 名稱을 ‘한글모’라 改稱하고…”에서 처음 등장한다. 따라서 한글의 최고(最古) 사용 연대는 1913년 3월 23일이 된다.

그 후 ‘한글’이라는 명칭은 『아이들보이』(1913.9)의 ‘한글풀이’란에 처음 실용화되었고, 1914년 4월에 조선어강습원의 이름을 바꾸어 ‘한글배곧’이라 부른 데서도 쓰였다. 주시경의 제자인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의 머리말에 ‘한글모임자 한샘’과 1916~19년에 엮어진 이규영의 『한글적새』와 『한글모 죽보기』에서 ‘한글’이 쓰인 것으로 보아, 주시경의 제자들이 이 말의 보급에 앞장섰던 것을 알 수 있다.

1927년에 『한글』이 창간되어 이 이름이 일반인의 의식에 오르게 되고 이 해의 기념일부터는 ‘한글날’로 고쳐 일컫게 되어, 한글의 운동이 자꾸 성대하여 짐에 따라, 한글이란 이름도 더욱 널리 퍼지고 깊이 뿌리를 박아 일반 사회에서 즐겨 쓰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문자 명칭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글 명칭어는 시대별로 용어 사용에 일정한 특징과 경향성이 있으므로 시대별로 나누어 기술한다.

- ① 훈민정음 창제 시기: 훈민정음, 정음, 언문이 공존하였던 바 초기에 쓰인 ‘언문’은 비하적 의미를 가졌던 것이 아니었다.
- ② 16세기~19세기 말: 언문이 주류이고 언자(諺字)도 부분적으로 쓰였다. 후자는 ‘글자’라는 뜻이 강하여 전자보다 더 좁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 ③ 19세기 말~20세기 초: 개화기 이후 민족의식이 본격적으로 발로되면서 국문이 등장하였다.
- ④ 20세기 초~현대: 일제 치하에서 ‘국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됨에 따라 ‘한글’이 만들어져 널리 쓰이게 되었고 이것이 현대로 이어졌다. 한편 북한의 ‘조선말규범집’ 등에서는 ‘조선글’ 혹은 ‘조선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 도움말 15- 초성 체계

8) 디지털 한글 박물관

- 9)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우리말을 ‘언(諺)’ 혹은 ‘언어(諺語)’로 부른 예가 있다. 현대의 사전(字典)에 ‘언(諺)’은 ‘상말’, ‘속언(俗言)’ 등과 같은 비하적 의미로 풀이되어 있으나, 『훈민정음』 해례의 ‘언(諺)’은 중국 한어에 대해 일상의 구어로 쓰인 우리말을 가리킨 것이며, 비하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 대한 사대를 중시했던 조선 시대 유학자의 의식을 고려하여 ‘언(諺)’ 혹은 ‘언어(諺語)’의 함의를 생각해 보면, 국가의 공공 기록 혹은 시문(時文) 등의 문장에 쓰인 ‘한문’의 대립어로서 당시 조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우리말’(당시의 조선어)을 가리킨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백두현, 디지털 한글 박물관

한글은 상형(象形)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그것이 나타내는 음소를 조음하는 데 관여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이에 획을 더하는 가획(加劃)의 원리와 문자를 합하는 합용(合用)의 원리에 의하여 창제되었다.

소리의 성질에 따라	불청불탁 (不清不濁)	전청 (全清)	차청 (次清)	전탁 (全濁)
어금닛소리 [牙音]	ㅇ	ㄱ	ㅋ	ㆁ
혓소리 [舌音]	ㄴ	ㄷ	ㅌ	ㄸ
입술소리 [脣音]	ㅁ	ㅂ	ㅍ	ㅃ
잇소리 [齒音]		ㅅ	ㅆ	ㅉ
목소리 [喉音]	ㅇ	ㅎ	ㅎ	ㅎ
반혓소리 [半舌音]	ㄹ			
반잇소리 [半齒音]	ㄷ			

이와 같은 기본 체계에 대해서 ‘제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가) 'ㄴ, ㅁ, ㅇ'은 가장 세지 않은 소리(聲最不厲)이다.
- (나) ㅇ의 발음법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소리의 기운을 코로 내 보낸다(舌根閉喉聲氣出鼻). ㅇ은 ㅁ와 비슷하다.
- (다) ‘전탁’은 ‘전청’을 병서(並書)한 소리(된소리)이다. ‘ㅎ’은 ‘전청’이나, ‘차청’인 ‘ㅎ’보다 소리가 깊어(聲深), 후음의 ‘전탁’은 차청 ‘ㅎ’의 병서로 한다(여기에서 ‘ㅎ, ㅎ’는 같은 ‘후음’이지만, ‘ㅎ’은 얇은 소리(淺音)요, ‘ㅎ’은 깊은 소리(深音)임을 알 수 있다).
- (라) 순경음 ‘빙’의 발음법은 두 입술을 (아주 닫지 않고) 살짝 합하면서 목소리를 많이 내는 가벼운(목청 떨림 있는) 소리다.

이와 같은 설명에 의거하여 구체적 음성 체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순	설 (반설)	치 (반치)	아	후	
					얇음	깊음
전청(vl)	ㅂ	ㄷ	ㅅ ㅆ	ㄱ		ㅎ
차청(asp)	ㅍ	ㅌ	ㅊ	ㅋ	ㅎ	
전탁(tens)	ㅃ	ㄸ	ㅉ ㅊ	ㄱ	ㅎ	
불청불탁 (vd)	콧소리 (nasal)	(ㄹ)	(ㄷ)		ㅇ	
		ㅁ	ㄴ		ㅇ	
가벼운 소리	빙					

[가장 안셈(最不厲)은 불청불탁(不清不濁)에 포함되며, 목소리 많음(喉聲多)은 가벼운 소리(輕音)에 포함되므로, 이 표에서는 생략했다.]

■ 도움말 18- 훈민정음의 중성 제자 원리

<참고>

이들 모음자의 ‘·’는 『훈민정음』 및 『동국정운』(1447)에서는 체 모습을 지키지만 이들 이외의 문헌에서는 ‘·’가 아직 완전히 동그라미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문헌(그림 1)에서나 그 ‘·’가 동그라미 모양이 흐트러진 문헌(그림 2)에서나 다같이 ‘ㄱ, ㅏ, ㅑ, ㅓ’ 등의 ‘·’는 이미 그것이 기원적으로 ‘·’자였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것은 실용적으로 이들 모음을 『훈민정음』에서와 같은 형태로 쓰기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글자에서 ‘·’가 체 음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ㄱ’는 자형(字形)상으로는 ‘-’와 ‘·’의 결합으로 만들었으나 ‘ㄱ’가 음성적으로 ‘-’음과 ‘·’음의 복합이라는 뜻을 담았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ㄱ, ㅏ’ 등에서 ‘·’의 모습을 살려 둘, 그 글자의 제자 과정을 굳이 살려 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림 1 月印千江之曲(1448) 그림 2 月印釋譜(1459)

■ 도움말 19- ‘훈민정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개화기 때만 해도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창호기원설, 파스파 문자¹⁰⁾ 모방설, 알파벳 모방설 등 여러 가지 설이 많았다. 그러나 1940년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이 글자 제자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다. 특히 그 ‘제자해’의 설명으로 그 전의 많은 해석과 추측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훈민정음이 어떻게 창제되었는가라는 기원설과, 어떠한 영향을 받아 그것이 창제되었는가 하는 영향설¹¹⁾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고, 다만 해례본 자체에 비친 언어학적 가치와 철학관을 추출해 냄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일반 언어학사적 자리¹²⁾와 그 뜻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초성 체계와 변별적 자질

초성에 대하여 조음점과 조음 방법에 의하여 변별적 자질(distinction features)을 설명한

것은 제자해(制字解)에서 찾을 수 있다.

‘初聲凡十七字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舌音ㄴ 象舌附上顎之形 脣音ㅁ 象齒形 喉音 ㅇ 象喉形 ㅋ比ㄱ 聲出稍厲 故加劃 ㄴ而ㄷ ㄴ而ㄸ ㄷ而ㅌ ㅁ而ㅂ ㅂ而ㅃ ㅅ而ㅆ ㅅ而ㅈ ㅇ而ㅎ ㅎ而ㅎ 其因聲加劃 之義皆同 而唯ㅇ爲異 半舌音ㄹ 半齒音ㄷ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劃 之義焉.’

물론 이것은 한글 글자의 상형 제자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글자의 상형 제자 과정은 이미 조음 음성학적¹³⁾ 이론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조음 음성학적 설명은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① 5개의 기본 초성의 생성 설명에서 조음체(articulater)와 조음점(point of articulation)을 끌어내어 현대적인 조음 음성학의 뜻을 찾는 일이고, ② 5개의 초성을 기본으로 하여 성음이 조금씩 달라짐에 따라 같은 계열상의 글자가 풀바꿈하여 생성되는(加劃之義字) 데서 조음 방법상의 변별적 자질을 끌어 내는 일이고, ③ 기본 글자가 풀바꿈하여 된 글자가 아닌 글자(無加劃之義字)의 조음점과 변별적 자질을 추정하는 일이다.

五音	基本字	象形內容	加劃字	異體字
牙	ㄱ	舌根閉喉之形	ㅋ	ㅇ
舌	ㄴ	舌附上顎之形	ㄷ ㅌ	ㄹ
脣	ㅁ	口形	ㅂ ㅃ	
齒	ㅅ	齒形	ㅆ ㅈ	ㅊ
喉	ㅇ	喉形	ㅎ	

『훈민정음』에서 5개의 기본 초성의 ‘상형 제자(象形制字)’는 조음 기관이 조음 작용을 할 때의 그 조음 기관의 모양을 상형한 것과, 또는 단순히 조음 기관을 모양을 상형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⁴⁾ 곧, ‘ㄱ, ㄴ’은 조음 작용을 할 때의 조음 기관을 상형한 것이고, ‘ㅁ, ㅅ, ㅇ’은 단순히 조음 기관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조음 기관의 상형이다. 이를 조음 음성학적 설명으로 발전시키면, 자모의 순서인 아·설·순·치·후(牙舌脣齒喉)는 조음체와 관련한 것으로 아(牙)는 혀뿌리요, 설(舌)은 혀끝이요, 순(脣)은 아랫입술이요, 치(齒)는 혀 앞이요, 후(喉)는 목이 된다.

조음점으로 보면, 아음(牙音)은 조음체인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조음 작용을 하므로, 대개 소리는 어금니 쪽에서 조음된다. 따라서 그 조음점은 어금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현대 조음 음성학으로 보면, 이 경우의 조음점은 여린입천장이 된다. 설음(舌音)은 조음체인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니, 조음점은 윗잇몸이 된다. 순음(脣音)은 조음체인 아랫입술이 윗입술에 합하는 조음 작용을 하므로, 조음점은 양 입술이 된다. 치음(齒音)은 이(齒)의 모양을 본뜬 것으로만 나타날 뿐 그 조음 작용에 대하여는 설명이 없으므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치음을 지금의 조음 음성적 지식을 원용하면, 혀 앞쪽이 잇몸과 입천장 사이에 가까이 접근하여 나는 소리이므로, 그 조음점은 잇몸·입천장에 해당한다고 추정된다. 후음(喉音)도 그 조음

작용이 설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잘은 알 수 없으나, 그 조음점이 목구멍임은 짐작되는 바이다.¹⁵⁾

이러한 조음체와 조음점이 합작하여(‘후음’은 제외) 조음할 때에 기본 5초성이 조음되어 나온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본 5초성의 소리값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 ㄱ : [k]
- ㄴ : [n]
- ㅁ : [m]
- ㅅ : [s]
- ㅇ : [∅] (영)

이것을 알게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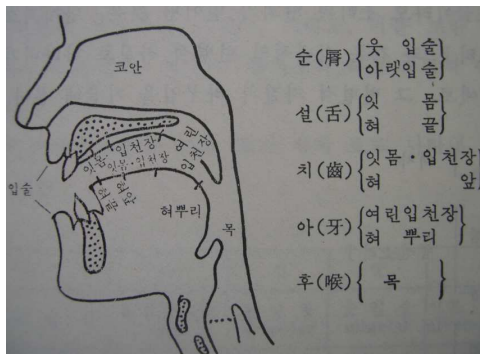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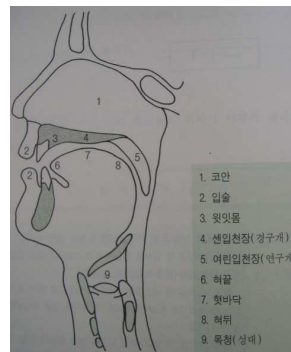


그림 1



발음 기관 단면도

그림 1을 통해 ‘체자해’의 한 구절에서 오늘날 현대 조음 음성과 거의 일치하는 조음 이론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5개의 기본 초성자가, 성음이 달라짐에 따라 같은 계열상에서 변형 글자를 생성하는데, 이 경우에 변별적 자질을 끌어내 보기로 한다.

앞에 든 ‘체자해’에 따르면 기본 글자에서 점을 더한(加劃) 음을 ‘좀센소리(聲出稍厲)’라고 하였기 때문에, 기본자의 소리는 조음 방법으로 볼 때, ‘예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좀센소리’는 ‘예사소리’를 좀 더 세게 낸다고 하는 조음 방법을 취하게 된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한글 초성은 또한 ‘가획’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조음기관을 본뜬 기본 글자(ㄱ, ㄴ, ㅁ, ㅅ, ㅇ)에다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 나는 곳은 같되 자질이 다른 새 글자를 만들었다. 예컨대 연구개음 글자인 ‘ㄱ’에 획을 더해 같은 연구개음이되 유기음(거센소리) 글자인 ‘ㅋ’을 만들고, 양순음 글자 ‘ㅁ’에 획을 차례로 더해 같은 양순음이되 새로운 자질, 곧 ‘거센’이나

‘뱀’의 음운 자질이 추가된 새로운 글자 ‘ㅃ’과 ‘ㅆ’을 만들어 낸 것이다. 비슷한 소리를 내는 글자를 ‘ㄴ, ㄷ, ㅌ’처럼 형태적으로 비슷하게 계열화함으로써, 이 소리들이 비록 자질은 다르지만 나는 곳이 같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 준다. 즉 세종은 음소 단위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현대 언어학자들처럼 음소를 다시 자질로 나눌 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Geoffrey Sampson)은 한글을 로마 문자 같은 음소 문자보다 더 나아간 ‘자질 문자’라고 불렀다.

이처럼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기본 글자에 음운 자질을 반영하는 글자를 만듦으로써 자질 문자의 단계에 나아갔다는 찬사를 듣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글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한글은 배우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글자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다.¹⁶⁾

실로 훈민정음은 15세기에 발달한 높은 수준의 한국 음운학이 그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것을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아	설	순	치	후
	조음점	여린입천장 (velar)	윗잇몸 (alveolar)	윗입술 (bilabial)	잇몸·입천장 (alveo -palatal)	목 (glottal)
	조음체 조음방법	혀뿌리	혀끝	아랫입술	혀앞	목
기본	예사	ㄱ	ㄴ	ㅇ	ㅅ	ㅇ
가획의 뜻	좁센소리Ⅰ		ㄷ	ㅌ	ㅈ	ㅊ
	좁센소리Ⅱ	ㅋ	ㅌ	ㅍ	ㅊ	ㅎ
무가획의 뜻		ㅇ	ㄹ		ㅅ	

한글 자모의 복잡성

한글 자모 28자는 각각 뿔뿔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몇 개의 기본자를 먼저 만든 다음 나머지는 이것들에서 파생시켜 나가는 식의 이원적(二元的)인 체계로 만들어졌다.

한글은 이원적인 구성 방식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자모의 한 부분이 어떤 음성 정보를 대표하는 구실을 한다. 가령 ‘ㅋ’은 한 자모이지만 가운데 획이 분리되어 나올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은 유기성([+ aspirate])이라는 음성자질을 대표하는 요소다. 이것은 ‘ㅌ’의 가운데 획도 마찬가지다. ‘ㄱ, ㅋ’등도 한 자모들인데 그 중의 한 획이 반모음 ‘j’를 대표하고 있다. 한 자모가 한 음소보다 작은 자질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은 세계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이 특징을 Chao(1968:107)는 다음과 같이 꽤 유머러스하게 지적한 바 있다.

“한국 문자(‘한글’ 또는 ‘언문’이라 불린다)의 체계는 두 가지 점에서 흥미있다. 첫째, 그것은 일본 문자인 ‘가나’보다 알파벳에 가깝다. 둘째, 문자 디자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단위 기호의 부분들이 음성의 분석적 자질을 대표하는 문자 체계이다. 중국 문자에서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의 어떤 다른 문자 체계에도 그러한 것이 없다. 예컨대, 영어의 자음 b는 기둥이 위로 되어 있어서 유성음이고 p는 기둥이 아래로 되어 있어서 무성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성 치음인 d는 기둥을 아래로 하면 q가 되는데, 만약 이와 같은 분석이 유효하다면 그것은 무성 치음 [t] 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 문자에서는 자모의 일부분조차도 때로는 음성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예컨대, 경음의 글자는 평음 기호를 겹쳐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ㅅ은 평음 s이고, ㅆ은 경음 s(흔히 로마자로 ‘ss’로 표기한다)를 나타내며, ㄱ은 k를 ㄲ은 경음 k('kk')를 나타내는 것 등이다. 모음자의 어떤 변형은 선행하는 반모음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ㅏ는 a, ㅑ는 ya, ㅓ는 ɔ를, ㅕ는 yɔ를, ㅗ는 o를, ㅛ는 yo를 나타내는 것 등이다.”

이 특징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Sampson(1985)이다. Sampson(1985:32)은 순전히 한글만을 위해 지금까지 문자의 분류에서 등장한 일이 없는 ‘자질문자(featural writing)’란 종류를 하나 따로 설정하였다.¹⁷⁾ 아래 그림 3이 그것을 잘 보여 준다. 한 자모가 음소보다 작은 음성 자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독립된 문자의 종류로 분류하는 근거로 삼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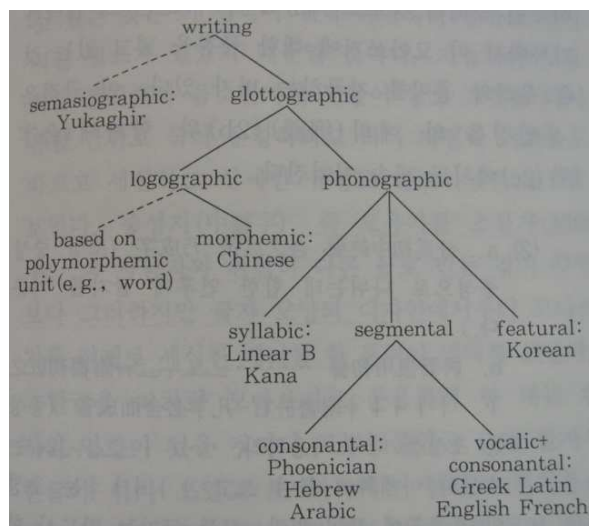


그림 3 Sampson의 문자분류표 (DeFrancis 1989 : 60)

‘한글을 자질문자라는 별개의 종류로 분리해 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문자의 분류는 각 자모가 한 덩어리로서 언어의 어떤 단위를 대표하느냐에 따라 음절문자, 음소문자로 나누는 만큼 한글은 그 점에서 역시 음소문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특이한

문자의 종류로 등록될 만큼 한 자모의 일부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한글은 글자들 사이에 유연성(有緣性)이 높다. 우리는 ‘ㄱ’과 ‘ㅋ’이 한 계열의 소리를 대표하는 글자요, ‘ㄴ, ㄷ, ㅌ’이 다른 한 계열의 소리를 대표하는 글자라는 것을 글자형으로써 짐작할 수 있다. 또 ‘ㄷ, ㅌ, ㄱ, ㅌ’에 비해 ‘ㅈ, ㅊ, ㅍ, ㅍ’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는 글자들이며 그러한 공통점을 제외하면 ‘ㄷ’와 ‘ㅈ’, ‘ㄱ’와 ‘ㅊ’가 하나로 묶이는 글자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한 자모 안의 획이 무의미한 단순한 획이 아니고 어떤 음성자질을 대표하는 획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한글 낱자들은 제각기 다른 연원을 가지고 관련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몇 개의 기본 글자를 만들고 나머지 글자는 기본 글자들을 출발점으로 만듦으로써 글자의 조직성을 높였다.

2. 중성 체계와 변별적 자질

한글 모음(중성)은 성리학(性理學)에서 말하는 우주의 기본 요소인 삼재(三才), 즉 천(天), 지(地), 인(人)을 상형한, ‘·, 一, |’를 기본자로 하여 초출, 재출, 합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만들었다.

‘·’에서 ‘ㄱ, ㄷ’가, ‘一’에서 ‘ㅌ, ㅊ’가 나왔는데, 그것들이 기본자인 ‘·, 一, |’에서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여 초출자라고 했다. 그 다음 ‘|’에서 비롯해서 ‘ㄴ, ㄷ, ㅌ, ㅊ’로 끝맺는 것들이 각각 ‘ㅇ, ㅈ, ㅊ, ㅋ’인데, 이것들은 2차적으로 나왔다는 뜻에서 재출자라고 했다.

	基本字	初出字	再出字	合用字
①	·	→ ㄱ, ㄷ	→ ㅇ, ㅈ	…… ㄱ, ㅈ
②	一	→ ㅌ, ㅊ	→ ㅍ, ㅊ	…… ㅌ, ㅊ
③				

* 여 | 상합자(與 | 相合字) : ①, ②에 ③의 ‘|’를 합용한 자

그리고 이들은 ‘·’가 ‘一’의 위쪽과 아래쪽, ‘|’의 왼쪽과 오른쪽 어디에 배치되었느냐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여기에도 어떤 뜻을 담고 있다. ‘·’가 위쪽과 오른쪽에 찍힌 것은 양모음(陽母音)임을 나타내 주고, 아래쪽과 왼쪽에 찍힌 것은 음모음(陰母音)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 그것이다. 곧 양(陽) 글자인 ‘·’이 위와 밖에 놓였으면, 이는 하늘에서 나왔으므로 ‘양’이 되고, ‘·’이 밑과 안에 있으면, 그것은 땅에서 나왔으므로 ‘음’이 되는 것이다.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엄격한 모음조화 규칙이 있었으며, 더욱이 훈민정음 제작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던 성리학(性理學)에서 음양(陰陽)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으므로 양모음, 음모음의 구분이 이처럼 제자의 원리에까지 적용되었다.

중성을 발음의 심천(深淺)과 혀의 모양(縮/不縮)과 입의 개폐 [開/閉, 闔/闔, 口張(평순)/口蹙(원순)] 면에서 본다면, ‘·’는 혀가 오므라들고 소리는 깊으며, ‘一’는 혀가 조금 오므라들고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으며, ‘|’는 혀가 오므라들지 않고 소리는 얕다. 그리고 ‘ㄱ, ㄷ,

ㄴ, ㄷ'는 입술을 오므리고, 'ㄱ, ㅋ, ㆁ, ㆁ'는 입술을 연다.

	舌	聲	입열기	역학	
				생성근원	뜻
·	縮	深		天	天開於子
一	小縮	不深不淺		地	地關於丑
丨	不縮	淺		人	人生於寅
ㄱ	縮	深	蹙		天地初交
ㅋ	縮	深	張		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
ㆁ	小縮	不深不淺	蹙		天地初交
ㆁ	小縮	不深不淺	張		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

15세기의 7단모음의 서로 변별되는 자질 현상을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혀 안 오그림, 얇은 소리, 중성	혀 조금 오그림, 깊지도 얇지도 않은 소리, 음			혀 오그림, 깊은 소리, 양		
	입 폼	쭈그리지도 펴지도 않음	쭈그림	입 폼	쭈그리지도 펴지도 않음	쭈그림
丨	ㄱ	一	ㄷ	ㅏ	·	ㄱ

15세기의 7단모음을 현대어의 10 단모음¹⁸⁾과 비교해 보면,

혀의 높낮이	입술의 모양	평순 (un-rounded, spread)	원순 (rounded)	평순 (un-rounded, spread)	원순 (rounded)
		고 (High)	丨	ㄱ	一
중 (Mild)		ㅑ	ㅓ	ㅕ	ㅗ
저 (Low)		ㅕ		ㅓ	
혀의 앞뒤		전설 (Front vowels)		후설 (Back vowels)	

‘제자해’에서는 단모음을 조음 음성으로 설명함으로써 조음 음성학적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

15세기 모음의 변별 자질은

- 혀모양 (縮/不縮)
- 소리의 느낌 (深/淺)
- 입열기 (開口度, 闔/關)

인데, 15세기 중성의 체자 원리에서 중요한 변별 자질인 ‘합’(闔, 口蹙)과 ‘벽’(關, 口張)의 조음 방법은 현대 음성학의 ‘원순’(rounded, 입술을 오므림)과 ‘평순’(spread, 입술을 펴)과 맞아 떨어져 대단히 과학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우리나라는 『성리대전(性理大典)』 등을 통하여 중국의 송학 사상(宋學思想)을 고도로 섭취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므로 해례편의 기술에 있어서도 이러한 송학 이론을 적용하여 일종의 언어 철학을 전개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체자 원리, 모음자의 음가에 대한 설명 등은 현대 음성학이나 언어학의 이론과도 부합되는 과학적인 것이다. 『해례본 훈민정음』이 높이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

3. 중성

중성 역시 새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가져다가 썼는데(終聲復用初聲), 이는 대단한 발견이며 과학적인 것이다. ‘가’와 ‘악’의 예에서 ‘가’의 초성 ‘ㄱ’과 ‘악’의 중성 ‘ㄱ’은 음성학적으로 소리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다른 글자를 만들어서 써야 하지만 이들 글자 뒤에 모음이 붙어 ‘악이’가 된다고 했을 때 이를 읽으면 [아기]가 되어, ‘악’의 ‘ㄱ’은 ‘기’의 ‘ㄱ’과 같아지게 된다. 즉, 뒤에 모음이 붙으면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아서 굳이 새로운 글자를 다시 만들지 않은 것이다.

중성해에는 또한 ‘8자가족용(八字可足用)’이 나오는데, 세종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믿어지는 책들, 곧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에서 철저히 분절(分綴)과 형태음소적표기(形態音素的表記)를 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의 한글 맞춤법 이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세종은 500년 전에 이미 분절(다만 부분적 분절이다)과 형태음소적 표기를 해서 글자를 적는 것이 올바른 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성해에서 ‘빛꽃’이나 ‘엿의갓’에 대한 설명은 당시의 학자들이 형태음소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서도 이들을 ‘빛꽃’이나 ‘엿의갓’으로 쓰도록 규정한 것은 실용의 편의를 위해 음소적 원리를 택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국어의 자음(子音)은 초성에서는 예컨대 ㄷ과 ㅌ이 구별되나 중성에서는 중화 작용(中和作用)을 일으켜 ㄷ과 ㅌ이 구분되지 않는다. 훈민정음 해례 편찬자들도 이 현상을 파악하고 있어서 예의(例義)에서는 ‘終聲復用初聲’이라고 하였으나 중성해에서 ‘八字可足用’라고 밝히고 몇 문헌을 제외한 모든 문헌에서 팔중성(八終聲)만 가지고 표기했던 것이다.

해례에서는 또한 모든 글자는 초·중·중성을 합해야 소리(音)를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곧 훈민정음은 음소 문자(音素文字)이면서도 음절 단위로 적은 음절 문자(音節文字)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에 성공한 근본 원인은 한 음절을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는 삼분법(三分法)을 쓴 데 있다. 중국에서는 한 글자를 성모(聲母, Anlaut)와 운모(韻母, Auslaut)로 분석하는 이른바 이분법(二分法)을 사용하고 있으나, 세종은 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는 삼분법의 음운 이론을 세워 한글을 음소 문자이면서 동시에 음절 문자의 속성을 갖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음절 단위의 음절자로 운용할 것을 지향하면서도, 그 하나 앞 단계로서 초성·중성·종성, 곧 음소(音素) 문자로서의 발명을 생각했던 것이다. 세종은 그 때까지 써오던 이두나 구결의 짜임새가 음운 조직면으로 보아 어느 것은 한 음절로 되고, 어느 것은 두 글자가 어울려서 한 음절을 이루는 등 그 단위가 선명하지 못한 점과, 일본의 가나처럼 음절문자로 할 경우는 그 수효가 막대하게 됨에 착안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은 우선 한 음절에서 중국인이 했듯이 초성을 분리해 내고, 그 다음 독자적으로 운(韻)을 다시 중성과 종성으로 갈랐던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아주 적은 수효의 음소 글자로서 수천수만의 음절을 자유자재로 생성해 낼 수 있다는 데 착안했던 것이다.

<참고>

중성 규정 변천

가) 8종성가족용 (八終聲可足用)

『훈민정음』 ‘해례’의 ‘중성해’에 있는 규정. ‘ㄱ, ㆁ, ㄷ, ㄴ, ㅂ, ㅍ, ㅅ, ㄹ’의 8자만 받침으로 사용해도 가히 족하다는 규정¹⁹⁾ (ㄱㆁㄷㄴㅂㅍㅅㄹ八字可足用也)

나) 초성독용 8자 (初聲獨用八字)

최세진의 『훈몽자회』의 권두에 있는 범례의 규정. ‘ㅋ, ㆁ, ㅌ, ㅊ, ㅍ, ㅅ, ㆁ, ㅎ’의 8자는 초성에만 쓰고, 중성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다) 7종성법 (七終聲法)

17세기 말부터 20세기 초(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까지 적용됨. ‘ㄱ, ㄴ, ㄷ, ㅍ, ㅅ, ㅇ’의 7자만 받침으로 사용하고 ‘ㄷ’은 ‘ㅅ’과 구별되지 않으므로 ‘ㅅ’으로 통일

라) ‘한글맞춤법 통일안’ 공포 이후 모든 자음을 받침으로 표기. 발음상으로는 7대표음(ㄱ, ㄴ, ㄷ, ㄹ, ㅍ, ㅂ, ㅇ)을 인정

■ 도움말 20- 중성법

10) 파스파(八思巴, 'Phags-pa, 꺾꺾) 문자는 원나라 쿠빌라이칸(汗)이 티베트 불교의 일파인 사키야파의 법으로 제1대 제사(帝師)가 되었던 파스파(1235~1280)의 명으로 1269년에 만들어진 몽고제국의 정식 국자(國字)로서, 몽고국자(蒙古國字)·몽고신자(蒙古新字)라고도 불린다. 파스파는 범어 계통인 티베트 문자를 기초로 한 것으로, 음소문자식으로 만들고, 음절문자처럼 쓰도록 마련한 문자였다. 또 그때까지 위구르 문자로써 몽고어를 기록해 왔던(몽고문자) 방식에 따라 좌측으로부터 횡서토록 하여 쓰기 쉽도록 했다. 자획을 네모의 방형(方形) 안에 넣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방형문자라고도 한다. 이 문자의 창제 목적은 첫째, 자유로운 몽고어 표기, 둘째, 한음(중국어음)의 정확한 표기, 셋째, 원제국 관도 내의 모든 언어의 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원의 세력 안에 들어 있는 몽골어·한어(漢語)·티베트어·

토이기에 등을 모두 잘 적을 수 있도록 고안된 표음력이 뛰어난 문자였다. 그러나 이 글자는 빨리 쓰는 데 적합하지 않아 글로 쓰기에 불편했다. 그래서 보급이 잘되지 않은데다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위구르 문자를 차용한 몽골 문자의 세력에 밀려 원 왕조가 멸망한 이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글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파스파 문자를 한글의 기원으로 꼽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이익(1681~1763)은 『성호사설(星湖僿說)』 권7 상(上) ‘잡서문(雜書門)’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쳐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우선 파스파 문자는 소리로 된 글자이므로 한자와 달리 우리말의 성질에 가깝고, 또 성삼문이 요동(遼東)에 있던 명나라의 학자 황찬(黃瓚)을 만나 자문을 구했을 때 몽골의 글자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이익)이 가능하며, 고려 후기에 궁중에서 몽골어가 쓰인 적이 있는 만큼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유희(1773~1837)의 『언문지(諺文志)』 “우리 세종대왕께서 사신에게 명하여 몽고자의 모양을 본뜨고 황찬에게 질문케 하여 (언문을) 만드셨다.”와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 朝鮮佛敎通史』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한 말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현배는 『한글갈』에서 한글이 꼭 몽골의 파스파 문자의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고, 성삼문이 황찬에게 질문한 것은 중국의 운서(韻書)와 운학(韻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글은 발음기관의 꼴을 본뜬 상형성과 닿소리와 홀소리의 생성과정이 독창적이어서 파스파 문자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파스파 문자의 한두 개(부록 뒤에 사진 참고)가 한글과 모양이 비슷하다고 하여 외국 학자들의 연구에서 한글이 파스파 문자를 모방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주장은 부정되고 있다. 물론 고려 때 몽고(원)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것이고 세종이 여러 나라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책도 많이 읽었다고 하니 파스파 문자를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러나 영향이 있었다고 하여도 간접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오히려 한자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예를 들면 ‘ㄱ’자(字)의 모양을 만들 때, 입모양과 비슷한 타원형으로 하지 않고, 한자의 ‘ㄱ’를 모방하여 만든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몇 개 글자의 모양은 한자를 본떴지만, ‘ㄱ’이 ‘입의 모양을 본떴다’고 설명한 것은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다.

- 11) 안병희(『훈민정음의 제자원에 대하여』, 『국어학논문집』, 태학사, 1990)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글 제자에 있어 한자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안병희(『국어사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2, 2002)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한글 창제 때 중국 한자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계속 되어 오고 있다. 이는 『훈민정음』이나 그 이전 『세종실록』 권 102 세종 25년 12월조의 기록에 다같이 ‘자방고전(字倣古篆)’, 즉 한글의 자형이 고전을 닮았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록의 표현이 너무 소략하여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글은 모양이 전반적으로 네모지다.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다고 해도 실제 자형은 여러 가지로 달리 디자인될 수 있을 터인데 입술의 모양이든 혀의 모양이든 ‘ㄱ’, ‘ㄷ’, ‘ㄴ’처럼 네모꼴로 만든 것은 한자의 영향일 수 있을 것이다. 기본 글자를 만들고 거기에 가획을 하거나 그것들을 조합하여 새 글자를 만드는 방식도 한자의 육서(六書)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한자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국가의 문자들을 여러모로 참조하고 그것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종류의 영향이든 한글의 제자 원리가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세상을 바꾸어 놓는 발명품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 시대까지의 축적된 지혜에서 한걸음 발전한 산물인 것이다.”

- 12) 『훈민정음해례』는 한글 창제의 학리적 연구의 결정체이다. 『해례』는 모든 것이 문자 창제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일반 언어학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조음 음성학과 변별적 자질론
- ② 음소(音素)의 인식

■ 도움말 21- 연서법

- ③ 역리(易理)적 언어(글자, 음성) 철학관 김석득 (1999:22)
- 13) 언어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의 하나가 음성학(phonetics)이다. 음성학이란, 본시 음성의 물리적 생리적 성격을 띠는 과학이다. 음성을 조음면에서 기술하면 조음 음성학(articulatory phonetics)이고, 음향적인 면에서 기술하면, 음향 음성학(acoustic phonetics)이다. 현대의 음성학에서는 거의 조음 음성학의 경향을 가진다. …(중략)… 우리 국어학사상에 처음으로 조음 음성학이 나타나는 것은, 15세기 『해례』에서 비롯된다. 비록 오늘날 과학의 안목으로 보면, 글자와 음성의 혼동, 음성과 음소의 혼동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초기 음성학적 모습을 넉넉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변별적 자질까지를 분석해 낼 수 있으니, 일반 언어학사상으로 보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조음 음성학이나 또는 조음 음성학에서 추출되는 변별적 자질만으로, 『해례』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해례』의 성음학은 조음 음성의 변별적 자질 외에 또한 역학적인 변별적 자질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그것이 이해된다.
- 『해례』의 초성 체계에 나타난 변별적 자질은 대체로 ① 조음점과 조음 방법에 의한 자질의 인식 ② 조음 방법으로서의 맑음, 흐림(淸濁), 깊음, 얕음(深淺), 가벼움, 무거움(輕重) 등에 의한 자질의 인식 ③ 느림, 급함(緩急) 및 가벼움(輕), 느림(舒緩)에 의한 자질의 인식 ④ 소리의 인상과 역(易)의 상징적 자질의 인식 등으로 나누어 진다. 김석득 (1999:22~24)
- 14) 이 세상에서 현재 쓰이는 어떤 글자도 이 같이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것은 없다. 중국 출신의 유명한 언어학자 치오 박사는 이 점을 높이 사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요, 현대 음성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헨리 스위트 교수는 20세기 초에 ‘기관 문자’를 만들어 냈다. 즉 발음 기관을 본떠서 발음 기호를 만들어 낸 것으로 이것은 마치 세종대왕이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과 같은 발상이다. 그러나 스위트 교수의 기관 문자는 학계에서만 일시적으로 논의가 되었을 뿐 이제는 완전히 잊혀진 학설이다. 이를 두고 영국 런던대학의 유제니 헨더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록 스위트 박사가 세종대왕과 같은 이론으로 국제적인 발음기호를 만들어 내었으나 한글과는 달리 왕실과 국가의 후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물론 한글은 스위트의 기관문자보다도 500여년 이상이나 앞서서 나온 글자이고 지금까지도 한국의 공식 문자로 사용되고 있으니 놀랄 뿐이다.” 헨더슨 교수는 1971년 한글학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 언어학자대회에 초청되어 발표한 논문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현복 (2002:)
- 15) ‘제자해’의 ‘唯牙之◦強舌根閉喉聲氣出鼻而其聲與◦相以’라는 대문으로 보아, ◦의 조음점이 ◦과 가까운, 혀뿌리와 목구멍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과 ◦의 소리 계열이 다른 이상 조음점이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은 그 소리 값이 [ŋ] 이나, ◦은 목구멍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로서, 그 음가는 영(zero)이다. 김석득, 소실자운고(消失字韻攷) (연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13집), 김석득 (1999:26)
- 16) "학문적인 목적으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처음부터 곤욕스러운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그 문자만은 어떤 다른 문자보다도 쉽게 빨리 배울 수 있다. 잘 인쇄된 텍스트는 몇 분 안에 정확하게 철자에 맞게 쓸 수 있다. 이 문자는 내가 알기로는 아메리칸어의 현대적인 인공언어를 제외하고는 한 민족이 소유한 문자 가운데서 가장 단순하다.“(G. von der Gabelentz, "Zur Beurtheilung des koreanischen Schrift-und Lautwesens". 1982)- 이 글은 1998년 9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과, 운터슈프레발트(Unterspreewald)의 크라우스니크(Krausnick)사에서 열린 제2회 동서언어학 집담회에서 발표한 "Zur koreanischen traditionellen Sprachphilosophie und ihren modernen Transformation"의 내용을 불리고 다듬은 것이다. 가벨렌츠가 한국어가 배우는 데는 곤욕스럽지만 문자만은 배우기 쉽다고 한 것은 한글의 구성원리가 그만큼 간단하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한말이라고 생각한다. 고영근 (2003:17~18, 24)
- 17) 자질 문자는 음소의 조음위치와 조음방식 등 변별적 자질이 문자 자체에 반영된 문자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샘슨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Han’ gŭl is that it is based on phonetic feaures rather than on

연서(連書)는 초성자를 위 아래로 이어 쓰는 것이다. ‘ㅇ’을 순음 곧 ‘口, ㅂ, ㅃ, ㅍ’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 곧 ‘순경음’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는 ‘빙, 병, 뽕, 풍’ 네 자가 있었는데, 이 네 가지 음은 사실 동국정운식음이다. 다만 우리말 표기에 사용된 것은 ‘빙’ 뿐이었다. 이는 순음 ‘ㅂ’ 밑에 후음 ‘ㅇ’을 연서(連書)하여 만

complete segments …… Han’ gŭl must unquestionably rank as one of the great intellectual achievements of humankind.” (Sampson, 1985, pp. 143~144)

Sampson(1985, 『Writing Systems』)의 목차를(6장~10장까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한글이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글이 세계의 문자학 분야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것이다. 이익섭 (1998:225)

6. The Graeco-Roman alphabet(그리스 로마 字母)

7. A featural system Korean Hangul (資質文字 체계 한국의 한글)

8. A logographic system Chinese Writing (單語文字 체계 한자)

9. A Mixed System Japanese Writing (混合 체계 일본 문자)

10. English Spelling (영어 철자)

18) 모음 사각도 (부록 뒤에 그림 첨부)

19) “『훈민정음』 ‘해례’의 ‘중성해’에는 두 가지 맞춤법이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중성에 ‘ㅅ, ㅆ, ㅈ’ 등을 쓰는 것(‘빛꽃’, ‘옛의갓’)이요, 다른 하나는 ‘ㅅ’만을 쓰는 것(‘빛곳’, ‘옛의갓’)인데 이 두 맞춤법 중에서 해례는 후자쪽을 택하였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해례는 후자의 맞춤법을 보여준다. 용자례에서 중성의 예로 든 것이 ‘ㄱ, ㅇ, ㄷ, ㄴ, ㅂ, ㅍ, ㅅ, ㅈ’의 8자뿐이다. 이 맞춤법이 그뒤 모든 언해(諺解)에 사용된 것이다(유일한 예외가 ‘ㅅ’이었다. 바로 해례가 예로 든 ‘여수의 속격형도’ ‘옛의, 옛익’가 일반적이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기문 1972 참고. 안병희, 각주 5) 재인용). …… 『용비어천가』의 맞춤법과 『월인천강지곡』의 맞춤법은 해례가 채택한 것과 달리 ‘빛꽃’, ‘옛의갓’과 같은 예들을 보여준다. 해례에 이어서 간행된 세종대의 문헌들이 이처럼 해례의 맞춤법 규정을 따르지 않았음은 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세종대에 간행된 또 하나의 문헌인 『석보상절』(세종 29, 1447)의 맞춤법은 해례의 맞춤법 규정을 진폭적으로 따르고 있다. 용비어천가는 세종 24년(1442)에 그 준비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세종 29년(1447)에 간행되기까지 시종 세종의 명으로 그의 각별한 관심 속에 이루어진 책이다. 이렇게 볼 때, 세종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믿어지는 책들이 해례의 맞춤법 규정을 따르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혹시나 ‘빛꽃’, ‘옛의갓’과 같이 쓰자는 것이 세종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데 생각이 미치게 된다. 특히 석보상절과의 대조가 이런 추측을 하게 한다. 그런데, 바로 이 추측이 옳음을 증명해 주는 사실이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이것은 세종이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한 맞춤법의 이론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직접 관여한 이 두 책에서는 이 이론을 실천에 옮겼다고 볼 수 있다. 세종의 맞춤법 이론은 근본적으로 현대 한글 맞춤법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어의 형태음소론을 연구한 학자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고도로 이론적인 맞춤법이다. 현대 한글 맞춤법은 19세기와 20세기의 교체기에 주시경의 연구에서 싹튼 것인데, 그는 맞춤법은 “本音”을 적어야 하며 “깊다”라고 ‘ㅍ’을 적는 것은 이것이 “本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주시경, 1906). 끝으로 월인천강지곡의 맞춤법에서 ‘ㄴ, ㄷ, ㅍ, ㅅ’으로 끝난 명사의 경우와 ‘ㄴ, ㅍ’으로 끝난 동사 어간의 경우에 이들과 조사 또는 어미를 분리하여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예: 눈에, 손으로, 일흔이, 몸애, ㅈ숨을 등). 음절합자법(音節合字法)을 이용한 이런 문법 단위의 구별 표기는 15세기와 그 뒤의 문헌들에 산발적(散發的)으로 보이지만,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이전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시도로는 월인천강지곡이 처음이요 또 유일하였다. …… 우리는 세종이 음운론에서 문법에 이르는 넓고 깊은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를 제자(制字)와 맞춤법에 반영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학문이 지극히 이론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훈민정음을 창제할 능력이 있는 학자는 세종밖에 달리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기문 (1992:9~14)

든 것인데 ‘빙’이 ‘ㅂ’에 비해 입술을 가버이 다루는 소리임을 표시한 것이라 하였다. ‘ㅂ’ [p] 음이 폐쇄음임에 비해 ‘빙’ [β] 음이 마찰음임에서 생기는 차이, 즉 숨의 차단 정도가 다름을 나타냈던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빙’은 ‘β’ 음가이며, ‘부부’에서 뒤에 있는 ‘ㅂ’이 ‘빙’이 된다.

■ 도움말 22- 병서법

병서(並書)는 초성을 두 글자 내지 세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는 것을 말한다. 병서에는 같은 글자를 겹쳐 쓰는 각자병서(各字並書)와 다른 글자를 겹쳐 쓰는 합용병서(合用並書)가 있다.

1. 각자병서: ㄱ, ㄷ, ㅁ, ㅈ, ㅊ, ㅎ

<보기>

나랏말싸미, 文문字字, 아니홀씨, 히여, 임소리, 굴바쓰면, 蝨꿀빙쫓, 覃땀ㅂ字쫓, 히소리, 입시울소리, 步ㅂ뽕ㅇ쫓, 慈쫓ㅇ字쫓, 邪쌍ㅇ字쫓, 굴바쓰라, 上쌍聲성, 平뽕聲성

28자 이외의 자모로 이렇게 두 글자를 겹쳐 만든 것은 이 소리들이 영기는 소리임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영긴다’는 표현은 된소리에 대한 인상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2. 합용병서: ㅅ, ㅆ, ㅈ, ㅊ (ㅅ계열) / ㅃ, ㅍ, ㅍ, ㅍ (ㅂ계열) / ㅍ, ㅍ (ㅃ계열) / ㄹ, ㄹ

<보기>

흙, ㅃ들, ㅃ물, 노미, 스물여덟, ㅎ 쓰르미니라, 驚뽕字쫓, 戌畚字쫓, ㅃ느니라, ㅃ디면, ㅃ르니라

각자병서는 원칙적으로 한자음 표기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합용병서는 우리말 표기에 사용된 것을 ‘용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서자는 각각 음가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음소로 설정한다. 15세기에는 이와 같이 CCC(Consonant+ Consonant+ Consonant)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 표기들의 실제 발음이 어떠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첫째, 모두 된소리(硬音)로 발음되었으리라는 견해가 있다. 이것은 ‘된소리’를 3계열로 나누어 표기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15세기 표기법은 표음주의에 충실했으므로 합용병서들도 표기된 그대로 발음되었으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ㅅ, ㅆ, ㅈ’은 /sk, st, sp/로, ‘ㅃ, ㅍ, ㅍ, ㅍ’은 /pt, ps, pc, pth/로, ‘ㅍ, ㅍ’은 /psk, pst/로 각각 발음되었고, 그 뒤에 된소리로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ㅅ계열은 된소리로, ㅂ과 ㅃ계열은 자음군으로서 발음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정착된 시기는 늦어도 17세기 초로 보고 있다.

■ 도움말 23- 부서법

부서(付書)는 초성자와 중성자를 붙여 쓰는 것을 말한다. 즉, ‘ㄷ, 一, ㅅ, ㅌ, ㅍ, ㅈ’는 초성 아래 붙여 쓰고, ‘ㅣ, ㅊ, ㅊ, ㅋ’는 초성 오른쪽에 붙여 쓰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기>

- 초성 아래 붙여쓰기: ㄷ외느니라, 어우러사 소리 이느니, 欲욕字쫘, 戌畚字쫘
- 초성 오른쪽에 붙여쓰기: 어엿비 너겨, 어린, 피아, 邪쌍

■ 도움말 24- 성음법

중성해(中聲解)에는 ‘중성은 자운(字韻)의 가운데 거하여 초성과 중성이 합하여 소리를 이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곧 훈민정음은 음소 문자이면서도 음절 단위로 적은 음절문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훈민정음 체계가 보여주는 음운 이론은 중국에서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된 것이었다. 특히 음절의 삼분법을 이분법으로 고치고, 그 결과 나타난 중성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세운 것이 이 음운 이론의 특징이었다. 초성, 중성, 종성에 있어서 중성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성이 있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성해(中聲解)의 설명을 보면 “‘ㅣ’가 심천합벽(深淺闔關)의 소리에 어울려서 능히 서로 따르는 것은, 혀가 펴지고 소리가 알아서 입을 열기에 편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다. 이는 중성의 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ㅣ’음은 고모음이면서 전설모음이므로 혀가 펴지고 우리가 발음(開口)할 때 매우 편하다. 따라서 이 설명에도 놀라운 음성학적 인식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도움말 25- 한글의 모아쓰기

우리는 현재 한글을 쓸 때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를 모아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데, 이를 모아쓰기라고 한다.

한글이 자모문자(字母文字)이면서 글자 하나하나에 동등한 자격을 주어 일렬로 풀어쓰기를 하지 않고 음절 단위로 합자(合字)하여 쓰는 모아쓰기 방식은 비록 한글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한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모아쓰기 규정은 『세종실록』 권 102의 기록에 나와 있다.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 乃成字’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는데 합한 연후에 글자를 이룬다.)

새 문자에 대해 거의 아무런 구체적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은 그 짙막한 기록에서 이 모아쓰기에 대한 규정을 넣고 있는 것은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바가 있다.

'終聲復用初聲 …… · 一ㄱㅏㅓㅗㅛㅜㅝㅞ附書初聲之下. | ㅏㅓㅗㅛㅜㅝㅞ附書於右 凡字必合而成音' (중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하라. …… · 一ㄱㅏㅓㅗㅛㅜㅝㅞ는 초성의 아래쪽에 붙여 쓰고 | ㅏㅓㅗㅛㅜㅝㅞ는 초성의 오른쪽에 붙여 써라. 모든 글자는 반드시 합하여야 음을 이룬다.)

한글이 자모문자이면서 음절문자임을 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 모아 쓰기 하면서도 표음문자의 문자열이 나타내는 성격을 한글은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깊은 뜻이 위 '예의'의 모아쓰기 규정에 들어 있다.

이 규정은 『훈민정음』의 '합자해(合字解)'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 中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 · 一ㄱㅏㅓㅗㅛ 是也 縱者在初 成之右 | ㅏㅓㅗㅛㅜㅝㅞ是也 …… 終聲在初中之下' (초성, 중성, 종성 셋이 합하여야 글자를 이룬다. …… 중성으로서 둥글고 가로로 된 것은 초성의 아래쪽에 쓰나니 · 一ㄱㅏㅓㅗㅛ가 그것이요, 세로로 된 것은 초성의 오른쪽에 쓰나니 | ㅏㅓㅗㅛㅜㅝㅞ가 그것이다. …… 종성은 초성과 중성 아래에 쓴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모아쓰기 규정은 우리 맞춤법사에 있어 최초의 맞춤법 규정이며, 동시에 당시 맞춤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아쓰기에 대해서 이처럼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방식이 워낙 특이하여 올바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종은 중국의 음절의 삼분법을 이분법으로 고치고, 그 결과 나타난 중성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세웠다. 초성, 중성, 종성에 있어서 중성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성이 있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눈 그 자체가 모아쓰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자모의 모양이 그러하지만 특히 모음 자모를 자음 자모와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 계열의 모습으로 도안한 것도 모아쓰기를 대전제로 하였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세계의 어떤 자모문자도 모음자와 자음자를 그토록 확연히 구분되는 별개 계열의 모습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한글과 모아쓰기는 도저히 따로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글을 이처럼 모아쓰기로 운용하려 한 데는 한자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당시 문헌은 으레 한자와 한글이 섞여 쓰였고 또 한자에는 한글로 한자음을 다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때 한자 하나에 한글도 한 글자의 꼴로 나타내는 것이 한글을 풀어 썼을 때보다 어울렸을 것이다. 또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도 '訓民'을 'ㅎㅏㅓㅗㅛㅜㅝㅞ'으로 표기하는 것보다 '훈민'으로 표기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쉽게 연결시킬 수 있어 좋다.

그 동기는 어떻든 모아쓰기는 한글로 하여금 매우 특이한 문자가 되게 하였다. 활자를 만들 때 한글은 '한'을 하나 '글'을 하나 독립된 활자로 만든다. 이때 '한'이란 묶음을 부를 언어학 용어는 무엇인가? 'letter'도 아니요 'alphabet'도 아니요 'syllabary'도 'character'도 아니다. 'alphabetic syllabary' (Taylor 1980)라고나 할까? 마땅한 용어가 없다.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이 그만큼 특이한 증거다.

컴퓨터의 한글 코드를 만들 때도 조합형으로 하느냐 완성형으로 하느냐가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완성형이란 처음부터 ‘한, 값’ 처럼 음절 단위로 묶인 글자 모양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일로 논란을 벌이는 일이 한국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역시 특이한 모아쓰기 방식이 빚어내는 사건들이다.

이 이외에 더 근원적인 문제로 사전의 자모 배열 순서며 받침의 문제들이 있다.²⁰⁾ 한 마디로 모아쓰기는 한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한글의 운명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일 것이다.

한글을 모아쓰게 되면 글자가 한눈에 들어와 의미 파악이 쉬워진다. 따라서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은 독서의 능률을 높이는 데 효율적인 방식이며, 맞춤법은 얼마간 표의적(表意的)인 것이 좋은데 모아쓰기 방식이 맞춤법의 표의화에 효율적이다.²¹⁾ 사람들은 글을 읽을 때 영어에서처럼 자모 단위로 풀어 표기하여 놓아도 자모, 즉 음소 단위로 읽기보다는 형태소나 단어 단위로 읽는다고 한다(Sampson 1985:208, Coulmas 1989:230~239, 이익섭 1992:411).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의 표기에서 형태소나 단어를 눈에 쉽게 드러나게 하는 방안으로 모아쓰기와 분절(分綴)은 매우 절묘한 방안이다. ‘흙이, 흙에서, 흙까지도’의 ‘흙’은 거의 표의문자와 대등한 표의성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모아쓰기는 우리말의 표기에 매우 적합하게 고안된 방식이다.

한글의 모아쓰기는 행(行)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은 거의 모든 책이 가로쓰기를 한다.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행(行)이 수평을 이루도록 글자들을 배열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글이 창제된 이래 20세기 중반까지는 모든 문헌은 세로쓰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재도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문패며 간판 등에서도 세로쓰기로 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자모문자로서 세로쓰기를 한다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 특이한 현상이 한글의 경우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모아쓰기에 힘입어서다. 음절 단위로 묶인 모습은 음절문자나 단어문자와 다를 바 없어 가로쓰기든 세로쓰기든 다 자유로운 것이다.

이제 가로쓰기가 주종을 이루고 앞으로는 컴퓨터 등의 영향까지 있어 가로쓰기가 더욱 일반화되어 가겠지만 한글은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편리한 대로 자유자재로 선택해 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장점이기도 하다. 신문 같은 데에서도 제목은 가로로, 기사는 세로로, 다시 광고는 가로로 쓰는 식으로 하여 지면을 다채롭게 꾸미고, 건물의 간판도 보는 위치에 따라 편리한 대로 적절히 가로 쓴 간판을 붙이기도 하고 세로 쓴 간판을 붙이기도 한다. 두 가지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섞여 이용되는 곳은 책의 표지일 것이다. 한국 책표지의 책등(spine)에는 거의 세로로 책 제목을 쓴다. 이것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진열된 책의 제목을 읽을 때 편리하다. 영어 책의 제목을 읽을 때에는 흔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비뚤게 들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그런데 한국 책 제목은 똑바로 선 채 편한 자세로 읽히는 것이다.

그러나 모아쓰기는 가령 인쇄할 때 한자처럼 활자를 여러 개 마련하여야 하는 불편을 주기도 하고, 컴퓨터 폰트(font)도 영문은 1바이트인데 반하여, 한글의 경우는 기본 자소(字素)는 영문보다 2개 적으나, 자소를 모아쓰기 때문에 2바이트를 차지하여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글 모아쓰기가 기계화에 장애가 된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저명한 한글학자이고 선각자였던 주시경, 최현배 선생이²²⁾ 한글을 쉽게 만들고 기계화도 쉽게 하기 위하여 풀어쓰기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 풀어쓰기를 주장한 첫 문헌은 주시경이 쓴 ‘말의 소리’ (1914. 4. 13.)인데, 그 책의 끝에 ‘우리글의 가로 쓰는 익힘’이란 제목을 달고서 풀어쓰기의 보기를 보였다.²³⁾ 그 후 최현배도 ‘글자의 혁명’ (1946)에서 풀어쓰기론을 열렬히 신봉하였다. 특히 최현배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소리 나는 이치와 일치하고, ② 쓰기와 박기(인쇄하기)와 읽기가 쉽고, ③ 맞춤법을 매우 간편하게 줄이며, ④ 온 세계의 수백 종 글자가 가로로 되어 있다. 그러나 풀어쓰기는 한눈에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단어의 활용이 많은 우리글에서 어근이나 어간을 찾아내기가 매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글이 표음 문자이지만 모아쓰기를 한 결과, 어형을 고정시키기에 유리하고 시각적으로 독해에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결국 한글은 음절 모아쓰기로 표의 문자의 장점인 시각성도 실현함으로써 표음성과 표의성을 모두 활용한 이상적 문자인 셈이다.

모아쓰기에 대한 가장 본격적인 연구는 Taylor(1980)일²⁴⁾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어 및 한글을 모르는 영어 사용권의 남녀 대학생을 각각 5명씩을 대상자로 하여 의미 없는 단어를 풀어쓰기와 모아쓰기로 제시하여 그 효능의 차이를 측정하는 등 모아쓰기에 대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진지한 태도를 보여 준다. 그리고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은 자모문자, 음절문자, 단어문자의 장점을 충분히 취하면서 그것들의 단점은 거의 취하지 않는 훌륭한 체계라는 것을 결론으로 삼고 있다.

■ 도움말 26- 가점법

방점(傍點)은 중세어의 성조(聲調)를 표기한 것이다. 이는 중국 음운학에서 성조가 중시된 것과 관련이 있으나(사용된 술어들- 平·上·去·入聲), 중국어의 사성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국어의 성조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표기를 마련했다.

2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익섭 외 (1997)를 참고하시오.

21) 좋은 문자는 쓰기에도 좋고 읽기에도 좋은 문자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문자는 무엇보다 읽기 좋은, 즉 독서에 더 능률적인 문자여야 한다. 한 사람이 써 놓으면 수천수만 명이 읽고, 또 1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읽기 때문이다. 문자 내지 표기법이 쓰기면에 보다 읽기면에, 즉 독서면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사고인데도 이에 대한 인식은 의외로 잘 안되어 있다. 이익섭 (1998:226~228)

22) 1945년 조선 교육 심의회에서 한글을 풀어서 쓰자는 풀어쓰기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가로 쓰기를 제안하지만, 너무 이상적이라 하여 풀어쓰기는 보류하고 가로 쓰기만을 하기로 결정한다. 이후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풀어쓰기 방안이 제안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현배(1947)의 ‘글자의 혁명’이다.

23) 한글 풀어쓰기 예시 (부록 뒤에 사진 참고)

24) Taylor, I. (1980). "The Korean Writing System : An Alphabet? A Syllabary? A Logography?" Kolers, P. A. M. E. Wrolstad and H. Bouma eds. Processing of Visible Language 2. New York : Plenum Press.

곧 훈민정음 글자 체계에는 자음과 모음 이외에 성조(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하기 위한 방점 기호를 마련하여, 글자 왼쪽에 점을 찍었는데, 점이 하나면 거성, 점이 둘이면 상성, 점이 없으면 평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입성은 점을 더하기는 같으나 촉급(促急)하다고 설명하였다(‘左加一點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 본문). 대체로 중성이 ‘ㄱ, ㄷ, ㄴ(한자음 ‘ㄷ’ 포함)’일 때 입성이 된다. 이 중성들은 지속음이 아니므로 끝닫는 소리가 되어 입성이다.

성조는 16세기 후반부터 동요를 보이기 시작하여(15세기까지 표기) 17세기 근대 국어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소멸되었고, 현대 국어에는 장단으로 남았다. 중세 국어에서 상성이었던 음절의 모음은 대부분 장모음이었는데, 이것들이 현대 국어에 장모음으로 남아 있다. 이것은 상성이 장음으로 발달했기 때문이 아니고 원래 그 모음이 장음이었고 성조가 소멸한 뒤에도 그 음장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경상도, 함경도 방언에는 오늘날까지 성조가 일부 남아 있다.

■ 도움말 27- ‘훈민정음’은 누가 만든 것일까?

<참고>

세계 문자사의 큰 흐름은 이웃에서 쓰는 문자를 받아들여서 조금 고쳐서 쓰는 것이었다. 따라서 문자사에서 ‘발명’ (invention)이란 말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 학자도 있다 (DeFrancis 1989:215). 그러나 훈민정음은 이 흐름을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 만든 문자로서 정히 세계 문자사상(文字史上)의 ‘발명’에 해당한다.

훈민정음은 깊은 학문 연구의 기초 위에서 만들어진 문자다. 특히 음운 연구가 훈민정음 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훈민정음 체계가 보여주는 음운 이론은 중국에서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된 것이었다. 특히 음절(音節)의 삼분법(三分法)을 이분법(二分法)으로 고치고, 그 결과 나타난 중성(中聲)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세운 것이 이 음운 이론의 특징이었다. 훈민정음 창제자는 바로 이 이론을 발전시킨 대학자(大學者)였던 것이다.

과연 세종이 바로 그런 학자였을까. 그 증거를 세 방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당시인(當時人)의 증언(證言)이다. 세종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경학(經學)과 사학(史學)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명나라에서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 『성리대전(性理大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세종 元年, 1419) 세종은 이 책들을 스스로 읽었을 뿐만 아니라 『성리대전』은 우리나라에서 간행하게 하기도 하였다. 음운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숙주의 증언(『홍무정운역훈』²⁵ 序)을 들어보면,

“우리 세종장헌대왕께서는 운학(韻學)에²⁶ 마음을 두시고 깊이 연구하시어 훈민정음 약간자(若干字)를 창제하시니”(我世宗莊憲大王 留心韻學 窮研底蘊 創制訓民正音 若干字)

여기서 ‘운학’ 이라고 분명히 밝혀서 말한 이 증언은 큰 중요성을 지닌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둘째, 그의 학문, 특히 음운학 연구의 깊은 조예(造詣)를 엿보게 하는 세종 자신의 말이 더욱 큰 주목을 끈다. 최만리 등의 상소에 대한 그의 힐책에서 음운학에 대한 그들의 무지(無

知)를 나무라고 “내가 운서(韻書)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바로잡을 것이냐” 고 강한 자신감과 사명감을 보인 것이다. 아무리 신하들이라 해도 자신의 음운학 연구가 여간 도저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위의 두 증거들이 소극적인 데 대해서 세종의 학문의 편모(片貌)를 밝혀주는 적극적인 증거가 있다. 바로 훈민정음에 관한 당시의 모든 기록이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중에 세종의 개인적 학문의 세계를 엿보게 하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ㅇ ㄴ ㄹ ㅇ ㄹ ㅅ’의 여섯 자는 평·상·거성(平上去聲)의 종성(終聲)이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입성(入聲)의 종성이 되나, ‘ㄱ ㅇ ㄷ ㄴ ㅂ ㅅ ㅈ ㅊ’의 여덟 자만으로 쓰기에 족하다. 예컨대 梨花가 ‘빛꽃’이 되고 狐皮가 ‘엿의 갖’이 되지만 ‘ㅅ’자로 통용(通用)할 수 있는 까닭에 오직 ‘ㅅ’자로 쓰는 것과 같다.’ (所以 ㅇ ㄴ ㄹ ㅇ ㄹ ㅅ 六字 爲平上去聲之終而餘皆爲入聲之終也 然 ㄱ ㅇ ㄷ ㄴ ㅂ ㅅ ㅈ ㅊ 八字 可足用也 如 빛꽃 위梨花 엿의 갖爲狐皮 而 ㅅ字 可以通用 故 只用 ㅅ字)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맞춤법이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종성에 ‘ㅈ, ㅊ, ㅅ’ 등을 쓰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ㅅ’만을 쓰는 것이다. 이 두 맞춤법 중에서 『해례』는 후자쪽을 택했음을 알 수 있다. ‘용자례’에서 종성의 예로 든 것이 ‘ㄱ, ㅇ, ㄷ, ㄴ, ㅂ, ㅅ, ㅈ, ㅊ’의 8자뿐이다. 이 맞춤법이 그 뒤 모든 언해(諺解)에 사용된 것이다. 두 가지 맞춤법의 이론적 근거는 각각 어떤 것이었는지, 이 논의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음이 아쉽게 느껴지는데, 다만 『해례』의 설명에서 전자는 원리적(原理的)인 것이요, 후자는 실용적(實用的)인 편법(便法)으로 생각한 듯한 인상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의 맞춤법은 『해례』가 채택한 것과는 달랐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같은 세종대(世宗代)에 간행된 『석보상절』(세종 29, 1447)이 『해례』의 맞춤법 규정을 전폭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수양대군(나중의 세조)이 지은 『석보상절』을 보고 세종이 『월인천강지곡』을 지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²⁷⁾ 『용비어천가』는 세종 24년(1442)에 그 준비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세종 29년(1447)에 간행되기까지 시종 세종의 명으로 그의 각별한 관심 속에 이루어진 책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책들은 세종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믿어지는데, 세종은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한 맞춤법 이론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직접 관여한 이 두 책에서는 이 이론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세종의 맞춤법은 현대 한글 맞춤법의 이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국어의 형태음소론을 연구한 학자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고도로 이론적인 맞춤법이다 [본음(本音) 이론].

『월인천강지곡』의 맞춤법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을 들면,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음절합자법(音節合字法)을 이용하여 문법 단위를 구별하여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ㄴ, ㄹ, ㅁ, ㅅ’으로 끝난 명사의 경우와 ‘ㄴ, ㅁ’으로 끝난 동사어간의 경우에 이들과 조사 또는 어미를 분리하여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15세기와 그 뒤의 문헌들에 산발적(散發的)으로 보이지만,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 이전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시도로는 『월인천강지

곡』이 처음이요 또 유일하였다. 다만 그 당시의 저술로 ‘불청불탁음(不清不濁音)’으로 끝난 명사나 동사 어간에 대해서만 이런 시도를 한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지금까지의 논술(論述)을 통하여 우리는 세종이 음운론에서 문법에 이르는 넓고 깊은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를 제자(制字)와 맞춤법에 반영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학문이 지극히 이론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훈민정음을 창제(創制)할 능력이 있는 학자는 세종밖에 달리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성현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신숙주가 세종의 한글 창제 작업에 참여했다는 기록²⁸⁾을 들어 세종과 다른 신하들이 한글을 같이 만들었다는 추측이 있으나 『용재총화』는 세종 사후 30~40년 후에 나온 것으로, 세종 당대의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한글은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正說)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서구 문물이 들어와 새로운 근대적 한국 문화가 형성되는 개화기에는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에 따라 문자 생활의 전반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말 우리글을 ‘國文’, ‘國語’라는 명칭으로 통용하고(‘國語’라는 표현 자체는 훈민정음 해례합자해에 “國語雖不分輕重”, “·一起 | 聲 於國語無用”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표현이 두루두루 널리 사용된 것 같지는 않다), 아울러 우리말의 표기법을 정비하게 된다.

개화기(開化期)를 맞아 한글이 비로소 공문(公文)에도 쓰이게 되고 학교도 세우고 교과서도 만들면서 통일된 맞춤법이 없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07년 국문연구소(國文研究所)를 설립하고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그 가운데 모든 자음을 받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는 아주 혁신적인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맞춤법의 골격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맞춤법은 한일합방(韓日合邦)으로 빛을 못 보았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나중 조선 총독부에서 1930년에 공포한 『언문철자법(諺文綴字法)』과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그대로 전수되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1933년 10월에 나라의 통일안으로 공포되었고 이로써 우리 맞춤법의 오랜 표류(漂流)(19세기말부터 시작된 몇 십년간의 토론)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이나 문학 활동 그리고 학술서까지 전면적으로 한글로 표기된다. 다음은 학술서에 나타나는 당시의 표기이다.

1908년에 작성된 주시경 선생의 『國語文典音學』에서 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음은天地에自在한者라고로何人이든지能히加減도못하고變易도못하느니라’

한자가 강하게 노출되었던 이러한 표기는 주시경 선생의 1914년 『말의 소리』에 오면 다음과 같이 표기가 바뀌게 된다.

‘그러한대석이어거듭하는소리를석임거듭소리라하고덧하여거듭하는소리를덧거듭소리라하고

짜하여 거듭하는소리를짜거듭소리라하노라.(점 생략)

주시경 선생의 글에 나타나듯이 초기에는 한자가 강하게 노출된다. 그리고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단어의 기본형을 밝혀 적을 것인가 아니면 소리나는 대로 적을 것인가 하는 고민인데, 이에 대한 전자의 선택이 주시경 선생의 표기에 강하게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고민 끝에 한글맞춤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원리는 훈민정음 창제 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지기까지 몇 백 년 동안 사용되던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 원리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의 제1항에 기술되어 있다. 즉 총론의 제1항에서

(1)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러한 표기법에 의해 1940년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가 대체로 정립된다.

함용병서의 음가에 대한 정인승(1940)의 기술인데, 표기의 양상은 대체로 이와 같다.

“字解에 ‘合用並書自左而右初中終三聲皆同’ 이라고만 하였으니, 이것은 곧 各異한 二音 三音의 音順을 따라 左로부터 右로 써나감에 不過할뿐으로 各字의 音價는 字順 그대로 各各가지고 있는것임을 보인것이다. 그런데 終聲으로는 現代語音에서도 우리가 重複音을 잘 내고 있으므로 따로 말할 必要가 없거니와, 古語에 보이는 初聲의 重複音도 終聲 重複音의 例에 依하여 그 音價를 짐작할 수 있는것이니, (중략) 古語의 合用並書는 이러한 複音이요 決코 單音이 아니다. 卽 ㅅ+ㄷ=ㅅㄷ, ㅂ+ㅈ=ㅂㅈ, ㅂ+ㅅ+ㄱ= ㅂㅅㄱ 되는 以外에 아무 다른 뜻이 없는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시대에 맞게 얼마간 손질하여 정부에서 1988년에 고시하여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새 한글 시대를 살고 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진 후 한국인의 문자 생활 중 한글 표기에 관한 부분은 통일된 양상을 보인다.

- 25) 세종은 15세기 전승 한국 한자음의 표준음으로 『동국정운』을 편찬시키면서 중국 본토의 표준 자음(標準字音), 곧 한음(漢音)을 익혀서, 한어 학습의 길잡이로 삼고자 중국 운서에 대한 한글 주음을 계획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음 대상으로 선택된 운서가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였으나, 이 운서에 대한 주음 사업은 중단되고 그 대신 선정된 것이 『홍무정운』이다. 『홍문정운』은 명의 태조가 명나라를 건국하자 자음(字音)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편찬(1374년 완성, 1375년 간행)시킨 운서이다. 이 책의 서문을 쓴 신숙주는 서문에서 『홍무정운』이 얼마나 중요한 운서인가를 지적하였는데, 서문의 내용으로 보면 『홍무정운』에서 제시한 음을 ‘천하 공통의 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세종도 『홍무정운』의 음계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중국의 표준 자음(字音)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 운서에 수록되어 있는 글자(한자)의 음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명하였다.
- 26) 운학은 한자의 음운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고대 인도의 음운학의 영향을 받아 발전된 중세 중국의 음운학으로서 중세 한국의 음운 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영근 (2003:23)
- 27) 『월인석보』(권1)의 어제월인석보서(御製月印釋譜序) 참고. 이기문 (1992:11)

■ 도움말 28-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

1. 어지(御旨)에서 밝힌 애민정신, 자주정신, 실용정신의 구현

- ① 애민정신: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 ② 자주정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 ③ 실용정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2. 우리나라 한자음의 정리와 표기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

→ 『동국정운』의 편찬²⁹⁾

<참고>

고대의 국어 생활 - 차자표기(借字表記)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우리 문자를 만들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중국에서 한자를 수입하여 쓰면서 그것을 변모시켜 우리 국어를 표기하는 데 적절한 문자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여러모로 하였던 것이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는 한자로써 문자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한자로 이루어진 한문(漢文), 즉 중국문어(中國文語, Written Chinese)를 오늘날 우리가 영어 책을 읽듯이 외국어로서 읽기도 하였으나 그 한자로써 우리말을 적는 데에도 이용하였다. 남의 나라 글자를 빌어서 우리말을 적었다 하여 이를 흔히 차자표기(借字表記, 한자차용표기)라 한다.

우리의 차자표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한자의 음(音)을 빌어다 쓰는 음차(音借)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 뜻을 빌어다 쓰는 훈차(訓借) 또는 석차(釋借) 방식이 그것이

28) 정음 창제 당년의 기록들은 한결같이 “親制”를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와는 다른 비친제설(非親制說)이 나타나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이 비친제설은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제중화(慵齋叢話)』(卷7)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이 보인다.

“세종이 언문청(諺文廳)을 설치하여 신숙주, 성삼문 등에게 명하여 언문(諺文)을 만들었다. 초·종성(初終聲)이 8자, 초성이 8자, 중성이 12자이다. 그 자체(字體)는 범자(梵字)에 의지하여 만들었다. …… 비록 배움이 없는 부녀자라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성인(聖人)이 물건을 만드는 지혜는 사람의 힘으로는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에 범자 기원설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점, 또 『훈민정음』(세종 28년, 1446)과는 다른 분류가 제시된 점이 주목을 끌어 왔는데, 사실상 이 글은 비친제설을 처음으로 발설(發說)한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글의 서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첫 부분은 분명히 비친제설을 말했지만 맨 끝부분은 세종이 만들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성현이 언문청에서 새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세종의 왕명으로 시작된 『운회』의 번역을 의사청에서 하도록 했고(세종실록 권 103, 26년 2월 丙申) 언문청이란 이름은 그 뒤에 나타나는 사실로 보아(세종실록 권 114, 28년 11월 壬申) 언문청은 아무리 일찍 잡아도 세종 26년 2월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이기문 (1992:1, 4)

다. 가령 ‘다리보리’(인두)라는 우리말을 ‘多里甫里’라 표기한 것이라든가 ‘도라지’의 고행(古形) ‘도랏’을 ‘道羅次’라고 표기한 것은 음차에 의한 차자표기다. 이 경우에는 표의 문자인 한자에서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만 그 음만을 취하여 일종의 표음문자로 이용한 것이다.

반면 ‘밤재’, ‘한밭’이라는 우리 지명(地名)을 각각 ‘栗峴’, ‘大田’이라고 표기하고 이를 ‘밤재’, ‘한밭’이라고 읽은 것은 한자의 뜻, 즉 그 훈(訓) 또는 석(釋)을 빌려 온 경우다. ‘버들옷’이라는 풀 이름을 ‘柳漆’이라 표기한 것도 같은 경우다. ‘柳’에서 ‘버들’, ‘漆’에서 ‘옷’(옷)이라는 훈(訓)을 취한 것이다.

앞 예들은 한 단어가 음차(音借)와 훈차(訓借)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표기된 것이었으나 차자표기는 오히려 이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었다. 고슴도치의 고행(古形) ‘고슴돌’을 ‘古參猪’라 하여 첫 두 자는 음차, 끝 자는 훈차한 것이나, ‘나귀풀’이란 풀 이름을 ‘驢耳草’라 하여 첫 자는 음차로 하고 나머지 두 자는 훈차로 한 것, 또는 ‘길동’이라는 지명을 ‘永同’이라고 표기하여 첫 자는 훈차, 끝 자는 음차로 한 것 등이 다 그러한 예다.

향찰식 표기 이러한 차자표기가 우리말 표기에 가장 본격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은 신라 시대의 향가(鄕歌) 표기에서였다. 향가는 예외 없이 위의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혼용하였다. 특히 첫머리에서는 훈차에 의한 방식을 쓰고 뒤쪽에서는 음차에 의한 방식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처용가(處容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東京明期月良	동경 불기 드라라
夜入沙遊行如可	밤 드리 노니다가
入良沙寢矣見混	드러사 자릭 보곤
脚烏伊四是良羅	가로리 네히러라
二隱吾下於叱古	두보른 내헤엇고
二隱誰支下焉古	두보른 누기헨고
本矣吾下是如馬於隱	본티 내해다마르느
奪叱良乙何如爲理古	아사늘 엇디헨리고

여기서 보면 ‘明期’(뵈-기), ‘月良’(드랄-아)의 앞부분은 훈차 표기며 뒷부분은 음차 표기인 것을 볼 수 있다. ‘入伊’(들-이), ‘行如可’(니-다가), ‘入良沙’(들-아사), ‘見混’(보-곤), ‘四是良羅’(넝이아라), ‘爲理古’(헨-리고) 등에서도 모두 명사나 어간 등의 실사(實辭) 부분은 훈차로, 조사나 어미 등의 허사(虛辭) 부분은 음차로 표기하는 원리를 볼 수 있다.

향찰은 한국어의 한국어의 참 모습대로 충실히 표기하는 일에 성공적이었다. 어순을 한국어 어순에 맞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조사나 어미를 충실히 표기하여 교착어로서의 한국어의 특징을 바로 살리고, 또 받침 표기에까지 세심한 배려를 한 것 등이 그 성공을 거둔 비결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향찰은 번창의 길을 걷지 못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 발달하여 888년에는 『삼대목(三代目)』이 간행되기까지 하였고 고려 초엽까지도 존속했으나 그 이후로는 명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겨우 통일신라시대 한 시기를 누리고 생(生)을 끝마쳤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을 것이다. 창작성이 높은 문학 작품 활동이 활발하였어도 향찰의 생명은 좀 더 오

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한국어의 음절 구조가 복잡하고 그 수가 많아 한문으로는 만족스럽게 표기할 수 없었다는 것도 큰 장애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자로 복잡한 한국어 받침 구조를 표기하는 일은 번잡하기 이를 데 없다. 그리고 향찰 표기가 어렵다는 점도 향찰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잘 쓰이지 않게 됨으로써 고려 초엽까지 존속하다가 점차 소멸의 길을 밟게 된 원인이었다.

구결식 표기 향가에서는 위에서 보듯 우리 문장 전부를 차자표기에 의하여 표기하였다. 여기에서 이 무렵의 차자표기는 국어 문장의 표기에 전면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차자표기는 오히려 그 쓰임이 한정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天地之間萬物之中匡 誰人是 最貴爲尼 所貴乎人者隱 以其有五倫也羅

처럼 완전한 한문을 그대로 두고 ‘애(匡), 이(是), 흐니(爲尼), 는(隱), 라(羅)’ 등의 토(吐)만 차자표기로 표기한 것이 그 가장 심한 경우다. 이때의 문장은 완전한 중국어 문장으로서 차자표기는 그 중국어 문장, 즉 한문(漢文)을 읽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이미 우리말 전부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두식 표기 이 중간 단계로서 상당한 부분은 한문이지만 어순(語順) 등을 우리말과 같게 고치고 또 본문(本文)의 일부는 차자표기로 하는 방식도 있었다. 이는 법조문(法條文)에 많이 쓰이던 방식인데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 보이는 다음 예문이 그 한 예다.

凡妻亦 可黜可絶之事無去乙 黜送爲在乙良 杖八十齊 必于 七出乙 犯爲去乃 三不去有去乙 黜送爲 在乙良 減二等遺 婦女還本夫齊

이 글에서는 밑줄 친 차자표기 부분을 빼고 나도 완전한 한문이 되지 않는다. 이 글의 본문은

凡妻無應出及義絶之狀而出之者 杖八十 雖娶犯七出 有三不去而出之者 減二等 還完娶

인데 이들을 비교해 보면 앞의 글에서는 목적어 앞에 있어야 할 ‘無, 犯, 有’ 등이 목적어 뒤에 간 것 등 어순부터 한문의 어순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 ‘無去乙’(업거늘)을 보면 ‘無’가 한문의 일부이기보다는 혼차된 것을 알 수 있다. ‘비록’(必于)이라는 부사(副詞)도 한문과는 거리가 먼 차자표기가 아니므로 향가에서보다는 차자표기의 쓰임이 크게 위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차자표기의 적용 범위가 다른 이상의 세 경우를 향찰(鄉札), 이두(吏讀), 구결(口訣)로 구별하여 부르는 수가 있다. 향찰은 향가(鄉歌)에서처럼 우리말을 그대로 두고 그 전부를 차자표기로 적는 방식을 가리키며, 이두는 일부는 한문으로 적고 일부만 차자표기를 취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리고 구결은 한문을 완전히 그대로 살리고 그것을 해독할 때 편의를 주도록 덧붙이는 토(吐) 부분만 차자표기로 적는 방식을 가리킨다.

■ 도움말 30- 최만리 외 집현전 학사들의 반대 상소

세종과 최만리³⁰⁾

1444년(세종 26)에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훈민정음의 창제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상소로 인하여 최만리는 극단적 사대주의자이며 보수주의자로 비난 받았으며 반민족주의자로 낙인찍히기도 하였다. 반면에 최만리는 성격이 강직하고 청렴하여 청백리(淸白吏)로 추천된 사람이며 한글 창제의 협력자인바 그를 사대주의자 내지 반민족주의자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오해와 현대적 편견의 소치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는 실록 등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최만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최만리를 대표로 하여 올린 이른바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에 담긴 구체적인 주장은 무엇이며 나아가 그 주장들의 근거는 어떠한 것인지, 세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의 주장을 꺾기 위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1. 최만리는 어떤 사람인가?

29) 『동국정운(東國正韻)』의 편찬 사업은 전승 한자음을 체계화하여 표준 한국 한자음을 설정하려는 목적 아래 세종이 진행시킨 것이다.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에 대한 한글 주음 사업이 중단된 뒤를 이어서 진행된 것 같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학자들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집필한 진영과 거의 같아서 신숙주를 비롯하여 집현전 수직제학 최항, 수직집현전 성삼문, 동 박팽년, 수집현전 교리 이개, 수이조정랑 강희안, 수병조정랑 이현로 등과 수승문원 교리 조변안, 승문원 부교리 김중이었다.

이 사업은 1447년(세종 29) 9월에 6권으로 편찬 완료되고 1448년(세종 30) 11월에 간행되었다. 이 책이 완성될 때 신숙주가 31세의 몸으로 서문까지 쓴 것을 보면 그가 이 사업에서 중추적인 구실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동국정운』 편찬자들을 대표하여 신숙주는 ‘동국정운 서문’(1447)에서 15세기 한국 한자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먼저 지리적 조건과 발음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여러 예를 들었다. ① 아음(牙音)에서는 k’-(溪母)음으로 발음되던 자음들의 태반이 k-(見母)로 발음되고 있다. ② k’-음으로 발음되던 자음들 가운데 h-(曉母)음으로 발음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③ 우리말의 어음에서는 청·탁의 구별이 중국과 다름이 없는데도, 한국 한자음에만 탁성이 없다. ④ 우리말의 어음에서는 4성조의 구별이 매우 분명한데, 한국 한자음에서는 상성과 거성의 구별이 없고, -t(端母) 음으로 종성을 삼아야 할 운을 -l(來)母 음으로 종성을 삼고 있다. ⑤ 우리말에서는 k’-음을 초성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한국 한자음에서는 ‘快’자 하나만 초성에서 k’-음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동국정운』 편찬을 맡았던 신숙주 등은 위의 예들을 한국 한자음의 특징으로 생각하지 않고, 중국 본토의 자음 체계에서 벗어난 ‘와(訛)’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 한자음 체계를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지 않는다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동국정운』의 편찬 방향은 전승 한국 한자음을 바탕으로 하여, 『동국정운』 초성 체계를 훈민정음 초성 체계와 마찬가지로 23조성(성모) 체계로 정리하되, 위에서 예로 든 한국 한자음의 일부를 중국의 운서음 체계에 맞도록 환원시키는 쪽으로 잡았다.

다시 한자음을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평·상·거·입 4성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운모음의 차이에 따라 91운으로 정리하였다. 91운은 1444년(세종 26)에 한글로 주음을 시도했던 『고금운회거요』의 ‘자모운(字母韻)’(13세기 한어 자음의 현실음) 체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세종은 『동국정운』 편찬 사업이 완료되자 이 운서에서 제시한 한자음을, 한국 한자음의 표준으로 정하고, 모든 간행물 안의 한자에 이 운서의 음을 기록하게 하였다. 강신항 (2002)

1.1. 최만리의 생애

최만리(崔萬理)의 본관은 해주(海州)로 해동공자라 일컬어지는 최충(崔沖, 984~1068)의 12대손이며 보한집(補閑集)의 저자인 최자(崔滋, 1188~1260)의 6대손이다. 또한 그의 외동딸이 본관이 덕수(德水)인 이의석(李宜碩)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의석의 증손(曾孫)이 율곡(栗谷)이이(李珣, 1536~1584)이다. 즉 이이는 최만리의 외현손(外玄孫)이 된다. 최만리의 정확한 생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1419년(세종 1) 4월에 증광문과에 을과로 합격한 것으로 보아 1390년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세종(1397~1450)보다 나이가 약간 많거나 비슷했을 것이다. 과거에 급제한 최만리는 정9품인 정자(正字)라는 벼슬로 관리 생활을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에 따라 수문전(修文殿), 집현전, 보문각(寶文閣)을 두었었는데 관청도 없고 직무도 없었으며 문신에게 관직만을 주었을 뿐이었다. 그러다 1420년(세종 2) 3월에 이르러 이 기관들 중 집현전만을 남겨 관사(官司)를 궁중에 설치하고, 다음의 표와 같이 직제를 정하였다. 아울러 문관 가운데서 재주와 행실이 있고 나이 젊은 사람을 택해 집현전의 관리로 임명하여 오로지 경전과 역사의 강론을 일삼고 임금의 자문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문과에 급제한 다음해인 이 때 최만리는 집현전의 정7품 박사(正七品 博士)에 임명되었다.

1427년(세종 9)에 교리로서 문과 중시(重試)에 급제하여 응교에 올랐으며 같은 해 7월에 세자[문종(文宗)]가 조현(朝見)할 때의 서장관 겸 검찰관(書狀官兼檢察官)으로 직제학 정인지(鄭麟趾)와 집의 김종서(金宗瑞) 외에 최만리가 추가로 선정되었다. 역시 같은 해 8월에 세종이 세자(世子)에게 진지하여 매일 주강(晝講)할 때 좌필선(左弼善) 정인지(鄭麟趾)와 우문학(右文學) 최만리가 번갈아 가며 고급의 유익한 말과 훌륭한 정치를 진술하고 민간의 일을 들려주기도 하며 저녁에 이르러서야 나가게 하는 것을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고 한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이때 최만리는 집현전 응교로서 우문학을 겸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만리는 이후 수년에 걸쳐 집현전 관리로 세자의 서연을 담당하였던 듯하다. 1431년(세종 13) 10월 기사에 세자가 시종(侍從)한 지 오래된 최만리와 박중림(朴仲林)이 들어와서 강(講)할 때는 스스로없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묻는 데 비해 날마다 교대로 들어오는 나머지 관원들에 대해서는 낯선 까닭에 세자가 부끄러워 머뭇머뭇하면서 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종은 서연관을 겸관이 아닌 녹관으로 바꾸었는데 서연관은 녹관을 두어 오랫동안 그 임무만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 때문이었다. 이후 최만리는 1432년(세종 14)부터 1435년(세종 17) 7월까지 세자 좌보덕(左輔德, 종3품)을 맡았는데 겸관이 아니므로 이 시기에는 집현전의 직책은 맡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435년(세종 17) 7월에 이조(吏曹)에서 집현전의 기능이 임금 앞에서 글을 강론하는 것인바 서연관의 직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의 녹관을 둘 필요가 없이 집현전에 합칠 것을 주청하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최만리는 세자 좌보덕에서 집현전 직제학으로 소속이 옮겨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인 1436년(세종 18) 4월에 집현전 직제학 최만리를 초시의 대독관(代讀官)으로 삼았다는 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438년(세종 20) 7월에 집현전 부제학에 오르고, 이듬해인 1439년 6월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다가, 1년 후

인 1440년(세종 22) 7월에 집현전 부제학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1444(세종 26)년에 상소문제로 사직하기 전까지 계속 집현전 부제학으로 남아 있었다. 사직하고 낙향한 이듬해인 1445년(세종 27년) 10월 23일에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공혜(恭惠)인데 ‘공(恭)’은 공경하여 순하게 위를 섬기는 것, ‘혜(惠)’는 너그럽고 넉넉하고 자애롭고 어진 것을 의미한다.

1.2. 최만리가 올린 상소문들의 내용

실록에 따르면 최만리는 모두 14차례의 상소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처음 3회의 상소는 일반 행정상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6차례는 세종의 불사(佛事)와 관련하여 척불(斥佛)을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중간에 이 척불 상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 상소를 한 차례 올렸다. 이후 3회는 세자의 섭정을 반대하기 위해 올린 것들이다. 최만리와 세자의 관계에 대해서 세조실록에 보이는 기사를 참조하면, 세조가 공신들을 모아 놓고 연회를 베풀다 필선(弼善) 정효상(鄭孝常)에게 이르기를 “문종이 세자였을 때, 서연관 최만리·박중립 등이 세자를 보익(輔翼)하며 하나라도 조그마한 과실(過失)이 있으면 문득 간(諫)하여 마지않았다. 내가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이 두 신하는 그 직책(職責)을 능히 다하였다고 할 만하다. 이제 그대들은 한 번도 선한 말을 진달(陳達)하여 세자(世子)를 경계한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아첨(阿諂)함이 심하다 할 것이다.” 고 하였다 한다. 최만리는 문종이 스승임없이 대할 정도로 친했으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스승이었다 할 것이다. 세자의 스승인 최만리는 세종이 건강상의 이유로 세자의 섭정을 시행하려 하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였다. 이러한 반대는 신하된 당연한 도리이며 비단 최만리만 이러한 상소를 올린 것이 아니므로 그다지 특징적인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세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최만리의 청렴성을 확인시켜 준다 할 것이다. 최만리가 마지막으로 올린 것이 바로 문제의 언문 창제 반대 상소이다.

2. 최만리 등의 훈민정음 창제 반대 상소와 세종의 처결

2.1. 훈민정음 창제 반대 상소의 배경

세종의 총애를 받으며 집현전에서 20여 년을 근무하여 집현전의 실질적인 최고 직책인 부제학을 맡고 있던 최만리는 왜 세종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이루고자 하는 훈민정음의 창제를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그것도 창제가 다 이루어진 후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말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는 최만리 등이 상소를 올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1444년(세종 26) 2월 16일에 세종이 한글로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를 번역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최만리 등이 상소를 올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최만리 등의 상소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실록에 실린 2월 16일 기사의 내용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1444년 2월 16일 기사에 따르면 세종은 집현전 학사 중 교리 최항(崔恒), 부교리 박팽년

(朴彭年), 부수찬 신숙주(申叔舟)·이선로(李善老)·이개(李塏)와 돈녕부주부(敦寧府主簿) 강희안을 의사청(議事廳)에 나오도록 하여 한글로 『운회(韻會)』를 번역하도록 명하였다. 또 동궁[세자]과 진양대군[수양대군], 안평대군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감독하여 관장하게 하였으나 모든 일은 임금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상을 줌에도 후하게 하였으며 물자를 보급함에도 매우 우대하도록 하였다.

이상이 기사의 내용이다. 의사청이란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는 장소이고 『운회』는 앞서 밝혔듯이 『고금운회거요』를 말한다. 이 기사 내용을 통하여 세종이 『고금운회거요』의 번역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세자와 대군들이 감독하게 하고도 일일이 세종 자신에게 결재를 받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상도 후하게 주고 물자 공급도 우대하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사에서 ‘상을 줌에도 후하게 하였다(賞賜稠重)’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2월 16일 명령을 내리며 앞으로 일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상을 후하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상을 후하게 주었다는 것인가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에 따라 포상하는 법인 바 이러한 예에 비추어 본다면 이 부분은 어느 쪽으로도 해석해도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록 기사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실록의 기사는 날짜별로 기록되며 일반적으로 그날 일어난 일을 기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날 내지 상당 기간의 걸치는 사건임에도 하루치 기사에 몰아서 넣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사는 대개 사건이 시작된 날, 사건이 끝난 날에 실리게 되는데 간혹 사건이 진행 중인 중간 날에 실리기도 한다. 이는 실록이 왕의 사후 수 년 내지 수십 년 치의 기록을 모아 간행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2월 16일의 이 기사 역시 그 날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상당 기간에 걸친 일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뒤에서 살펴볼 최만리 등의 상소문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언급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즉 4일 뒤인 2월 20일에 올린 상소에서 최만리 등은 “옛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운서(韻書)를 가볍게 고치고 근거도 없는 언문으로 음을 달아 공장(工匠) 수십 인을 불러들여 이를 새겨서 급하게 널리 유포시키려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다. 옛 사람의 운서를 고쳤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최만리 등이 『고금운회거요』의 번역이 가지는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2월 16일에 이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면 불과 4일 만에(실제로는 상소문을 준비하는 데 하루 내지 이틀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므로 명령이 내려진 직후일 것이다) 번역의 기본 방향이 잡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었다는 무리한 가정을 해야 한다. 더구나 새겨서 인쇄하여 반포하려 한다는 것은 이미 원고가 완성 단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 준다 할 것이다.

따라서 2월 16일의 이 기사는 이 때 『운회』의 번역을 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러한 명이 있었고 이날 원고가 상당히 완성되었기에 불러 상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운회』의 번역을 명한 것은 언제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

는데 이것은 아마 훈민정음의 창제 직후가 아닌가 생각된다. 즉 1443년 12월에 이러한 명이 있었고 약 두 달의 기간이 걸려 원고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2.2. 세종과 최만리 등의 논쟁

1444년 2월 20일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직제학 신석조(辛碩祖), 직전 김문(金汶), 응교 정창손, 부교리 하위지(河緯之), 부수찬 송처검(宋處儉), 저작랑 조근(趙瑾)이 연명하여 이른바 언문 창제 반대 상소를 올렸다. 여기서는 실록 및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토대로 세종과 최만리 등의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과 최만리 등이 대화하며 논쟁을 벌이는 가상적인 장면을 설정하였다. 이해의 편이를 위하여 말투도 가능한 한 현대적으로 구성하였다.

▶ 세 종: 내가 만든 훈민정음에 대해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최만리: 언문을 만드신 것이 지극히 신묘(神妙)합니다. 전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발휘하시는 능력이 천고(千古)에 뛰어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좁은 소견으로 볼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부디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종: 그대들의 생각을 들어 보고 싶으니 말하도록 하라.

▶ 최만리: 우리 조선은 건국 이래로 정성을 다해 사대(事大)를 하였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는 중국의 제도를 따라 행하여 왔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글을 쓰고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문명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언문(諺文)을 창작하셨으니 보고 듣는 저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세 종: 훈민정음을 창작했다고 하는데 훈민정음은 완전히 새로 만든 글자가 아니라 모두 옛 글자에 근본을 두고 있다. 즉 글자의 형태는 옛날의 전문(篆文)³¹⁾을 모방하지 않았느냐?

▶ 최만리: 그러나 소리로서 글자를 합성하는 것은 모두 옛 것에 어긋나니³²⁾ 진실로 근거할 바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 언문이 중국에 흘러 들어가서 혹 이를 두고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어찌 사대모화(事大慕華)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 세 종: 그대의 말은 옳지 않다. 정음을 만든 것은 사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국의 제도를 가져다 쓰더라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바꾸어 적용하지 않느냐? 한자로는 우리말을 쉽게 또 정확히 적을 수 없으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즉 이러한 우리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음을 만든 것일 뿐이다. 나는 즉위한 이래 사대모화에 대해 조금도 소홀히 한 일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황제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 혹 모함하려는 자가 정음을 만든 것을 빌미로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의 뜻이 사대모화에서 조금도 어긋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이것이 오로지 우리나라 백성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최만리: 예로부터 9개 지역으로 나뉜 중국 안에서 기후나 지리가 비록 다르더라도 방언에 따라서 따로 글자를 만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몽고, 서하(西夏), 여진, 일본, 서번(西蕃)과 같은 무리만이 제각기 자기들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오랑캐들의 일이므로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옛 글에도 중국(中國)의 문화로서 오랑캐의 문화를 변화시킨다 하였지, 중국의 문화가 오랑캐 문화에 의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역대 중국의 여러 나라들이 모두 우리나라에 대하여 기자(箕子)의 유풍(遺風)을 간직하고 있어 예악(禮樂)과 문물(文物)이 중국과 견줄 만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들어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지려고 하니 이것이 이른바 향기로운 명약인 소합향(蘇合香)을 버리고 쇠똥구리가 만든 쇠똥 덩어리를 취하는 격이라 할 것입니다. 이 어찌 문명에 있어 큰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 세 중: 대개 음(音)의 같음과 다름은 그 자체로 같고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같음과 다름에 기인하는 것이며, 사람의 같음과 다름은 또한 지방이 같고 다름에 기인한다. 즉 지세가 다르면 기후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면 사람들이 숨 쉬는 것(발음)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문자와 제도를 통일시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발음이나 말은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산하가 저절로 한 구획을 이루어 지리와 기후가 중국과 크게 다르니, 말소리가 어찌 중국어의 것과 서로 부합될 수 있겠는가? 그러한즉 언어가 중국과 다른 까닭은 당연한 이치이다. 즉 예악과 문물은 우리가 중국과 같아질 수 있으나 언어에 있어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고 정음을 만드는 것이 오랑캐와 같아지려는 것이라 하는 그대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최만리: 신라의 설총(薛聰)이 만든 이두(吏讀)는 비록 거칠고 촘스러우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빌어다가 어조사를 적는 데 이용하므로 한자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급 관리나 하인들이 이두를 익히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한문으로 된 여러 책을 읽어서 한자를 대강이라도 익힌 다음에야 비로소 이두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두를 사용할지라도 반드시 한자에 의거하여야만 뜻을 통할 수 있으니 이두 때문에 한자를 공부하여 알게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따라서 학문을 진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문자가 없어 끈을 묶어 의사소통을 하던 시대와 같다면 임시방편으로나마 언문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올바른 소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임시방편으로 언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중국에서 통행하는 한자를 익히도록 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두는 수천 년 동안 써오면서 문서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데 어떠한 장애도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이두를 바꾸어 따로 속(俗)되고 무익(無益)한 글자를 만든단 말씀입니까?

만일 언문이 통용되면 관리가 되려는 사람들이 오로지 언문만을 익히고 한자를 배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관리가 되려는 사람이 언문으로써 벼슬자리에 오를 경우 뒷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일을 보고 ‘27자의 언문으로써 족히 세상에 입신(立身)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여 성리학을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십 년 뒤에는 한자를 아는 사람이 매우 적어질 것입니다. 비록 한글로써 능히 관공서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성현(聖賢)의 문자를 알지 못하면 배우지 않고 담벼락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사리(事理)의 시비를 따지는 데는 어둡고 헛되이 언문(諺文)에만 공을 드릴 것이니 장차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학문 ‘성리학’을 숭상하는 정책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까 두렵습니다.

이전부터 써 오던 이두도 비록 한자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님에도 식자층에서는 오히려 이를 속되게 여겨 이문(史文)으로 바꾸려고 하는 형편인데 하물며 언문은 한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오로지 시장거리의 속된 말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까? 가령 언문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이 문명한 정치를 이루려고 하는 때에 ‘여전히 언문을 인습적으로 그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고 반드시 이를 바로잡겠다고 논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일반적인 폐단입니다. 지금의 이 언문은 하나의 신기한 재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학문에 있어서는 손실만 가져오고 다스림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로움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되풀이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 옳음을 알 수 없습니다.

▶ 세 종: 앞서 그대들이 이르기를 ‘정음은 소리를 쓰고 글자를 함성함에 있어서 모두 옛 것에 어긋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설총(薛聰)이 만든 이두(吏讀) 또한 소리를 달리한 것이 아니냐? 게다가 이두를 제작한 본래의 뜻도 바로 백성에게 편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만일 이두(吏讀)가 백성에게 편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언문(諺文)도 또한 백성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설총(薛聰)이 한 일은 옳다고 하면서 군상(君上)이 한 일은 그릇되다고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언문을 제작한 것이 신기한 하나의 기예(技藝)일 뿐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늘그막에 소일하기 어려워 책을 벗삼고 있을 뿐이니 어찌 옛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만을 좋아하여 정음을 만들었겠는가? 그리고 또한 이는 사냥을 하며 매를 풀어 놓는 일 등과는 다르다. 그러나 그대들의 말은 상당히 지나친 점이 있다.

▶ 최만리: 하나의 신기한 재주라고 말씀드린 것은 말을 하다 보니 말이 그렇게 나온 것이지 별다른 뜻이 있는 있어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 세 종: 또한 내가 하급 관리들을 선발하는데 정음을 넣도록 하였으나 전적으로 정음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대과(大科)의 경우에는 정음을 시험 과목에 편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학문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대들의 주장은 너무 과장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다스림에 있어 아무 이로움도 없다 했는데 이 또한 옳지 않다. 가령 형을 집행하고 죄인 다스리는 문서들을 이두와 한문으로 써 왔는바 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한 글자의 차이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만약 정음으로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적은 후 읽어 준다면 아무리 어리석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모두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 최만리: 중국은 예전부터 말과 문자가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다스리는 일이나 소송 사건에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더라도 옥에 갇힌 죄인 가운데 이두를 아는 사람이 직접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읽어 보고 그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매를 건디지 못해서 승복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로 보건대 글의 뜻을 몰라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언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즉 죄인을 공정하게 다스리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 일을 담당하는 관리가 어떠한 자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말과 글이 다르거나 다르지 않

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문으로 죄인을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저희들은 의심이 됩니다.

▶ 세 중: 내 일찍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법률 조문을 몰라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크고 작음을 알아서 스스로 고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법률 조문을 다 알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따로이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서 이를 이두로 번역하여 민간에게 반포하면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를 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하교한 적이 있다. 그때 이조판서 허조(許稠)가 말하기를 ‘백성 중 간악한 무리들이 법률 조문을 자세히 알게 되면, 죄의 크고 작은 것을 고려하여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이 법을 제 마음대로 농간하는 일들이 벌여질까 두렵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내가 ‘그렇다면 백성이 알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어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백성이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서 범법한 자를 벌준다면,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술책에 가깝지 않겠느냐? 더욱이 선대의 임금들께서 재판시에 법률 조문을 읽게 하는 법을 세우신 것은 사람마다 모두 알게 하고자 함이 아니냐.’ 하고 꾸짖은 적이 있다. 그대들의 말은 허조의 말과 같다 하겠다.

죄인을 공정하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가 관리의 자질에 달려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정한 관리도 착오를 범하여 억울한 죄인을 만들 수 있다. 죄인을 다스림에 정음을 사용하면 억울한 일이 다소라도 줄어들 것이다. 죄인을 다스릴 적에 문서를 정음으로 작성하여 들려주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라는 것은 정음이 쓰일 수 있는 한 예일 뿐이다. 가령 정음으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한다면 일반 백성들이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 충신·효자·열녀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 정창손: 비록 언문으로 번역하지는 않았을지언정 백성들이 알기 쉽도록 그림으로 그려 삼강행실도를 반포하였으나 그 뒤에 충신·효자·열녀가 많이 나온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삼강(三綱)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의 자질이 어떠한가에 달린 것입니다. 반드시 언문으로 그 책을 번역하고 배포한 뒤라야만 사람들이 그러한 행실을 본받는다 고 어찌 보장하시겠습니까?

▶ 세 중: 그대의 말은 허조의 말보다 심하구나. 이것이 어찌 이치를 아는 선비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교화가 가르침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나? 사람의 자질도 교화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 자질 탓만을 하는 것이 선비된 도리로 옳은 것이라 할 수 있느냐? 그대야말로 참으로 쓸모없는 속된 선비에 불과하다.

▶ 최만리: 무릇 일을 이루고 공을 세움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서둘러 마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국가의 조치들은 모두 빨리 이루는 데에만 힘을 쓰고 있으니 이는 다스리는 근본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비록 언문이 부득이하여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풍속을 바꾸는 중대한 일이므로 마땅히 계상들로부터 아래로는 하급 관리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상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설혹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시행하기 전후에 백성들에게 충분히 그 뜻을 거듭 설명한 다음 다시 세 번 더 생각하여 역대 제왕들의 다스림에 비추어 보아도 어긋남이 없고 중국과 상고하여도 부끄러움이 없으며 후세에 성인(聖人)이 다시 태어나 이를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바가 없는 다음에야 비로소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사람의 뜻을 널리 묻지도 않고 하급 관리

10여 인에게 명하여 정음을 익히게 하며 또 옛 사람이 이미 이루어 놓은 운서(韻書)를 가볍게 고쳐서 황당한 언문을 붙여서 공장(工匠) 수십 인을 모아서 이를 새겨서 급하게 널리 유포시키려 하시니 천하와 후세의 공론이 어떠하겠습니까?

계다가 이번에 청주(淸州) 초수리(椒水里)에 행차하심에 있어 올해 흉년이 든 것을 특별히 염려하시어 호종하는 모든 일을 간략하게 시행하도록 하셨는 바, 전에 비하여 10 중 8, 9정도를 생략하시고 전하께 아뢰어야 할 공무(公務)도 모든 것을 대신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언문은 국가의 긴급한 일도 아니고, 부득이한 기한이 있는 일이 아님에도 어찌 행재소(行在所)에서까지 급하게 서두르시어 전하의 옥체를 조섭해야 할 시기에 번거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더욱 그 옳은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 세 종: 그대들이 운서(韻書)를 아는가? 사성(四聲)과 칠음(七音)을 알며 자모가 몇인지 아는가? 우리나라의 한자음은 마땅히 중국의 음과 부합되어야 할 것이나 오랜 세월 동안 말해지는 사이에 자음과 모음이 저절로 어음(語音)에 이끌렸으니, 이것이 곧 한자음이 역시 따라서 변한 까닭이다. 비록 그 음은 변했다라도 청탁이나 사성은 예전과 같을 수 있을 것인데 일찍이 그 바른 것을 전해 주는 책이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스승이나 일반 선비들이 반질법도 모르고 자모와 운모의 분류 방식도 모르고 혹은 글자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음으로 하고, 혹은 앞 시대에 임금의 휘자(諱字)이기 때문에 피하던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음을 빌려 쓰기도 하고, 혹은 두 글자를 합해서 하나로 하기도 하고, 혹은 한 음을 둘로 나누기도 하며, 혹은 전혀 다른 글자를 빌려 쓰기도 하며, 혹은 점이나 획을 더하거나 덜며, 혹은 중국 본토음을 따르고 혹은 우리나라 음을 따라서 자모와 발음, 청탁, 사성이 모두 변하였다. 만약 내가 이 운서(韻書)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를 바로잡겠는가?

▶ 최만리: 예전 선비의 글에 이르기를 ‘무릇 모든 신기하고 보기 좋은 일들이 선비의 뜻을 빼앗아 간다. 편지 쓰기는 선비의 일에 가장 가까운 것이나 전적으로 이것만을 좋아하면 이 또한 저절로 뜻을 잃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동궁께서는 비록 덕성을 많이 성취하셨지만 아직은 성학(聖學)에 깊이 마음을 써서 모자라는 점을 더욱 닦아야 할 것입니다. 언문이 설사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단지 선비의 육예(六藝)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치도(治道)에는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인데 동궁께서 이 일에 정신을 쏟고 마음을 기울여 날을 마치고 시간을 보내니 이는 실로 현재 시급히 닦아야 할 학문에 손해가 됩니다.

▶ 세 종: 내가 나이 들어 국가의 서무(庶務)는 세자가 맡아서 하는 까닭에 비록 작은 일이라도 세자가 마땅히 참여하여 결정하는데 하물며 정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 세자로 하여금 항상 동궁에만 있게 한다면 환관이 이 일을 맡아서 해야겠느냐?

▶ 최만리: 공적인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동궁께서 참여하여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그리 급박하지 않은 일 때까지 하루 종일 마음을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 세 종: 정음을 만드는 일이 어찌 국가의 공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나? 그대들과 더 이상 말하기 어렵다. 어찌 생각이 이리 다를 수 있단 말이나?

최만리: 저희들이 모두 보잘 것 없는 재주를 가지고 외람되게도 전하를 모시고 있으므로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감히 담고만 있을 없어 이에 삼가 가슴속에 가진 생각을 다 아뢰어 전하의 어지심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 세 종: 그대들이 나를 가까이서 시종하므로 나의 뜻을 명확하게 알 것인데도 이 같이 행동하니 이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느냐? 또한 이전에 김문(金汶)은 말하기를 ‘언문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 아니다’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반대로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무리에 포함되어 있으니 어찌 된 일이나? 내가 그대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눈 것은 정음에 관한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임금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치에 닿지 않는 말로 답하고 궁지에 몰리면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 응답하니 그대들에게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부제학 최만리, 직제학 신석조, 직전 김문, 응교 정창손, 부교리 하위지, 부수찬 송처검, 저작랑 조근을 의금부에 하옥시켜라. 또 의금부에서는 김문이 전후에 태도를 바꾸어 말하게 된 사유를 조사하여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지 결정하도록 하라.

세종은 그리고 그 다음날 이들을 석방하라고 명하였는데 속된 선비라는 꾸지람을 들은 정창손은 파직시키고 처음에는 정음 제정이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반대를 하여 말을 바꾼 김문에게는 벌금을 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창손도 얼마 후 다시 복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만리에 이어 부제학에 오른다. 김문의 죄는 의금부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바로는 장(杖) 100대를 맞고, 소금을 굽거나 쇠를 만드는 등의 노역을 3년 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노역은 시키지 않고 장(杖) 100대도 직접 매를 맞지 않고 돈을 내어 속죄하도록 한 것이었다. 최만리는 다음날 석방되어 복직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낙향하여 살다가 다음해에 작고하였다.

30) 황선엽 (2004:87~98)

31) 1443년 12월 실록 기사에 보면 “이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셨는데, 그 글자가 옛 전서(篆書)를 모방했다”라고 나온다. 여기서 ‘전서를 모방했다’는 구절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전서를 모방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글을 만들어 놓고 보니 전서와 비슷했다는 것인지, 또는 ‘전서’가 옛 한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몽고의 글자인지도 논란이 있다.

안병희(2002:188)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형(字形)뿐 아니라 옛 전서를 본떴다고 한 해례본의 한글 자체(字體)도 홍기문(1946: 下, 35)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서인 起一成文圖의 한자와 똑같은 자체(字體)이다. 다시 말하면 도필(圖筆)로 되어 『홍무정운역훈』 이후의 한글이 보이는 방필(方筆)인 해서(楷書)와 다른 서체인 것이다. 해례본 한글의 이러한 서체는 『세종실록』(25년 12월)의 창제에 관한 기사와 해례본 정인지서의 ‘자방고전(字倣古篆)’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필자는 이해한다. 전서(篆書)는 도필(圖筆)뿐 아니라 필획(筆劃)의 균일이 특징이다. 이러한 필획은 동아세아에서 사용된 초기의 필기구인 붓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붓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한자의 서체는 전서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예서, 해서로 변화하였는데, 한글은 두어 해 사이에 전서에서 해서로 변화하여 시간상으로 전혀 비교가 안 된다. 그러나 한글의 처음 서체를 전서에서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새 글자가 서체에서도 한자가 걸은 역사에 일치시켜 문자로서의 정통성과 권위를 가지도록 하려 한 창제자의 숨은 뜻이 있지 않은가 한다. 이상의 설명으로 필자는 한글의 창제에는 한자와 그에 관한 중국의 연구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참고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32) “합자법(合字法)의 필순(筆順)이 한자의 그것과 분명히 같지만 표기의 결과가 음성연속(音聲連續)의

■ 도움말 31- 한글의 우수성

1. 과학적

- 제자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임: 조음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글자를 만들 (발음 기관·천지인 상형)
- 몇 개의 기본 요소(훈민정음의 기본이 되는 글자는 ‘ㄱ, ㄴ, ㄷ, ㄹ, ㅇ’ 다섯 개의 초성자와 ‘·, ㅡ, ㅣ’ 세 개의 중성자)로 거의 무한에 가까운 글자를 만들 수 있음: 문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소 문자임
- 한국어의 음소와 거의 1 : 1로 대응함
- 정보화 시대: 컴퓨터나 휴대 전화에 입·출력이 자유로움(정보의 처리 및 전달 속도가 빠름), 소리와 글자가 거의 1 : 1로 대응하므로 음성 컴퓨터 개발에 매우 간편함

2. 독창적

- 독창적인 원리(발음 기관, 천·지·인 상형)로 다른 문자를 본떠 만들지 않음
- 창제자(세종대왕)와 창제 시기(1443년)가 정확히 알려져 있음

3. 합리적

- 글자들 사이에 유연성이 있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짐(가획, 병서, 연서, 합용의 원리, 종성부용초성)
- 모아 씌으로써 표의성을 드러낼 수 있음
- 글자를 보고 그 글자의 음가를 짐작할 수 있으므로 소리글자의 특징을 살릴 수 있음

<참고>

한글은 각 자모를 일렬로 풀어쓰지 않고 음절 단위로 조합하여 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 자모문자(字母文字)라면 ‘ㅎㅏㄴㄱㅡㄹ’ 이라고 풀어 써야 할 것을 ‘한글’로 묶어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훈민정음에 있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서인데 이 또한 다른 문자에 없는 한글 고유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 中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 · 一ㅏㅓㅕㅗ 是也 縱者在初 成之右 ㅏㅓㅕ ㅏㅓㅕ 是也 …… 終聲在初中之下’

한글은 현대 정보화 시대에서 보더라도 매우 뛰어난 글자다. 오늘날 언어의 의사소통력은 그것이 컴퓨터 체제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순서와 일치함은 아주 다른 점이다. 최만리 등이 ‘언문반대 상소문’ 첫머리에서 ”用音合字 盡反於古“라고 한 것이 아주 잘못된 주장은 아니다. 적어도 절반은 올바른 지적이라 하겠다. 거칠게 말하여 초성, 중성 그리고 종성으로 모아쓰는 순서는 그대로 발음의 순서 그것으로서, 한자에서는 못 보는 일이다. 초·중·종성을 모아쓰기는 병서(並書)의 필순에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같은 글자의 병서인 각자병서(各字並書)는 단일한 음소이므로 필순과 발음과의 일치를 말하기 어렵지만, 다른 글자를 모아쓰는 합용병서(合用並書)의 경우에는 그 일치가 확연히 드러난다.” 안병희 (2002:191)

오늘날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많은 정보 역시 컴퓨터를 통하여 소통되기 때문이다. 한글이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한글의 뛰어난 표음 능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며, 음운 문자이다. 음운 문자는 문자들 중에서 필요한 문자 수효가 가장 적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빨라 정보화에 가장 적합하다. 따라서 한글의 뛰어난 표음 능력으로 인하여 정보화 시대에 한글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에 들어와 눈부시게 발달한 컴퓨터에서도 입력이나 출력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그 속도 또한 매우 빠르며,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여 휴대 전화의 문자 전송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나 휴대 전화상에서 한글을 통한 정보의 전달 및 교환이 매우 손쉽게 이루어지는 예들을 통하여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도 한글이 매우 적합하고 유용한 문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³³⁾ 그리고 지금까지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주로 자판을 이용하여 입력해 왔으나, 원본을 그대로 입력하는 화상 입력, 손으로 글자를 쓰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입력하는 글자 인식 입력, 말소리로 입력하는 음성 입력의 시대가 왔다. 이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것이 음성 컴퓨터이다. 영어에서 A라는 로마자는 9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고, F는 11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발음 구조가 복잡한 영어를 가지고도 컴퓨터가 정확한 발음을 인식하여 글자를 만들어 내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거의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으며, 대체로 하나의 글자에 하나의 소리가 일대일 대응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한글의 표음 능력은 말소리를 글로 만들어 내는 음성 컴퓨터 개발에 매우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한글은 음운 조직이 과학적이어서 컴퓨터가 한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실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말을 하면 한글이 튀어나오는 컴퓨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 올 것이다. 한글은 컴퓨터 시대에 가장 앞장 설 글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계의 문자 학자들도 한글은 비단 한민족만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세계의 문자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인 독특하고 우수한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 도움말 32- ‘세종 어제 훈민정음’ 영어 번역본

이 자료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 게리 레드야드(Gari K. Ledyard)라는 분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자, 한글에 대하여 연구하여 학위를 받았던 논문,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에서 ‘세종 어제 서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실어놓은 부분만 따로 발췌한 것입니다.

* 자료 출처: Gari K. Ledyard,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신구문화사, p.170

■ 도움말 33- 내용 총 정리 (참고)

33) 이와 관련하여 문화 관광부 국어 정책과에서 추진하는 ‘21세기 세종 계획’(<http://www.sejong.or.kr>)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말과 글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문법 (2006:74)

15세기 중엽 조선에서는 세종에 의해 훈민정음이 만들어진다. 훈민정음은 음소문자의 단계를 지나 조음방식과 조음위치 혹은 음소들의 관계가 문자 체계에 반영된 것으로 자질문자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문자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린 사건, 혹은 인류 문화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린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1.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하던 전통적인 방식 특히 음절 발음을 분리하여 음소 문자처럼 사용하던 방식은 후대에 훈민정음의 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문자 그 자체는 대단히 불완전한 것이어서 우리말의 표기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정과 당시 조선의 주변에 있던 민족들(예를 들어 몽고족은 인근 종족의 문자를 변개시켜 음소문자를 만들어 사용한다.)의 문자 사용, 음성학과 운서에 대한 지식 등은 15세기 자질문자인 훈민정음을 탄생하게 한다.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은 대략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 ① 차자 표기의 전통 - 음절의 삼분 (초성, 중성, 종성의 분리)
- ② 조음기관 및 조음 방식의 정확한 관찰
- ③ 중국 운학, 성리학적인 습득 - 성모의 분류, 음양과 오행의 원리
- ④ 주변 국가들의 문자 생활 (保閒齋集 권 11 부록)

上 以本國音韻 與華語雖殊 其牙舌脣齒喉清濁高下 未嘗不與中國同
 列國皆有國音之文 以記國語 獨我國無之 御制諺文字母二十八字

(참고: 몽고에서는 위글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몽고 문자를 만들어 쓰다가, 원제국을 건립한 뒤로는 몽고문자의 결함을 보충하여, 八思巴 문자를 창안하여 사용함. 이것은 범어 계통인 티베트 문자를 기초로 한 것으로, 티베트의 고승 파스파가 1269년에 음소 문자식으로 만들고, 음절 문자처럼 쓰도록 마련한 문자였다. 이 문자의 창제 목적은 첫째, 자유로운 몽고어 표기, 둘째, 한음(중국 자음)의 정확한 표기, 셋째, 원제국 판도내의 모든 언어의 표기라고 할 수 있겠다.)

2. 훈민정음(한글)의 문자사적인 위치와 특징

2.1. 한글의 문자사적 특징

1. 한글은 조음 기관을 상형한 문자이다.
2. 한글은 만들어진 시기를 알 수 있고, 독립적으로 창제된 문자이다.
3. 한글은 자질 문자와 음소 문자 그리고 음절문자의 복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 1) 기본 문자와 가획한 문자로 구분된다.
 - 2) 음소 단위를 표기한다.
 - 3) 음절 단위로 묶어 표기한다.

2.2. 운용상의 특징 개관

1. 문자와 언어의 조화
2.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조화

3. 문자와 음성의 1:1 대응

한글의 실질적인 운용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특징이 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교착어의 형태소를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문자 - ‘ㅇ’의 창제
- ② 음절 단위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
- ③ 음소단위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
- ④ 소리의 관계가 문자에 반영된 문자 - 자질 문자

3. 『훈민정음 해례』의 역사적 의의³⁴⁾

『훈민정음 해례』는 우리나라의 중세 인문 과학을 처음으로 형성하는 국어학의 연구서이다. 『훈민정음 해례』의 학문적인 배경은 한 마디로 동양 철학이라 할 수 있다. 문자 및 음운학은, 조음 음성학과 ‘역리(易理)’의 이원론적 자질과 그 입체적 관계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생성의 변증법적 과정에서는 항상 ‘역(易)’의 순환 구조로 설명되는 것이다.

한편, 현대 언어 과학에 방불할 만한 조음 음성학이 형성되고, 현대적 음소관이 피력되었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국어의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 및 음절 체계가 정립되었으므로, 『훈민정음 해례』는 언어학 연구사상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PPT

☞ PPT 7- ‘훈민정음’의 두 가지 의미

훈민정음 (訓民正音)

1. 의미

- ① ‘문자’로서의 훈민정음
 - 세종 25년(1443) 음력 12월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새로운 우리말 표기 글자의 이름으로 오늘날 ‘한글’의 전신
- ② ‘책’으로서의 훈민정음
 - 글자 ‘훈민정음’에 대해 해설해 놓은 책의 이름
 - 1446년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최항, 박팽년, 강희안, 이개, 이선로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책(세종 28년 음력 9월 상한(上澣)에 반포)으로 해례가 붙어 있어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원본 훈민정음』이라고 함
 - 이 책은 크게 ‘예의(例義)’와 ‘해례(解例)’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의’는 세종이, ‘해례’는 정인지를 비롯한 8명의 신하들이 만들었음 (현재 국보 제70호로 지정)

3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석득(1999), 『우리말 연구사』’를 참고하시오.

2. 『훈민정음』

- ① 실록본(實錄本): 세종실록 28년 9월조에 한문으로 실려 있음. 내용은 해례본의 ‘예의’ 부분과 ‘정인지 서(序)’임.
- ② 언해본(諺解本) : 해례본 중 ‘예의’ 부분만 한글로 번역되어 있음.
 - (회방사본)월인석보본: 월인석보(세조 5년, 1459년) 첫머리에 실린 것 원본(해례본)의 ‘예의’만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
 - 서강대본: 1972년에 발견되어 서강 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음

※ 실록본과 언해본, 이 두 가지 책은 중세 국어 당시부터 계속 전해져 왔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가 들어 있는 ‘해례’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해례본이 발견되기까지 제자원리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있었다.
- ③ 해례본(解例本)
 - 체제
 - 예의 부분: 세종 어제 서문, 28자의 예시(글자의 음가)와 그 사용법에 관한 개략적인 규정
 - 해례 부분: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 → 매우 체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정인지 서(序): 해례의 끝에 해례보다 한 자씩 낮추어 아무런 제목 없이 행을 새로 잡아 정인지의 서(序) 본문이 시작된다.
 - ※ 세종의 서문: 한글 창제의 동기와 목적을 밝힘 - 한글 창제에 대한 서문
 - 정인지의 서문: 세종의 한글 창제의 동기와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고서 한글의 우수성을 말한 뒤에 세종의 명령에 따라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를 편찬하게 된 경위를 밝힘³⁵⁾ - 해례본에 대한 서문
 - 가치: 제자(制字) 원리가 밝혀짐

📖 PPT 8- 집현전 학사도

· 출처: 디지털 한글 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renew/history/invention/age/age_01.jsp

📖 PPT 9- 첨부 자료 2 ‘언해본 훈민정음’ 원본 (월인석보본)

· 출처: 디지털 한글 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renew/science/word_data/sub_list.jsp?d_code=00182&g_class=03 (1쪽~4쪽)

📖 PPT 10- 첨부 자료 3 ‘한문본 훈민정음’ 원본 (예의편)

35) 오늘날 서문은 책 첫머리에 실려서 그 책 저작의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글로 인식되지만, 원래 한문 문체의 서문은 어떤 일의 경위에 대한 글이다. 따라서 세종의 훈민정음서는 한글 창제에 대한 서문이고, 정인지의 훈민정음서는 해례본에 대한 서문이다. 안병희 (1997:194)

<참고>

· 출처: 디지털 한글 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renew/history/invention/hun/hun_01.jsp

☞ PPT 19- 사라진 말

사라진 낱말	스므디	전츠	시러	업소리	갈바	냉중소리
대신 쓰는 낱말	통하지	까답	능히	어금닛소리	나란히	끝소리(중성)

☞ PPT 29- 한글의 명칭

‘한글’을 세종은 ‘훈민정음’으로, 신하(반대자)들은 ‘언문’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주로 통용되다가 1984년 ‘홍범14조’를 반포할 때, 한글을 ‘국문(國文)’으로 칭하게 된다. 1910년 국권을 빼앗기고 우리말은 ‘조선어(朝鮮文)’으로 칭해지다가 1909년~1910년 무렵에 주시경이 ‘한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널리 사용되지 않다가 해방 이후에 ‘한글’이란 명칭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명칭의 변화

1. 세종 때: 훈민정음, 정음, 언문
2. 중종 때: 반절,³⁶⁾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불려진 명칭
3. 숙종 때: 국서(國書), 김만중
4. 갑오경장(1894) 이후: 국문(고종 황제가 ‘훈민정음’을 나라의 글이라는 뜻의 ‘국가 문자(國家文字)’라고 한 데서 나온 말)
5. 경술국치(1910) 이후: 조선어
6. 1927년 이후: 한글(‘한’은 ‘큰, 첫째, 한(韓)나라’ 등으로 풀이할 수 있음), 주시경

☞ PPT 30- 초성 체계

1. 초성의 제자 원리: 발음 기관의 상형(象形)과 가획(加劃)

① 기본자

五音	基本字	象形內容
牙	ㄱ	舌根閉喉之形 (아음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36)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글은 창제 초기에 ‘훈민정음’(줄여서 ‘정음’) 또는 ‘언문’이라 불렀는데 ‘언문’은 20세기 전반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불리던 이름이다. 그러다가 『훈몽자회』의 언문자모의 주석에서 민간에서는 ‘반절’이라 이른다 고 하였다. 원래 반절은 성모와 운모로 한자음 1음절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한글의 초성과 중성이 결합하여 1음절을 표기하는 방법이 그와 유사한 데서 한글의 이름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舌	ㄴ	舌附上嚶之形 (설음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떴다.)
脣	口	口形 (순음 '口'은 입 모양을 본떴다.)
齒	入	齒刑 (치음 '入'은 이의 모양 곧, 앞니의 치관(齒冠)을 옆에서 본 모양 본떴다.)
喉	ㅇ	喉形 (후음 'ㅇ'은 목구멍의 모양 곧, 기관을 수평으로 자르고 위에서 본 모양을 본떴다.)

② 기본자·가획자·이체자

五音	基本字	加劃字	異體字
牙	ㄱ	ㅋ	ㅇ
舌	ㄴ	ㄷ → ㅌ	ㄹ
脣	口	ㅂ → ㅍ	
齒	入	ㅈ → ㅊ	ㅊ
喉	ㅇ	ㅎ → ㅎ	

2. 자음의 음운 체계

소리나는 위치	소리의 성질	불청불탁 (不清不濁)	전청 (全淸)	차청 (次淸)	전탁 (全濁)
		울림소리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어금닛소리 [牙音]		ㅇ	ㄱ	ㅋ	ㄱ
혓소리 [舌音]		ㄴ	ㄷ	ㅌ	ㄷ
입술소리 [脣音]		口	ㅂ	ㅍ	ㅂ
잇소리 [齒音]			ㅈ	ㅊ	ㅈ
			ㅉ		ㅉ
목소리 [喉音]		ㅇ	ㅎ	ㅎ	ㅎ
반혓소리 [半舌音]		ㄹ			
반잇소리 [半齒音]		ㅊ			

* 'ㅉ, ㅊ, ㅉ'은 현대 국어에서는 경구개에서 발음된다.

* 초성 17자에 각자 병서(전탁음) 6자를 더하여 23자모이다.

이 23자모 중 'ㅎ, ㅇ'은 음운 구실을 하지 않았다.

이 음운 체계에 속하지는 않지만 국어의 음운 구실을 한 것은 '병'이다.

현대 국어의 자음은 19개이므로, 없어진 자음은 'ㅇ, ㅎ, ㅊ, ㅉ'이다.

☞ PPT 31- 중성 체계

1. 중성의 제자 원리- 천(天)·지(地)·인(人)의 상형과 이의 합성			
① 기본자			
	舌	聲	象形
·	縮	深	天

			(하늘의 둥근 모양 形之圓 象乎天也)
一	小縮	不深不淺	地 (땅의 평평한 모양 形之平 象乎地也)
丨	不縮	淺	人 (사람이 서 있는 모양 形之立 象乎人也)

② 합성자

구분	글자	합성원리
초출자(初出字)	ㄱ	하늘과 땅이 어우른 모양
	丨	사람과 하늘이 어우른 모양
	ㄷ	땅과 하늘이 어우른 모양
	ㅋ	하늘과 사람이 어우른 모양
재출자(再出字)	ㄲ	丨에서 일어나 ㅋ로 들어감
	ㅋ	丨에서 일어나 丨로 들어감
	ㅌ	丨에서 일어나 ㄷ로 들어감
	ㅋ	丨에서 일어나 ㅋ로 들어감

2. 모음의 음운 체계

① 모음의 음운 체계

	舌	聲	입열기	역학	
				생성근원	뜻
·	縮	深		天	天開於子
一	小縮	不深不淺		地	地關於丑
丨	不縮	淺		人	人生於寅
ㄱ	縮	深	蹙		天地初交
丨	縮	深	張		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
ㄷ	小縮	不深不淺	蹙		天地初交
ㅋ	小縮	不深不淺	張		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

② 모음조화 체계

	양성	음성	중성
기본자	·	一	丨
초출자	ㄱ 丨	ㄷ ㅋ	
재출자	ㄲ ㅋ	ㅌ ㅋ	

※ 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

혀의 높낮이 \ 입술의 모양	평순 (un-rounded, spread)	원순 (rounded)	평순 (un-rounded, spread)	원순 (rounded)
고 (High)	ㅣ	ㄱ	ㅡ	ㅈ
중 (Mild)	ㅕ	ㅖ	ㅗ	ㅛ
저 (Low)	ㅙ			
혀의 앞뒤	전설 (Front vowels)		후설 (Back vowels)	

* 현대 국어의 단모음: 10개
소멸된 것: ‘ㆍ’
중세 국어 당시 이중 모음이었던 ‘ㅘ, ㅙ, ㅚ, ㅛ’가 단모음으로 바뀌어 (‘ㅚ’는 1989년 개정된 표준어에서 단모음으로 인정됨)

☞ PPT 34- 중성법

중성의 제자 원리

- ‘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중성은 초성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
cf. ‘중성부용초성’을 받침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제자해(制字解)’의 해설을 고려하지 않고, 중성의 표기 설명의 편의상 사용한 것이다.

※ 중성의 표기법

- ① 소리 나는 대로 씀 (표음적 표기법)
 - ‘8자가족용(八字可足用)’: ‘ㄱ, ㅇ, ㄷ, ㄴ, ㅂ, ㅍ, ㅅ, ㄹ’ 8글자가 중성에 쓰임(‘해례’의 ‘중성해’)
 - 예) 목소리, 스승, 날(알), 눈, 솥(속옷), 꿈(꿈), 보비(보배(의) 옷), 물(물) / 받(밭), 늪(늪), 꽃(꽃), 노(노), 농(농)
 - 한글 맞춤법 이전까지의 중성 표기 방법이었음
- ②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음 (표의적 표기법)
 - 한글 맞춤법 이후의 표기 방법
 -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 일부 나타남
 - 예) 꽃 도코(꽃이 좋고), 달동(달동) 길고, 만나스뵈며(만나오며), 길거다(길으렷다)

☞ PPT 40- 가점법

가점(점 더하기) : 비분절 음운인 성조(聲調) 표시 방법

사성	방점	소리의 성질	용례	현대
평성	없음	부드럽고 낮은 소리 (安而和)	꽃(花), 비(梨)	짧게
상성	2점	처음은 낮고 끝은 높은 소리 (和而擧)	:눈(雪), :별(星)	길게
거성	1점	높은 소리 (擧而壯)	· 풀(草), · 눈(眼)	짧게
입성	없음, 1점, 2점	빨리 끝나는 소리 (促而塞)	입(口)	짧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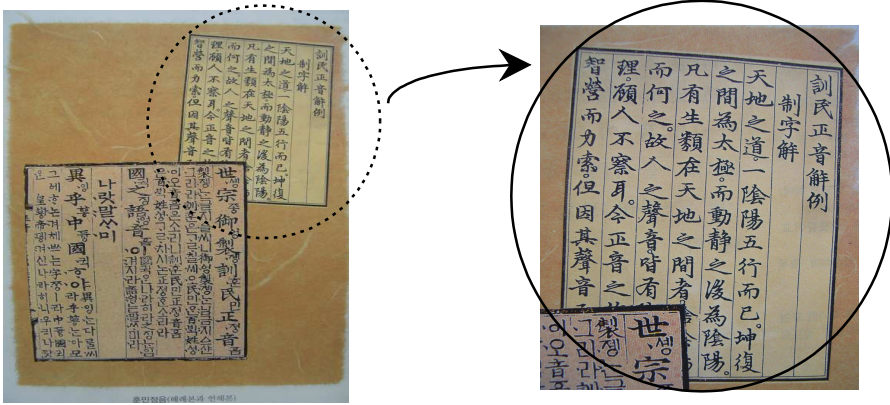
☞ PPT 47- 한글의 우수성

위대한 문화 유산, '한글'	
한글의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으로 드문 독창적인 글자 - 독창적인 원리(발음 기관 · 天, 地, 人 상형)로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 - 탄생기록(창제자와 창제 시기가 정확히 알려져 있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자
한글의 과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은 문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소 문자임 · 한글은 한국어의 음소와 거의 1 : 1로 대응함 · 한글은 모아 씌으로써 표의성을 드러낼 수 있음 · 제자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 상형(발음 기관, 천·지·인) - 가획(소리와 글자 모양이 관계가 깊어 글자들 사이에 유연성이 있고 체계적이어서 배우기 쉬움), 병서, 연서, 합용의 원리 -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 체계성: 먼저 기본자를 만들고 나머지 글자는 거기에서부터 파생시켜 나가는 이원적인 구조로 제자(制字) 됨 (음성적(音聲的)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이면 그 글자 모양에 있어서도 서로 공통점을 가지게 함) · 한글은 글자를 보고 그 글자의 음가를 짐작할 수 있으므로 소리 글자의 특징을 살릴 수 있음

<각주 참고 사진>

본문 각주 사진

37) 고등학교 국어 (하) 교과서 31쪽 사진 자료



부록 각주 사진

10) 파스파 문자 자모표

파스파 문자 자모표

자음	(음가)	자음	(음가)	자음	(음가)	모음	자	모	(음가)
자	ㄱ	자	ㄷ	자	ㄴ	어	두	어	ㅣ
모	ㅇ	고	ㅁ	고	ㅂ	어	중	어	ㅣ
리	p b	ㄷ	c' tsh ts'	ㄴ	y y y	어	중	어	ㅣ
리	b b p	ㄷ	c ts dz	ㄴ	k k g	어	중	어	ㅣ
ㄷ	v w w	ㄷ	j dz ts	ㄴ	k' kh k'	어	중	어	ㅣ
ㄷ	m m m	ㄷ	s s s	ㄴ	g g k	어	중	어	ㅣ
ㄷ	t t d	ㄷ	z z z	ㄴ	q	어	중	어	ㅣ
ㄷ	t' th t'	ㄷ	t c dz	ㄴ	j(r) y	어	중	어	ㅣ
ㄷ	d d t	ㄷ	t' ch ts'	ㄴ	ng h ng	어	중	어	ㅣ
ㄷ	n n n	ㄷ	j j ts	ㄴ	· · ·	어	중	어	ㅣ
ㄷ	r r r	ㄷ	ś ś ś	ㄴ	(y) i	어	중	어	ㅣ
ㄷ	l l l	ㄷ	ž ž ž	ㄴ	ü ü	어	중	어	ㅣ

중국인이 중국어음을 기록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자모
 ㄴ ñ ㄷ N ㄷ ㄷ f ㄷ z ㄷ p'(ph) ㄷ y ㄷ ñ
 산스크리트어를 쓰기 위한 자모
 ㄷ ah

